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표

책임연구원 김형주

공동연구원 임지연 유설희





---

연구보고 18-R06

---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책임연구원**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연차별 연구목적(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적 증거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가조사로서 신규졸업자와 신규졸업예정자의 일과 생활실태와 정책 제언도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핵심지표는 인구와 가족(인구, 가족, 교육), 교육과 훈련(교육, 훈련·평생학습), 경제와 고용(직업, 소득 및 소비), 주거(주거현황, 주거여건),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 문화와 가치관(문화 및 여가, 가치관), 관계와 참여(관계, 참여)로 분류하였고, 각 분류마다 핵심지표들을 설정하여 직접적인 설문조사와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2차 조사분석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규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는 해당 청년들에 대한 질적 접근인 면담조사를 통해 최근의 일과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금년 3년차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승인을 받은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였다. 전년도인 2차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결과에 대해서 청년세대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란 3가지 주제로 분석하

여 이전년도 실태 데이터의 활용성을 넓히고, 학술적 가치와 정책적 함의를 함께 도모하였다.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언은 청년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 셋째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 넷째 신규졸업자 분야, 다섯째, 법·제도 분야이다.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대한 중점 정책순위 재편, 육아휴직 및 급여 확대를 통한 육아정책 강화,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 및 취업 교육과정 확대 개편을 제안하였다.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재무변제 지원 전문기관 설치운영, 중소기업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연금 제도 도입,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고용위기 해법 우선순위 재편,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청년이 살기에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검진항목 확대, 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마을 내 청년-중년-노인 간 소통 기회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규졸업자 분야에서는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졸업학교의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취업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 특성별 실태조사 및 지원,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학교-기업-지역기관과의 실무교육을 위한 협업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일과 삶을 포괄하는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분석평가센터 설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년, 청년 실업, 핵심지표,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1차년도부터의 동일한 연구의 취지(김기현, 하영석, 신인철, 2016) 하에 2018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취업과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제시하고자 함

● 청년 신규졸업(예정)자에 대한 사회진출 및 생활 등에 관한 면담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조사결과와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 요인들을 근거로 청년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2. 연구방법

● 청년 연령 및 타 기관에서 수행중인 청년 관련 조사연구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국내외 정책, 법률, 사업 등에 대한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함. 신규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 및 현황에 관한 문헌자료를 고찰함

● 청년 핵심지표 및 설문 조사항목에 대한 청년연구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의 자문회의와 더불어 청년정책과 국내외 사례에 관한 전문가협의회 추진함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전국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장 최신의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 추출 틀로

활용함. 17개 시·도에서 목표표본수 3,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단위 개별방문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시행함

- 핵심지표와 하위 조사항목 중에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조사되지 않는 핵심지표와 조사항목은 통계청 통계자료, 행정통계 등 2차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하고 기존 연도별 통계치 비표자료를 업데이트 함

- 본 연구는 2017년부터 본조사와 더불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금년도에는 신규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일과 생활에 대해서 28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추진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금년도 연구방향과 핵심지표의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청년정책 방안 제안에 대한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실효적인 정책의 발굴과 제안된 정책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함

### 3. 주요결과

#### 1) 청년정책 및 법률 동향

- 정책대상 및 관련실태조사 현황에 대한 것으로 정책대상으로서 청년 연령 규정 및 유관기관들의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 분석함

- 청년 기본정책 및 정책사업 추진동향으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정책 수립 동향 및 청년정책사업의 최근 추진현황 고찰함

- 청년관련 법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청년관련 최근 정부입법, 의원입법, 지자체 조례 제정과 발의 현황을 분석함

- 주요국의 최근 청년정책 추진동향을 정리하여 국내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

## 2)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핵심지표는 인구와 가족(인구, 가족, 교육), 교육과 훈련(교육, 훈련·평생학습), 경제와 고용(직업, 소득 및 소비), 주거(주거현황, 주거여건),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 문화와 가치관(문화 및 여가, 가치관), 관계와 참여(관계, 참여)로 분류함

- 각 분류마다 핵심지표들을 설정하여 직접적인 설문조사와 기존 통계치에 대한 2차 자료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함

- 본 실태조사의 추가 설문항목으로 신규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 대한 일과 생활에 관련된 실태를 파악함

## 3) 신규졸업자의 일과 생활실태

- 신규졸업자의 일과 삶에 대한 국내 통계자료 등의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

- 신규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로서 해당 청년들에 대한 질적 접근인 면담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

- 신규졸업자의 면담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4)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별도 보고서)

- 대학 졸업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청년세대 행복 결정요인 분석함

- 1988-1998년 출생코호트의 다중격차 실태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해 분석함

- 청년들의 참여 인식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분석함

#### 4. 정책제언

●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대한 중점 정책순위 재편, 육아 휴직 및 급여 확대를 통한 육아정책 강화,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 및 취업 교육과정 확대 개편을 제안함

●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변제 지원 전문기관 설치·운영, 중소기업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연금 제도 도입, 노동공급과 노동 수요 측면의 고용위기 해법 우선순위 재편,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청년이 살기에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제안함

●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검진항목 확대, 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마을 내 청년-중년-노인 간 소통 기회 마련을 제안함

●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졸업학교의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취업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 특성별 실태조사 및 지원,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학교-기업-지역기관과의 실무교육을 위한 협업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함

●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일과 삶을 포괄하는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분석평가센터 설치를 제안함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연구보고 18-R06

## I. 서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3  |
|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 6  |
| 3. 연구내용 .....         | 8  |
| 4. 연구방법 .....         | 10 |

## II. 국내외 청년 정책·사업 및 법률 현황

|                             |    |
|-----------------------------|----|
| 1.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 .....    | 15 |
| 2.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 .....       | 20 |
| 3.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동향 .....     | 24 |
| 4. 청년관련 법률 현황 .....         | 43 |
| 5. 해외 청년정책 추진동향 및 시사점 ..... | 48 |

## III. 2018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    |
|---------------------------|----|
|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 | 71 |
| 2. 조사 개요 .....            | 80 |

|                                |     |
|--------------------------------|-----|
| 3. 2018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84  |
| 4. 2018년 부가설문조사 : 신규졸업(예정)자 실태 | 259 |

#### IV. 청년 신규 졸업자의 일과 생활실태 면담조사

|                      |     |
|----------------------|-----|
| 1. 청년 신규졸업자의 현황과 논의  | 273 |
| 2. 청년 신규졸업(예정)자 면담조사 | 279 |
| 3. 정책적 시사점           | 317 |

#### V. 정책 제언 및 결론

|               |     |
|---------------|-----|
| 1. 정책 비전 및 분야 | 337 |
| 2. 정책 제언      | 338 |
| 3. 결론         | 376 |

|      |     |
|------|-----|
| 참고문헌 | 379 |
|------|-----|

|    |     |
|----|-----|
| 부록 | 397 |
|----|-----|

|          |     |
|----------|-----|
| Abstract | 451 |
|----------|-----|



## 표 목차

|                                                |    |
|------------------------------------------------|----|
| 표 I-1 청년 사회·경제실태 지표체계                          | 9  |
| 표 II-1 현행 청년관련 법령상 청년의 범위                      | 17 |
| 표 II-2 청년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의 범위         | 19 |
| 표 II-3 '청년 일자리 대책'의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내용           | 26 |
| 표 II-4 중앙행정기관별 청년 일자리부문 지원 사업 현황               | 29 |
| 표 II-5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및 실적            | 32 |
| 표 II-6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br>세부 내용  | 33 |
| 표 II-7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 청년수당 정책 비교               | 35 |
| 표 II-8 서울특별시의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37 |
| 표 II-9 광주광역시의 '2017~2021 청년도시<br>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 39 |
| 표 II-10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 40 |
| 표 II-11 제20대 국회의 청년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 45 |
| 표 II-12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현황                       | 46 |
| 표 II-13 일본의 부처별 커리어교육 및 직업교육 추진 현황             | 51 |
| 표 II-14 일본의 부처별 신규 졸업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 54 |
| 표 II-15 프랑스의 청년 우선 지원 계획의 13가지 목표              | 60 |
| 표 II-16 핀란드의 청년보장제 내용                          | 65 |
| 표 III-1 2017~2018년도 청년 사회·경제 핵심지표 체계           | 72 |
| 표 III-2 청년 사회·경제실태 인구와 가족 관련 핵심지표 체계           | 73 |
| 표 III-3 청년 사회·경제실태 교육과 훈련 관련 핵심지표 체계           | 74 |
| 표 III-4 청년 사회·경제실태 경제와 고용 관련 지표체계              | 75 |
| 표 III-5 청년 사회·경제실태 주거 관련 지표체계                  | 76 |
| 표 III-6 청년 사회·경제실태 건강 관련 지표체계                  | 77 |
| 표 III-7 청년 사회·경제실태 문화와 가치관 관련 지표체계             | 78 |
| 표 III-8 청년 사회·경제실태 관계와 참여 관련 지표체계              | 79 |

|                                                   |     |
|---------------------------------------------------|-----|
| 표 Ⅲ-9 연도별 청년층 인구수 추이 .....                        | 85  |
| 표 Ⅲ-10 연도별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추이 .....               | 86  |
| 표 Ⅲ-11 연도별 체류외국인 수 추이 .....                       | 87  |
| 표 Ⅲ-12 연도별 등록외국인 수 추이 .....                       | 88  |
| 표 Ⅲ-13 연도별 단기체류외국인 수 추이 .....                     | 89  |
| 표 Ⅲ-14 연도별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추이 .....                   | 90  |
| 표 Ⅲ-15 연도별 청년층 인구 전망 추이 .....                     | 91  |
| 표 Ⅲ-16 연도별 청년 연령규정 추이 .....                       | 92  |
| 표 Ⅲ-17 연도별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 .....                 | 94  |
| 표 Ⅲ-18 연도별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                 | 95  |
| 표 Ⅲ-19 연도별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                 | 96  |
| 표 Ⅲ-20 연도별 해외이주 의사 .....                          | 97  |
| 표 Ⅲ-21 연도별 해외이주 고려 이유 .....                       | 98  |
| 표 Ⅲ-22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 추이 .....                    | 100 |
| 표 Ⅲ-23 연도별 성별 초혼 연령 추이 .....                      | 101 |
| 표 Ⅲ-24 연도별 결혼준비 경험 추이 .....                       | 103 |
| 표 Ⅲ-25 연도별 결혼 망설임 여부 추이 .....                     | 104 |
| 표 Ⅲ-26 연도별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추이 .....             | 106 |
| 표 Ⅲ-27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                   | 107 |
| 표 Ⅲ-28 연도별 맞벌이 여부 .....                           | 108 |
| 표 Ⅲ-29 연도별 자녀 유무 .....                            | 109 |
| 표 Ⅲ-30 연도별 자녀를 가질 계획 .....                        | 110 |
| 표 Ⅲ-31 연도별 대학등록금 추이 .....                         | 111 |
| 표 Ⅲ-32 연도별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추이 .....                  | 112 |
| 표 Ⅲ-33 연도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추이 .....                   | 113 |
| 표 Ⅲ-34 연도별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추이 .....                 | 115 |
| 표 Ⅲ-35 연도별 대졸자 휴학현황 추이 .....                      | 116 |
| 표 Ⅲ-36 연도별 대학생 학업중단을 추이 .....                     | 117 |
| 표 Ⅲ-37 연도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추이 .....                    | 119 |
| 표 Ⅲ-38 연도별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br>경험 추이 ..... | 121 |
| 표 Ⅲ-39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2018년) ·        | 122 |
| 표 Ⅲ-40 연도별 추후 대학 진학 의사 추이 .....                   | 123 |
| 표 Ⅲ-4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                    | 124 |
| 표 Ⅲ-42 신규 졸업(예정)자 현황 .....                        | 126 |

|                                                                 |     |
|-----------------------------------------------------------------|-----|
| 표 III-43 연도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 127 |
| 표 III-44 연도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 128 |
| 표 III-45 연도별 평생학습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 129 |
| 표 III-46 연도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변화 추이 .....                            | 131 |
| 표 III-47 연도별 현재 취업 준비 여부 추이 .....                               | 132 |
| 표 III-48 연도별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추이 .....                              | 133 |
| 표 III-49 연도별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 .....                                  | 135 |
| 표 III-50 연도별 고용률 추이 .....                                       | 136 |
| 표 III-51 연도별 실업률 추이 .....                                       | 137 |
| 표 III-52 연도별 전산업 기준 신설법인 수 및 비율 추이 .....                        | 139 |
| 표 III-53 연도별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br>소멸기업 수 및 비율 추이 ..... | 141 |
| 표 III-54 연도별 니트(NEET) 비율 추이(OECD 기준) .....                      | 142 |
| 표 III-55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                                   | 143 |
| 표 III-56 연도별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추이 .....                               | 145 |
| 표 III-57 연도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 146 |
| 표 III-58 연령별 중소기업 취업 의향 .....                                   | 147 |
| 표 III-59 연도별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                                  | 148 |
| 표 III-60 연도별 창업 경험 .....                                        | 149 |
| 표 III-61 연도별 창업 의사 .....                                        | 150 |
| 표 III-62 연도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                         | 151 |
| 표 III-63 연도별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 .....                                | 152 |
| 표 III-64 연도별 월임금총액 추이 .....                                     | 153 |
| 표 III-65 연도별 청년 소비 추이 .....                                     | 155 |
| 표 III-66 연도별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추이 .....                             | 156 |
| 표 III-67 연도별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추이 .....                      | 158 |
| 표 III-68 연도별 청년 가구주 부채 추이 .....                                 | 159 |
| 표 III-69 연도별 적정 최저 임금 추이 .....                                  | 161 |
| 표 III-70 연도별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추이 .....                      | 162 |
| 표 III-71 연도별 채무 여부 .....                                        | 163 |
| 표 III-72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br>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 165 |
| 표 III-73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 166 |
| 표 III-74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br>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 167 |

|                                                                     |     |
|---------------------------------------------------------------------|-----|
| 표 III-75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 168 |
| 표 III-76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br>사지 못했다 .....              | 169 |
| 표 III-77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 170 |
| 표 III-78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 171 |
| 표 III-79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 172 |
| 표 III-80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br>가지고 있지 않다 .....          | 173 |
| 표 III-81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                            | 175 |
| 표 III-82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                                   | 177 |
| 표 III-83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추이 .....                          | 178 |
| 표 III-84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추이 .....                       | 179 |
| 표 III-85 연도별 부모 동거 여부 .....                                         | 180 |
| 표 III-86 연도별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 181 |
| 표 III-87 연도별 현재 주거 형태 .....                                         | 183 |
| 표 III-88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br>비율 추이 .....                | 184 |
| 표 III-89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추이 .....                              | 185 |
| 표 III-90 연도별 기숙사 수용률 추이 .....                                       | 187 |
| 표 III-91 연도별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추이 .....                                   | 188 |
| 표 III-92 연도별 공동주거 경험 .....                                          | 189 |
| 표 III-93 연도별 공동주거 의향 .....                                          | 190 |
| 표 III-94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                    | 191 |
| 표 III-95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br>적정하다 .....                  | 192 |
| 표 III-96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br>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193 |
| 표 III-97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걷기 실천율 .....                            | 195 |
| 표 III-98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 196 |
| 표 III-99 연도별 비만 유병률 추이 .....                                        | 197 |
| 표 III-100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                                     | 198 |
| 표 III-101 연도별 우울감 경험률 추이 .....                                      | 200 |
| 표 III-102 연도별 자살률 추이 .....                                          | 201 |
| 표 III-103 연도별 현재 흡연율 추이 .....                                       | 203 |
| 표 III-104 연도별 월간 음주율 추이 .....                                       | 204 |

|                                                                  |     |
|------------------------------------------------------------------|-----|
| 표 III-105 연도별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 205 |
| 표 III-106 연도별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 206 |
| 표 III-107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밝고 즐거운<br>기분임을 느낀다 .....           | 208 |
| 표 III-108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차분하고<br>편안함을 느낀다 .....             | 209 |
| 표 III-109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활동적이고<br>활기참을 느낀다 .....            | 210 |
| 표 III-110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br>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 211 |
| 표 III-111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의 일상은 흥미로운<br>것들로 가득 차 있다 .....      | 212 |
| 표 III-112 연도별 청년 병원 이용율 추이 .....                                 | 213 |
| 표 III-113 연도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추이 .....                               | 214 |
| 표 III-114 건강검진 수검 여부 .....                                       | 215 |
| 표 III-115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                                    | 216 |
| 표 III-116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 218 |
| 표 III-117 연도별 성형수술 경험 .....                                      | 219 |
| 표 III-118 연도별 성형수술 목적 .....                                      | 220 |
| 표 III-119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 .....                       | 222 |
| 표 III-120 연도별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                         | 223 |
| 표 III-121 연도별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                            | 224 |
| 표 III-122 연도별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추이 .....                             | 225 |
| 표 III-123 연도별 연간 독서율 추이 .....                                    | 226 |
| 표 III-124 연도별 주관적 행복감 추이 .....                                   | 227 |
| 표 III-125 연도별 삶의 만족도 추이 .....                                    | 228 |
| 표 III-126 연도별 주관적 계층의식 추이 .....                                  | 229 |
| 표 III-127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                       | 231 |
| 표 III-128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                      | 232 |
| 표 III-129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                      | 233 |
| 표 III-130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                          | 234 |
| 표 III-131 연도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 235 |
| 표 III-132 연도별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                       | 237 |
| 표 III-133 연도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 238 |
| 표 III-134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                                  | 239 |

|                                                                      |     |
|----------------------------------------------------------------------|-----|
| 표 III-135 연도별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 241 |
| 표 III-136 연도별 세대 갈등 추이                                               | 243 |
| 표 III-137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추이                             | 245 |
| 표 III-138 연도별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 246 |
| 표 III-139 연도별 단체참여 추이                                                | 248 |
| 표 III-140 연도별 선거 투표율 추이                                              | 250 |
| 표 III-141 연도별 정부 및 국회 신뢰도 추이                                         | 252 |
| 표 III-142 연도별 의견 표명 행동                                               | 254 |
| 표 III-143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1) 나는 정치적 문제를<br>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256 |
| 표 III-144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br>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257 |
| 표 III-145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br>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58 |
| 표 III-146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현황                                           | 259 |
| 표 III-147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                               | 261 |
| 표 III-148 졸업 전 취창업·진로 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 262 |
| 표 III-149 졸업 후 계획                                                    | 263 |
| 표 III-150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 264 |
| 표 III-151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여부                                       | 265 |
| 표 III-152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 266 |
| 표 III-153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br>(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 267 |
| 표 III-154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br>(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 268 |
| 표 III-155 졸업 이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                             | 269 |
| 표 IV-1 졸업자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주요 고용지표 현황                                | 274 |
| 표 IV-2 진학률(고등학교-대학교)                                                 | 276 |
| 표 IV-3 성별·최종 학력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 277 |
| 표 IV-4 신규졸업(예정)자 면담대상자 특성                                            | 280 |
| 표 IV-5 신규졸업자 면담 조사내용                                                 | 281 |
| 표 IV-6 면담조사 결과 신규졸업자의 어려움 및 정책적 시사점                                  | 318 |
| 표 V-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338 |
| 표 V-2 출산률 제고 중점정책의 우선순위 재편                                           | 339 |
| 표 V-3 출산정책 우선순위 재편 소요예산                                              | 339 |

|                                           |     |
|-------------------------------------------|-----|
| 표 V-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 340 |
| 표 V-5 졸업 유예 이유 .....                      | 342 |
| 표 V-6 대학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소요예산 .....            | 343 |
| 표 V-7 대학 미진학 사유 추이 .....                  | 344 |
| 표 V-8 대학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소요예산 .....            | 345 |
| 표 V-9 청년층 채무 발생 이유 .....                  | 346 |
| 표 V-10 취약계층 청년 채무변제 지원 전문기관 소요예산 .....    | 347 |
| 표 V-1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 348 |
| 표 V-12 중소기업연금법(안) 구성체계 .....              | 349 |
| 표 V-13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 350 |
| 표 V-14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 351 |
| 표 V-15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 측면의 고용위기 해법 우선순위 재편 .. | 351 |
| 표 V-16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        | 353 |
| 표 V-17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  | 354 |
| 표 V-18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소요예산 .....       | 355 |
| 표 V-19 청년층의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            | 357 |
| 표 V-20 청년층의 정신건강 관련 검사항목 확대 위한 소요예산 ..... | 357 |
| 표 V-21 청년층의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        | 360 |
| 표 V-22 청년, 중년, 노인 간 세대 통합을 위한 소요예산 .....  | 361 |
| 표 V-23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 ..... | 363 |
| 표 V-24 청년기본법(안) 구성체계 .....                | 373 |
| 표 V-25 청년정책 분석평가센터 설치 법조항(안) .....        | 37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Ⅰ-1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18년 9월) .....       | 4   |
| 그림 Ⅰ-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 7   |
| 그림 Ⅱ-1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개요 .....            | 50  |
| 그림 Ⅲ-1 청년층 인구수(2018년) .....               | 84  |
| 그림 Ⅲ-2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2018년) .....       | 86  |
| 그림 Ⅲ-3 체류외국인 수(2017년) .....               | 87  |
| 그림 Ⅲ-4 등록외국인 수(2017년) .....               | 88  |
| 그림 Ⅲ-5 단기체류외국인 수(2017년) .....             | 89  |
| 그림 Ⅲ-6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2017년) .....           | 90  |
| 그림 Ⅲ-7 청년층 인구 전망(2018~2045년) .....        | 91  |
| 그림 Ⅲ-8 청년 연령규정(2018년) .....               | 92  |
| 그림 Ⅲ-9 독립 의향 및 걱정 독립 시기(2018년) .....      | 93  |
| 그림 Ⅲ-10 결혼 의향 및 걱정 결혼 시기(2018년) .....     | 95  |
| 그림 Ⅲ-11 출산 의향 및 걱정 출산 시기(2018년) .....     | 96  |
| 그림 Ⅲ-12 해외이주 의사(2018년) .....              | 97  |
| 그림 Ⅲ-13 해외이주 고려 이유(2018년) .....           | 98  |
| 그림 Ⅲ-14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2017년) .....       | 99  |
| 그림 Ⅲ-15 성별 초혼 연령 연도별 추이(2000~2017년) ..... | 101 |
| 그림 Ⅲ-16 결혼준비 경험(2018년) .....              | 103 |
| 그림 Ⅲ-17 결혼 망설임 여부(2018년) .....            | 104 |
| 그림 Ⅲ-18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2017년) .....    | 105 |
| 그림 Ⅲ-19 모의 평균 출산 연령(2000~2017년) .....     | 107 |
| 그림 Ⅲ-20 맞벌이 여부(2018년) .....               | 108 |
| 그림 Ⅲ-21 자녀 유무(2018년) .....                | 109 |
| 그림 Ⅲ-22 자녀를 가질 계획(2018년) .....            | 110 |
| 그림 Ⅲ-23 대학등록금(2018년) .....                | 111 |
| 그림 Ⅲ-24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2018년) .....         | 112 |



|                                                          |     |
|----------------------------------------------------------|-----|
| 그림 Ⅲ-25 재학생 1인당 장학금(2018년) .....                         | 113 |
| 그림 Ⅲ-26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2018년) .....                       | 114 |
| 그림 Ⅲ-27 대졸자 휴학현황(2018년) .....                            | 116 |
| 그림 Ⅲ-28 대학생 학업중단율(2010~2016년) .....                      | 117 |
| 그림 Ⅲ-29 전공과 직업 일치도(2018년) .....                          | 118 |
| 그림 Ⅲ-3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2018년) ·              | 120 |
| 그림 Ⅲ-3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2018년) ·              | 122 |
| 그림 Ⅲ-32 추후 대학 진학 의사(2018년) .....                         | 123 |
| 그림 Ⅲ-3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1980~2017년) .....                     | 124 |
| 그림 Ⅲ-34 신규 졸업(예정)자 현황(2018년) .....                       | 125 |
| 그림 Ⅲ-35 연령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2017년) .....                   | 126 |
| 그림 Ⅲ-36 연령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2007~2017년) ····              | 128 |
| 그림 Ⅲ-37 연령별 평생학습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br>(2007~2017년) .....    | 129 |
| 그림 Ⅲ-38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2007~2018년) .....                | 130 |
| 그림 Ⅲ-39 현재 취업 준비 여부(2018년) .....                         | 132 |
| 그림 Ⅲ-40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2018년) .....                        | 133 |
| 그림 Ⅲ-41 경제활동 참여율(2017년) .....                            | 134 |
| 그림 Ⅲ-42 고용률(2017년) .....                                 | 136 |
| 그림 Ⅲ-43 실업률(2017년) .....                                 | 137 |
| 그림 Ⅲ-44 전산업 기준 청년층 신설법인 수 및 비율(2010~2018년) ·             | 139 |
| 그림 Ⅲ-45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수 및<br>비율(2016년) ..... | 140 |
| 그림 Ⅲ-46 니트(NEET) 비율(2005~2017년) .....                    | 142 |
| 그림 Ⅲ-47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2017년) .....                         | 143 |
| 그림 Ⅲ-48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2017년) .....                         | 144 |
| 그림 Ⅲ-49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2018년) .....                         | 145 |
| 그림 Ⅲ-50 중소기업 취업 의향(2018년) .....                          | 146 |
| 그림 Ⅲ-51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2018년) .....                         | 147 |
| 그림 Ⅲ-52 창업 경험(2018년) .....                               | 148 |
| 그림 Ⅲ-53 창업 의사(2018년) .....                               | 149 |
| 그림 Ⅲ-54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2018년) .....                | 151 |
| 그림 Ⅲ-55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2018년) .....                       | 152 |
| 그림 Ⅲ-56 월임금총액(2017년) .....                               | 153 |
| 그림 Ⅲ-57 청년 소비(2017년) .....                               | 154 |

|                                                                  |     |
|------------------------------------------------------------------|-----|
| 그림 Ⅲ-58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2017년) .....                               | 156 |
| 그림 Ⅲ-59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2017년) .....                        | 157 |
| 그림 Ⅲ-60 청년 가구주의 부채(2017년) .....                                  | 159 |
| 그림 Ⅲ-61 적정 최저 임금(2018년) .....                                    | 161 |
| 그림 Ⅲ-62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2018년) .....                        | 162 |
| 그림 Ⅲ-63 채무 여부(2018년) .....                                       | 163 |
| 그림 Ⅲ-64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br>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2018년) ..... | 165 |
| 그림 Ⅲ-65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2018년) ·                        | 166 |
| 그림 Ⅲ-66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br>지불하지 못했다(2018년) .....    | 167 |
| 그림 Ⅲ-67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2018년) ····                       | 168 |
| 그림 Ⅲ-68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br>사지 못했다(2018년) .....     | 169 |
| 그림 Ⅲ-69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2018년) .....                               | 170 |
| 그림 Ⅲ-70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2018년) .....                              | 171 |
| 그림 Ⅲ-71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2018년) .....                              | 172 |
| 그림 Ⅲ-7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br>가지고 있지 않다(2018년) ..... | 173 |
| 그림 Ⅲ-73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2015년) .....                       | 174 |
| 그림 Ⅲ-74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2016년) .....                              | 176 |
| 그림 Ⅲ-75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1980~2017년) ·                       | 178 |
| 그림 Ⅲ-76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2000~2017년) ·                    | 179 |
| 그림 Ⅲ-77 부모 동거 여부(2018년) .....                                    | 180 |
| 그림 Ⅲ-78 미혼 혼자 거주 여부(2018년) .....                                 | 181 |
| 그림 Ⅲ-79 현재 주거 형태(2018년) .....                                    | 182 |
| 그림 Ⅲ-80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2017년) ·                     | 184 |
| 그림 Ⅲ-81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2017년) .....                            | 185 |
| 그림 Ⅲ-82 기숙사 수용률(2017년) .....                                     | 187 |
| 그림 Ⅲ-83 주거 마련 시기 의견(2018년) .....                                 | 188 |
| 그림 Ⅲ-84 공동주거 경험(2018년) .....                                     | 189 |
| 그림 Ⅲ-85 공동주거 의향(2018년) .....                                     | 190 |
| 그림 Ⅲ-86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br>한다(2018년) .....            | 191 |
| 그림 Ⅲ-87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     |

|                                                                       |     |
|-----------------------------------------------------------------------|-----|
| 적정하다(2018년) .....                                                     | 192 |
| 그림 Ⅲ-88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br>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 | 193 |
| 그림 Ⅲ-89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 실천율(2016년) .....                               | 194 |
| 그림 Ⅲ-90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2016년) ·                             | 196 |
| 그림 Ⅲ-91 비만 유병률(2016년) .....                                           | 197 |
| 그림 Ⅲ-92 스트레스 인지율(2016년) .....                                         | 198 |
| 그림 Ⅲ-93 우울감 경험률(2015년) .....                                          | 199 |
| 그림 Ⅲ-94 자살률(2017년) .....                                              | 201 |
| 그림 Ⅲ-95 현재 흡연율(2016년) .....                                           | 202 |
| 그림 Ⅲ-96 월간 음주율(2016년) .....                                           | 204 |
| 그림 Ⅲ-97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2018년) .....                                 | 205 |
| 그림 Ⅲ-98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2018년) .....                                     | 206 |
| 그림 Ⅲ-99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2018년) .....                                | 208 |
| 그림 Ⅲ-100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2018년) .....                                | 209 |
| 그림 Ⅲ-101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2018년) .....                               | 210 |
| 그림 Ⅲ-102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br>상쾌했다(2018년) .....                 | 211 |
| 그림 Ⅲ-103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2018년) ·                             | 212 |
| 그림 Ⅲ-104 청년 병원 이용율(2016년) .....                                       | 213 |
| 그림 Ⅲ-105 연령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2008~2015년) .....                            | 214 |
| 그림 Ⅲ-106 건강검진 수검 여부(2018년) .....                                      | 215 |
| 그림 Ⅲ-107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2018년) .....                                    | 216 |
| 그림 Ⅲ-108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2018년) .....                           | 217 |
| 그림 Ⅲ-109 성형수술 경험(2018년) .....                                         | 219 |
| 그림 Ⅲ-110 성형수술 목적(2018년) .....                                         | 220 |
| 그림 Ⅲ-111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2016년) .....                            | 221 |
| 그림 Ⅲ-112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2016년) .....                            | 223 |
| 그림 Ⅲ-113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2016년) .....                               | 224 |
| 그림 Ⅲ-1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2016년) .....                                   | 225 |
| 그림 Ⅲ-115 연간 독서율(2016년) .....                                          | 226 |
| 그림 Ⅲ-116 주관적 행복감(2017년) .....                                         | 227 |
| 그림 Ⅲ-117 삶의 만족도(2017년) .....                                          | 228 |
| 그림 Ⅲ-118 주관적 계층의식(2017년) .....                                        | 229 |
| 그림 Ⅲ-119 일과 여가 중 선호하는 가치(2018년) .....                                 | 231 |

|                                                                           |     |
|---------------------------------------------------------------------------|-----|
| 그림 Ⅲ-120 현실과 이상 중 선호하는 가치(2018년) .....                                    | 232 |
| 그림 Ⅲ-121 결과와 과정 중 선호하는 가치(2018년) .....                                    | 233 |
| 그림 Ⅲ-122 개인과 집단 중 선호하는 가치(2018년) .....                                    | 234 |
| 그림 Ⅲ-123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2018년) .....                                        | 235 |
| 그림 Ⅲ-124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2017년) .....                              | 236 |
| 그림 Ⅲ-12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2016년) .....                                        | 238 |
| 그림 Ⅲ-126 가족관계 만족도(2016년) .....                                            | 239 |
| 그림 Ⅲ-127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2018년) .....                               | 240 |
| 그림 Ⅲ-128 세대 갈등(2018년) .....                                               | 243 |
| 그림 Ⅲ-129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2017년) .....                             | 244 |
| 그림 Ⅲ-130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2017년) .....                                   | 246 |
| 그림 Ⅲ-131 단체참여(2017년) .....                                                | 247 |
| 그림 Ⅲ-132 선거 투표율(각 선거별 최근년도) .....                                         | 250 |
| 그림 Ⅲ-133 정부 및 국회 신뢰도(2016년) .....                                         | 252 |
| 그림 Ⅲ-134 의견 표명 행동(2018년) .....                                            | 253 |
| 그림 Ⅲ-135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br>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2018년) .....       | 256 |
| 그림 Ⅲ-136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br>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2018년) .....     | 257 |
| 그림 Ⅲ-137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br>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18년) ..... | 258 |
| 그림 Ⅲ-138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현황 .....                                           | 259 |
| 그림 Ⅲ-139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 .....                               | 260 |
| 그림 Ⅲ-140 졸업 전 취창업·진로 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                                   | 262 |
| 그림 Ⅲ-141 졸업 후 계획 .....                                                    | 263 |
| 그림 Ⅲ-142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                                 | 264 |
| 그림 Ⅲ-143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여부(이탈 예정 비율) .....                             | 265 |
| 그림 Ⅲ-144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                            | 266 |
| 그림 Ⅲ-145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br>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          | 267 |
| 그림 Ⅲ-146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br>받았는지)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          | 268 |
| 그림 Ⅲ-147 졸업 이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br>기대 .....                          | 269 |
| 그림 Ⅳ-1 졸업자·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학력별 실업률 .....                                 | 275 |

|                                         |     |
|-----------------------------------------|-----|
| 그림 V-1 정책 비전 및 제언 분야 .....              | 337 |
| 그림 V-2 청년층의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     | 359 |
| 그림 V-3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 | 364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낮은 고용률과 더불어 높은 실업률로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 주면서 청년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매년 한 차례 이상씩 청년 고용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나 고용 지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 고용지표의 추세를 살펴보면, 15세~29세 경제활동참여율은 2000년 47.2%에서 2015년 46.9%로 감소하였고 청년 고용률도 같은 기간 43.4%에서 42.3%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청년 실업률은 같은 기간 8.1%에서 9.8%로 1%p 이상 상승해(이윤주, 김기현, 하형석, 2017) 청년고용 악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2018a)에서 발표한 2018년 9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20대에서 하락하였으나 30대, 40대, 60대 이상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여 3.6%였다. 15세 이상의 인구나 15~64세의 고용률은 직전 달에 비하여 0.2p 소폭 상승하고는 있으나,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2.9%로 7월(43.6%) 이후 하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은 산업화시대 혹은 고도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낸 기성세대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낯선 사회경제적 변화이다 보니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인구감소로

1)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대변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경제적으로 저성장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청년층이 겪고 있는 취업문제에 대해서 노력과 인내가 부족한 청년층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곤 하였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이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삼음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등 청년층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취업문제로 촉발된 청년층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데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복지, 결혼, 출산 등 청년의 삶 전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구조적 문제해결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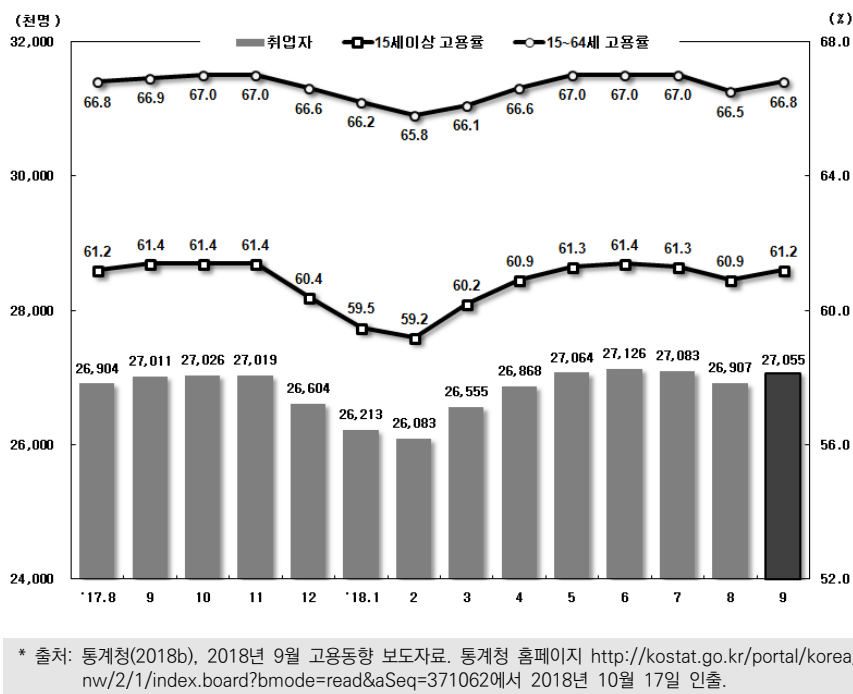


그림 I -1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18년 9월)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전체 신설법인 중 청년 대표자(30~39세)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25.5%에서 2015년 21.8%로 낮아져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이윤주, 김기현 외, 2017).

청년들은 고용문제와 더불어 청년의 삶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영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청년들의 주거문제인데 주거형태 중에서 월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월세 보증금 역시 상승하고 있어 주거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결혼이나 분가, 출산 등도 갈수록 늦어지는 추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청년 인구(15~39세)는 2000년 2,505만 명에서 2015년 1,763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3.8%에서 2015년 34.8%로 약 9.0%p 감소하였다(이윤주, 김기현 외, 2017). 이와 함께 2017년에 2차년도 연구로 실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39세 청년들 중 무려 36%가 해외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2016년 1차년도 조사의 22.2%에서 12.8%나 증가하였다. 왜 이주를 고려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청년들 중 34.3%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답변했고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18.7%)’, ‘자기계발을 위하여(11.2%)’순으로 응답하였는데(김기현, 이윤주 외, 2017),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우리 사회가 행복, 도전, 자기계발 등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청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신규(예정)졸업자들에 대한 통계청(2018a)의 3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정확히 졸업연령대를 특정하여 동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졸업 전후 연령대와 가까운 20~24세에 대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졸업시기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 연령대의 2018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7천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1.3%p 감소하

였다. 2017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1%를 달성하여 2015년, 2016년의 연속 2%대의 경제성장률을 넘어섰고 경제와 금융기관들이 사전에 예측한 성장률을 초과 달성하였지만, 졸업과 함께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세대들의 고용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치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경제성장의 혜택을 전세대가 아울러 받은 것이 아니라 입직을 앞둔 청년층이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조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sup>2)</sup>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살펴보면 첫째, 연차별 연구로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목적으로 2018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둘째, 청년 신규졸업(예정)자에 대한 일과 생활에 관해 면담조사를 통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전년도 공개데이터를 중심으로 주제별 심층분석을 하고자 한다. 넷째,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 요인들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정부의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는 일단 5년에 걸쳐 연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도는 이 중 3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2) 본 연구는 연차별 실태조사 연구의 3년차 연구로서 주요 연구목적은 1, 2차년도와 같음

|                 |    |                                                                                                                                  |
|-----------------|----|----------------------------------------------------------------------------------------------------------------------------------|
| 1차년도<br>(2016년) | 목적 | •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
|                 | 내용 | •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핵심지표 개발<br>•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br>• 핵심지표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
|                 | 방법 |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
| ▼               |    |                                                                                                                                  |
| 2차년도<br>(2017년) | 목적 | •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니트와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
|                 | 내용 | •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br>• 통계청 승인통계 추진 및 표본틀 변경, 청년 니트와 사회적응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br>•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및 니트와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
|                 | 방법 |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
| ▼               |    |                                                                                                                                  |
| 3차년도<br>(2018년) | 목적 | • 2018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신규출업(예정)자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
|                 | 내용 | •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br>• 2018년 학교 신규출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br>•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br>• 2017년 조사 자료 공개                |
|                 | 방법 |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심층면접조사                                                                                                      |
| ▼               |    |                                                                                                                                  |
| 4차년도<br>(2019년) | 목적 | • 2019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참여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참여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
|                 | 내용 | •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br>• 2019년 청년 참여 실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br>•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br>• 2017년~2018년 조사 자료 공개              |
|                 | 방법 |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심층면접조사                                                                                                      |
| ▼               |    |                                                                                                                                  |
| 5차년도<br>(2020년) | 목적 | •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주거빈곤층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
|                 | 내용 | •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br>• 2020년 청년 주거 실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br>•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br>• 2017년~2019년 조사 자료 공개              |
|                 | 방법 |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심층면접조사                                                                                                      |

\* 출처: 김기현, 이운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p.6의 향후 추진계획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함

그림 1-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3. 연구내용

3차년도인 금년도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태 연구, 정책 및 법률 현황에 대한 고찰로, 정책대상으로서 청년 연령 규정 및 유관기관들의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 기본정책 및 정책사업 추진동향으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정책 수립 동향 및 청년정책사업의 최근 추진현황을 고찰한다. 청년관련 법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청년관련 최근 정부입법, 의원입법, 지자체 조례 제정과 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국의 최근 청년정책 추진동향을 정리하여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2018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실태조사로서 2016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은 3년차 실태조사이다. 우선 3차년도 실태조사를 하기에 앞서 1차 년도와 2차 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청년 핵심지표를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는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과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핵심지표는 금년 실시되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지표들과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등 2차 자료를 통해 수집한 지표들을 포괄한다.

모집단은 전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일반국민이다. 표본설계는 가구 단위 표집으로 표본 틀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설계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 틀로 활용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3,000명이고 총 3단계의 층화 과정을 거쳤다. 먼저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단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단 세부 층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크고, 지역적으로 넓어 표본의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각각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3단 세부 층화하였다. 예비조사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8년 7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다.

표 1-1 청년 사회경제실태 지표체계

| 구 분     | 분 류                                                            |
|---------|----------------------------------------------------------------|
| 인구와 가족  | 청년층 인구수(1-1-1), 혼인율(1-2-1), 초혼 연령(1-2-2) 등                     |
| 교육과 훈련  | 대학등록금(2-1-1), 대학생 학업중단율(2-1-6), 진학률(2-1-10) 등                  |
| 경제와 고용  | 경제활동 참여율(3-1-1),<br>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3-2-4), 최저임금(3-2-6) 등 |
| 주거      | 청년 가구 비율(4-1-3), 1인 가구 주거 형태(4-1-7),<br>주거 마련 시기 의견(4-2-4) 등   |
| 건강      | 스트레스(5-1-3), 우울증(5-1-4), 청년 병원 이용(5-2-1) 등                     |
| 문화와 가치관 |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6-1-2), 독서율(6-1-5), 주관적 계층의식<br>(6-2-3) 등         |
| 관계와 참여  | 사회적 관계망(7-1-1), 세대갈등(7-1-5), 의견 표명 행동(7-2-6) 등                 |

\* 출처: 김기현, 이윤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p.7) 의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함

셋째, 청년 신규 졸업(예정)자의 일과 생활실태 조사이다. 2017년부터 청년들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사 주제를 발굴하여 본조사와 함께 부가조사(special module)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청년 신규 졸업(예정)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3차년도 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시행하는 청년 신규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 대한 일과 생활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문헌자료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청년 신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여 일과 생활에 대한 심층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청년 신규 졸업(예정)자 대상 면담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청년 사회·경제 실태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이다. 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7년에 통계청 승인을 획득하여 금년도에 통계자료를 공개하였는데, 공개 자료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년도에는 졸업 전후 연령대의 일과 생활 실태자료와 청년의 참여 문제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다섯째,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 및 과제 도출 등 정책에 대한 제언인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와 면담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청년 기본정책, 정책사업, 법률 및 조례 입안 동향 분석을 근거로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4. 연구방법

금년도 3차년도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조사연구, 2차 자료 분석,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공개데이터에 대한 분석적 연구, 콜로키움 및 정책협의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정책 관련 문헌연구인데, 청년 연령 및 타기관에서 수행중인 청년 관련 조사연구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국내외 정책, 법률, 사업 등에 대한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규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 및 현황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연구방향 및 조사항목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운영이다. 청년 핵심지표 및 설문 조사항목에 대한 청년연구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의 자문회의와 더불어 청년정책과 국내외 사례에 관한 전문가협의회를 추진하였다.

셋째, 청년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로서 3차년도 실태조사이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전국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장 최신의 표본 틀인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 추출



틀로 활용하였다. 17개 시·도에서 목표 표본수 3,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단위 개별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넷째, 청년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이다. 핵심지표와 하위 조사항목 중에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통계청 통계자료, 행정통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지표와 조사항목은 2차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하고 기존 연도별 통계치 비교자료를 업데이트 하였다.

다섯째,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인데, 본 연구는 2017년부터 본조사와 더불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신규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일과 생활에 대해서 28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질적 연구를 추진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실태 파악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연구방향과 최근 청년정책 현안, 정책방안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이다. 금년도 연구방향과 최근 청년정책 현안을 반영한 핵심지표의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청년정책 과제 제안에 대한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실효적인 정책의 발굴과 제안된 정책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제2장 국내외 청년 정책· 사업 및 법률 현황

- 1.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
- 2.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
- 3.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동향
- 4. 청년관련 법률 현황
- 5. 해외 청년정책 추진동향 및 시사점



### 1.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sup>3)</sup>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개념적 혹은 사변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18), 역사적 측면에서의 어원을 살펴보면 미혼의 젊은 남자를 통칭하는 ‘소년’이라는 말이 1900년대에 흔히 사용되었다면 1920년대에 ‘청년’이란 단어가 새롭게 유행어로 부상하였는데, ‘청년’이라는 용어는 전통 사회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민족 국가라는 거대 지평이 사라졌던 192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각광을 받았고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이상적 국가를 건설하자고 할 때 앞세우던 말이 청년이었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청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확산되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당시에 일제를 비롯한 열강들 사이에서 생존의 위기에 몰렸던 시대적 환경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라의 원동력으로 청년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이와 같은 청년이란 용어의 등장과 쓰임은 현재의 한국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으로서, 그리고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과 함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특히, 2018년 들어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들의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청년 개개인에게는 고등교육까지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높은 교육비용을 지불하고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극심한 취업난을 극복해야 하며, 입직 이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양극화와 기성세대들의 부동산 투기와 열기로 인해 급등한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다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은 청년들이 자립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난점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2017년도 하반기와 2018년도 상반기에 여러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되었던 사건 중 하나가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와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부족하다 보니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일부 청년들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 청년문제의 자화상을 어느 정도 짚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도 청년세대의 진로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을 통해 다각도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을 통한 본격적인 지원이 효과를 얻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인 것도 사실이다. 현재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하다시피하고, 대부분의 경우 관련 법령의 부속 법안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논의와 여론의 관심,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와 수혜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다음 <표 II-1>은 현재까지 청년관련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의 연령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1 현행 청년관련 법령상 청년의 범위

| 법령명                         | 청년 정의                        | 주요 내용                        | 비고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15~29세<br>(15~34세)           | 취업지원 및<br>공공기관<br>고용의무       | 동법 시행령 2조 개정(공공기관에 대해 34세로 확대) 2013.10.30.<br>동법 시행령 8조의2 신설(30 ~ 34세로 지원대상 확대) 2016.09.13                                          |
| 고용정책기본법                     | 15~29세<br>(15~ 34세)          | 청년<br>고용촉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의를 준용                                                                                                                    |
| 조세특례제한법                     | 15~29세<br>(병역이행 시<br>최대 35세) | 청년고용기업<br>세액공제               | 동법 시행령 23조4항 개정<br>(청년 정의 포함) 2010.12.30.<br>동법 시행령 23조8항 개정(동법 27조1항에 따른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 내에서 현재 연령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령 적용) 2014.02.21 |
| 중소기업인력<br>지원특별법             | 15~34세                       | 중소기업<br>취업촉진을<br>위한<br>고용장려금 | 동법 12조1항 개정(종전 29세에서 34세로 연령범위 확대) 2017.01.17                                                                                       |
| 전통시장 및 상<br>점가육성을 위한<br>특별법 | ~39세                         | 청년 창업                        | 동법 시행령 6조의2 신설(청년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7.05.29                                                                                          |
| 중소기업창업<br>지원법               | ~39세                         | 청년 창업                        | 동법 시행령 5조의4 신설(청년창업자 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5.05.01                                                                                      |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p.12. 재인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취업 및 고용지원의 정책대상을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였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경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어 동일하나 타 법령에서는 연령 하단은 주로 15세로 하여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을 설정하고 있고 연령 상단은 29세, 34세, 39세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의 범위에서 연령 하단을 규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육정책과 우리사회의 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한 측면이다. 중학

교 졸업생의 99%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고교교육이 의무교육처럼 되어 있고, 현 정부에서도 고교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청년범위의 연령하단은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중등교육에서 공교육의 제도적 범위와 교육의 수요 측면에서 학교에 머무는 연령의 종료시점이 청년의 범위의 연령 하단을 설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학교 졸업시점인 15세와 고등학교 졸업시점인 19세, 그리고 금년도 추진되었던 헌법개정안 관련하여 선거권 연령인 18세 등 이 세 가지 청년 연령 하단 안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적정 연령 혹은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5세에서 39세까지를 실태조사 대상연령으로 하고 있다. 2016년에 실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에서는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9.3세를 하단 연령으로 29.5세를 상단 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도 청년기본조례들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는 다음 <표 II-2>에서 보여주고 있다.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의 범위에서 연령 하단의 경우는 15세, 18세, 19세로, 연령 상단의 경우는 29세, 34세, 39세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정의 혹은 범위 설정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직연령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연령 범위가 등장한다. 즉,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고용 지원을 통한 사회 진출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 입직 연령인 15세에서 29세를 범위로 두는 경향이 있고, 경제적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과 창업 지원까지를 목적으로 하면 고교 졸업시점인 19세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창업 지원을 위해 34세 혹은 39세까지로 연령범위를 두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2 청년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의 범위

| 지역 | 청년 연령 정의           | 조례 제정 목적                                                    | 조례 제정일     |
|----|--------------------|-------------------------------------------------------------|------------|
| 서울 | 15~29세<br>(15~34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 2015.01.02 |
| 부산 | 18~34세             |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     | 2017.05.31 |
| 대구 | 19~39세             |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 2015.12.30 |
| 인천 | 18~34세             |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2017.06.05 |
|    | 19~39세             |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2016.06.07 |
| 광주 | 19~39세             |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청년 자립기반 형성                                 | 2015.12.28 |
| 대전 | 19~39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6.10.20 |
| 울산 | 15~29세<br>(15~34세) |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7.04.27 |
| 세종 | 15~29세<br>(15~34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6.12.20 |
| 경기 | 15~29세<br>(15~34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6.01.01 |
| 강원 | 18~34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 2017.11.03 |
| 충북 | 15~39세             |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           | 2016.05.24 |
| 충남 | 18~34세             |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형성                            | 2016.02.22 |
| 전북 | 18~39세             |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 2017.04.14 |
| 전남 | 18~39세             | 사회참여기회 보장 및 권익증진, 자립기반 마련                                   | 2015.07.23 |
| 경북 | 15~39세             |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사항                            | 2017.12.28 |
| 경남 | 19~34세             |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 2016.12.10 |
| 제주 | 19~34세             | 능동적인 사회참여, 청년 간 교류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                              | 2016.09.23 |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p.14. 재인용(표 일부내용 수정함)

최근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추진 중인 청년기본법안의 여야 합의 안(2018년 9월 기준)에서의 청년 연령 범위는 19세~34세로 정의하였다(국회청년미래특별위원회, 2018). 연령 하단의 경우 선거권과 연계된 18세로 설정하는 문제에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청년 연령의 하단은 19세로 상단은 34세로 합의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청년 세대라 하면 20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지연되고 속칭 공시족이라고 불리는 오랜 기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30대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최종적으로 청년 연령의 정의가 어떻게 확정될 지는 국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최소한 정치권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sup>4)</sup>

청년 실태조사 현황을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 부가조사(15~29세)에서 교육과 취업에 관한 조사결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에서 청년인구 규모추정과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에서 청년 연령집단 분석으로 사업체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노동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주거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횡단조사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살펴볼

---

4) 이 절은 임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수 있다. 이러한 반복횡단조사의 조사대상은 청년만이 아니라 포괄적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특정 영역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종합적인 청년실태 파악에는 제한적이므로 청년의 전반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둘째, 청년에 초점을 맞춘 조사들은 반복횡단조사보다는 패널조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2001년 시작된 청년패널조사(15~29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4년 중3과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 학교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도별 변화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패널조사에서 표본탈락으로 인해 자료의 연도별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복횡단조사로서 본 연구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가 요구된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배상률, 황여정 외, 2013).

이에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복횡단조사로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배상률, 황여정 외, 2013; 김기현, 2015)를 실시하였다 2016년부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가 시작되었고, 2017년부터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활용한 표본설계로 전국 만15~39세의 청년 2,714명을 조사하였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지금까지 주요 기관의 청년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 종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반복횡단조사로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주제로는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취업눈높이 실태, 직업훈련 참여 실태, 사회활동 실태, 청년자녀 세대 성인기 이행 실태, 1인 청년가구 실태, 청년층의 비혼 인식 실태, 청년 건강실태, 청년 부채 실태, 청년 NEET 실태, 입직 및 이직 실태, 첫 일자리 실태, 괜찮은

일자리 실태, 신규졸업자 실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 취업준비실태, 창업실태, 생활실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주제별 청년실태 조사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청년의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존 청년실태 조사연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주요한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한 연구로 청년여성 직업훈련 과제(신선미, 김영옥, 김종숙, 안준기, 2017),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성지미, 안주엽, 2012) 등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 교육만으로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채구묵(2007)은 청년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으로 대학교육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 자격증 취득과정이 업무수행능력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 등을 제시하였다. 권대봉, 전재식(2010)은 대학 교육 등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진학 및 직업 선택을 위한 교육정보, 신규 대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회적 인식과 편견 관련 연구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구직자와 재직자의 요구분석(유일, 김소라, 2017), 청년의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연구(김지근, 허경민, 허다연, 이기학, 2018)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사회지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 사회구조와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등의 쟁점이 제시되었다.

청년 일자리 현황과 사회인식의 변화(신용한, 2016), 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박수명, 2013), 청년 니트 지원(라기태, 2016), 청년층의 비혼 인식(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2016) 등의 연구에서 보이기식의 일자리 등 청년들이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으로 느끼는 내적 고통 등을 제시하였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인식의 눈높이 변화와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원을 강조한 연구로 취업준비와 진로정책과제(오호영, 송창용, 송경모, 2012), 팬층은 일자리 마련(김범식, 김묵한, 2014; 곽상신, 2015), 창업지원(황성수, 류지영, 2012), 청년 사회 활동지원(김정숙, 강영배, 2017; 정병순, 김태욱, 2016), 일자리 중재의 선순환(조돈문, 2017) 등의 사회적 지원이 강조되었다.

1인 청년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2017), 청년 금융지원 강화방안(금융위원회, 2017), 청·장년층 건강지원으로 금연, 금주, 신체 활동 및 영양의 건강생활실천 지원(김동식, 동제연, 우영지, 정지원, 2016), 청년 자녀세대의 성인기이행 지원은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문제로 종합적인 청년생활지원(김영란, 장혜경, 이운석, 2017) 등의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쟁점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주요 기관의 청년 관련 실태조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들이 존재한다. 통계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의 청년 실태조사는 기존의 반복횡단조사로서 조사대상이 포괄적이며 청년 연령집단에 대한 일부 영역의 정보에 국한하여 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청년 패널조사는 연도별 전체 조사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청년에 대한 여러 조사연구 현황을 통해서 청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3.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동향<sup>5)</sup>

우리나라에서는 IMF로 인해 국가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자 청년의 실업 및 고용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1998~2002년)에서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1998.4.)’와 ‘실업대책위원회(1998.12.)’를 설치하여 실업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IMF에 따른 대량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첫 직장에 입직하는 청년층보다 이미 생산 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청년의 고용이나 실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청년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자,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하고 ‘청년실업대책위원회(2004.11.)’를 설치하여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또한,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는 앞서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2009년 10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2010.4.)’를 설치함으로써 청년 실업에서 고용 측면에 대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박근혜 정부(2013~2017.3월)에서는 청년의 고용뿐만 아니라 복지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문제들이 누적되고 심화됨에 따라 2013년 5월 대통령령으로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청년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청년위원회가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의 실효성도 미미한 수준이었다(김

---

5) 이 절은 유설희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기현, 이윤주, 외, 2017). 또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청년기본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현재까지도 논의 중에 있다.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5년 1월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다방면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별 청년위원회를 꾸리는 등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중앙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2017.5월~)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청년문제에 큰 관심을 두면서 2017년 5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2018년 3월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취·창업 지원 및 역량 강화, 취업청년 지원 등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밝혔다(관계부처합동, 2018.03.15.). 그러나 현 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 고용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존중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청년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 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과 관련하여 사회·경제·교육·정치·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년의 전반적인 삶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새롭게 도입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 지방자치단체별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1)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및 사업

### (1) 청년 일자리부문 정책 및 사업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및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일자리

수요 위축 및 미스매칭에 의해 청년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20대 후반의 에코세대가 유입되어 구직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3월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여 청년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혔다(관계부처합동, 2018.03.15.).

‘청년 일자리 대책’의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①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② 창업 활성화, ③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④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로 크게 구분된다(〈표 II-3〉 참조).

표 II-3 ‘청년 일자리 대책’의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내용

| 4대 분야                              | 세부 내용                                                                                                                                                                                                                                                       |
|------------------------------------|-------------------------------------------------------------------------------------------------------------------------------------------------------------------------------------------------------------------------------------------------------------|
|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① 신규고용 지원, 세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 지원</li> <li>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年 150만원 限)</li> <li>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한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및 지속적인 정책 지원</li> </ul> |
|                                    | ② 주거·교통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 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li> <li>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li> </ul>                                                                             |
|                                    | ③ 목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만 원 목돈 마련</li> <li>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천만 원 목돈 마련</li> </ul>                                                                                                                 |
|                                    | ④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 연장</li> <li>수시증원(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 명퇴 활성화(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18년 공공기관 채용을 5천명 이상 확대(2.3만명→2.8만명+α)</li> </ul>                                                                 |
| 2. 창업 활성화                          | ①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



| 4대 분야           | 세부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는 1천만 원 성공불 용자 및 5천만 원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천명)는 최대 1억 원 오픈바우처 지원</li> <li>•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18년 2.6조원) 조기 전액 투자 유도→소진시 추가재원 확보</li> <li>•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사업지원 바우처(年 1백만 원·3년)지급으로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li> <li>• 중·장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세대 융합형 창업과 숙련 창업도 지속 지원 확대</li> </ul> |
|                 | <b>② 창업기업 세금 면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li> <li>• 年매출 4,800만 원이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 일부업종 제외)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li> </ul>                                                                                                                                                                                         |
|                 | <b>③ 민간주도 창업 지원, 지방창업 우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 단계적 확대(年 200개 기업→500개 기업)</li> <li>• 대전(연구단지)·판교(판교밸리)·서울 강북(마포) 등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TIPS타운)을 지방 등으로 확산</li> </ul>                                                                                                                                  |
|                 | <b>④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유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li> <li>•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R&amp;D·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li> </ul>                                                                                                                          |
| 3.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 <b>①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하여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21년까지 7만명 + α)</li> <li>•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자금(1~5천만원)·멘토링 등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li> </ul>                                                                                                                      |
|                 | <b>②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 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연봉 3,200만 원 이상) 취업기회 확대</li> <li>•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年 1,000만 원 성공불용자 지원</li> <li>•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을 확대('18년 2천명→'21년 4천명 + α)하고,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항공비는 별도 지원)</li> </ul>                                                                           |
|                 | <b>③ 新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창업 기회 확대</li> <li>• 4차 산업혁명 분야 新산업 창출로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 확대</li> </ul>                                                                                                                                                                                                                      |
| 4. 즉시 취·창업 할 수  | <b>① 軍 장병 취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軍 부대·지역 中소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li> </ul>                                                                                                                                                                                                                                                        |

| 4대 분야           | 세부 내용                                                                                                                                                                                                                       |
|-----------------|-----------------------------------------------------------------------------------------------------------------------------------------------------------------------------------------------------------------------------|
| 있는 실질적<br>역량 강화 | <p>교육 등 지원, 전역 후 지역 中企 취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 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상담, 현장체험, 교육 등 취업 지원(22개 사·여단, 年5천명)</li> </ul>                                                          |
|                 | <p>②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 지원</li> <li>•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獨 아우스빌둥’사례) 참여 청년에 훈련비, 軍 보직 연계 등 지원(‘18년 150명→’21년 2천명)</li> </ul> |
|                 | <p>③ 미래 핵심인재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기업·폴리텍 등)과 취·창업 연계→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1만명)</li> <li>•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수료자는 협력사 우선 채용(1만명)</li> </ul>        |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03.15). 청년 일자리 대책. pp.4-9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8](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8)에서 2018년 3월 16일 인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교통비 지급 및 주거 대출비용 경감함으로써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제고하고,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신규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게 된다. 다음으로, ‘창업 활성화’에서는 청년에게 창업자금 및 사업 서비스 제공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세금 감면과 대기업의 창업·벤처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에서는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및 창업공간 제공, 해외 취·창업, 장기봉사단 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新 산업 창출로 유망분야 일자리 규모를 늘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에서는 군 장병이나 구직자 청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고,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에게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법무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표 II-4〉 참조). 정책대상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이나 졸업생,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와 더불어 대학 및 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청년을 지원하고자 한다.

정책사업 유형에 따라 나누어보면,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진로 및 상담지원,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직장체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체험 및 인턴지원과 해외취업 지원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인 공공일자리,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훈련자금 등의 지원 정책, 청년 채용을 위한 기업·기관을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표 II-4 중앙행정기관별 청년 일자리부문 지원 사업 현황

| 부처명     | 정책사업명                                                                                                                                                                                                                                                                                                                                   |
|---------|-----------------------------------------------------------------------------------------------------------------------------------------------------------------------------------------------------------------------------------------------------------------------------------------------------------------------------------------|
| 고용노동부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재학생 직무체험, K-Move(해외취업지원),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일학습병행제, 대학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대학,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
| 교육부     | 대학 특성화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BK21 플러스 사업,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편·적용 체제 구축, 특성화고 등 기업 맞춤형반 운영, 사내대학,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재직자 후진학 지원, 대학창업교육 체제 구축, 학교기업 지원 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                                                        |
| 미래창조과학부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사업,                                                                                                                                                                                                                                                             |

| 부처명     | 정책사업명                                                                                                                                                                                                       |
|---------|-------------------------------------------------------------------------------------------------------------------------------------------------------------------------------------------------------------|
|         |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창조경제타운 구축·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박물관 진흥지원(학예·교육인력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맞춤형교육프로그램), 관광전문인력 양성,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문화콘텐츠 인재양성),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 외교부     | 월드프렌즈코리아(해외봉사단) 사업, ODA 영프로페셔널 사업, 다자협력전문가(KMCO) 파견사업                                                                                                                                                       |
| 법무부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O.K.프로젝트)                                                                                                                                                                                     |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AFLO) 운영,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 인력역량강화,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인턴지원사업                                                                                                                                |
| 환경부     |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화학물질평가 전문인력 양성                                                                                                                                                             |
| 여성가족부   | 취업사관학교                                                                                                                                                                                                      |
| 국토교통부   |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U-City 인력양성, 물류전문 인력양성지원                                                                                                                                                           |
| 해양수산부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오션폴리텍 양성,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해양관광 창업 지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 국방부     | 유급지원병(군 특성화고) 양성                                                                                                                                                                                            |
| 중소기업청   | 맞춤형 연수사업,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 공패기지), 본글로벌액셀러레이팅(창업사업화지원),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창업사업화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보육센터(창업인프라 지원), 대한민국 창업리그(창업저변확대), 창업대학원 지원사업(창업저변확대), 청년전용 창업자금(창업기업 자금)                             |
| 병무청     |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확대 및 내실화,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 확대                                                                                                                                                                       |
| 농촌진흥청   |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
| 산림청     | 해외산림인턴지원                                                                                                                                                                                                    |
| 기상청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2017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프로그램. pp. ii~vii 목차를 표로 재구성.

## (2) 청년 주거 부문 정책 및 사업내용

지속되는 경제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청년층이 스스로 자산을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8. 5. 8.)에 의하면, 청년층은 일반가구에 비해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71.1%)이 매우 컸고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도 겪고 있었는데, 지하나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율(3.1%)도 높았다. 또한, 대다수 청년층이 포함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이 19.6%,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은 78.3%로 나타나 일반가구(RIR 17%, 상환부담정도 66.0%)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상당한 편이었다. 이러한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17년 11월 29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포함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다(〈표 II-5〉 참조).

주거복지로드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서는 맞춤형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하고, 입주자격 기준도 만19~39세 무주택자(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연령 관계없이 모두 포함, 지역제한 완화)로 확대하였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며, 대학생 등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하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주거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주변 아파트 가격 하락, 소음 및 안전위험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 지역주민의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집 있는 부모 세대와 집 없는 청년 세대의 갈등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한국일보, 2018.05.12.). 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주체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 -5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및 실적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추진실적                                                                                                                                                                                                                                                                                                                    |
|------|--------------------------------------------------------------------------------------------------------------------------------------------------------------------------------------------------------------------------------------------------------------------------------------------------------------------------------------|-------------------------------------------------------------------------------------------------------------------------------------------------------------------------------------------------------------------------------------------------------------------------------------------------------------------------|
| 청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 명 입주</li> <li>• 임대형 청약저축 도입: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 원 한도 비과세</li> <li>• 맞춤형 전월세 대출: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li> <li>• 정보 제공·교육 강화: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주택 도입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완료 및 7,600실 공급</li> <li>• ('18.3)행복주택 청년 입주자격 확대: 대학생·사회초년생→대학생·39세 이하</li> <li>• ('18.1)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25세→19세) 및 청년 월세대출 한도 상향(월 30→40만원) 등 5월까지 270명 지원</li> </ul>                                   |
| 신혼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li> <li>•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li> <li>• 특별공급 2배 확대: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li> <li>•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구입) 1.2~2.1%, (전세) 1.70~2.7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1)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도입</li> <li>• ('18.4)공공임대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5년 이내 유자녀→7년 이내, 예비부부</li> <li>• ('18.5)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공공 15→30%), 지원대상 확대(결혼 5년 이내 유자녀→7년 이내) 등</li> <li>• 신혼부부 전용대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li> </ul>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p.7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bodo.jsp>에서 2018년 3월 16일 인출.  
 관계부처 합동(2018.7.5.).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3~4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 81018에서 2018년 7월 10일 인출.

다음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에서는 주거문제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을 미루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유자녀(임신 포함)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했던 것에서 지원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무자녀 신혼부부 포함) 및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호 및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년 및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에 따른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 7월 5일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7.5.)을 발표하였다(〈표 II-6〉 참조).

표 II-6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주택 및 창업·보육시설 지원                                                                                                                                                                                                                                                                                                                                                                                                                                                                                                          | 금융지원                                                                                                                                                                                                                                                                                                                                                                                                                                                                                                                                                         |
|---------------------|----------------------------------------------------------------------------------------------------------------------------------------------------------------------------------------------------------------------------------------------------------------------------------------------------------------------------------------------------------------------------------------------------------------------------------------------------------------------------------------------------------------------------|--------------------------------------------------------------------------------------------------------------------------------------------------------------------------------------------------------------------------------------------------------------------------------------------------------------------------------------------------------------------------------------------------------------------------------------------------------------------------------------------------------------------------------------------------------------|
| 청년<br>(75만<br>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주택 27만실 본격 공급(+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연계형·세어형 등 다양한 형태</li> <li>-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 1만호 확대</li> <li>- 집주인임대사업 청년 우선공급 1만호 확대</li> </ul> </li> <li>• 대학생 기숙사 6만 명 입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li> <li>-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 명 지원</li> </ul> </li> <li>•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청년·소상공인·사회적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3.3% 금리, 비과세·소득공제</li> <li>- 非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li> </ul> </li> <li>• 기금대출 40만 가구 지원(+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부 월세대출 신설</li> <li>- 단독세대주 대출한도 확대</li> <li>- 버팀목대출 청년 0.5%p 우대</li> <li>- 중기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융자</li> </ul> </li> <li>• 민간은행 이용 2만 가구 지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금융권대출→버팀목 전환 확대</li> <li>-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한도 확대 (80→90%) 및 보증료 인하(10%p)</li> </ul> </li> </ul> |
| 신혼부부<br>(88만<br>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 20→23.5만, 공공지원 0→1.5만</li> <li>-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li> <li>- 매입임대 아이돌봄시설 100개소 설치</li> </ul> </li> <li>•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3만호 확대</li> <li>- 신규후보지 23개소 추가공개</li> <li>- 입주자격 등 공급방안 구체화</li> </ul> </li> <li>•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만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자금 15만가구 지원(+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최저금리 1.20~2.25%로 인하</li> <li>- 연 3만 가구로 지원 확대(+1.7만)</li> </ul> </li> <li>• 전세자금 25만가구 지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최저금리 1.00~1.60%로 인하</li> <li>- 연 5만 가구로 지원 확대(+2만)</li> </ul> </li> <li>•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3만 가구 지원(+1.5)</li> </ul>                                                                                                                          |

| 지원대상 | 공공주택 및 창업·보육시설 지원                                                                                                                                   | 금융지원                                                                                                         |
|------|-----------------------------------------------------------------------------------------------------------------------------------------------------|--------------------------------------------------------------------------------------------------------------|
|      | (공공 3만, 민간 7만) 특별공급<br>- 특별공급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br>- 일부물량 소득기준 완화(100→120%)<br>•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강화<br>- 모든 유형의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의 신청 허용 | - 보증한도 확대(80→90%)<br>- 보증료 인하(10%)<br>• 한부모가족 기금지원 강화<br>-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0.5%p) 도입<br>-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1%p) 요건 완화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7.5.).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p.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2&id=95081018](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2&id=95081018)에서 2018년 7월 10일 인출.

\* 주: ( )는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증가 규모: 신혼부부 60→88만, 청년 56.5→75만

해당 주거지원 방안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확대 및 구체화되었다. 최대 75만 가구의 청년들에게 청년 맞춤형 주택과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공공주택, 민간주택 특별공급,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최대 88만 쌍을 지원하고, 육아 특화단지 조성 및 아이돌봄공간 설치 등 아동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유형의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도록 하며, 기금 대출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3) 청년수당 정책 및 사업 내용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표 II-7) 참조).



표 II-7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 청년수당 정책 비교

| 사업주체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
| 고용노동부 | 청년구직촉진수당 | 월 30만원               | 3개월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34세 이하 청년                       |
| 서울특별시 | 청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서울 거주 및 만19~29세 미취업 청년(대학 재학·휴학생 미포함, 졸업예정자 포함) |
| 부산광역시 | 청년디딤돌카드  | 월 50만원<br>(최대 240만원) | 6개월  | 부산 거주 및 만19~34세 미취업 청년(졸업유예자 및 구직자)             |
| 광주광역시 | 청년드림수당   | 월 40만원               | 6개월  | 광주에 거주하는 만19~34세 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
| 대전광역시 | 청년취업희망카드 | 월 30만원               | 6개월  |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8~34세 미취업 청년                 |
| 경기도   | 청년구직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출처: 고용노동부(2017.07.2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 시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881](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881)에서 2018년 5월 10일 인출.  
각 시·도별 홈페이지 참조

중앙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15일에 발표된 일자리 대책의 일환인 ‘청년고용촉진방안’에서는 청년구직활동수당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과 기간 등을 확대·개편하여 2019년부터 졸업·중퇴(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포함) 후 2년 이내 청년(만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지급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구직활동 수당에 대해 청년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제 졸업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여 졸업 직후부터 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입사지원서 제출·면접, 교육·훈련, 개인적 취업준비 등도 구직활동의 범위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구직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서울 및 경기도, 부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지급대상 및 기준, 지원금액 등을 달리 적용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최소 만18세 이상 최대 만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부차원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 및 지역발전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병근, 2017). 그러나 청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만을 위한 수당 정책은 다른 세대와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으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은 후 지자체별 구직활동수당을 신청하는 등 연이은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구직활동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머니투데이, 2018.05.06.).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청년수당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과 연계를 통해 세밀한 검토를 거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주요 시·도별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 11월에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2016~2020년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함을 밝혔다(〈표 II-8〉 참조).

표 II-8 서울특별시의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전략                                              | 세부 사업 과제                                                                                                                                                                                                                                                                                                                                                                         |
|-------------------------------------------------|----------------------------------------------------------------------------------------------------------------------------------------------------------------------------------------------------------------------------------------------------------------------------------------------------------------------------------------------------------------------------------|
| ① 설자리<br>(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br>활동보장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청년활동보장 추진</li> <li>•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li> <li>•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li> <li>• 저소득 장학생 지원</li> </ul>                                                                                                                                                                                                                               |
| ② 일자리<br>(좋은 일자리 경험을 위한<br>뉴딜일자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li> <li>•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li> <li>• 챌린지 1000 프로젝트(청년창업 지원)</li> <li>•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li> <li>•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li> <li>• 근로빈곤청년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li> <li>•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li> <li>• 신진 유망예술가 지원</li> <li>•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추진</li> </ul>                                                                |
| ③ 살자리<br>(1인 청년을 위한 새로운 보금<br>자리 확대, 희망두배 청년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li> <li>-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li> </ul> </li> <li>•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li> <li>•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li> <li>•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li> <li>•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li> <li>•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li> <li>•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 활성화</li> <li>• 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li> </ul> |
| ④ 놀자리<br>(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br>활동공간 조성 및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및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li> <li>•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li> <li>•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li> </ul>                                                                                                                                                                                                                                    |

\* 출처: 서울혁신기획관(2015.11.). -서울청년 희망프로젝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11~13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서울특별시의 청년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자리(4개 사업)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며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비 부담 경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9개 사업)에서는 공공부문 등에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창업 지원 및 진로탐색 기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살자리(4개 사업)에서는 청년의 주거 및 금융지원을, 놀자리(3개 사업)에서는 청년활동 및 자발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정책 연구 및 실행을 지원하는 ‘청년허브’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실행, 평가 등에 청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기관과 관련된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있으나 지역사회 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의의가 있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또한, 서울특별시의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면한 문제들을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및 빈곤, 참여 등의 차원을 포함하여 접근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2016년 10월에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및 지역인재, 청년복지, 청년문화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표 II-9〉 참조).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은 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청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도시의 운영에 있어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와 창조적인 역량을 반영하여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광주광역시, 2016).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고용촉진과 안정,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인재에 대한 의미 정립과 역량 증진을 통해 인재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 건강, 주거 등 주요 분야별로 청년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청년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청년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년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을 강조하여 지역 청년들의 소통 및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6). 이에 광주 청년위원회가 대학가나 청년 밀집지역에서 지역 내 청년들과 소통하거나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청년위원 참여 비율을 10%로 보장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9 광주광역시의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 분야    | 정책 목표 및 핵심 과제                                                                                                                                                                                                                                                                                                                                                                                                                                                  |
|-------|----------------------------------------------------------------------------------------------------------------------------------------------------------------------------------------------------------------------------------------------------------------------------------------------------------------------------------------------------------------------------------------------------------------------------------------------------------------|
| 청년일자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li> <li>-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 창업허브 조성</li> <li>-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li> </ul> </li> <li>• 도전과 상상력으로 개척하는 청년 진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형 청년 혁신 일자리 확대</li> <li>- 창의 인재 청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촉진</li> </ul> </li> <li>• 청년기반 시청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자리 지원 체계 강화</li> </ul> </li> </ul> |
| 지역인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적 전망과 실전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Global) 인재 육성</li> </ul> </li> <li>• 실전형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 섹터형 창업환경 조성 인재 발굴</li> <li>- 광주 인재 진로 관리 ‘포트폴리오’</li> </ul> </li> </ul>                                                                                                                                                                           |
| 청년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주거·의료 등 복지 인프라 연계로 탄탄한 청년 사회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부채 감축</li> <li>- 주거문화 해결과 연대 강화</li> <li>- 광주 청년 건강권 보장</li> <li>- 장애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강화</li> <li>- 여성 청년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li> </ul> </li> </ul>                                                                                                                                                                                     |
| 청년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다양한 문화 향유 보장</li> <li>- 청년 문화 인재 육성</li> <li>- 청년 공간 조성 및 활성화</li> </ul> </li> </ul>                                                                                                                                                                                                                                                             |

\* 출처: 광주광역시(2016).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145~228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BD\\_0000000468/boardView.do?seq=268764&infoReturn=&menuId=gwangju0807040100&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BD\\_0000000468](https://www.gwangju.go.kr/BD_0000000468/boardView.do?seq=268764&infoReturn=&menuId=gwangju0807040100&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BD_0000000468)에서 2018년 4월 12일 인출.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 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청년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목표로 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 자립, 참여, 문화·여가를 4개 핵심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표 II-10〉 참조), 정책대상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청년으로 하고 있다.

표 II-10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 핵심영역  | 실천전략          | 세부과제                        |
|-------|---------------|-----------------------------|
| 1. 소득 | 1-1. 취업지원     | 1-1-1.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
|       |               | 1-1-2.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       |               | 1-1-3. 전문직업상담사 동행면접 프로그램    |
|       |               | 1-1-4. 민간기업 통합정기채용 지원       |
|       |               | 1-1-5. 청년드림 채용박람회           |
|       |               | 1-1-6. 제주청년뱅크 운영            |
|       |               | 1-1-7. 취업성공 패키지             |
|       |               | 1-1-8.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
|       |               | 1-1-9.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       |               | 1-1-10. 대학생 아르바이트           |
|       | 1-2. 창업지원     | 1-2-1.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      |
|       |               | 1-2-2.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
|       |               | 1-2-3.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
|       |               | 1-2-4.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
|       | 1-3. 일자리 질 향상 | 1-3-1. 청년과 중소기업인 만남의 장 마련   |
|       |               | 1-3-2.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       |               | 1-3-3. 청년 내일 채용 공제(수놓음공제사업) |
|       |               | 1-3-4.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
|       |               | 1-3-5. 제주형 재형저축운영           |
| 2. 자립 | 2-1. 인재양성     | 2-1-1. 제주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
|       |               | 2-1-2. 대학생 해외연수             |
|       |               | 2-1-3. 청년갭이어 사업             |
|       |               | 2-1-4. 청년강사를 응원합니다          |
|       |               | 2-4-5.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
|       |               | 2-1-6.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
|       |               | 2-1-7.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

| 핵심영역     | 실천전략           | 세부과제                                                                                                                                     |
|----------|----------------|------------------------------------------------------------------------------------------------------------------------------------------|
|          |                | 2-1-8. 선진지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통한 도내창업 활성화 사업<br>2-1-9.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br>2-1-10.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br>2-1-11. 제주형 인력양성과정 운영<br>2-1-12.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
|          | 2-2. 주거안정      | 2-2-1. 행복주택 공급<br>2-2-2.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br>2-2-3.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br>2-2-4. 제주 쉼어하우스<br>2-2-5. 서울 쉼어하우스 지원<br>2-2-6. 탐라영재관 운영       |
|          | 2-3. 생활안정      | 2-3-1. 자기개발비 지원<br>2-3-2.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br>2-3-3. 대학 학자금 부채 일부 지원 신규<br>2-3-4. 청년의 건강 보호                                            |
|          | 2-4. 권리보호      | 2-4-1. 근로기준법 교육                                                                                                                          |
| 3. 참여    | 3-1. 공간지원      | 3-1-1. 청년다락 운영<br>3-1-2. 민간 청년 활동공간 지원<br>3-1-3. 청년복합공간 조성                                                                               |
|          | 3-2. 활동지원      | 3-2-1. 도 위원회 청년참여율 향상<br>3-2-2.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br>3-2-3. 청년활동 지원 사업<br>3-2-4. 제주청년센터 운영<br>3-2-5. 청년종합정보시스템구축<br>3-2-6. 청년단체 네트워킹 및 활성화     |
|          | 3-3. 교류        | 3-3-1. 세대 간 소통프로그램<br>3-3-2. 청년 국내외 단체 교류<br>3-3-3. 이주청년 정착 지원 아카데미                                                                      |
| 4. 문화·여가 | 4-1. 청년 예술인 지원 | 4-1-1. 청년예술분야 육성지원사업<br>4-1-2. 청년 매개 사업 확대 및 일자리 연계사업<br>4-1-3.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br>4-1-4.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 창업지원 사업<br>4-1-5. 제주청년작가 공모전 및 초대전  |
|          | 4-2. 문화 향유     | 4-2-1. 제주 - 이주청년 간 문화콜라보<br>4-2-2. 개릴라 거리토코<br>4-2-3. 제주 청년축제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17). 제주 청년 종합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266-267쪽 표를 재구성.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영역(19개 사업)에서는 청년들의 취·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자립영역(23개 사업)에서는 자아성찰 및 진로탐색, 주거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참여영역(12개 사업)에서는 청년이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세대 간 교류의 장 마련 및 이주청년의 정착을 돕는 등 청년층의 연대감을 형성하여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문화·여가영역(8개 사업)에서는 청년층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 및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만의 독특한 청년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소규모의 작은 기업들이 대다수이며 관광도시의 특성상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지역청년들과의 교류 및 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주의 청년정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 정책 과제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3) 시사점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까지도 청년에 대한 정의 및 범위, 관련 법률과 청년정책을 담당할 주무부처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부처에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청년정책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듯 각 부처에 따라 분절적으로 청년정책이 수행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 따른 청년정책의 방향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고, 집중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이끌어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서는 지역별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주거, 건강, 금융, 권리보호, 복지 등 청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 대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지역사회 내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때, 정책 발굴이나 평가 등에 있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년위원회나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의 조직을 함께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늘날 청년이 직면한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청년이 추구하는 가치와 생활상도 점차 변화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함과 더불어, 청년의 전반적인 삶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욕구와 의견을 주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와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4. 청년 관련 법률 현황<sup>6)</sup>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세계적 경기침체 및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고용축소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국가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당면과제이다. 이에 청년일자리 확대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 관련 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6) 이 절은 임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 1) 청년기본법안

2016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관련 실태조사 매년 실시,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청년의 날 등 제정, 청년단체 운영 활동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의안정보시스템, 2018; 김정숙, 강영배, 2017).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청년 관련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청년과 관련하여 입법 발의된 법안은 청년기본법안 7건, 청년고용법 개정안 38건, 기타 법안 13건 등으로, 총 56건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여 처리된 의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과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발의)이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된 청년 관련 의안은 2개는 모두 활동기한을 일정기간 동안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청년 문제의 종합지원을 마련하는 법률로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의안정보시스템, 2018; 김기현, 이운주 외, 2017; 김정숙, 강영배, 2017).

청년 연령과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a).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7건의 「청년기본법안」 관련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수립·조정, 청년정책기본계획(3년 또는 5년) 수립 및 시행, 청년의 날(달) 지정, 청년관련 실태조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의안정보시스템, 2018).

표 II-11 제20대 국회의 청년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 의안명                  | 청년기본<br>법안  | 청년정책<br>기본법안 | 청년기본<br>법안 | 청년발전<br>기본법안 | 청년기본<br>법안  | 청년발전지<br>원기본법안                 | 청년기본<br>법안  |
|----------------------|-------------|--------------|------------|--------------|-------------|--------------------------------|-------------|
| 대표<br>발의             | 신보라<br>의원   | 박홍근<br>의원    | 이원욱<br>의원  | 김해영<br>의원    | 박주민<br>의원   | 강창일<br>의원                      | 채이배<br>의원   |
| 제안일                  | 2016.5.30.  | 2016.8.17.   | 2016.8.24. | 2016.12.2.   | 2017.4.13.  | 2017.6.30.                     | 2018.2.19   |
| 청년<br>연령             | 19~39세      | 19~34세       | 19~39세     | 19~34세       | 19~34세      | 18~39세                         | 18~34세      |
| 청년정책<br>기본계획<br>수립주체 | 기획재정부<br>장관 | 국무총리         | 국무총리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br>장관 | 기획재정부<br>장관과<br>고용노동부<br>장관 공동 | 기획재정부<br>장관 |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2018).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 2)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제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는 229개 중 49개로서 서울(9개 지역구), 인천/경기(8개 지역 시·구), 충청/강원(12개 지역 시·군·구), 영남(3개 지역 시·구), 호남/제주(17개 지역 시·군·구)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을 완료하였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8; 김정숙, 강영배,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정책 중심의 청년정책을 복지, 주거, 문화, 참여, 단체 및 시설 등 생활전반의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지원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광역자치단체들의 청년기본조례 상 공통된 주요내용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연구, 청년사업지원, 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 등이다(의안정보시스템, 2018; 김정숙, 강영배, 2017).

표 II-12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현황

| 지역 | 조례명                | 담당부서              | 청년지원기관<br>(공간)         | 청년의 연령                                                                                      |
|----|--------------------|-------------------|------------------------|---------------------------------------------------------------------------------------------|
| 서울 | 서울특별시<br>청년기본조례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허브,<br>청년청,<br>무중력지대 | 청년의 나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br>따른 15~29이하, 공공기관의운영에<br>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br>15~34세 이하 <sup>7)</sup> |
| 부산 | 부산광역시<br>청년기본조례    | 시정혁신본부<br>비전추진단   | -                      | “청년”이란 만 18세이상 34세 이하의<br>사람을 말함. 다만, 「청년고용촉진<br>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br>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 따름   |
| 대구 | 대구광역시<br>청년기본조례    | 시민행복교육국<br>청년정책과  | 대구광역시<br>청년센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15~29<br>이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과 지<br>방공기업법에 따른 15~34세 이하                        |
| 인천 | 인천광역시<br>청년기본조례    | 여성가족국 아동<br>청소년과  | -                      |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br>사람을 말함                                                           |
| 광주 | 광주광역시 청년정<br>책기본조례 | 자치행정국<br>청년정책과    | 광주청년센터<br>the 숲        |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br>사람을 말함                                                           |
| 대전 | 대전광역시 청년기<br>본조례   | 기획조정실 청년<br>정책담당관 | -                      |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br>사람을 말함                                                           |
| 울산 | 울산광역시<br>청년기본조례    | 기획조정실 정책<br>기획관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15~29이하,<br>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과<br>지방공기업법에 따른 15~34세 이하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청<br>년기본조례 | 기획조정실<br>정책기획관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15~29<br>이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과<br>지방공기업법에 따른 15~34세 이하                         |
| 경기 | 경기도<br>청년기본조례      | 여성가족국 아동<br>청소년과  | 청년시설<br>(추진중)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15~29이하,<br>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과 지방공<br>기업법에 따른 15~34세 이하                          |
| 강원 | 강원도<br>청년기본조례      | -                 | -                      |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br>사람을 말함                                                             |
| 충북 | 충청북도<br>청년기본조례     | 행정국<br>청년지원과      | 청년희망센터<br>(청년광장)       |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br>사람을 말함                                                             |
| 충남 | 충청남도<br>청년기본조례     | 미래성장본부<br>미래정책과   | -                      | “청년”이란 도에 거주·생활하거나<br>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br>사람을 말함                                      |
| 전북 | 전라북도 청년기<br>본조례    | 경제산업국 일자<br>리경제   | -                      | “청년”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br>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

| 지역 | 조례명                | 담당부서               | 청년지원기관<br>(공간) | 청년의 연령                                                                        |
|----|--------------------|--------------------|----------------|-------------------------------------------------------------------------------|
|    |                    | 정책관                |                |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
| 전남 | 전라남도<br>청년기본조례     | 기획조정실 청년<br>정책담당관  | -              |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br>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br>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br>탄력적으로 적용 |
| 경북 | 경상북도<br>청년기본조례     | 일자리민생본부<br>청년정책담당관 | -              | "청년"이란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br>사람을 말함                                              |
| 경남 | 경상남도<br>청년기본조례     | 기획조정실 교육<br>지원담당관  | -              |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br>청년을 말함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청<br>년기본조례 | 특별자치행정국<br>평생교육과   | 청년다락<br>(多樂)   |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br>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br>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

\* 출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2017). 전국 지자체 청년 자치법규 추진현황 내부자료를 토대로 신규 제정된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청년기본조례(<http://www.el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인용한 김정숙, 강영배(2017)의 pp.49-51 내용을 재인용함(일부내용 수정)

### 3) 시사점

현존하는 청년 관련 법령 중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고용촉진 측면에 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청년의 삶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청년 관련 법령 및 담당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심각해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발의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의안정보시스템, 2018.; 이윤주, 김기현 외 2017; 김정숙, 강영배, 2017).

우리나라 청년은 실업, 소득하락과 부채증가,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7)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름

으로 추진해 오던 청년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시장시켜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보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의안정보시스템, 2018).

또한, 2018년 5월 현재 국회의 청년미래특위에서 청년기본법에 대한 여야 간 그리고 국무총리실과의 협의가 추진되어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청년기본법이 인접한 연령대의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중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추진 주체(담당 부처 및 기관)와 지원예산의 근거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실천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 5. 해외 청년정책 추진동향 및 시사점<sup>8)</sup>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이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청년의 고용 영역과 관련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외에 청년의 전반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청년정책의 현실을 비교하여 생애주기적인 접근을 통해 0~30세를 대상으로 ‘아동·청년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일본과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하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단일법은 없으나 ‘청년 최우선 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청년기

---

8) 이 절은 해외사례 번역물을 토대로 유선희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정리하였으며 도입 부분과 시사점 부분을 집필하였음

본법」 제정을 통해 29세 이하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핀란드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1) 일본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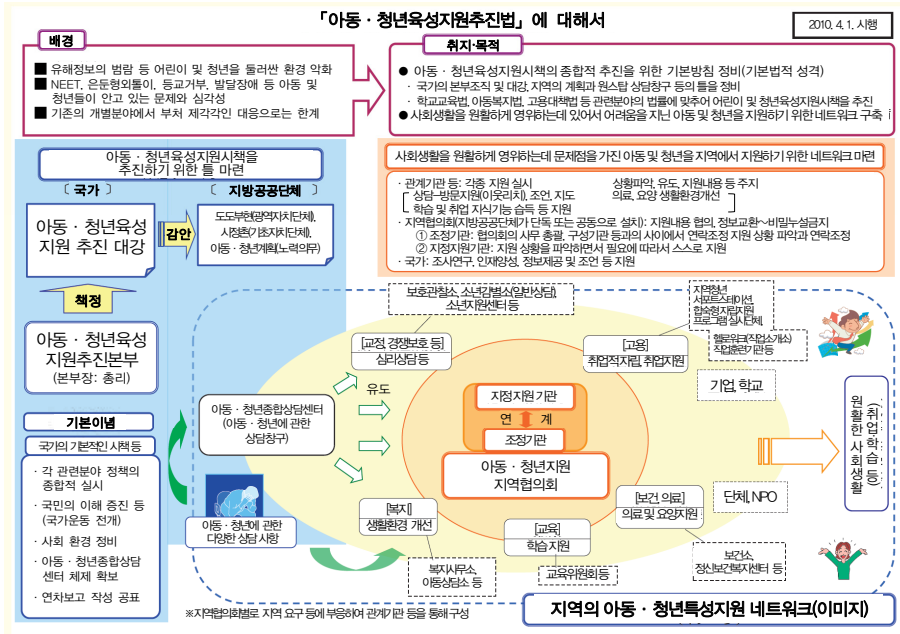
### (1) 일본 청년정책의 배경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저출산·고령화, 정보화, 소비사회화가 진행되어, 가정, 학교, 직장, 지역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2003년 6월 내각부(内閣府) 산하에 청소년육성추진본부(본부장: 내각총리대신)가 설치되었으며, 12월에는 ‘청소년육성정책대강(령)’을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기본이념과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비행 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청소년육성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청소년육성정책대강’을 책정하였다.

‘청소년육성정책대강(령)’이 책정된 후에도 일본에서는 NEET 및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층의 자립과 관련된 문제가 악화되었고, 아동학대, 집단괴롭힘, 청소년이 저지르는 중대한 사건, 유해정보 범람 등 아동과 청년층을 둘러싼 환경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속되었다. 이에 차세대 사회를 짚어질 아동과 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이 일본사회 발전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2010년 4월 1일에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 시행되었다(〈그림 II-1〉 참조). 이와 더불어 아동 및 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가 설치되었으며,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아동·청년비전, 子ども・若者ビジョン)’을 마련하였다.

---

9) 일본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은 内閣府(2017)의 子供・若者白書 내용을 일부 발췌·요약하여 정리함.



**그림 II-1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개요**

\* 출처: 内閣府(2017). 子供・若者白書(아동·청소년백서). p.21의 그림 1-1을 번역하여 제시. 일본 내각부(内閣府) 홈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9honpen/pdf\\_index.html](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9honpen/pdf_index.html)에서 2018년 4월 20일 인출.

\* 원자료: 내각부(内閣府) 홈페이지(<http://www8.cao.go.jp/youth/contents.html>).

이후 3년 간 시행된 해당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과정을 거쳐 2016년에 새롭게 개정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아동·청년비전)’에서는 ①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육성, ②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년과 그 가족 지원, ③ 아동과 청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 정비, ④ 아동 및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담당자 양성, ⑤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할 아동과 청년 응원인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삼고 있다.



## (2) 일본의 주요 청년정책 및 사업내용

### ① 청년의 직업적 자립 지원

일본에서는 청년들이 자립하여 사회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학교 단계에서 사회적, 직업적 자립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를 키우는 커리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외에서도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사회와 직업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높은 비정규직 고용율과 고용불균형, 청년무직자가 존재하고, 직업의식 및 직업관의 미숙, 진로의식과 목적의식이 희박한 채로 진학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교육에서 커리어교육, 직업교육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에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 산업계와 연계하여 커리어 및 직업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 제공, 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일본의 부처별 커리어교육 및 직업교육 추진 현황

| 부처명   | 세부 내용                                                                                                                                                                                                                                                                                                                                                                                                                                                                                                                                          |
|-------|------------------------------------------------------------------------------------------------------------------------------------------------------------------------------------------------------------------------------------------------------------------------------------------------------------------------------------------------------------------------------------------------------------------------------------------------------------------------------------------------------------------------------------------------|
| 문부과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과 협동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힘 등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초등학교 단계부터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여(초/중학교 등에서의 창업체험추진사업), 2016년도는 11개 지역 채택</li> <li>창업체험, 직업체험, 인턴십 및 내 고장에 대한 애착을 심화하는 커리어교육 추진(지역을 담당할 인재육성을 위한 커리어플래닝 추진사업)</li> <li>커리어교육의 취지를 알리고, 지도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특색을 살린 커리어교육의 연간지도계획을 작성할 때 참고가 되는 팸플릿을 작성/배포,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게재</li> <li>학교 및 교육위원회에서의 커리어교육에 관한 연수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와 자료를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공개</li> <li>학교가 바라는 지원과 지역 및 사회와 산업계 등이 제공하는 지원을 매칭시키는 특설사이트 '아동과 사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운용</li> </ul> |
| 후생노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하는 사람 등을 강사로서 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직업과 산업의 실태, 일하는 것의 의미, 직업생활을 아동에게 이해시키고, 생각하도록 하는 '커</li> </ul>                                                                                                                                                                                                                                                                                                                                                                                                            |

| 부처명   | 세부 내용                                                                                                                                                                                                                                                                                                                                                                                              |
|-------|----------------------------------------------------------------------------------------------------------------------------------------------------------------------------------------------------------------------------------------------------------------------------------------------------------------------------------------------------------------------------------------------------|
|       | 리어 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함.<br>→ (2015년)5,053개교에서 약 30.5만 명의 학생이 참여                                                                                                                                                                                                                                                                                                                                          |
| 경제산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적인 교육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를 표창하는 '커리어 교육 어워드'를 실시</li> <li>• 커리어교육 코디네이터의 육성 및 연수, 인정 실시<br/>→ (2016년 6월)약 270명의 커리어교육 코디네이터가 활약 중</li> <li>• 직장장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사회인 기초력'으로 정리하고, 대학교육을 통한 육성과 평가 활동 보급</li> <li>• 2016년도, '사회인 기초력'의 육성 사례를 학생 스스로가 발표하는 '사회인 기초력 육성 그랑프리'를 개최<br/>→ (2016년도)전국 57개 대학교에서 70팀 참여</li> </ul> |

\* 출처: 内閣府(2017). 子供・若者白書(아동·청소년백서). pp.55-57의 본문 내용을 표로 재구성. 내각부(内閣府) 홈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whit\\_epaper/h29honpen/pdf\\_index.html](http://www8.cao.go.jp/youth/whit_epaper/h29honpen/pdf_index.html)에서 2018년 4월 20일 인출.

구체적으로 중학교에서 직업체험실시와 고등학교 및 대학, 대학원에서의 인턴십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에서는 '인턴십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일부 개정(2015. 12.)하여 각 대학교 및 산업계에 알리고, 인턴십 보급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체험과 인턴십(취업체험)을 통해 아동과 청년들이 교사 및 학부모 이외 어른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른 세대와의 소통 능력 향상, 아동 및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적성과 장래 설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주체적인 직업선택 능력과 높은 직업의식 육성 촉진, 직업현장에서의 실제적 지식과 기술 및 기능 적용 등의 교육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청년 여성층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내각부에서는 여성의 진출이 적은 이공계 분야에 대해 여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공계 직장 견학, 직업 체험, 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여학생들이 직업과 진로를 적절하게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취업할 곳을 선택할 때 '여성 활약 및 양립지원종합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각 기업의 여성 활약

현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활동도 고려할 수 있도록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학생의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에서는 청년들의 인생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생이 진로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다양한 사건들을 고려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생설계 구축을 위한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 ② 청년의 취업 지원

일본에서는 대학교 및 경제계와 연계하여 청년들이 충실한 직업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입구인 신규 학교 졸업단계에서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규 학교 졸업자가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거나 진학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청년고용안정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문부과학성에서는 대학교 등의 취업상담원과 직업소개소, 잡 서포터 간 연계를 촉진하고, 교육과정 내외에서도 취업능력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에서는 신규 졸업예정자나 졸업 후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정보 연계 및 정서적 지원 제공,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 지원을 통해 신규 졸업자 고용 촉진 등을 실시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지역 내 중·소규모 기업의 정보를 알리고, 해당 지역사업자와 청년 및 여성 등의 구직자가 적절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표 II-14〉 참조).

표 II-14 일본의 부처별 신규 졸업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 부처명   | 세부 내용                                                                                                                                                                                                                                                                                                                                                                                                                                                                                                                                                                                                                                                                                                                                                                               |
|-------|-------------------------------------------------------------------------------------------------------------------------------------------------------------------------------------------------------------------------------------------------------------------------------------------------------------------------------------------------------------------------------------------------------------------------------------------------------------------------------------------------------------------------------------------------------------------------------------------------------------------------------------------------------------------------------------------------------------------------------------------------------------------------------------|
| 문부과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부처와 연계하면서 대학교 등의 취업상담원과 헬로워크(직업소개소)의 잡 서포터와의 연계 촉진 등을 통해 대학교 등에서의 취업지원체제 강화</li> <li>교육과정 내외에 걸쳐서 취업능력 육성을 지향하여 각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li> </ul>                                                                                                                                                                                                                                                                                                                                                                                                                                                                                                                                                                                     |
| 후생노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대학교, 단기대, 고등전문대, 전수학교(전문학교) 등의 학생과 졸업 후 미취업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를 전국에 설치(2016년 4월 1일 현재, 57개소)하여, 광역 구인정보 제공, 직업소개, 중소기업과의 매칭, 구인 개척, 취업지원세미나, 면접회 등 실시</li> <li>잡 서포터에 의한 취업활동부터 직장내 정착할 때까지 일관된 담당자 제도에 의한 개별지원(구인정보 제공, 취업활동을 하는 방법, 엔트리시트 첨삭, 면접지도, 직장 정착지원 등) 및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적 지원을 실시</li> <li>대학교 등에 대해서, 잡 서포터 상담창구 설치 및 출장상담을 실시하는 등 학교 등과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신규졸업자를 지원하는 헬로워크에는 총 약 58.5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그 중 약 10.6만 명의 취업이 결정됨.</li> </ul> </li> <li>사업주에 대해 3년 이내 졸업자도 신규 졸업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기존 졸업자 등이 신규졸업자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및 채택함. 이에 해당 구직자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2016년 2월부터 기존 졸업자 및 중퇴자를 대상으로 한 조성금 제도를 창설하고, 해당 조성금을 활용하여 기존 졸업자 등에게 지원 기회 확대</li> </ul> |
| 경제산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인재 확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지역사업자의 장점 발산 및 지역 내외의 청년층, 여성, 시니어 등 다양한 인재와의 매칭 촉진과 정착을 도모하는 지원 이벤트 등을 실시</li> </ul> </li> </ul>                                                                                                                                                                                                                                                                                                                                                                                                                                                                                                                        |

\* 출처: 内閣府(2017). 子供・若者白書(아동·청소년백서). pp.65-66의 본문 내용을 표로 재구성. 내각부(内閣府) 홈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9honpen/pdf\\_index.html](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9honpen/pdf_index.html)에서 2018년 4월 20일 인출.

### ③ 비정규직 청년의 처우 개선 및 청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후생노동성에서는 정규직을 희망하는 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사람의 대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016년 1월에 책정한 '정규직 전환 및 대우 개선 실현 계획' 등을 토대로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고용노동자의 희망과 의욕 및 능력에 부응한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중노동 및 임금 불납잔업 등 ‘청년 쓰고 버리기’가 의심되는 기업 등에 대한 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11월에 7,014개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적인 감독 지도를 실시한 결과, 약 67%에 해당되는 4,711개 사업장에서 노동기준관계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여 시정 및 개선을 위해 지도하였다.

#### ④ 청년무직자 및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청년을 위한 지원

후생노동성에서는 청년무직자 등이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 직업적 자립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취업 후의 정착 및 스텝업 지원, 청년무직자 등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서포트 스테이션에서는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 커리어 컨설턴트 등에 의한 개별 상담, 지원계획 작성, ㉡ 개별적 및 그룹에 의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취업한 사람의 정착, 스텝업 상담, ㉣ 집중훈련프로그램(합숙 형식을 포함한 지원, 자신감 회복, 직장에서 필요한 기초적 능력 부여, 취업활동을 위한 기초지식 습득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 ㉤ 직장 견학 및 직장 체험, ㉥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및 개별 상담 등의 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보건·의료·복지·교육·고용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관과 연계 하에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전문 상담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를 정비하고 있다. 해당 센터(2016년 기준, 64개 설치)는 2013년부터 지역에 잠재적인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이나 본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방문 지원 등을 실시하는 ‘히키코모리 서포터’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보건소, 아동 상담소 등의 의사나 보건사, 정신보건복지사 등과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2) 프랑스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sup>10)</sup>

### (1) 프랑스 청년정책의 배경 및 추진체계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성인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여러 여건들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특히 2008년의 경제 및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13.9%인 반면, 18~24세 청년층의 빈곤율은 23%로 나타나는 등 일부 청년들은 사회 불안정의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이 늦어지거나 불안정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프랑스 청년들 간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에서 ‘청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의한 바는 없다. 그러나 인구 및 통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는 16~25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배움의 기간이 길어지고 청년층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여 안정된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25세’라는 상위연령 한도가 ‘30세’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년은 일반적으로 단절과 가역성의 기간으로 구성된 ‘전환기’에 놓인 연령층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청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 ‘자립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선호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에서 가족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 그 자녀를 지원할 수 있고, 특히, 가족 내 젊은이들이 사회의 보호 속에 ‘독립적인 자녀’의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자립을 찾아가는

---

10) 프랑스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은 Janaína Paisley(2016)의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FRANCE 내용을 일부 발췌·요약하여 정리하였으나 프랑스 정부조직 개편으로 2017년 5월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EU 국가의 청(소)년 정책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홈페이지(<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youthwiki>)에 게재된 프랑스 청년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음.

과정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접근(최소 임금, 보조금, 재정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 프랑스 청년정책의 핵심이다.

프랑스의 청년정책의 주요 과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이에 현 정부는 1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청년 우선 지원 계획(Plan Priorité Jeunesse, Youth Priority Plan)’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위한 일반 법안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자립을 강화함과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 삶의 경로를 보장하는 전반적인 방안 모색, 불평등 및 차별 타파, 공공 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 확대 및 정책 공동 개발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청년 우선 지원 계획’은 부처 간 청년위원회(Youth Interministerial Committee)에서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중점적인 지원 분야는 고용이지만, 동시에 교육, 주거, 건강, 문화 및 여가 접근권, 유동성, 시민권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 내에서 젊은 청년층의 설 자리와 역할, 그리고 시민으로서 활동 역량도 국가 청년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청년정책은 도시 정책, 청년 및 스포츠부(Ministry for Urban Policies, Youth and Sports)에서 국가 전략 및 규율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였으나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2017년 5월 이후부터는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에서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및 대중 교육, 지역사회 부서(Direction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DJEPVA)를 통해 청년정책의 설계 및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EACEA 홈페이지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overview-France>에서 2018년 10월 8일 인출).

또한, 프랑스 정부에서는 주로 청년정책을 수립·홍보하고 이후 해당 지방정부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현지 당국(지역, 부처, 자치기구 등)에서도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 (2) 프랑스의 청년 관련 법률 현황

프랑스에는 청년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몇몇 부처에서 마련된 청년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이 있다. 부처별 청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청년 보호, 사회적 포용, 직업 통합 및 훈련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청년 관련 법안이나 조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각 부처별 청년과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문제 및 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는 ‘가족 및 사회 대책 규정(Family and Social Action Code)’을 통해 부처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청년과 교육 및 보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 수당 및 사회적 대책(가족 협회, 가족 복지 수당, 교육 및 가족 상담, 청년 돌봄 시설, 통합 방안, 부처 차원에서 개발된 통합을 위한 계획, 어려움에 처한 청년 지원 기금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보건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법」에서는 청년들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은 아동이 어린 나이일 때부터 시작되어 학령기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여 진정한 보건의 반영된 교육 경로를 구축하도록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의 「교육법(Education Code)」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한 데 모은 것으로, 본 법안에서는 교육, 교육 행정 및 교육 기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담당 부처(Ministry in charge of youth)에서는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거나 학교 과정 밖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돌봄 시설 관련 규정을 담당한다. ‘가족



및 사회 대책 규정'에 포함된 다수의 법령, 회람 및 명령 등에서도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미성년자 및 청년을 위한 돌봄 시설의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카우트 활동의 관리, 특정 신체활동 관리 및 조직, 방과후 활동 관리, 미성년자 수용 전에 대한 선언 등과 같은 규정이 있다(EACEA 홈페이지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12-national-youth-law-france>에서 2018년 10월 8일 인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산하의 법안은 청년, 특히 미성년자 보호, 청소년 비행 방지 및 청년 범죄자들의 사회 통합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노동부(Ministry in charge of labour)에서는 직업 훈련, 고용 및 사회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자격 취득, 교육 및 진로 전망을 제공하도록 한다.

### (3) 프랑스의 주요 청년정책 내용

프랑스의 청년 우선 지원 계획은 5가지 주요 기조인 ① 청년들의 사회적 권한 접근 보장을 위한 일반 법안의 중요성 부각, ② 청년들의 자립 촉진, ③ 불평등과 차별 타파, ④ 청년들의 공공 토론 참여 활성화, ⑤ 각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우선 방안 실시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청년 최우선 계획은 13가지 목표는 47개 과제로 세분화된다(〈표 II-15〉 참조).

청년 최우선 계획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목표 5인 '청년들의 고용 접근성 강화'에서는 16~25세(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30세까지)의 청년 중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미래를 위한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 정책의 중점 대상인 도심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목표 7은 불우한 환경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 수용자들의 재활 및 갱생을 목표로 한다. 또한, 목표 10에서는 이동할 수 없는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이동성에 대한 접근이 전무하거나 혹은 매우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표 II-15 프랑스의 청년 우선 지원 계획의 13가지 목표

|                          |                                                         |
|--------------------------|---------------------------------------------------------|
| 청년<br>우선 지원<br>계획의<br>목표 | 목표 1.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공공 정보, 지원 및 자문 서비스 제공           |
|                          | 목표 2. 학업중단에 대처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증진                     |
|                          | 목표 3. 청년 보건 증진과 예방 조치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강화                  |
|                          | 목표 4.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접근 촉진                                 |
|                          | 목표 5.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접근 장려                                 |
|                          | 목표 6. 국민의 사회 및 고용 통합을 위한 통로 확보                          |
|                          | 목표 7. 수감되거나 법적 조치를 받는 청년을 위한 재활 기회 확대                   |
|                          | 목표 8. 청년들의 스포츠, 예술, 문화 및 양질의 오디오-비디오 및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 강화 |
|                          | 목표 9. 청년들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 및 새로운 인터넷 직업에 대한 접근성 확대           |
|                          | 목표 10. 청년의 유럽 및 국제적인 이동성 강화 및 다양화                       |
|                          | 목표 11.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 강화 및 개선                       |
|                          | 목표 12. 청년들의 공공 부문에서의 대표성 강화                             |
|                          | 목표 13. 기관과 청년 간의 연계 강화 및 차별 타파                          |

\* 출처: Janaína Paisley(2016).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FRANCE. pp.21-22의 본문 내용을 표로 재구성. COUNCIL OF EUROPE EUROPEAN UNION 홈페이지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france>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프랑스의 청년정책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는 교육과 고용 부문으로, 해당 영역은 프랑스 청년들의 사회적 통합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지속적인 학교 불평등이 실업률 격차로 이어져 고등 교육을 받은 경우 실업률이 10% 수준이었으나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실업률은 37%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11만 명의 청년들이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15~29세 사이의 배우지도, 일하지도, 훈련을 받지도 않는 청년 (NEETs)의 비율이 평균 14.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프랑스 국가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학교 간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교육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에 대한 기회를 강화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2013년부터 청년들(NEETs 포함)의 고용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 우선 지원 계획에서 파생된 몇몇 행동 계획들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정부에서 도입하고 고용담당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보장제(Garantie Jeunes, Youth Guarantee)’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다. 이 제도는 16~25세 사이의 청년들 중 자격 요건을 거의 또는 전혀 갖추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지도, 일하지도 않는 상태(NEETs)로 소득이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최소 수입) 제한 수준인 €483를 넘지 않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청년들은 현지 기관에서 사회 및 직업적 통합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몇 개월에 걸쳐 일괄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후 기업에서 정해진 기간 근무(인턴십, 도제 등)를 하고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매월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세대 계약(Contrats de Génération, Generation Contracts)’제도를 통해 특정 연령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령 연령층 직원과 같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원 수 300명 이하의 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청년들을 기한 제한없이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측면의 제도와 더불어 청년층의 건강관리 및 주거, 참여와 관련한 정책도 마련되었다. 주거 정책 중의 하나인 ‘학생 임대 보증금 제도(Caution locative étudiant, Student Rent Deposit Scheme)’는 28세 이하의 학생뿐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박사 과정 혹은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외국 학생들 중 소득이 있으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 3) 핀란드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sup>11)</sup>

#### (1) 핀란드 청년정책의 배경 및 추진체계

핀란드에서도 경기 하락의 영향이 청년층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은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핀란드 통계청(The Statistics Finland)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2014년 동안 소득을 기반으로 경제 상황을 측정한 결과, 다른 연령대 대비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핀란드에서는 청년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기본법(Youth Act, Nuorisolaki)」을 제정하였다. 「청년기본법」은 핀란드의 청년 사업 및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최초의 국가 법안으로, 청년 사업과 정책의 목표 및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청년정책과 사업은 ① 청년들의 성장과 독립 지원, ② 청년의 적극적인 시민 및 사회적 권한 강화 촉진, ③ 청년의 성장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핀란드 「청년기본법」의 시행은 공동체, 연대, 평등 및 공평, 다문화 및 국제주의, 건강한 삶과 생활 스타일 및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등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으나 청년 관련 분야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법에서 규정한 연령대 내에서 유동적으로 정책대상 집단을 정할 수 있다. 일부 법안들에서도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그 개념의 유동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는 반면, 18~20세는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아동수당은 17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핀란드 국가통계 및 프로그램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책목표 집단은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은 일반적으로 15~24세인 청년을, 저소득 청년을

---

11) 핀란드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은 Karla Malm(2016)의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FINLAND 내용을 일부 발췌·요약하여 정리함.

위한 중점적인 서비스는 30세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문화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기술 프로그램의 경우, 20~29세 사이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핀란드에서 청년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교육문화부로, 청년정책과 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개발 및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4년마다 청년정책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포괄적인 아동 및 청년정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국가, 지역 및 현지 차원에서 다수의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문화부에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청년정책 및 사업은 지역행정부(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에서 담당하는데, 교육문화부에서 주요 담당 부서와 함께 이들 지역적 서비스에 대한 수행 목표를 결정한다. 교육문화부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청년정책의 조율을 담당하는 한편, 지역행정부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청년정책 및 사업은 지방정부의 책무 중 하나이며, 청년 사업의 시행은 지방 정부와 청년 협회, 기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 (2) 핀란드의 청년 관련 법률 현황

핀란드의 「청년기본법」은 2006년 3월 1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청년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정부령(Government Decree on Youth Work and Policy)으로 보완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년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안에서도 청년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청년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에는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 Lastensuojelulaki)」 및 「기본교육법(Basic Education Act, Perusopetuslaki)」 등이 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항들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명시되어 있어 국가 청년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문화부, 지역행정부, 청년 문제에 대한 자문 위원회와 평가 및 보조금 위원회 등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청년 정책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 부문의 정부 지원(government transfer)과 국가 보조금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기구와 청년 협회 및 기타 청년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 간의 협업과 방문지원 사업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3) 핀란드의 주요 청년정책 내용

#### ① 아동 및 청년 정책 프로그램

「청년기본법」에 따라 핀란드 정부에서는 4년마다 청년정책 개발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 및 청년 정책 프로그램(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Lapsi ja nuorisopolitiikan kehittämisohjelma)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 및 청년 정책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와 사회적 통합 촉진, 차별 없는 대우 강화, 아동 및 청년의 일상생활 관리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같은 핵심 사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9가지 전략적 목표(㉠ 적극적인 시민 활동, ㉡ 평등한 기회, ㉢ 고용, ㉣ 차별 금지, ㉤ 성 및 평등한 권리, ㉥ 독립적인 삶, ㉦ 양질의 교육, ㉧ 보건, ㉨ 역량 및 협업)과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대책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과 청년의 평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29세 이하의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양한 성별 및 연령층(0~6세, 7~12세, 13~17세, 18~24세, 25~29세)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동 및 청년 중 소수 집단을 대변하는 특수 집단에 대한 평등 및 차별 금지 지원도 전략적인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는데, 이러한 대상 집단에는 이민자, 로마인, 원주민, 장애 아동과 청년, 다문화 가정 및 성적 소수자 가정 아동 등이 포함된다.

## ② 청년 보장제

2013년부터 시행된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 Nuorisotakuu)’는 25세 미만의 모든 청년과 최근에 졸업한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 직업 훈련 공간, 기타 교육 장소, 재활 시설 등을 제공한다(핀란드 청년 보장제 홈페이지 <https://nuorisotakuu.fi/tietoa-nuorisotakuusta>에서 2018년 10월 5일 인출).

청년 보장제는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다양한 지부 및 행정 기관 간의 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 보장제를 이끄는 핵심 부처는 고용경제부, 교육문화부, 사회 문제 및 보건부, 재무부 등이 있다. 청년 보장제는 민·관 및 시민 간의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되며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다.

표 II-16 핀란드의 청년보장제 내용

|                     |                                                                                                                                                                                                                                                                                                                                                                                                                                                                                |
|---------------------|--------------------------------------------------------------------------------------------------------------------------------------------------------------------------------------------------------------------------------------------------------------------------------------------------------------------------------------------------------------------------------------------------------------------------------------------------------------------------------|
| 핀란드의<br>청년보장제<br>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보장제를 업그레이드 하여 단일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하며 청년 지원 노력 강화</li> <li>• 공공, 민간 및 제 3자 기관 간의 협력 강화</li> <li>• 청년 보장제의 요소들을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청년 보장 의 우수 사례 및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함.</li> <li>• 모든 학교 졸업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보장</li> <li>• 청년에 대한 사회 및 건강관리,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재활 기회 보장</li> <li>• 구직 활동 강화 및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Sanssi 카드(30세 이하 청년 실업자를 증명하는 카드로, 산시 카드를 소지한 구직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인센티브 지급)와 청년들을 위한 급여 보조금 개발</li> </ul> |
|---------------------|--------------------------------------------------------------------------------------------------------------------------------------------------------------------------------------------------------------------------------------------------------------------------------------------------------------------------------------------------------------------------------------------------------------------------------------------------------------------------------|

\* 출처: Karla Malm(2016).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FINLAND. p.15의 본문 내용을 표로 재구성. COUNCIL OF EUROPE EUROPEAN UNION 홈페이지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finland>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본 제도는 청년들의 생활관리 기술, 배움의 과정 및 취업 가능성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핀란드에서는 청년 보장제를 통해 일이나 직업 훈련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직업을 장려하고 전문기술을 향상시키

도록 한다. 또한, 청년들의 자립 기회를 증진하고 강화하고자 한다(핀란드 청년 보장제 홈페이지 <https://nuorisotakuu.fi/tietoa-nuorisotakuusta>에서 2018년 10월 5일 인출). 이와 더불어 공공, 민간 및 제 3자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청년 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들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보장제 요소들을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우수 사례를 보급하고 있다(〈표 II-16〉 참조).

#### 4) 시사점

일본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생애주기적 접근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발달단계별 특성과 요구에 맞게 연결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아동·청년비전’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유해환경 개선과 더불어 고용 및 자립 등의 영역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청년무직자나 은둔형 외톨이, 등교거부, 따돌림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청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대략 16~25세를 청년으로 보았으나 청년의 교육 기간 및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연장되면서 30세까지 청년으로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청년에 대한 단일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청년위원회를 통해 ‘청년 최우선 계획’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고용과 교육, 주거, 건강, 문화 및 여가, 시민권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문화부가 청년정책과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지역행정부에서는 지역별 청년정책과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아동복지법」 등 일부 법안들에서 아동과 청년의 정책대상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책적 지원의 특성 또는 목적에 따라 청년에 해당되는 연령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개념에서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핀란드에서는 유럽 연합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보장제를 각 나라의 상황과 청년의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청년기본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대상 중에 청년층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처 및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주로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어 일본이나 프랑스, 핀란드처럼 청년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청년 우선 지원 계획’이라는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및 지역차원의 청년정책과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고용이나 주거, 건강, 참여 등에 다양한 영역에 따라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들을 조율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청년문제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청년기본법에 대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최근 국회의 청년미래특위에서 청년기본법안에 대해 여야 간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내용에는 핀란드처럼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주거, 신체·정신적 건강, 참여, 사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

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청년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 ○ — 제3장 2018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 2. 조사 개요
- 3. 2018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실태
- 4. 2018년 부가설문조사 : 신규  
졸업(예정)자 실태



##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본 연구는 2016년 1차년도 연구부터 청년 사회·경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세부핵심지표를 설정하여 설문조사와 2차 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실태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17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는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의 7가지 대분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위 소분류로는 인구와 가족에는 인구, 가족을, 교육과 훈련에는 교육, 훈련·평생학습을, 경제와 고용에는 직업, 소득 및 소비를, 주거에는 주거현황과 주거여건을, 건강에는 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를, 문화와 가치관에는 문화 및 여가, 가치관을, 관계와 참여에는 관계, 참여를 위계적인 분류체계로 구축하였다(김기현, 이운주 외, 2017). 이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2017년도에 통계청 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처음으로 본 핵심지표 틀에 따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금년도인 2018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핵심지표도 작년도 승인통계를 기반으로 연도별 비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핵심지표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표는 전년도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2018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를 위한 핵심지표의 분류 틀을 보여주고 있다.

12) 이 장의 1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나머지 절들은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으로 정리하였음

표 III-1 2017 ~ 2018년도 청년 사회·경제 핵심지표 체계

| 대분류     | 소분류       |
|---------|-----------|
| 인구와 가족  | 인구        |
|         | 가족        |
| 교육과 훈련  | 교육        |
|         | 훈련·평생학습   |
| 경제와 고용  | 직업        |
|         | 소득 및 소비   |
| 주거      | 주거현황      |
|         | 주거여건      |
| 건강      | 신체 및 정신건강 |
|         | 의료        |
| 문화와 가치관 | 문화 및 여가   |
|         | 가치관       |
| 관계와 참여  | 관계        |
|         | 참여        |

\* 출처: 김기현, 이윤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p.40의 표를 수정함.

핵심지표 중 첫 번째 대분류인 ‘인구와 가족’의 세부핵심지표 체계는 설문조사 지표와 2차 자료 분석 지표를 포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인구 소분류에 10개, 가족 소분류에 9개의 세부 핵심지표로 구성된다. 이 중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하는 세부지표는 인구에 6개, 가족에 5개 지표로 되어 있다.

표 III-2 청년 사회·경제실태 인구와 가족 관련 핵심지표 체계

| 대분류             | 소분류        | 핵심지표                       | 출처            |
|-----------------|------------|----------------------------|---------------|
| 1.<br>인구와<br>가족 | 1-1.<br>인구 | 1-1-1. 청년층 인구수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                 |            | 1-1-2.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                 |            | 1-1-3. 청년층 다문화 인구          | 체류외국인통계 (통계청) |
|                 |            | 1-1-4. 청년층 인구 전망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                 |            | 1-1-5. 청년 연령규정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1-1-6. 적정 독립 시기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1-1-7. 적정 결혼 시기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1-1-8. 적정 출산 시기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1-1-9. 해외이주 의사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1-1-10. 해외이주 고려 이유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1-2.<br>가족 | 1-2-1. 혼인율                 |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                 |            | 1-2-2. 초혼연령                |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                 |            | 1-2-3. 결혼준비 경험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1-2-4. 결혼 망설임 여부 및 이유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            | 1-2-5. 출생아 수 및 출산율         |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                 |            | 1-2-6. 출산연령                |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                 |            | 1-2-7. 맞벌이 여부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1-2-8. 자녀 유무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1-2-9. 자녀를 가질 계획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출처: 김기현, 이윤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p.41의 표를 수정함.

두 번째 대분류인 ‘교육과 훈련’의 세부핵심지표 체계도 설문조사 지표와 2차 자료 분석 지표를 포함하여 다음 표와 같이 교육 소분류에 11개, 훈련·평생학습 소분류에 6개의 세부 핵심지표로 구분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세부지표는 교육에 4개, 훈련·평생학습에 2개로 구성된다.

표 III-3 청년 사회·경제실태 교육과 훈련 관련 핵심지표 체계

| 대분류       | 소분류           | 핵심지표<br>(*는 2018년 신규)              | 출처                           |
|-----------|---------------|------------------------------------|------------------------------|
| 2. 교육과 훈련 | 2-1. 교육       | 2-1-1. 대학등록금                       | 대학알리미                        |
|           |               | 2-1-2.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 대학알리미                        |
|           |               | 2-1-3. 장학금 규모                      | 대학알리미                        |
|           |               | 2-1-4.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
|           |               | 2-1-5. 대출자 휴학 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
|           |               | 2-1-6. 대학생 학업중단율                   | 교육통계연보<br>(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           |               | 2-1-7. 전공과 직업 일치도*                 | 사회조사(통계청)                    |
|           |               | 2-1-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2-1-8.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br>(신규문항-연구진개발) |
|           |               | 2-1-9.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2-1-10. 진학률                        | 교육통계연보<br>(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           |               | 2-1-11. 신규졸업(예정)자 현황*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br>(신규문항-연구진개발) |
|           | 2-2. 훈련·평생 학습 | 2-2-1.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 평생학습실태조사<br>(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           |               | 2-2-2.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 평생학습실태조사<br>(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           |               | 2-2-3.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 평생학습실태조사<br>(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           |               | 2-2-4. 직업훈련 참여율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
|           |               | 2-2-5. 취업 준비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2-2-6.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출처: 김기현, 이윤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p.42의 표를 수정함.



표 III-4 청년 사회·경제실태 경제와 고용 관련 지표체계

| 대분류             | 소분류                | 핵심지표                                | 출처                                          |
|-----------------|--------------------|-------------------------------------|---------------------------------------------|
| 3.<br>경제와<br>고용 | 3-1.<br>직업         | 3-1-1. 경제활동 참여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                 |                    | 3-1-2.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                 |                    | 3-1-3.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                 |                    | 3-1-4. 신설법인 비율                      | 신설법인동향 (통계청)                                |
|                 |                    | 3-1-5.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                | 기업생멸통계 (통계청)                                |
|                 |                    | 3-1-6. 니트(NEET)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br>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3-1-7. 비정규직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                 |                    | 3-1-8. 신규 채용률                       |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br>(한국경영자총연합회)                 |
|                 |                    | 3-1-9. 청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3-1-10.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br>비취업 이유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3-1-11. 청년 창업 의향 여부 및 경험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3-1-12. 청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br>는 대우 여부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3-1-13. 청년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3-2.<br>소득 및<br>소비 | 3-2-1. 청년 소득                        | 고용노동통계 (고용노동부)                              |
|                 |                    | 3-2-2. 청년 소비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                 |                    |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 고용노동통계 (고용노동부)                              |
|                 |                    |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br>상대임금      | 고용노동통계 (고용노동부)                              |
|                 |                    | 3-2-5. 청년 부채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                 |                    | 3-2-6. 최저임금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3-2-7. 생활비 및 가족 지원 비율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3-2-8. 채무 여부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3-2-9. 물질적 박탈감 경험여부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br>(원출처: EU Youth report 2015) |

\* 출처: 김기현, 이윤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p.43의 표를 수정함.

대분류 세 번째인 ‘경제와 고용’의 세부핵심지표는 설문조사 지표와 2차 자료 분석 지표를 포함하여 직업 소분류에 13개, 소득 및 소비 소분류에 9개로 구성된다. 이 중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 수집하는 지표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직업에 5개, 소득 및 소비에 4개 지표이다.

표 Ⅲ-5 청년 사회·경제실태 주거 관련 지표체계

| 대분류   | 소분류        | 핵심지표                   | 출처              |
|-------|------------|------------------------|-----------------|
| 4. 주거 | 4-1. 주거 현황 | 4-1-1. 청년층 주거형태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       |            | 4-1-2. 청년층 실주거비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       |            | 4-1-3. 청년 가구 비율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       |            |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       |            | 4-1-5. 부모 동거 여부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4-1-6. 미혼 독립 거주 여부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4-1-7. 1인 가구 주거 형태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4-2. 주거 여건 |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       |            | 4-2-2.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       |            | 4-2-3. 기숙사 수용률         | 대학알리미           |
|       |            |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4-2-5. 공동주거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4-2-6. 평소 주거 생각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출처: 김기현, 이윤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p.44의 표를 수정함.

네 번째 대분류인 ‘주거’의 세부핵심지표는 설문조사와 2차 자료 분석의 지표들을 포함하여 주거현황 소분류에 7개, 주거여건 소분류에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설문조사로 수집되는 세부지표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주거현황에 3개, 주거여건에 3개 지표로 되어 있다.

대분류 다섯 번째 ‘건강’에 대한 세부핵심지표의 구성은 신체 및 정신건강 소분류에 10개, 의료 소분류에 6개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는 지표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4개, 의료에 4개 지표로 구성된다.

표 III-6 청년 사회·경제실태 건강 관련 지표체계

| 대분류   | 소분류             | 핵심지표<br>(*는 2018년 신규) | 출처                                          |
|-------|-----------------|-----------------------|---------------------------------------------|
| 5. 건강 | 5-1. 신체 및 정신 건강 |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br>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5-1-2. 비만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
|       |                 | 5-1-3. 스트레스           |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
|       |                 | 5-1-4. 우울증            |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
|       |                 | 5-1-5. 자살률            |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       |                 | 5-1-6. 흡연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
|       |                 | 5-1-7. 음주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
|       |                 | 5-1-8. 주관적 체형 인식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5-1-9.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br>(신규문항-연구진개발)                |
|       |                 | 5-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br>(원출처: EU Youth report 2015) |
|       | 5-2. 의료         | 5-2-1. 청년 병원 이용       |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
|       |                 |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 한국의료패널<br>(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
|       |                 | 5-2-3. 건강검진 수검 여부*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br>(신규문항-연구진개발)                |
|       |                 | 5-2-4.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br>(신규문항-연구진개발)                |
|       |                 | 5-2-5. 성형수술 여부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5-2-6. 성형수술 목적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출처: 김기현, 이윤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p.45의 표를 수정함.

여섯 번째 대분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세부핵심지표는 다음 표와 같이 2차 자료 분석 지표로만 구성된 문화 및 여가 소분류에 5개 지표, 설문조사 수집 자료와 2차 자료가 병행되어 구성된 가치관 소분류의 5개로 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설문조사로 수집되는 지표는 가치관에 2개의 세부지표가 있다.

표 III-7 청년 사회·경제실태 문화와 가치관 관련 지표체계

| 대분류              | 소분류                | 핵심지표<br>(*는 2018년 신규) | 출처                |
|------------------|--------------------|-----------------------|-------------------|
| 6.<br>문화와<br>가치관 | 6-1.<br>문화 및<br>여가 |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유형*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
|                  |                    | 6-1-2.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
|                  |                    |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
|                  |                    | 6-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
|                  |                    | 6-1-5. 독서율            |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                  | 6-2.<br>가치관        | 6-2-1. 주관적 행복감        |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
|                  |                    | 6-2-2. 삶의 만족도         |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
|                  |                    | 6-2-3. 주관적 계층의식       |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
|                  |                    | 6-2-4. 가치 항목별 선호도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6-2-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출처: 김기현, 이윤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p.46의 표를 수정함.

일곱 번째 대분류인 ‘관계와 참여’에 대한 세부핵심지표 역시 설문조사에 의한 수집 지표와 2차 자료 분석 지표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관계 소분류에 5개 지표, 참여 소분류에 7개 지표로 되어 있다. 세부핵심지표 중에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로 수집되는 세부지표는 관계에 2개, 참여에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8 청년 사회·경제실태 관계와 참여 관련 지표체계

| 대분류             | 소분류        | 핵심지표<br>(*는 2018년 신규) | 출처                             |
|-----------------|------------|-----------------------|--------------------------------|
| 7.<br>관계와<br>참여 | 7-1.<br>관계 | 7-1-1. 사회적 관계망        | 사회조사 (통계청)                     |
|                 |            | 7-1-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사회조사 (통계청)                     |
|                 |            | 7-1-3. 가족관계 만족도       | 사회조사 (통계청)                     |
|                 |            | 7-1-4. 친한 친구 수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7-1-5. 세대갈등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7-2.<br>참여 | 7-2-1. 자원봉사 참여        | 사회조사 (통계청)                     |
|                 |            | 7-2-2. 기부활동           | 사회조사 (통계청)                     |
|                 |            | 7-2-3. 단체참여           | 사회조사 (통계청)                     |
|                 |            | 7-2-4. 투표율            |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 한국종합사회조사<br>(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
|                 |            | 7-2-6. 의견 표명 행동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            | 7-2-7. 정치적 효능감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출처: 김기현, 이윤주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p.46의 표를 수정함.

이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가지의 대분류에 각 2개씩 하위분류를 하여 총 14개의 소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소분류에 대한 세부핵심지표들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 2. 조사 개요

###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5~39세 일반국민이다. 이는 만19~39세를 대상으로 했던 2013년, 2015년의 선행 조사(배상률, 황여정 외, 2013; 김기현, 2015)는 물론, 만15세부터로 조사대상의 폭을 확대한 2016년 이후 조사와의 연속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정의를 따른 것이다. 또한, 전년 대비 300명 늘어난 3,000명으로 조사규모를 늘려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하고자 하였다.

### 2) 조사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본조사 이전 사전 점검 차원인 예비조사와 조사표 및 표본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 하였으며 만15~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용 설문 20부와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용 설문 134부 등 총 154부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문항과 사용된 용어의 난이도와 편집 가독성, 대략적인 조사 응답 시간과 그 외 조사 진행 관련 전반에 걸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7년 7월에 국가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어 국가통계로서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지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18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신규 졸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문항과 기존 문항의 질문 및 보기 문구 수정, 청년의 경제 현황이나 의식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 삭제 등으로 조사표가 변경되어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를 수행하였다. 통계법 개정으로 2018년 2월부터 통계청에서 통계

작성 시 행정자료를 우선 활용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및 청년용 조사표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여부 판단 의뢰를 요청하였다(2018. 7. 4.). 그 결과, 조사항목들이 개인의 주관적 사항을 묻고 있거나 다수의 행정자료가 필요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유로 ‘행정자료 활용불가’라는 판단 결과통보서가 회신되었다(2018. 7. 11).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①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② 통계작성 기획서, ③ 조사지침서, ④ 조사표 2종(중·고등학생용, 청년용), ⑤ 변경문항 세부 내역(중·고등학생용, 청년용), ⑥ 통계결과 표 서식, ⑦ 통계 관련 용어 및 해설자료, ⑧ 표본설계서 및 표본설계요약서, ⑨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공문 및 통보서 등 총 9가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2018년 7월 17일 통계청 통계조정과에 통계작성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후에 청년용 조사표 중 전공계열 분류는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영역) 준수 등의 보완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26일에 변경승인이 완료되었다.

### 3)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면접하는 1:1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① 조사 취지 및 목적 설명과 조사 수락 요청, ② 조사대상 적격 연령대 가구원 확인, ③ 조사 대상자 재택 시 개별면접 진행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단, 조사대상 연령대인 만15-39세 가구원은 주간 시간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대상자와의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 한하여 일부 가구원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투입 예정 조사원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2018년 7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진행하였고, 최초 집체교육 외에 중도 포기 인원을 대체할 조사원이나 진행이 미흡한 지역에 투입할

추가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교육이 실사 기간 동안 추가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사전에 준비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조사지침서>에 준해 다음과 같이 3개 파트로 나누어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조사개요> 부분으로 본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 적격 가구 및 응답자에 대한 기준 등으로 진행 되었다.

두 번째 파트는 현장조사의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교육으로 주요용어 정의, 현장조사 단계별 접근방법, 적격대상자 선정 절차, 조사원의 역할 및 윤리, 면접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세 번째 파트는 <조사표 작성방법>으로 조사표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문항별 의미 및 용어정의, 보기문항에 대한 설명, 질문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현장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교육을 종료하였다.

#### 4) 조사 기간

본 조사는 2018년 7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다.

#### 5) 표본 설계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청년이며 아직 청년기본법 등 연령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하는 만15세~만39세의 일반 국민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이며,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 시행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으로 정의하



였다. 본 정의에 따른 표집틀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설계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 추출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2018년 표본설계에서는 총 3단계의 층화 과정을 거쳤다. 먼저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단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단 세부 층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지역적으로도 넓어서 표본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각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3단 세부 층화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통계 작성 단위인 6개 권역별로 조사 결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를 가지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일정 크기 이상의 유효한 표본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6개 권역별 표본 조사구를 적정히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도(precision) 확보를 위한 표본 규모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배분 방식은 층별 조사대상자 수에 비례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권역별 유효표본 과대·과소 표집을 방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권역별 추정 결과의 통계적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최종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 대상자 추출 시에는 각 표본 조사구별 10명의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규정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별 표본가구 당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의 평균을 고려하여 표본 조사구에서 추출되는 원표본 가구 수를 결정하였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지역에서의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은 0.91명이고 읍·면지역의 경우 0.68명이다. 최종적으로 동부의 표본 조사구에서는 11가구, 읍·면부 표본 조사구에서는 15가구를 조사대상 원표본 가구로 규정하였으며 이들 가구 내에서 총 10명의 조사대상 적격 연령대 가구원을 조사하도록 설계하였다.

### 3. 2018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1) 인구와 가족

##### 1-1-1. 청년층 인구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층(15~29세) 인구수는 2018년 현재 976만 명이며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인구는 1,720만 명 가량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저출산 경향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다만, 20대 청년층은 2013년 669만 명으로 최저 인원을 기록한 후 다시 반등하여 2018년 현재 695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대 계층)가 유입되면서 20대 청년층의 인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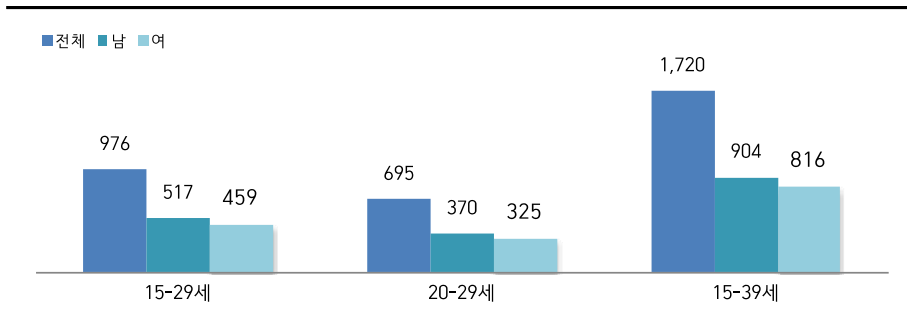


그림 III-1 청년층 인구수(2018년)

표 III-9 연도별 청년층 인구수 추이

(단위: 만 명)

| 연도   | 15-29세 |     |     | 20-29세 |     |     | 15-39세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0 | 1,205  | 621 | 584 | 821    | 422 | 399 | 2,057  | 1,057 | 1,000 |
| 2001 | 1,177  | 608 | 569 | 816    | 421 | 395 | 2,033  | 1,046 | 987   |
| 2002 | 1,147  | 593 | 554 | 808    | 417 | 391 | 2,008  | 1,034 | 974   |
| 2003 | 1,120  | 581 | 540 | 799    | 412 | 386 | 1,983  | 1,023 | 960   |
| 2004 | 1,093  | 568 | 525 | 782    | 405 | 378 | 1,960  | 1,012 | 948   |
| 2005 | 1,071  | 557 | 514 | 763    | 395 | 368 | 1,934  | 1,000 | 934   |
| 2006 | 1,062  | 554 | 508 | 751    | 390 | 362 | 1,921  | 995   | 926   |
| 2007 | 1,058  | 553 | 505 | 740    | 385 | 355 | 1,911  | 991   | 920   |
| 2008 | 1,057  | 553 | 503 | 728    | 379 | 349 | 1,903  | 989   | 914   |
| 2009 | 1,052  | 552 | 500 | 715    | 373 | 342 | 1,885  | 980   | 905   |
| 2010 | 1,040  | 547 | 494 | 697    | 364 | 333 | 1,867  | 972   | 895   |
| 2011 | 1,031  | 543 | 488 | 684    | 359 | 325 | 1,852  | 966   | 886   |
| 2012 | 1,017  | 537 | 480 | 673    | 354 | 319 | 1,832  | 956   | 875   |
| 2013 | 1,006  | 531 | 475 | 669    | 353 | 316 | 1,810  | 945   | 865   |
| 2014 | 1,001  | 529 | 472 | 672    | 356 | 316 | 1,791  | 937   | 854   |
| 2015 | 1,000  | 529 | 471 | 678    | 361 | 317 | 1,777  | 931   | 845   |
| 2016 | 997    | 528 | 470 | 684    | 364 | 320 | 1,763  | 925   | 838   |
| 2017 | 988    | 523 | 465 | 690    | 368 | 322 | 1,744  | 916   | 828   |
| 2018 | 976    | 517 | 459 | 695    | 370 | 325 | 1,720  | 904   | 816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 주: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중위추계(기본추계) 결과임.

### 1-1-2.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청년고용법상 청년층(15~29세)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는 2018년 현재 18.9%이고 20대만으로 제한할 경우 13.5%, 30대를 포함할 경우 33.3%이다. 15-29세 기준 청년층 인구,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인구 모두 2000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를 기준으로 하면 2014년부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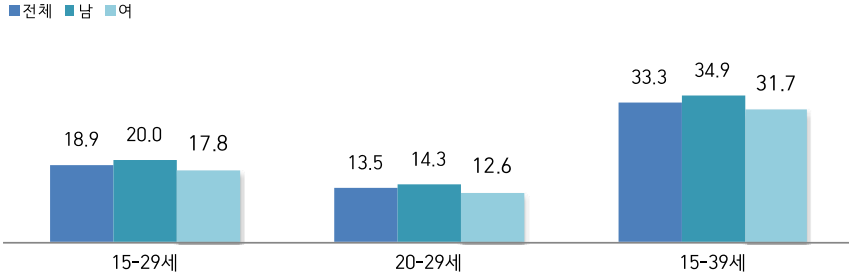


그림 III-2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2018년)

표 III-10 연도별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추이

(단위: %)

| 연도   | 15-29세 |      |      | 20-29세 |      |      | 15-39세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0 | 25.6   | 26.2 | 25.0 | 17.5   | 17.8 | 17.1 | 43.8   | 44.6 | 42.9 |
| 2001 | 24.9   | 25.5 | 24.2 | 17.2   | 17.6 | 16.8 | 42.9   | 43.9 | 42.0 |
| 2002 | 24.1   | 24.7 | 23.4 | 17.0   | 17.4 | 16.5 | 42.1   | 43.1 | 41.2 |
| 2003 | 23.4   | 24.1 | 22.7 | 16.7   | 17.1 | 16.2 | 41.4   | 42.4 | 40.4 |
| 2004 | 22.7   | 23.5 | 22.0 | 16.3   | 16.7 | 15.8 | 40.8   | 41.8 | 39.7 |
| 2005 | 22.2   | 23.0 | 21.5 | 15.8   | 16.3 | 15.4 | 40.1   | 41.2 | 39.0 |
| 2006 | 21.9   | 22.7 | 21.1 | 15.5   | 16.0 | 15.0 | 39.7   | 40.8 | 38.5 |
| 2007 | 21.7   | 22.6 | 20.9 | 15.2   | 15.7 | 14.7 | 39.3   | 40.5 | 38.0 |
| 2008 | 21.5   | 22.4 | 20.6 | 14.8   | 15.4 | 14.3 | 38.8   | 40.1 | 37.5 |
| 2009 | 21.3   | 22.3 | 20.4 | 14.5   | 15.1 | 14.0 | 38.2   | 39.6 | 36.9 |
| 2010 | 21.0   | 22.0 | 20.0 | 14.1   | 14.6 | 13.5 | 37.7   | 39.1 | 36.3 |
| 2011 | 20.6   | 21.7 | 19.6 | 13.7   | 14.3 | 13.1 | 37.1   | 38.5 | 35.6 |
| 2012 | 20.3   | 21.3 | 19.2 | 13.4   | 14.1 | 12.8 | 36.5   | 38.0 | 35.0 |
| 2013 | 19.9   | 21.0 | 18.9 | 13.3   | 14.0 | 12.6 | 35.9   | 37.4 | 34.4 |
| 2014 | 19.7   | 20.8 | 18.7 | 13.2   | 14.0 | 12.5 | 35.3   | 36.8 | 33.8 |
| 2015 | 19.6   | 20.7 | 18.5 | 13.3   | 14.1 | 12.5 | 34.8   | 36.4 | 33.2 |
| 2016 | 19.5   | 20.5 | 18.4 | 13.4   | 14.2 | 12.5 | 34.4   | 36.0 | 32.8 |
| 2017 | 19.2   | 20.3 | 18.1 | 13.4   | 14.3 | 12.6 | 33.9   | 35.5 | 32.3 |
| 2018 | 18.9   | 20.0 | 17.8 | 13.5   | 14.3 | 12.6 | 33.3   | 34.9 | 31.7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 주: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중위추계(기본추계) 결과임.

### 1-1-3. 청년층 다문화 인구

다문화 인구 중 청년층에 포함되는 인구수를 살펴보면,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 전반적으로 모든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체류외국인은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단기체류외국인의 합으로, 기준시점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이다(법무부, 2017.12.).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층(15~29세)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수를 보면, 2012년 약 47만 명에서 2017년 약 6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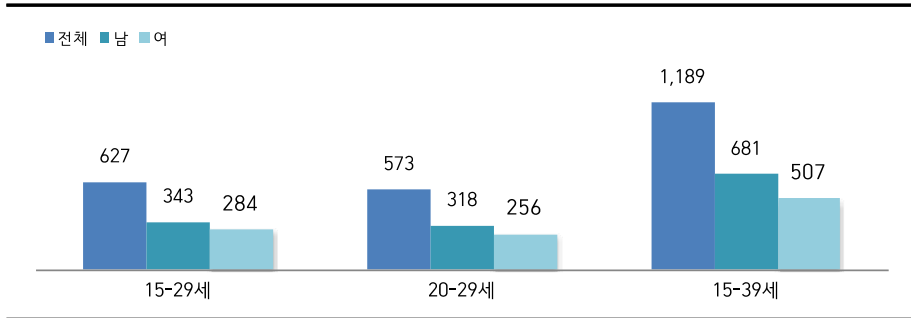


그림 III-3 체류외국인 수(2017년)

표 III-11 연도별 체류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 15-29세 |     |     | 20-29세 |     |     | 15-39세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12 | 470    | 259 | 211 | 439    | 244 | 196 | 813    | 473 | 340 |
| 2013 | 499    | 276 | 223 | 467    | 261 | 205 | 877    | 513 | 363 |
| 2014 | 549    | 306 | 244 | 512    | 288 | 224 | 985    | 576 | 409 |
| 2015 | 566    | 312 | 253 | 526    | 294 | 232 | 1,028  | 598 | 430 |
| 2016 | 599    | 326 | 273 | 552    | 304 | 248 | 1,105  | 634 | 471 |
| 2017 | 627    | 343 | 284 | 573    | 318 | 256 | 1,189  | 681 | 507 |

\* 출처: 법무부(각 연도). 체류외국인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 등록)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데(법무부, 2017.12.), 15~29세 청년층 등록외국인 수는 2012년 약 34만 명에서 2017년 3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30대를 포함하였을 때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57만 명에서 71만 명으로 늘어나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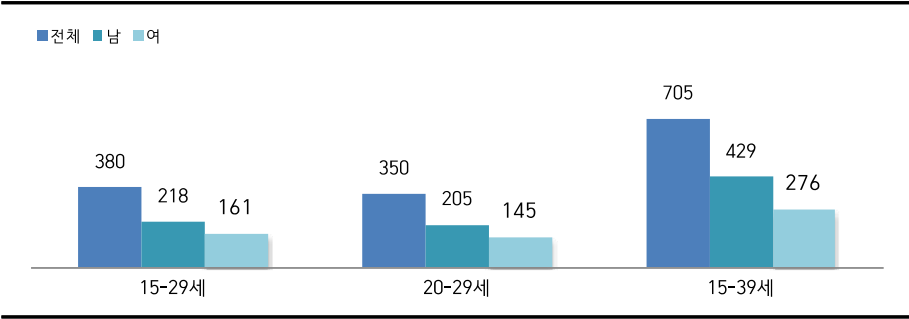


그림 III-4 등록외국인 수(2017년)

표 III-12 연도별 등록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 15-29세 |     |     | 20-29세 |     |     | 15-39세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12 | 336    | 189 | 147 | 320    | 182 | 138 | 574    | 343 | 231 |
| 2013 | 352    | 202 | 151 | 335    | 194 | 141 | 615    | 374 | 241 |
| 2014 | 365    | 212 | 153 | 346    | 204 | 142 | 655    | 404 | 251 |
| 2015 | 370    | 214 | 155 | 348    | 205 | 143 | 674    | 415 | 260 |
| 2016 | 377    | 217 | 160 | 351    | 206 | 145 | 589    | 421 | 268 |
| 2017 | 380    | 218 | 161 | 350    | 205 | 145 | 705    | 429 | 276 |

\* 출처: 법무부(각 연도). 체류외국인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8&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8&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또한,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으로(법무부, 2017.12.), 15~29세 해당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은 2012년 약 10만 명에서 2017년 1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와 30대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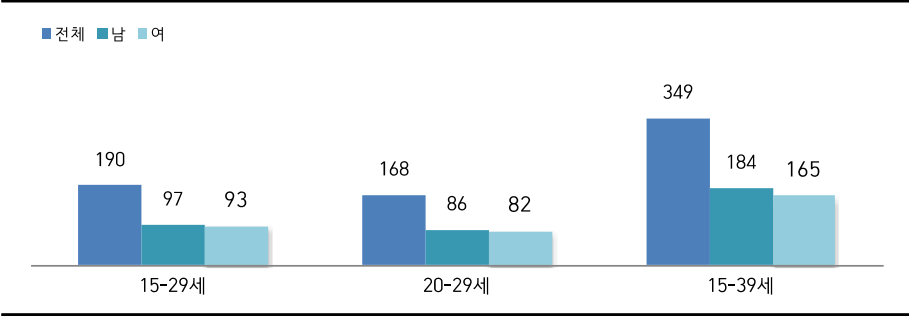


그림 Ⅲ-5 단기체류외국인 수(2017년)

표 Ⅲ-13 연도별 단기체류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 15-29세 |    |    | 20-29세 |    |    | 15-39세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12 | 103    | 56 | 48 | 91     | 49 | 42 | 178    | 98  | 80  |
| 2013 | 105    | 56 | 49 | 92     | 49 | 43 | 184    | 100 | 84  |
| 2014 | 136    | 71 | 65 | 119    | 63 | 57 | 238    | 126 | 112 |
| 2015 | 141    | 73 | 69 | 125    | 64 | 60 | 247    | 130 | 117 |
| 2016 | 164    | 81 | 83 | 144    | 72 | 73 | 292    | 151 | 141 |
| 2017 | 190    | 97 | 93 | 168    | 86 | 82 | 349    | 184 | 165 |

\* 출처: 법무부(각 연도). 체류외국인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3&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3&conn_path=1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배우자(F-2-1, F-5-2, F-6-1~3) 자격을 소지한 자이다(법무부, 2017.12.).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는 2012년 14만 8천여 명에서 15만 5천여 명 가량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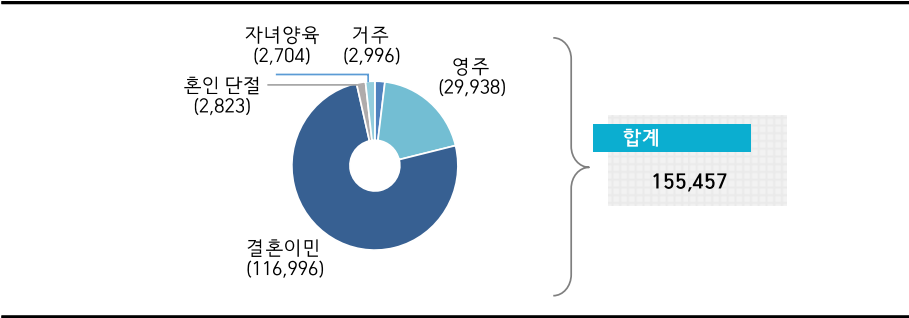


그림 III-6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2017년)

표 III-14 연도별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추이

(단위: 명)

| 연도   | 합계      | 거주(F-2)<br>국민배우자<br>(F-2-1) | 영주(F-5)<br>국민배우자<br>(F-5-2) | 결혼이민(F-6)<br>국민배우자<br>(F-6-1) | 자녀양육<br>(F-6-2) | 혼인단절<br>(F-6-3) |
|------|---------|-----------------------------|-----------------------------|-------------------------------|-----------------|-----------------|
| 2012 | 148,498 | 42,978                      | 18,576                      | 82,605                        | 682             | 3,657           |
| 2013 | 150,865 | 13,385                      | 20,473                      | 112,338                       | 1,081           | 3,588           |
| 2014 | 150,994 | 7,138                       | 23,146                      | 116,071                       | 1,438           | 3,201           |
| 2015 | 151,608 | 5,691                       | 25,432                      | 115,644                       | 1,805           | 3,036           |
| 2016 | 152,374 | 3,503                       | 27,539                      | 116,238                       | 2,216           | 2,878           |
| 2017 | 155,457 | 2,996                       | 29,938                      | 116,996                       | 2,704           | 2,823           |

\* 출처: 법무부(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1-1-4. 청년층 인구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청년고용법 기준인 만15~29세의 인구수는 2018년 976만 명에서 2045년 618만 명으로, 27년 후 청년층은 약 350만 명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역시 같은 기간 1,720만 명에서 1,090만 명으로 약 63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인구 구조 변동에 따라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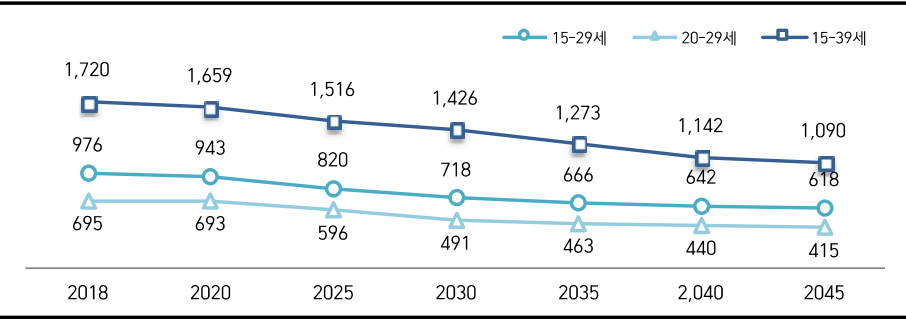


그림 III-7 청년층 인구 전망(2018~2045년)

표 III-15 연도별 청년층 인구 전망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 15-29세 |     |     | 20-29세 |     |     | 15-39세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18 | 976    | 517 | 459 | 695    | 370 | 325 | 1,720  | 904 | 816 |
| 2020 | 943    | 498 | 445 | 693    | 368 | 325 | 1,659  | 874 | 785 |
| 2025 | 820    | 429 | 392 | 596    | 313 | 283 | 1,516  | 800 | 716 |
| 2030 | 718    | 373 | 345 | 491    | 256 | 235 | 1,426  | 750 | 676 |
| 2035 | 666    | 344 | 322 | 463    | 240 | 223 | 1,273  | 664 | 609 |
| 2040 | 642    | 330 | 311 | 440    | 227 | 213 | 1,142  | 592 | 549 |
| 2045 | 618    | 318 | 300 | 415    | 214 | 201 | 1,090  | 564 | 527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 주: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중위추계(기본추계) 결과임.

### 1-1-5. 청년 연령규정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19세에서 31세 사이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점차 청년의 연령 규정에 대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남녀간,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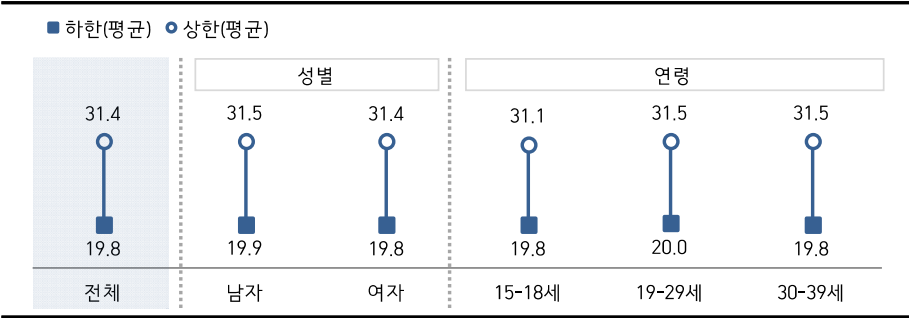


그림 III-8 청년 연령규정(2018년)

표 III-16 연도별 청년 연령규정 추이

(단위: 세)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하한(평균) | 19.3 | 19.4 | 19.3 | 19.4   | 19.4   | 19.3   |
|      | 상한(평균) | 29.5 | 29.7 | 29.3 | 29.5   | 29.2   | 29.8   |
| 2017 | 하한(평균) | 19.4 | 19.4 | 19.4 | 19.4   | 19.5   | 19.3   |
|      | 상한(평균) | 31.2 | 31.3 | 31.1 | 30.5   | 31.0   | 31.7   |
| 2018 | 하한(평균) | 19.8 | 19.9 | 19.8 | 19.8   | 20.0   | 19.8   |
|      | 상한(평균) | 31.4 | 31.5 | 31.4 | 31.1   | 31.5   | 31.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1-6. 적정 독립 시기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는 의견은 2017년 58.9%에서 2018년 46.9%로 12.0%p 감소하였다.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는 응답자에 한 해 적정한 독립 연령을 물어본 결과, 2017년 25.4세에 비해 2018년 27.9세로 약 2세 이상 높아졌다. 즉, 청년들은 가정으로부터의 독립 의향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독립한다 하더라도 독립 시기를 늦추려는 의식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어려움이 겪는 청년층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현상, 2016).

(단위: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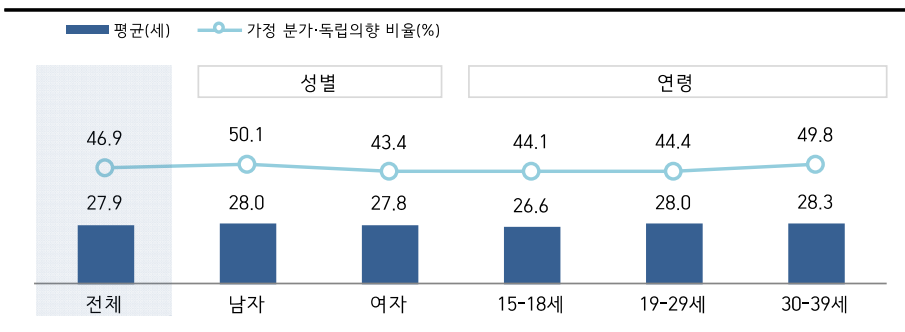


그림 III-9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2018년)

표 III-17 연도별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

(단위: %, 세)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     | 52.4 | 54.6 | 50.0 | 54.3   | 52.2   | 52.0   |
|      | 평균(세) | 26.2 | 26.2 | 26.3 | 24.6   | 26.2   | 26.9   |
| 2017 | %     | 58.9 | 61.5 | 56.0 | 56.6   | 56.1   | 62.4   |
|      | 평균(세) | 25.4 | 25.7 | 25.0 | 23.2   | 25.5   | 25.8   |
| 2018 | %     | 46.9 | 50.1 | 43.4 | 44.1   | 44.4   | 49.8   |
|      | 평균(세) | 27.9 | 28.0 | 27.8 | 26.6   | 28.0   | 28.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에 '독립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1-7. 적정 결혼 시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적정 결혼 시기 및 결혼 의향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30.1세에서 2018년 30.9세로 적정한 결혼 연령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난 3년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이 생각하는 적정 결혼 연령이 여성보다 높은 편이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정한 결혼 연령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56.0%에 비해 2018년에 42.9%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20대 연령층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취업이나 주거, 출산 및 육아 부담 등의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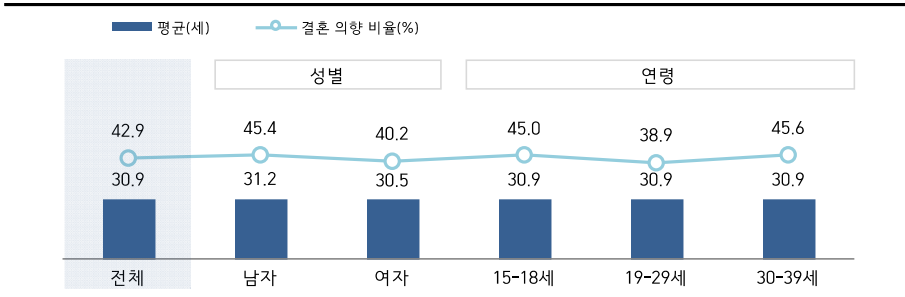


그림 III-10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2018년)

표 III-18 연도별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단위: %, 세)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     | 56.0 | 57.9 | 53.8 | 57.3   | 54.3   | 57.2   |
|      | 평균(세) | 30.1 | 30.5 | 29.7 | 29.4   | 30.1   | 30.4   |
| 2017 | %     | 53.9 | 59.7 | 47.6 | 53.9   | 52.8   | 55.1   |
|      | 평균(세) | 30.2 | 30.5 | 29.8 | 29.0   | 30.2   | 30.5   |
| 2018 | %     | 42.9 | 45.4 | 40.2 | 45.0   | 38.9   | 45.6   |
|      | 평균(세) | 30.9 | 31.2 | 30.5 | 30.9   | 30.9   | 30.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결혼 시기를 묻는 문항에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1-8. 적정 출산 시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출산 의향은 2017년 54.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44.0%로 나타났으며 출산 시기 역시 2017년보다 다소 높아진 32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경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출산 기피 및 첫출산 연령대 상승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출산 의향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출산의향이 가장 낮은 반면 30대의 출산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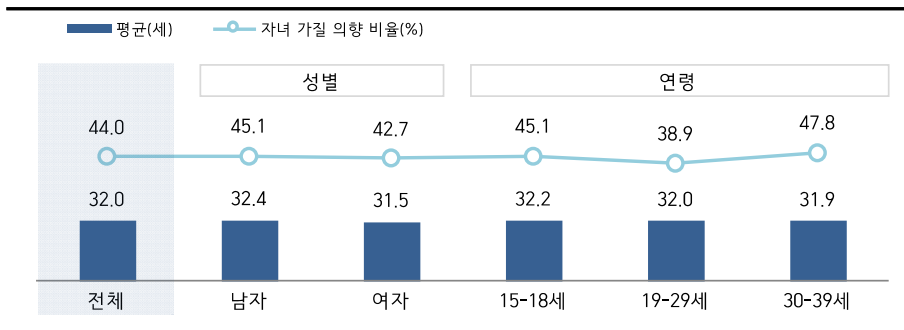


그림 III-11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2018년)

표 III-19 연도별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     | 54.0 | 55.1 | 52.9 | 54.1   | 51.4   | 56.6   |
|      | 평균(세) | 31.2 | 31.7 | 30.6 | 30.9   | 31.3   | 31.3   |
| 2017 | %     | 54.1 | 59.4 | 48.2 | 52.3   | 51.9   | 56.8   |
|      | 평균(세) | 31.3 | 31.7 | 30.8 | 30.8   | 31.4   | 31.4   |
| 2018 | %     | 44.0 | 45.1 | 42.7 | 45.1   | 38.9   | 47.8   |
|      | 평균(세) | 32.0 | 32.4 | 31.5 | 32.2   | 32.0   | 31.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자녀를 가질 필요성에 '자녀를 가져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1-9. 해외이주 의사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해외이주 의사는 2017년 36.0%에서 2018년 14.1%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해외 이주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나 적응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해외이주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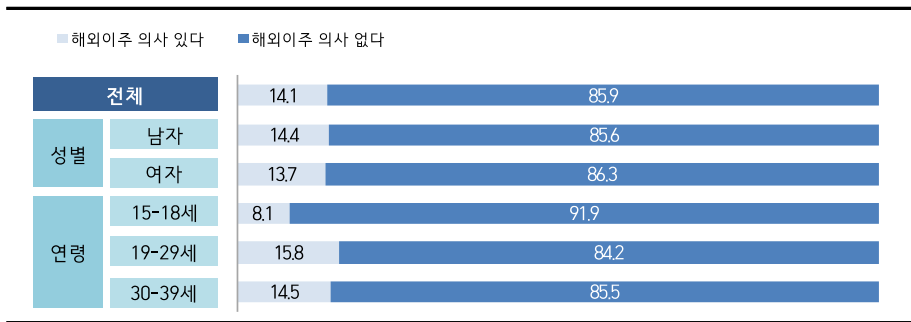


그림 III-12 해외이주 의사(2018년)

표 III-20 연도별 해외이주 의사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있다     | 22.2 | 22.2 | 22.3 | 22.1   | 26.5   | 18.1   |
|      | 없다     | 77.7 | 77.7 | 77.7 | 77.9   | 73.4   | 81.9   |
|      | 모름/무응답 | 0.0  | 0.1  | -    | -      | 0.1    | -      |
| 2017 | 있다     | 36.0 | 32.9 | 39.3 | 25.8   | 36.8   | 38.2   |
|      | 없다     | 64.0 | 67.1 | 60.7 | 74.2   | 63.2   | 61.8   |
| 2018 | 있다     | 14.1 | 14.4 | 13.7 | 8.1    | 15.8   | 14.5   |
|      | 없다     | 85.9 | 85.6 | 86.3 | 91.9   | 84.2   | 85.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1-10. 해외이주 고려 이유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해외이주 의사가 있다고 밝힌 청년들은 해외이주를 고려해본 이유는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18.7%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26.2%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7년 34.3%에 달했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23.0%로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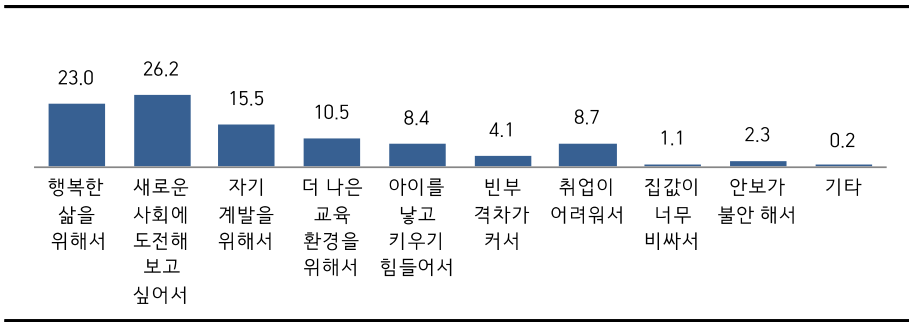


그림 Ⅲ-13 해외이주 고려 이유(2018년)

표 Ⅲ-21 연도별 해외이주 고려 이유

(단위: %)

| 연도   | 행복한 삶을 위해서 |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자기 계발을 위해서 |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빈부 격차가 커서 | 취업이 어려워서 | 집값이 너무 비싸서 | 안보가 불안해서 | 기타  |
|------|------------|-------------------|------------|-----------------|-----------------|-----------|----------|------------|----------|-----|
| 2016 | 27.8       | 18.5              | 12.8       | 12.6            | 8.4             | 7.8       | 6.8      | 2.5        | 1.7      | 1.2 |
| 2017 | 34.3       | 18.7              | 11.2       | 13.4            | 7.9             | 3.7       | 5.5      | 2.1        | 2.0      | 1.0 |
| 2018 | 23.0       | 26.2              | 15.5       | 10.5            | 8.4             | 4.1       | 8.7      | 1.1        | 2.3      | 0.2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2-1. 혼인율

청년들의 혼인건수는 청년고용법에 따른 연령정의인 15~29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0년 남녀 합계 약 18만 건에서 2017년 6만 5천 건으로 크게 감소였다. 30대를 포함하더라도 같은 기간 28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폭은 적었다. 반면, 20대만으로 보았을 때, 18만 건에서 6만 4천 건으로 크게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20대의 혼인건수 감소가 청년층 전체 혼인건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1천 명 당 혼인한 건수인 조혼인율 역시, 청년고용법 연령정의를 기준으로, 남자는 2000년 84.0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여자는 같은 기간 124.1건에서 74.8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혼인건수와 유사하게 30대를 포함한 조혼인율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20대는 비교적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대의 경우, 결혼보다는 학업이나 진로탐색, 취업 준비, 경제활동 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단위: 천 건, 천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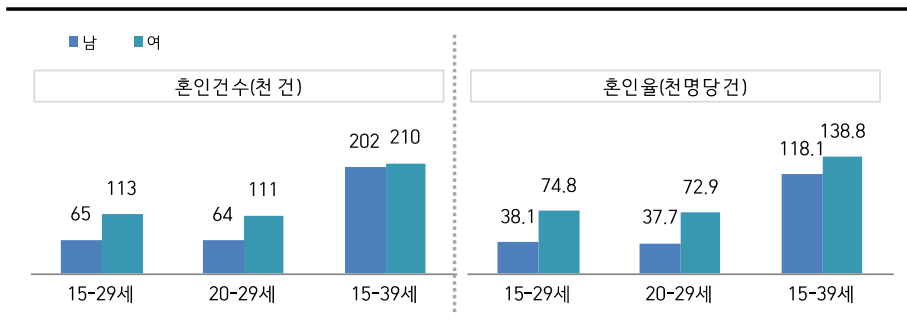


그림 III-14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2017년)

표 Ⅲ-22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 추이

(단위: 천 건, 천명당 건)

| 연도   | 혼인건수(천 건) |     |        |     |        |     | 혼인율(천명당 건) |       |        |       |        |       |
|------|-----------|-----|--------|-----|--------|-----|------------|-------|--------|-------|--------|-------|
|      | 15-29세    |     | 20-29세 |     | 15-39세 |     | 15-29세     |       | 20-29세 |       | 15-39세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0 | 186       | 249 | 184    | 241 | 283    | 280 | 84.0       | 124.1 | 83.0   | 119.7 | 134.2  | 149.3 |
| 2001 | 166       | 228 | 164    | 221 | 265    | 262 | 77.9       | 116.3 | 76.9   | 112.4 | 128.6  | 143.2 |
| 2002 | 150       | 212 | 148    | 206 | 251    | 249 | 72.8       | 110.5 | 71.9   | 107.0 | 124.3  | 138.3 |
| 2003 | 137       | 202 | 136    | 197 | 244    | 243 | 69.2       | 108.2 | 68.4   | 104.9 | 122.9  | 138.1 |
| 2004 | 126       | 195 | 125    | 190 | 241    | 240 | 65.3       | 107.3 | 64.6   | 104.0 | 123.3  | 140.6 |
| 2005 | 120       | 191 | 119    | 186 | 241    | 242 | 62.6       | 107.0 | 62.0   | 103.1 | 124.3  | 143.5 |
| 2006 | 128       | 207 | 127    | 200 | 261    | 266 | 65.3       | 115.0 | 64.7   | 109.9 | 133.7  | 155.0 |
| 2007 | 129       | 211 | 128    | 205 | 273    | 277 | 65.0       | 116.7 | 64.5   | 112.8 | 139.9  | 161.4 |
| 2008 | 118       | 193 | 117    | 186 | 257    | 261 | 58.9       | 107.2 | 58.4   | 103.1 | 133.1  | 153.9 |
| 2009 | 106       | 174 | 105    | 169 | 242    | 247 | 53.9       | 98.0  | 53.6   | 94.7  | 127.0  | 146.3 |
| 2010 | 106       | 179 | 105    | 173 | 257    | 264 | 55.9       | 104.1 | 55.5   | 100.6 | 136.1  | 158.3 |
| 2011 | 102       | 172 | 101    | 167 | 261    | 268 | 56.6       | 104.7 | 56.2   | 101.6 | 140.4  | 163.7 |
| 2012 | 92        | 160 | 92     | 156 | 259    | 265 | 53.9       | 101.7 | 53.5   | 98.8  | 140.7  | 165.1 |
| 2013 | 87        | 152 | 86     | 148 | 256    | 263 | 52.9       | 100.2 | 52.4   | 97.5  | 141.1  | 165.9 |
| 2014 | 79        | 137 | 78     | 133 | 239    | 245 | 48.6       | 92.0  | 48.0   | 89.6  | 133.7  | 157.2 |
| 2015 | 76        | 134 | 75     | 131 | 237    | 243 | 46.9       | 90.6  | 46.4   | 88.4  | 134.4  | 158.1 |
| 2016 | 69        | 123 | 68     | 120 | 218    | 226 | 41.8       | 82.5  | 41.3   | 80.3  | 125.4  | 148.2 |
| 2017 | 65        | 113 | 64     | 111 | 202    | 210 | 38.1       | 74.8  | 37.7   | 72.9  | 118.1  | 138.8 |

\* 출처 1) 혼인건수: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2) 혼인율: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 1-2-2. 초혼연령

초혼연령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성별에 무관하게 남녀 모두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녀 간의 차이는 남자가 여자 대비 2-3세 가량 높은 초혼연령을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 역시 매년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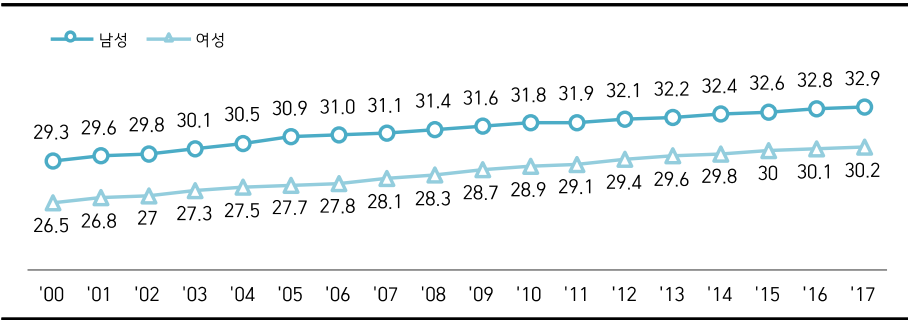


그림 III-15 성별 초혼 연령 연도별 추이(2000~2017년)

표 III-23 연도별 성별 초혼 연령 추이

(단위: 세)

| 연도   | 남성       |         | 여성       |         |
|------|----------|---------|----------|---------|
|      | 평균 초혼 연령 | 전년대비 증감 | 평균 초혼 연령 | 전년대비 증감 |
| 2000 | 29.3     | 0.21    | 26.5     | 0.20    |
| 2001 | 29.6     | 0.27    | 26.8     | 0.29    |
| 2002 | 29.8     | 0.22    | 27.0     | 0.23    |
| 2003 | 30.1     | 0.37    | 27.3     | 0.26    |
| 2004 | 30.5     | 0.39    | 27.5     | 0.25    |
| 2005 | 30.9     | 0.34    | 27.7     | 0.20    |
| 2006 | 31.0     | 0.09    | 27.8     | 0.07    |
| 2007 | 31.1     | 0.15    | 28.1     | 0.30    |

| 연도   | 남성       |         | 여성       |         |
|------|----------|---------|----------|---------|
|      | 평균 초혼 연령 | 전년대비 증감 | 평균 초혼 연령 | 전년대비 증감 |
| 2008 | 31.4     | 0.27    | 28.3     | 0.23    |
| 2009 | 31.6     | 0.23    | 28.7     | 0.39    |
| 2010 | 31.8     | 0.23    | 28.9     | 0.20    |
| 2011 | 31.9     | 0.06    | 29.1     | 0.23    |
| 2012 | 32.1     | 0.23    | 29.4     | 0.27    |
| 2013 | 32.2     | 0.08    | 29.6     | 0.18    |
| 2014 | 32.4     | 0.21    | 29.8     | 0.22    |
| 2015 | 32.6     | 0.15    | 30.0     | 0.15    |
| 2016 | 32.8     | 0.22    | 30.1     | 0.15    |
| 2017 | 32.9     | 0.15    | 30.2     | 0.13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 1-2-3. 결혼준비 경험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5~39세 청년들 중 결혼을 준비해본 경험 비율은 39.4%이며,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준비 경험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결혼준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6년과 2017년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결혼준비 경험 비율은 2018년 들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대의 결혼준비 경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초혼 연령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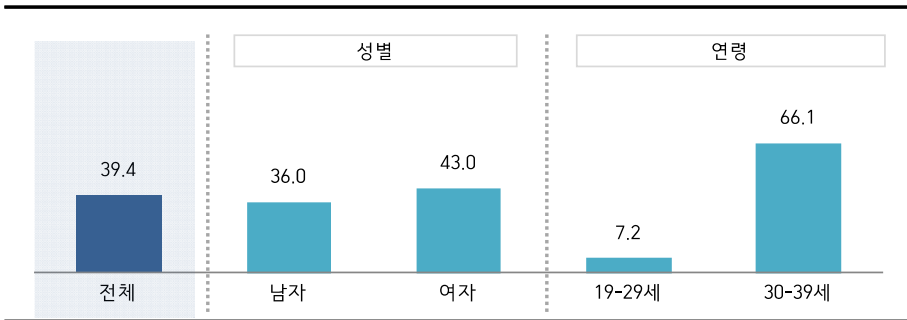


그림 III-16 결혼준비 경험(2018년)

표 III-24 연도별 결혼준비 경험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남자   | 여자   | 19-29세 | 30-39세 |
| 2016 | 42.0 | 36.4 | 47.9 | 9.2    | 74.8   |
| 2017 | 44.3 | 38.2 | 51.0 | 16.3   | 73.2   |
| 2018 | 39.4 | 36.0 | 43.0 | 7.2    | 66.1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결혼준비 경험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2-4. 결혼 망설임 여부 및 이유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결혼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준비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임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년 대비 1.7%p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결혼준비 중 망설임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이 역시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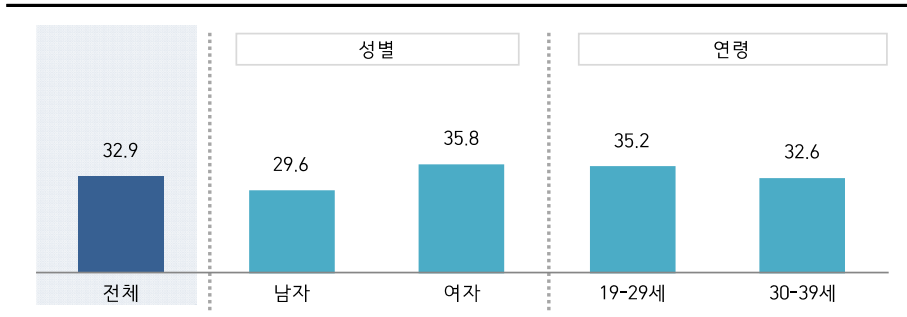


그림 III-17 결혼 망설임 여부(2018년)

표 III-25 연도별 결혼 망설임 여부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남자   | 여자   | 19-29세 | 30-39세 |
| 2016 | 41.4 | 46.3 | 37.5 | 49.7   | 40.5   |
| 2017 | 31.2 | 29.3 | 32.8 | 37.6   | 29.8   |
| 2018 | 32.9 | 29.6 | 35.8 | 35.2   | 32.6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임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2-5. 출생아 수 및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지난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 연령을 청년고용법 상 규정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7년 들어 처음으로 10만 명의 벽이 무너진 9만1천명이었으며, 초혼연령 증가를 감안하여 모 연령 기준을 30대로 확장하더라도 지난 2000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약 3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5~29세의 출산율도 1천 명당 2000년 190.9명에서 2017년 58.5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20대의 출산율 감소폭은 매우 두드러졌다.

(단위: 천 명, 1천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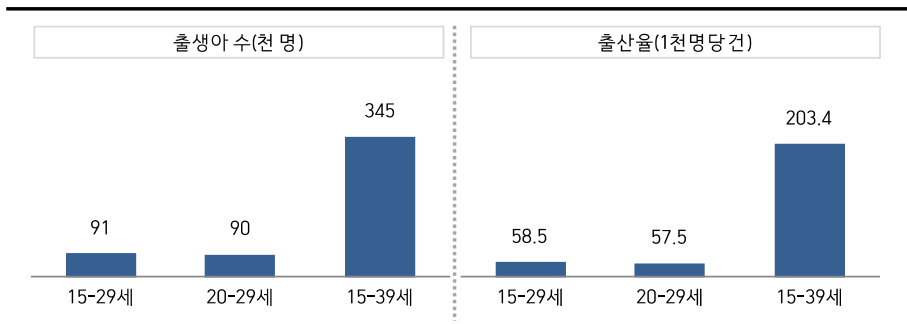


그림 III-18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2017년)

표 III-26 연도별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추이

(단위: 천 명, 1천명당 명)

| 연도   | 출생아 수  |        |        | 출산율    |        |        |
|------|--------|--------|--------|--------|--------|--------|
|      | 15-29세 | 20-29세 | 15-39세 | 15-29세 | 20-29세 | 15-39세 |
| 2000 | 407    | 403    | 627    | 190.9  | 188.4  | 291.6  |
| 2001 | 338    | 334    | 547    | 162.8  | 160.6  | 257.3  |
| 2002 | 283    | 278    | 486    | 140.0  | 137.4  | 231.1  |
| 2003 | 270    | 266    | 484    | 137.8  | 135.3  | 234.0  |
| 2004 | 242    | 239    | 466    | 127.4  | 125.1  | 228.8  |
| 2005 | 211    | 208    | 429    | 111.6  | 109.5  | 211.8  |
| 2006 | 207    | 204    | 442    | 109.2  | 107.0  | 219.8  |
| 2007 | 222    | 219    | 486    | 117.2  | 115.0  | 244.1  |
| 2008 | 200    | 197    | 458    | 105.5  | 103.8  | 233.5  |
| 2009 | 184    | 181    | 436    | 98.6   | 96.9   | 226.7  |
| 2010 | 175    | 172    | 460    | 98.0   | 96.2   | 243.0  |
| 2011 | 165    | 162    | 460    | 96.6   | 94.8   | 246.4  |
| 2012 | 155    | 152    | 473    | 95.2   | 93.4   | 256.1  |
| 2013 | 128    | 125    | 425    | 81.6   | 79.9   | 232.5  |
| 2014 | 120    | 117    | 423    | 78.1   | 76.5   | 235.1  |
| 2015 | 117    | 115    | 426    | 77.0   | 75.6   | 242.0  |
| 2016 | 106    | 104    | 393    | 69.2   | 67.9   | 228.0  |
| 2017 | 91     | 90     | 345    | 58.5   | 57.5   | 203.4  |

\* 출처 1) 출생아 수: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2) 출산율: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 1-2-6. 출산연령

출생아 수 및 출산율 감소와 함께 모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9.0세였으나 지난 2004년 최초 30대에 접어들었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모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에 달하고 있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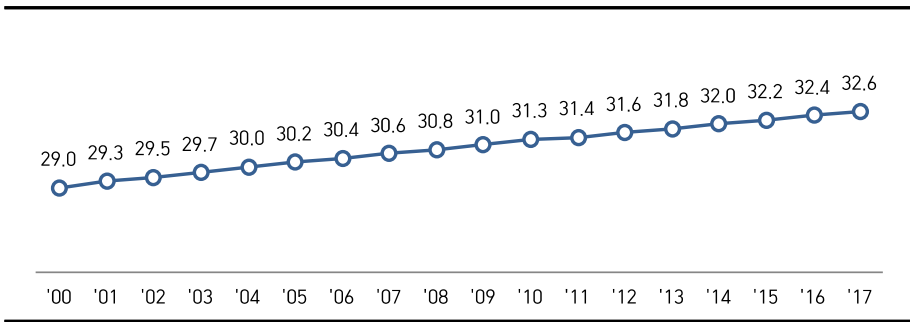


그림 III-19 모의 평균 출산 연령(2000~2017년)

표 III-27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단위: 세)

| 연도   | 출산연령 | 연도   | 출산연령 |
|------|------|------|------|
| 2000 | 29.0 | 2009 | 31.0 |
| 2001 | 29.3 | 2010 | 31.3 |
| 2002 | 29.5 | 2011 | 31.4 |
| 2003 | 29.7 | 2012 | 31.6 |
| 2004 | 30.0 | 2013 | 31.8 |
| 2005 | 30.2 | 2014 | 32.0 |
| 2006 | 30.4 | 2015 | 32.2 |
| 2007 | 30.6 | 2016 | 32.4 |
| 2008 | 30.8 | 2017 | 32.6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 1-2-7. 맞벌이 여부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맞벌이 여부를 물어본 결과, 2017년 49.9%에서 2017년 61.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맞벌이 비율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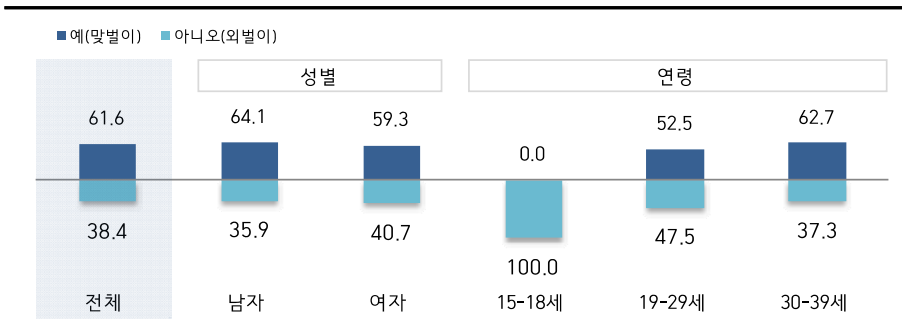


그림 Ⅲ-20 맞벌이 여부(2018년)

표 Ⅲ-28 연도별 맞벌이 여부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예(맞벌이)      | 47.7 | 49.3 | 46.5 | 49.5   | 47.5   | 18.1   |
|      | 아니오(맞벌이 아님) | 52.3 | 50.7 | 53.5 | 50.5   | 52.5   | 81.9   |
| 2017 | 예(맞벌이)      | 49.9 | 48.4 | 51.0 | 41.0   | 51.8   | 38.2   |
|      | 아니오(맞벌이 아님) | 49.5 | 50.3 | 49.0 | 57.7   | 47.8   | 61.8   |
|      | 모름/무응답      | 0.6  | 1.3  | 0.0  | 1.3    | 0.4    | -      |
| 2018 | 예(맞벌이)      | 61.6 | 64.1 | 59.3 | 0.0    | 52.5   | 62.7   |
|      | 아니오(맞벌이 아님) | 38.4 | 35.9 | 40.7 | 100.0  | 47.5   | 37.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2-8. 자녀 유무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로, 2017년 조사 대비 7.3%p 하락하였으며 초혼연령, 모 평균 출산연령 결과와 마찬가지로 30대 유자녀 비율이 타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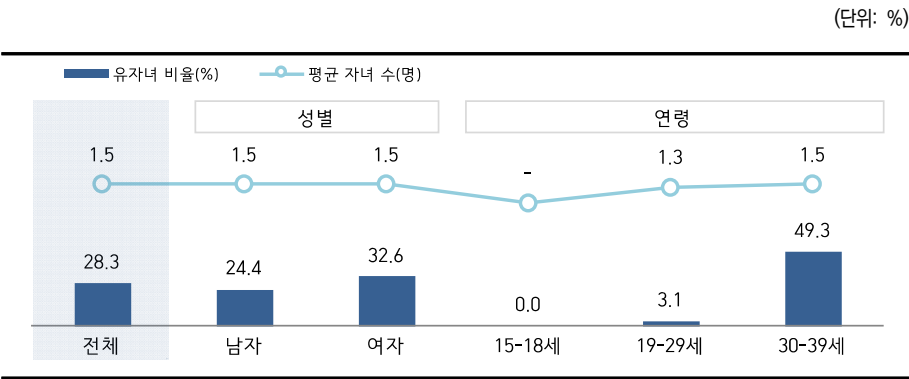


그림 III-21 자녀 유무(2018년)

표 III-29 연도별 자녀 유무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     | 31.7 | 25.2 | 38.8 | -      | 4.8    | 58.7   |
|      | 평균(명) | 1.6  | 1.5  | 1.7  | -      | 1.2    | 1.6    |
| 2017 | %     | 35.6 | 27.9 | 44.2 | 3.6    | 11.1   | 60.9   |
|      | 평균(명) | 1.7  | 1.7  | 1.7  | 2.0    | 1.7    | 1.7    |
| 2018 | %     | 28.3 | 24.4 | 32.6 | 0.0    | 3.1    | 49.3   |
|      | 평균(명) | 1.5  | 1.5  | 1.5  | -      | 1.3    | 1.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자녀 유무에 '예(자녀 있음)'에 응답한 비율(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2-9. 자녀를 가질 계획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기혼 청년을 대상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56.2%의 청년들이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하였다(전년 대비 0.4%p 증가). 남자의 자녀계획 의향 비율이 여자 대비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계획 의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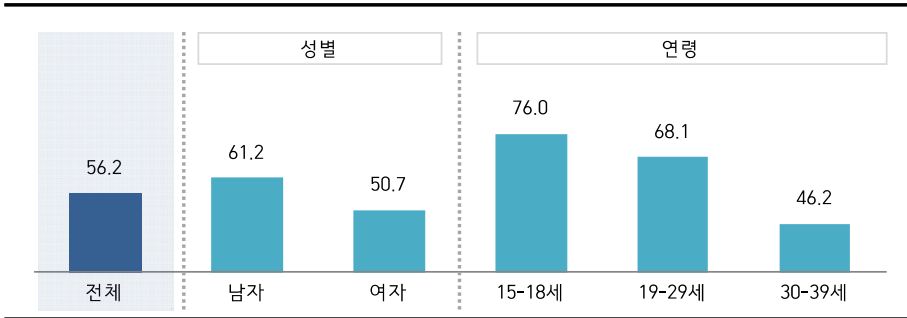


그림 III-22 자녀를 가질 계획(2018년)

표 III-30 연도별 자녀를 가질 계획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59.5 | 66.2 | 52.2 | 77.7   | 75.5   | 43.5   |
| 2017 | 55.8 | 63.6 | 47.2 | 76.7   | 71.4   | 39.8   |
| 2018 | 56.2 | 61.2 | 50.7 | 76.0   | 68.1   | 46.2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교육과 훈련

2-1-1. 대학등록금

대학알리미에서 공시한 결과, 연 평균 대학등록금은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등록금의 평균은 550만 원 선에서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의 평균 등록금과는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 또한, 국공립과 사립대학 간 평균 등록금 차이는 약 3배 정도에 달하고 있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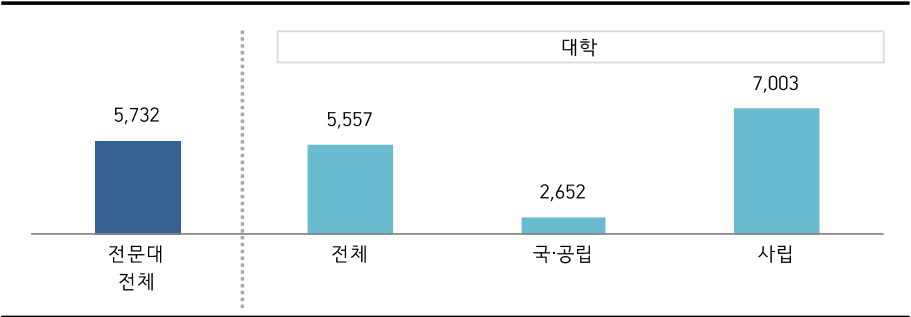


그림 III-23 대학등록금(2018년)

표 III-31 연도별 대학등록금 추이

(단위: 천원)

| 연도   | 전문대 전체 | 대학    |       |       |
|------|--------|-------|-------|-------|
|      |        | 전체    | 국공립   | 사립    |
| 2014 | 5,721  | 5,554 | 2,641 | 6,955 |
| 2015 | 5,726  | 5,551 | 2,665 | 6,971 |
| 2016 | 5,729  | 5,552 | 2,651 | 6,984 |
| 2017 | 5,732  | 5,556 | 2,652 | 7,003 |
| 2018 | 5,738  | 5,559 | 2,647 | 7,029 |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 평균등록금.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8년 9월 10일 인출.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을 포함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 2-1-2.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은 2014년 이후 대학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대학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 대출자 비율이, 국공립대학 대비 사립대학의 대출자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매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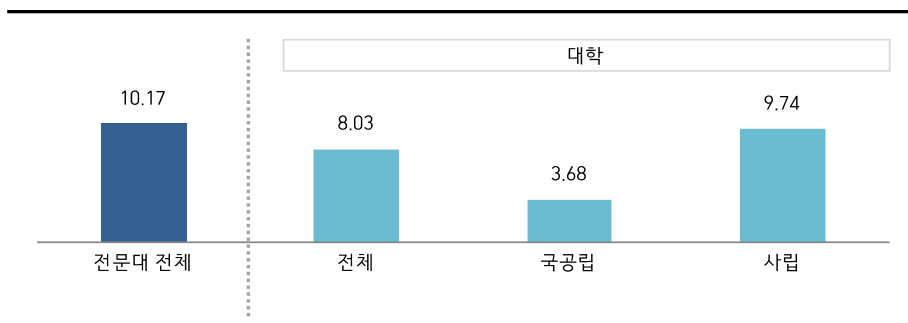


그림 III-24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2018년)

표 III-32 연도별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 전문대 전체 | 대학    |      |       |
|------|--------|-------|------|-------|
|      |        | 전체    | 국공립  | 사립    |
| 2014 | 17.42  | 11.88 | 5.68 | 14.41 |
| 2015 | 15.45  | 10.80 | 4.87 | 13.21 |
| 2016 | 12.63  | 9.22  | 4.13 | 11.27 |
| 2017 | 11.04  | 8.41  | 3.81 | 10.23 |
| 2018 | 10.17  | 8.03  | 3.68 | 9.74  |

\* 출처: 대학알리미(각 연도). 학자금대출 이용학생비율(등록금(학비)).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8년 9월 10일 인출.

-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을 포함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 2-1-3. 장학금 규모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금액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공립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의 약 80%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문대와 4년제 중 사립대학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나 2018년 기준, 전문대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등록금 대비 약 59.3%, 사립대학은 약 48.3% 수준이므로 전문대 및 사립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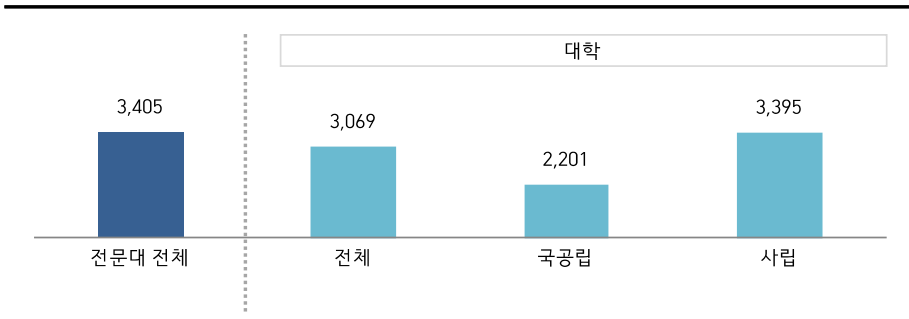


그림 III-25 재학생 1인당 장학금(2018년)

표 III-33 연도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추이

(단위: 천원)

| 연도   | 전문대 전체 | 대학    |       |       |
|------|--------|-------|-------|-------|
|      |        | 전체    | 국공립   | 사립    |
| 2014 | 2,136  | 2,307 | 1,675 | 2,559 |
| 2015 | 3,009  | 2,658 | 1,986 | 2,918 |
| 2016 | 3,214  | 2,857 | 2,080 | 3,158 |
| 2017 | 3,306  | 2,974 | 2,137 | 3,293 |
| 2018 | 3,405  | 3,069 | 2,201 | 3,395 |

\* 출처: 대학알리미(각 연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을 포함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 2-1-4. 학제별 대학 졸업 소요기간

학제별 대학 졸업 소요기간의 경우, 2007년 46개월에서 2018년 51개월로 5개월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간으로 보면 50~51개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대학 졸업 소요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예측된다.

학제별로 살펴보면, 4년제는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약 61개월 수준을 유지하였고 3년제 이하 전문대학은 34개월에서 35개월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최근 3년간의 추이로만 보면 각각 61개월, 35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로 인한 휴학 등의 사유로 졸업 소요기간이 여학생보다 길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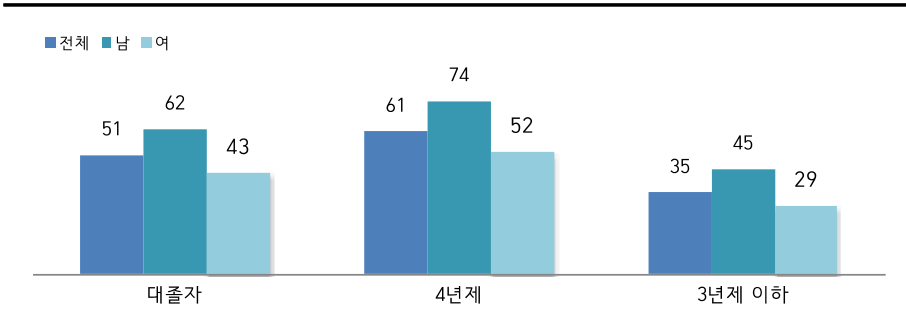


그림 III-26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2018년)



표 III-34 연도별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차이

(단위: 개월)

| 연도   | 대졸자 |    |    | 4년제 |    |    | 3년제 이하 |    |    |
|------|-----|----|----|-----|----|----|--------|----|----|
|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 2007 | 46  | 60 | 37 | 61  | 76 | 51 | 34     | 46 | 26 |
| 2008 | 48  | 62 | 38 | 62  | 76 | 52 | 34     | 47 | 26 |
| 2009 | 48  | 62 | 38 | 63  | 77 | 52 | 34     | 46 | 26 |
| 2010 | 48  | 62 | 39 | 63  | 78 | 53 | 33     | 45 | 26 |
| 2011 | 49  | 63 | 40 | 63  | 77 | 53 | 34     | 46 | 27 |
| 2012 | 49  | 63 | 40 | 63  | 77 | 54 | 34     | 47 | 27 |
| 2013 | 49  | 62 | 40 | 62  | 76 | 53 | 34     | 46 | 27 |
| 2014 | 49  | 63 | 41 | 62  | 75 | 52 | 34     | 46 | 27 |
| 2015 | 49  | 62 | 41 | 61  | 74 | 52 | 34     | 45 | 27 |
| 2016 | 51  | 63 | 42 | 61  | 75 | 52 | 35     | 47 | 28 |
| 2017 | 50  | 62 | 42 | 61  | 74 | 52 | 35     | 44 | 28 |
| 2018 | 51  | 62 | 43 | 61  | 74 | 52 | 35     | 45 | 29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S&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2-1-5. 대졸자 휴학 현황

대졸자 중 휴학 경험 비율은 2015년 40.3%에서 2016년 44.4%로 증가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단,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대비 2018년의 휴학 경험 비율이 8%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졸업 유예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학 사유를 보면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가 29.6%로 200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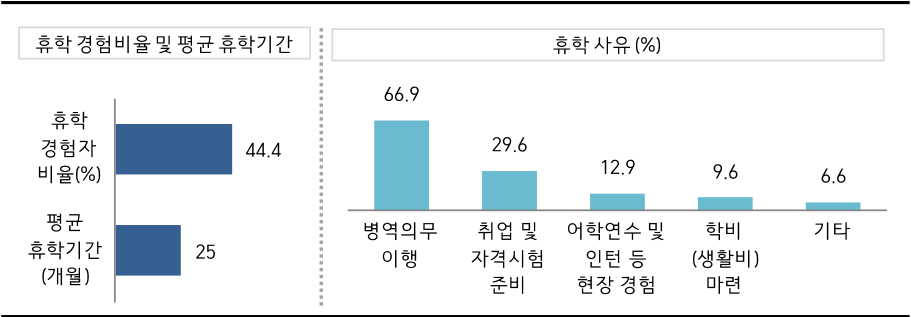


그림 Ⅲ-27 대졸자 휴학현황(2018년)

표 Ⅲ-35 연도별 대졸자 휴학현황 추이

(단위: %, 개월)

| 연도   | 휴학경험자<br>비율(%) | 평균<br>휴학기간<br>(개월) | 휴학 사유(%)   |                    |                         |                   |      |
|------|----------------|--------------------|------------|--------------------|-------------------------|-------------------|------|
|      |                |                    | 병역의무<br>이행 | 취업 및<br>자격시험<br>준비 | 어학연수<br>및 인턴 등<br>현장 경험 | 학비<br>(생활비)<br>마련 | 기타   |
| 2007 | 36.4           | 29                 | 74.6       | 14.6               | 10.0                    | 12.7              | 11.1 |
| 2008 | 38.6           | 28                 | 71.1       | 16.8               | 11.3                    | 12.6              | 9.5  |
| 2009 | 39.6           | 28                 | 70.5       | 17.3               | 13.0                    | 12.5              | 8.2  |
| 2010 | 39.8           | 28                 | 68.1       | 19.2               | 14.6                    | 12.8              | 9.0  |
| 2011 | 43.1           | 28                 | 68.8       | 17.6               | 15.1                    | 12.2              | 10.5 |
| 2012 | 42.8           | 28                 | 69.0       | 21.7               | 15.3                    | 10.9              | 10.4 |
| 2013 | 42.8           | 27                 | 68.9       | 23.3               | 12.6                    | 12.4              | 8.8  |
| 2014 | 42.6           | 27                 | 69.4       | 22.4               | 14.0                    | 14.1              | 8.0  |
| 2015 | 40.3           | 27                 | 72.4       | 20.0               | 14.1                    | 13.2              | 5.0  |
| 2016 | 44.4           | 26                 | 68.3       | 27.0               | 15.3                    | 11.4              | 5.3  |
| 2017 | 43.1           | 26                 | 69.7       | 30.3               | 13.9                    | 10.9              | 4.4  |
| 2018 | 44.4           | 25                 | 66.9       | 29.6               | 12.9                    | 9.6               | 6.6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S&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S&conn_path=1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휴학 사유는 복수응답으로 구성비 합이 100을 넘음.

## 2-1-6. 대학생 학업중단율

재적 학생 수 중 학업 중단 학생 수의 비율인 학업중단율의 경우, 2010년 6.8% 이후 2015년에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매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일반대학은 4%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다소 등락이 있는 편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재적 학생 수는 청년층 인구 감소 추세와 맞물려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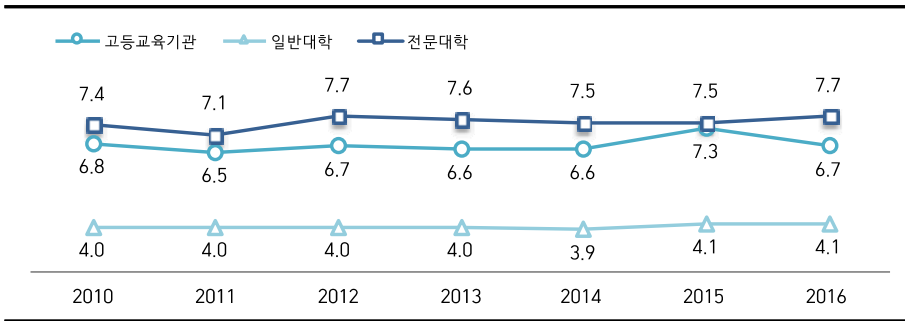


그림 III-28 대학생 학업중단율(2010~2016년)

표 III-36 연도별 대학생 학업중단율 추이

(단위: 명, %)

| 연도   | 고등교육기관  |           |        | 일반대학    |           |        | 전문대학    |         |        |
|------|---------|-----------|--------|---------|-----------|--------|---------|---------|--------|
|      | 학업 중단자수 | 재적 학생수    |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재적 학생수    |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재적 학생수  | 학업 중단율 |
| 2010 | 225,263 | 3,327,525 | 6.8    | 81,641  | 2,028,841 | 4.0    | 56,658  | 767,087 | 7.4    |
| 2011 | 220,588 | 3,405,773 | 6.5    | 81,614  | 2,065,451 | 4.0    | 55,163  | 776,738 | 7.1    |
| 2012 | 229,425 | 3,399,258 | 6.7    | 84,114  | 2,103,958 | 4.0    | 58,923  | 769,888 | 7.7    |
| 2013 | 226,756 | 3,379,912 | 6.6    | 84,335  | 2,120,296 | 4.0    | 57,651  | 757,721 | 7.6    |
| 2014 | 222,263 | 3,337,875 | 6.6    | 82,875  | 2,130,046 | 3.9    | 55,239  | 740,801 | 7.5    |
| 2015 | 239,045 | 3,274,593 | 7.3    | 86,498  | 2,113,293 | 4.1    | 54,093  | 720,466 | 7.5    |

| 연도   | 고등교육기관     |           |           | 일반대학       |           |           | 전문대학       |           |           |
|------|------------|-----------|-----------|------------|-----------|-----------|------------|-----------|-----------|
|      | 학업<br>중단자수 | 재적<br>학생수 | 학업<br>중단율 | 학업<br>중단자수 | 재적<br>학생수 | 학업<br>중단율 | 학업<br>중단자수 | 재적<br>학생수 | 학업<br>중단율 |
| 2016 | 231,908    | 3,437,309 | 6.7       | 86,476     | 2,050,619 | 4.1       | 53,977     | 677,721   | 7.7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 주: 1) 학업중단율(제적률)=(제적 학생수/전년도 재적학생수)×100  
 2) 고등교육기관의 제적학생은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기타사유 등에 의해 학적에서 제외된 학생  
 3)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 2-1-7. 전공과 직업 일치도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공 분야 일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또는 대학 이상 졸업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전공과 직업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2016년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3%가 전공과 직업 간 관계가 없다(‘관계없는 편’+‘전혀 관계없음’)고 응답하였으며, 36.3%는 전공과 직무가 일치한다(‘매우 일치’+‘일치하는 편’)고 보고하였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13-29세보다는 30대의 전공 불일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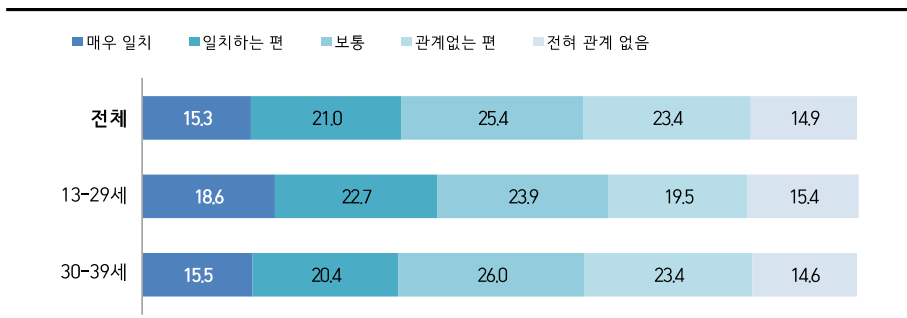


그림 III-29 전공과 직업 일치도(2018년)

표 Ⅲ-37 연도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추이

(단위: 명, %)

| 연도   | 연령     | 전공과 직업 일치 정도 |        |      |        |          |
|------|--------|--------------|--------|------|--------|----------|
|      |        | 매우 일치        | 일치하는 편 | 보통   | 관계없는 편 | 전혀 관계 없음 |
| 2008 | 전체     | 15.0         | 22.7   | 23.7 | 22.7   | 16.0     |
|      | 15-29세 | 15.0         | 25.7   | 23.4 | 20.5   | 15.3     |
|      | 13-29세 | -            | -      | -    | -      | -        |
|      | 30-39세 | 15.6         | 23.1   | 22.6 | 22.4   | 16.4     |
| 2010 | 전체     | 14.6         | 21.7   | 23.9 | 25.1   | 14.6     |
|      | 15-29세 | 17.1         | 21.7   | 23.3 | 23.7   | 14.2     |
|      | 13-29세 | -            | -      | -    | -      | -        |
|      | 30-39세 | 14.5         | 22.7   | 24.4 | 24.0   | 14.4     |
| 2012 | 전체     | 15.9         | 22.4   | 24.2 | 23.2   | 14.3     |
|      | 15-29세 | -            | -      | -    | -      | -        |
|      | 13-29세 | 18.1         | 22.9   | 22.9 | 20.9   | 15.2     |
|      | 30-39세 | 17.8         | 22.8   | 23.7 | 21.3   | 14.4     |
| 2014 | 전체     | 15.4         | 21.5   | 25.1 | 23.4   | 14.6     |
|      | 15-29세 | -            | -      | -    | -      | -        |
|      | 13-29세 | 17.1         | 21.6   | 25.5 | 21.3   | 14.4     |
|      | 30-39세 | 16.0         | 22.8   | 24.7 | 22.7   | 13.8     |
| 2016 | 전체     | 15.3         | 21.0   | 25.4 | 23.4   | 14.9     |
|      | 15-29세 | -            | -      | -    | -      | -        |
|      | 13-29세 | 18.6         | 22.7   | 23.9 | 19.5   | 15.4     |
|      | 30-39세 | 15.5         | 20.4   | 26.0 | 23.4   | 14.6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50R&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50R&conn_path=12)에서 2018년 8월 23일 인출.

\* 주: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또는 대학이상 졸업자로 취업한 적이 있거나 현재 취업중인 자

### 2-1-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제도적으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개인적으로 졸업 필요요건을 채우지 못해 유예하는 경우를 파악한 결과, 2018년 졸업 유예 경험 비율은 13.3%로 나타나 2017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 최근 3년으로 비교 기간을 확장할 경우 2016~2017년 사이 급증한 졸업 유예 경험이 2018년에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모집단 및 표본설계 방법의 변경, 가중치 적용 등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역시 지난 3년간 각각 2.2%, 6.1%, 8.0%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졸업 유예 비율은 지난 3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졸업 유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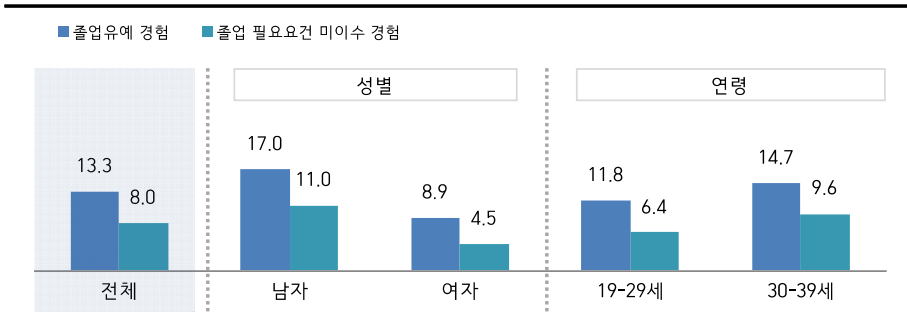


그림 Ⅲ-3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2018년)

표 III-38 연도별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추이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9-29세 | 30-39세 |
| 2016 | 졸업유예 경험        | 5.3  | 5.8  | 4.7  | 5.5    | 5.2    |
|      |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 2.2  | 2.7  | 1.7  | 1.6    | 3.0    |
| 2017 | 졸업유예 경험        | 14.5 | 16.6 | 12.3 | 14.9   | 14.5   |
|      |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 6.1  | 6.7  | 5.4  | 6.8    | 5.4    |
| 2018 | 졸업유예 경험        | 13.3 | 17.0 | 8.9  | 11.8   | 14.7   |
|      |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 8.0  | 11.0 | 4.5  | 6.4    | 9.6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1-8.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제도적으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개인적으로 졸업 필요요건을 채우지 못해 졸업을 유예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19~39세 청년 중 59.1%는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0.7%,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가 1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청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보고되고 있어 20대 청년들의 대다수가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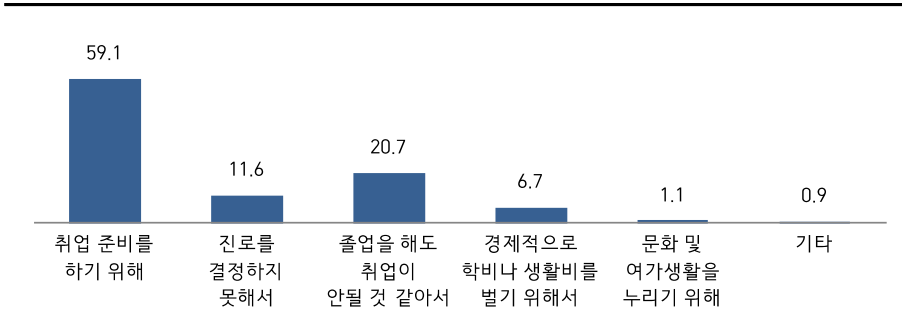


그림 III-3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2018년)

표 III-39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2018년)

(단위: %)

| 구분 |         |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 기타  |
|----|---------|-------------|--------------|----------------------|-----------------------|-------------------|-----|
| 전체 |         | 59.1        | 11.6         | 20.7                 | 6.7                   | 1.1               | 0.9 |
| 성별 | 남자      | 63.7        | 10.3         | 18.8                 | 4.7                   | 1.3               | 1.2 |
|    | 여자      | 49.1        | 14.5         | 24.9                 | 10.9                  | 0.5               | 0.0 |
| 연령 | 만19~29세 | 62.7        | 9.4          | 24.2                 | 2.0                   | 1.1               | 0.7 |
|    | 만30~39세 | 56.4        | 13.2         | 18.1                 | 10.3                  | 1.0               | 1.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8년 신규 문항임.



### 2-1-9. 추후 대학 진학 의사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향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대학 진학 의사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현재 41.2%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별로는 10대가 타 연령대 대비 대학 진학 의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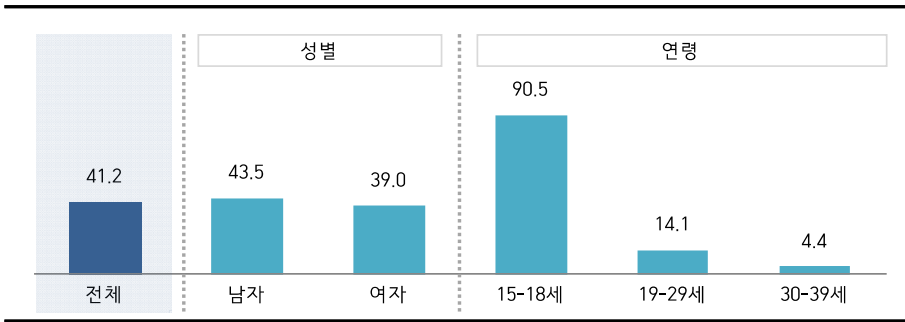


그림 III-32 추후 대학 진학 의사(2018년)

표 III-40 연도별 추후 대학 진학 의사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3 | 14.2 | 15.6 | 12.9 | -      | 28.7   | 6.4    |
| 2015 | 13.1 | 15.5 | 10.9 | -      | 19.8   | 9.6    |
| 2016 | 36.6 | 38.8 | 34.6 | 90.4   | 22.0   | 4.5    |
| 2017 | 38.4 | 37.6 | 39.2 | 85.5   | 16.3   | 6.3    |
| 2018 | 41.2 | 43.5 | 39.0 | 90.5   | 14.1   | 4.4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향후 대학 진학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1-10. 진학률

대학진학률은 2011년 합격자 기준에서 실제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70%대가 무너졌다. 성별로 보면,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남자의 진학률이 여자보다 낮게 집계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률은 2000년 이후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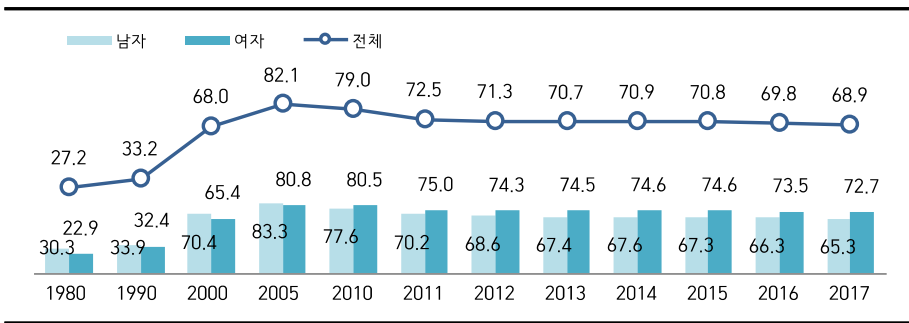


그림 Ⅲ-3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1980~2017년)

표 Ⅲ-4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단위: %)

|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      | 중학교 → 고등학교 |      |      |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      |      |
|------|------------|------|------|------------|------|------|---------------|------|------|
|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 1980 | 95.8       | 97.4 | 94.1 | 84.5       | 87.5 | 80.8 | 27.2          | 30.3 | 22.9 |
| 1990 | 99.8       | 99.8 | 99.8 | 95.7       | 96.3 | 95.0 | 33.2          | 33.9 | 32.4 |
| 2000 | 100        | 100  | 100  | 99.6       | 99.5 | 99.6 | 68.0          | 70.4 | 65.4 |
| 2005 | 100        | 100  | 100  | 99.7       | 99.7 | 99.8 | 82.1          | 83.3 | 80.8 |
| 2010 | 100        | 100  | 100  | 99.7       | 99.7 | 99.7 | 79.0          | 77.6 | 80.5 |
| 2011 | 100        | 100  | 100  | 99.7       | 99.7 | 99.7 | 72.5          | 70.2 | 75.0 |
| 2012 | 100        | 100  | 100  | 99.7       | 99.7 | 99.7 | 71.3          | 68.6 | 74.3 |
| 2013 | 100        | 100  | 100  | 99.7       | 99.7 | 99.7 | 70.7          | 67.4 | 74.5 |
| 2014 | 100        | 100  | 100  | 99.7       | 99.7 | 99.7 | 70.9          | 67.6 | 74.6 |

|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     | 중학교 → 고등학교 |      |      |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      |      |
|------|------------|-----|-----|------------|------|------|---------------|------|------|
|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 2015 | 100        | 100 | 100 | 99.7       | 99.7 | 99.8 | 70.8          | 67.3 | 74.6 |
| 2016 | 100        | 100 | 100 | 99.7       | 99.7 | 99.8 | 69.8          | 66.3 | 73.5 |
| 2017 | 100        | 100 | 100 | 99.7       | 99.7 | 99.7 | 68.9          | 65.3 | 72.7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p.63.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 주: 1)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당해년도 졸업자의 진학률임.  
 2) 중학교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되며, 고등학교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진학자 수 기준 변경: 2010년까지 대학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대학등록자 기준으로 변경

### 2-1-11. 신규 졸업(예정)자 현황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지난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 사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신규 졸업자는 5.3%, 2018년 8월에서 2019년 8월 사이 졸업 예정인 신규졸업 예정자는 6.8%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연령별로 10대는 신규졸업 예정자, 20대는 신규졸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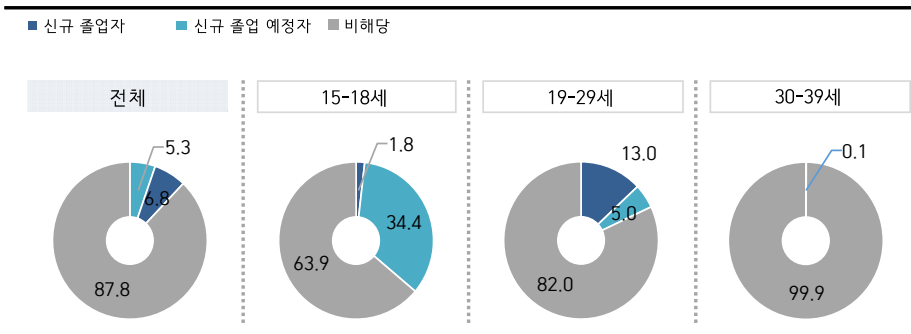


그림 III-34 신규 졸업(예정)자 현황(2018년)

표 III -42 신규 졸업(예정)자 현황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신규졸업자   | 5.3  | 5.1  | 5.6  | 1.8    | 13.0   | 0.1    |
|      | 신규졸업예정자 | 6.8  | 6.4  | 7.3  | 34.4   | 5.0    | 0.0    |
|      | 비해당     | 87.8 | 88.5 | 87.1 | 63.9   | 82.0   | 99.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8년 신규문항임.

## 2-2-1.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청년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형식교육의 참여 비율을 확인하였다. 관련된 국가 통계에서 제공하는 연령 기준에 따른 청년은 대학교 졸업 이후로 초점을 맞추어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연령대의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은 2007년 15.3%에서 2017년 5.6%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35세 이상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2% 내외로 매우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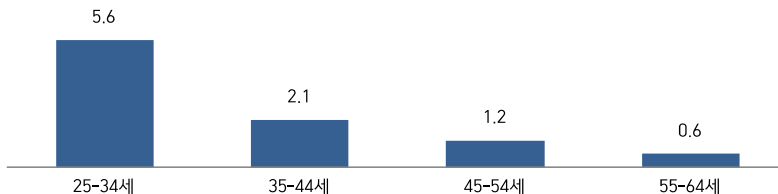


그림 III -35 연령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2017년)

표 III-43 연도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 25-34세 | 35-44세 | 45-54세 | 55-64세 |
|------|--------|--------|--------|--------|
| 2007 | 15.3   | 1.9    | 2.5    | 0.7    |
| 2008 | 9.7    | 2.8    | 1.5    | 0.2    |
| 2009 | 10.7   | 2.8    | 0.8    | 1.1    |
| 2010 | 9.0    | 2.2    | 1.1    | 2.0    |
| 2011 | 13.2   | 1.6    | 0.8    | 0.7    |
| 2012 | 9.4    | 2.0    | 1.7    | 0.4    |
| 2013 | 9.0    | 3.3    | 1.5    | 0.7    |
| 2014 | 7.6    | 1.9    | 1.8    | 0.6    |
| 2015 | 9.1    | 2.6    | 1.3    | 0.5    |
| 2016 | 8.4    | 1.9    | 1.0    | 0.6    |
| 2017 | 5.6    | 2.1    | 1.2    | 0.6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p.132.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형식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을 말하며,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과정,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원격대학, 대학원(석사, 박사)을 포함함(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13).

## 2-2-2.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다양한 학습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형식교육의 참여율과는 달리 25~34세 청년들의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청년들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6.7%에 불과했으나 2017년 38.8%로 10%p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가 경향성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3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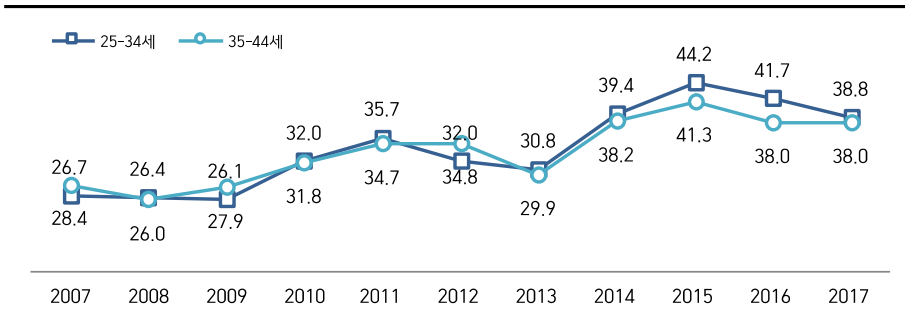


그림 III-36 연령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2007~2017년)

표 III-44 연도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 25-34세 | 35-44세 | 45-54세 | 55-64세 |
|------|--------|--------|--------|--------|
| 2007 | 26.7   | 28.4   | 25.4   | 23.5   |
| 2008 | 26.4   | 26.0   | 20.5   | 20.6   |
| 2009 | 26.1   | 27.9   | 23.3   | 22.1   |
| 2010 | 32.0   | 31.8   | 24.3   | 20.5   |
| 2011 | 35.7   | 34.7   | 26.1   | 20.6   |
| 2012 | 32.0   | 34.8   | 33.6   | 31.2   |
| 2013 | 30.8   | 29.9   | 25.3   | 25.1   |
| 2014 | 39.4   | 38.2   | 32.3   | 28.9   |
| 2015 | 44.2   | 41.3   | 36.7   | 31.8   |
| 2016 | 41.7   | 38.0   | 31.2   | 26.4   |
| 2017 | 38.8   | 38.0   | 33.5   | 28.6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p.133.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함(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13).

### 2-2-3.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연령별 비형식 교육 중 직업 관련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5~34세 이하 청년들의 참여율이 2007년 12.9%에서 2017년 22.7%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최근 3년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면, 2015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후의 경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5세 이상의 경우도 25~34세 이하 청년층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 모든 연령층 역시 참여율은 다소 떨어지나 전반적인 추세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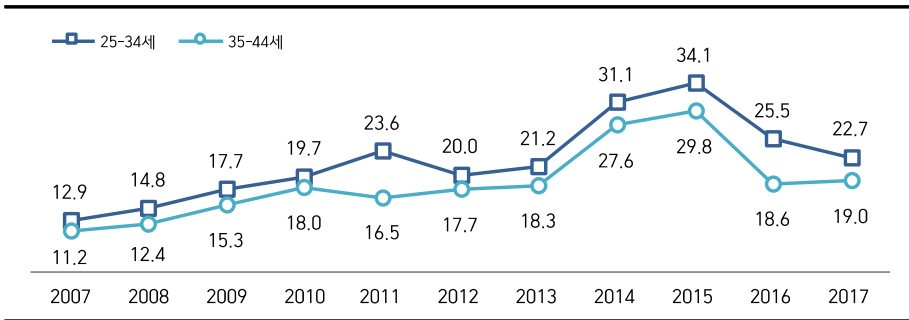


그림 III-37 연령별 평생학습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2007~2017년)

표 III-45 연도별 평생학습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 25-34세 | 35-44세 | 45-54세 | 55-64세 |
|------|--------|--------|--------|--------|
| 2007 | 12.9   | 11.2   | 8.7    | 7.9    |
| 2008 | 14.8   | 12.4   | 9.4    | 8.1    |
| 2009 | 17.7   | 15.3   | 11.6   | 10.4   |
| 2010 | 19.7   | 18.0   | 11.5   | 6.9    |
| 2011 | 23.6   | 16.5   | 12.1   | 10.4   |
| 2012 | 20.0   | 17.7   | 13.8   | 7.5    |

| 연도   | 25-34세 | 35-44세 | 45-54세 | 55-64세 |
|------|--------|--------|--------|--------|
| 2013 | 21.2   | 18.3   | 13.2   | 11.2   |
| 2014 | 31.1   | 27.6   | 23.2   | 16.6   |
| 2015 | 34.1   | 29.8   | 25.7   | 18.0   |
| 2016 | 25.5   | 18.6   | 15.5   | 10.4   |
| 2017 | 22.7   | 19.0   | 14.6   | 8.6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p.133.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2-2-4. 직업훈련 참여율

15~29세 청년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보면, 2014년 16%대에 접어든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볼 때 남자보다는 여자의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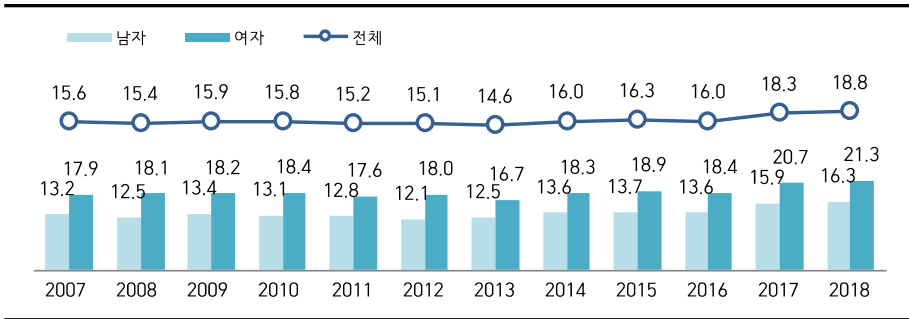


그림 III-38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2007~2018년)



표 III -46 연도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 청년층(15-29세) |      |      |
|------|-------------|------|------|
|      | 전체          | 남자   | 여자   |
| 2007 | 15.6        | 13.2 | 17.9 |
| 2008 | 15.4        | 12.5 | 18.1 |
| 2009 | 15.9        | 13.4 | 18.2 |
| 2010 | 15.8        | 13.1 | 18.4 |
| 2011 | 15.2        | 12.8 | 17.6 |
| 2012 | 15.1        | 12.1 | 18.0 |
| 2013 | 14.6        | 12.5 | 16.7 |
| 2014 | 16.0        | 13.6 | 18.3 |
| 2015 | 16.3        | 13.7 | 18.9 |
| 2016 | 16.0        | 13.6 | 18.4 |
| 2017 | 18.3        | 15.9 | 20.7 |
| 2018 | 18.8        | 16.3 | 21.3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2-2-5. 취업 준비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2017년 20.7%에서 2018년 16.3%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20~30대에 비해 10대가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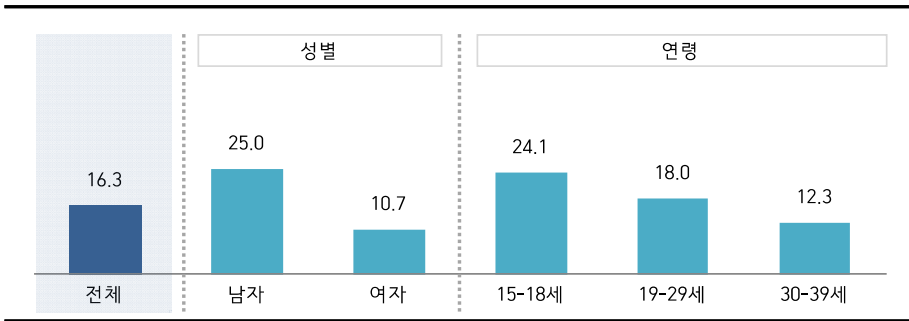


그림 III-39 현재 취업 준비 여부(2018년)

표 III-47 연도별 현재 취업 준비 여부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19.3 | 27.1 | 14.8 | -      | 24.8   | 11.1   |
| 2017 | 20.7 | 30.6 | 15.2 | 4.5    | 24.7   | 14.4   |
| 2018 | 16.3 | 25.0 | 10.7 | 24.1   | 18.0   | 12.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 응답한 응답자들 중 지난 4주 간 직장을 구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현재 취업 준비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그리고 지난 주 주된 활동에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2-6.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고시생과 공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2017년 17.8%에서 12.5%로 하락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공무원이나 임용고시 등을 준비한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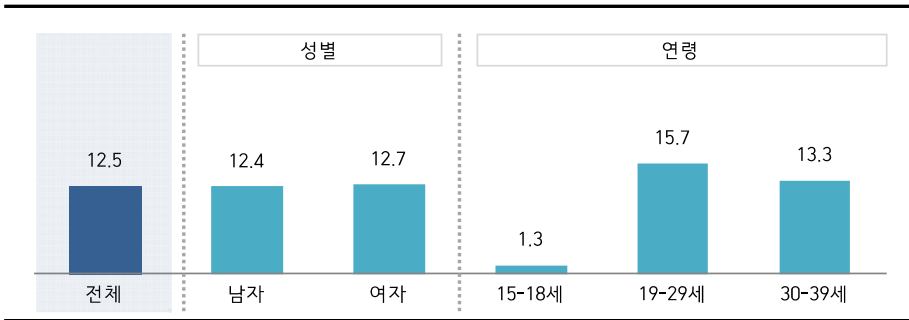


그림 III-40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2018년)

표 III-48 연도별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15.2 | 15.4 | 14.9 | 5.4    | 16.0   | 17.6   |
| 2017 | 17.8 | 18.2 | 17.4 | 6.4    | 19.4   | 19.5   |
| 2018 | 12.5 | 12.4 | 12.7 | 1.3    | 15.7   | 13.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 경제와 고용

3-1-1. 경제활동 참여율

청년고용법 상 청년인 15~29세를 기준으로 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3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면서 2017년 현재 46.7%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남자의 경제활동 참여율(45.3%)보다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율(48.0%)이 2.7%p 높았다. 청년층 전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았고 20대는 60%대 중반, 30대부터는 70%대 중반 이상으로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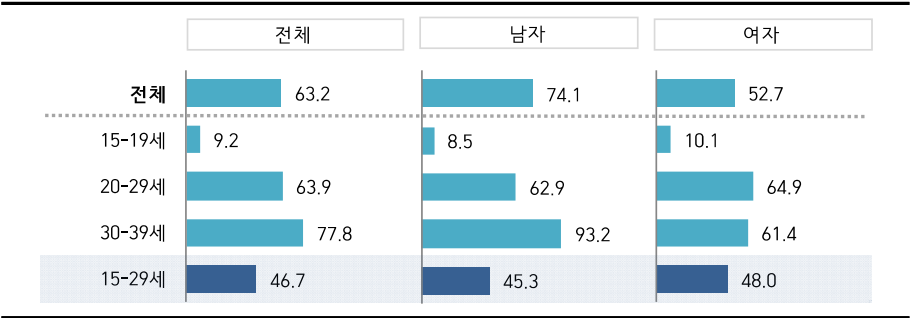


그림 Ⅲ-41 경제활동 참여율(2017년)

표 III-49 연도별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        |        |        | 남자   |        |        |        |        | 여자   |        |        |        |        |
|------|------|--------|--------|--------|--------|------|--------|--------|--------|--------|------|--------|--------|--------|--------|
|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 2007 | 62.2 | 7.2    | 64.7   | 75.4   | 46.5   | 74.4 | 6.5    | 66.5   | 93.6   | 46.4   | 50.5 | 8.1    | 63.0   | 56.4   | 46.7   |
| 2008 | 61.7 | 6.5    | 63.8   | 75.3   | 45.2   | 73.8 | 5.6    | 64.8   | 93.6   | 44.4   | 50.2 | 7.6    | 62.9   | 56.2   | 45.9   |
| 2009 | 61.0 | 6.2    | 63.3   | 74.0   | 44.2   | 73.2 | 4.9    | 64.8   | 92.8   | 43.5   | 49.3 | 7.5    | 62.0   | 54.4   | 44.8   |
| 2010 | 61.1 | 7.0    | 63.3   | 74.7   | 43.9   | 73.2 | 5.5    | 64.3   | 93.1   | 42.8   | 49.6 | 8.5    | 62.4   | 55.4   | 44.9   |
| 2011 | 61.3 | 7.6    | 63.1   | 74.7   | 43.8   | 73.4 | 6.3    | 63.8   | 93.0   | 42.9   | 49.8 | 9.0    | 62.4   | 55.6   | 44.6   |
| 2012 | 61.6 | 7.7    | 62.8   | 75.1   | 43.5   | 73.5 | 6.3    | 62.8   | 93.2   | 42.3   | 50.1 | 9.1    | 62.9   | 56.1   | 44.8   |
| 2013 | 61.7 | 7.7    | 61.7   | 75.5   | 42.9   | 73.5 | 6.6    | 61.3   | 93.2   | 41.7   | 50.3 | 8.7    | 62.0   | 57.0   | 44.1   |
| 2014 | 62.7 | 8.5    | 63.1   | 76.4   | 44.5   | 74.4 | 7.5    | 62.4   | 93.6   | 43.3   | 51.5 | 9.4    | 63.7   | 58.3   | 45.7   |
| 2015 | 62.8 | 8.8    | 63.6   | 76.7   | 45.3   | 74.1 | 7.7    | 62.9   | 93.8   | 44.2   | 51.9 | 9.9    | 64.3   | 58.7   | 46.5   |
| 2016 | 62.9 | 8.8    | 64.5   | 77.1   | 46.3   | 74.0 | 8.1    | 63.7   | 93.2   | 45.0   | 52.2 | 9.6    | 65.3   | 59.9   | 47.6   |
| 2017 | 63.2 | 9.2    | 63.9   | 77.8   | 46.7   | 74.1 | 8.5    | 62.9   | 93.2   | 45.3   | 52.7 | 10.1   | 64.9   | 61.4   | 48.0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1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경제활동참여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3-1-2. 고용률

15~29세 청년 고용률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유사하게 2007년에서 2012년까지는 4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 39.5%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7년 42.1%로 나타났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 참여율과 비슷하게 여성(44.0%)의 고용률이 남성(40.1%)보다 3.9%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층 전 연령대의 경향도 경제활동 참여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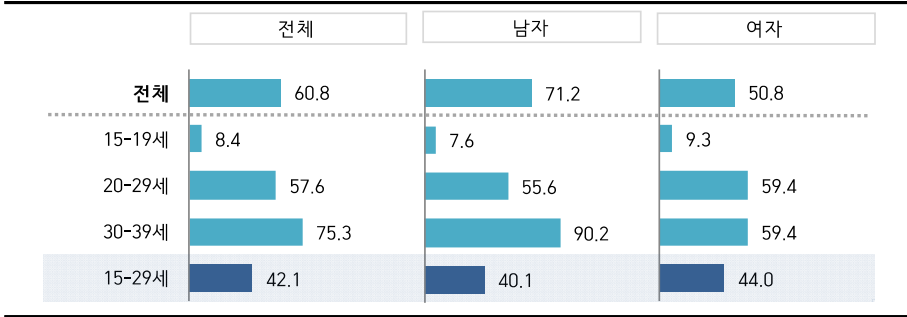


그림 III-42 고용률(2017년)

표 III-50 연도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        |        |        | 남자   |        |        |        |        | 여자   |        |        |        |        |
|------|------|--------|--------|--------|--------|------|--------|--------|--------|--------|------|--------|--------|--------|--------|
|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 2007 | 60.1 | 6.6    | 60.1   | 73.0   | 43.2   | 71.7 | 5.9    | 60.5   | 90.3   | 42.2   | 49.1 | 7.3    | 59.7   | 54.9   | 44.1   |
| 2008 | 59.8 | 5.9    | 59.4   | 73.0   | 41.9   | 71.2 | 4.9    | 59.4   | 90.3   | 40.6   | 48.9 | 6.9    | 59.3   | 54.8   | 43.2   |
| 2009 | 58.8 | 5.4    | 58.4   | 71.4   | 40.6   | 70.2 | 4.2    | 58.6   | 89.1   | 39.3   | 47.8 | 6.7    | 58.2   | 52.8   | 41.9   |
| 2010 | 58.9 | 6.1    | 58.4   | 72.0   | 40.4   | 70.3 | 4.7    | 58.5   | 89.4   | 38.8   | 47.9 | 7.7    | 58.4   | 53.8   | 41.9   |
| 2011 | 59.3 | 6.8    | 58.4   | 72.2   | 40.4   | 70.7 | 5.5    | 58.1   | 89.8   | 39.0   | 48.3 | 8.1    | 58.6   | 53.8   | 41.8   |
| 2012 | 59.6 | 7.0    | 58.2   | 72.8   | 40.3   | 71.1 | 5.7    | 57.5   | 90.3   | 38.7   | 48.6 | 8.3    | 58.8   | 54.6   | 41.8   |
| 2013 | 59.8 | 6.9    | 56.8   | 73.3   | 39.5   | 71.1 | 5.9    | 55.8   | 90.2   | 37.9   | 48.9 | 7.9    | 57.8   | 55.5   | 41.0   |
| 2014 | 60.5 | 7.7    | 57.4   | 74.1   | 40.5   | 71.7 | 6.8    | 55.9   | 90.9   | 38.7   | 49.7 | 8.6    | 58.8   | 56.3   | 42.2   |
| 2015 | 60.5 | 7.8    | 57.9   | 74.4   | 41.2   | 71.4 | 6.9    | 56.3   | 90.9   | 39.5   | 50.1 | 8.8    | 59.4   | 56.9   | 42.9   |
| 2016 | 60.6 | 8.0    | 58.2   | 74.7   | 41.7   | 71.2 | 7.2    | 56.7   | 90.2   | 40.1   | 50.3 | 8.8    | 59.6   | 58.2   | 43.4   |
| 2017 | 60.8 | 8.4    | 57.6   | 75.3   | 42.1   | 71.2 | 7.6    | 55.6   | 90.2   | 40.1   | 50.8 | 9.3    | 59.4   | 59.4   | 44.0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100

### 3-1-3. 실업률

청년고용법 상의 기준인 15~29세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고용률과는 달리 실업률 지표는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청년 실업률은 7.2%였으나 2017년 기준 9.8%로 나타나 최근 10년 간 2%p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로 여자(8.3%)보다 남자(11.4%)의 실업률이 높았다. 2017년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15~29세, 9.8%)은 전체 실업률(3.7%) 대비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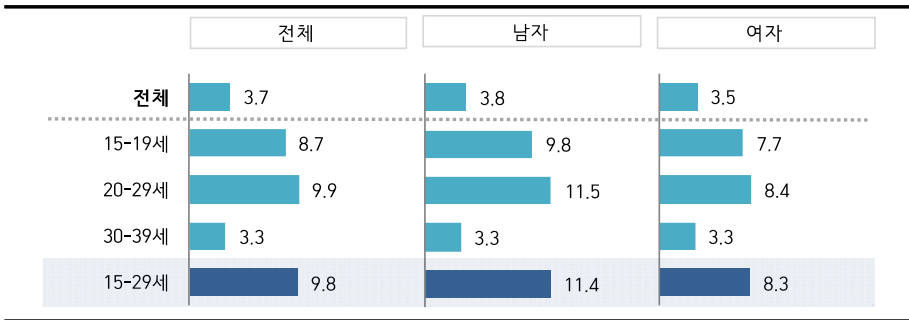


그림 III-43 실업률(2017년)

표 III-51 연도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        |        |        | 남자  |        |        |        |        | 여자  |        |        |        |        |
|------|-----|--------|--------|--------|--------|-----|--------|--------|--------|--------|-----|--------|--------|--------|--------|
|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 2007 | 3.2 | 9.3    | 7.1    | 3.2    | 7.2    | 3.7 | 9.5    | 9.0    | 3.5    | 9.1    | 2.7 | 9.2    | 5.3    | 2.6    | 5.5    |
| 2008 | 3.2 | 10.2   | 7.0    | 3.1    | 7.1    | 3.6 | 12.3   | 8.4    | 3.5    | 8.6    | 2.6 | 8.6    | 5.7    | 2.4    | 5.8    |
| 2009 | 3.6 | 12.3   | 7.8    | 3.6    | 8.0    | 4.1 | 15.1   | 9.5    | 4.0    | 9.8    | 3.0 | 10.3   | 6.2    | 2.9    | 6.4    |
| 2010 | 3.7 | 11.9   | 7.7    | 3.5    | 7.9    | 4.0 | 15.1   | 9.0    | 3.9    | 9.3    | 3.3 | 9.6    | 6.5    | 3.0    | 6.7    |
| 2011 | 3.4 | 10.8   | 7.4    | 3.4    | 7.6    | 3.6 | 12.1   | 8.8    | 3.4    | 9.0    | 3.1 | 9.8    | 6.1    | 3.3    | 6.3    |

| 연도   | 전체  |        |        |        |        | 남자  |        |        |        |        | 여자  |        |        |        |        |
|------|-----|--------|--------|--------|--------|-----|--------|--------|--------|--------|-----|--------|--------|--------|--------|
|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계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 2012 | 3.2 | 8.9    | 7.4    | 3.0    | 7.5    | 3.4 | 9.5    | 8.5    | 3.2    | 8.5    | 3.0 | 8.4    | 6.5    | 2.7    | 6.6    |
| 2013 | 3.1 | 10.3   | 7.8    | 3.0    | 8.0    | 3.3 | 11.3   | 9.0    | 3.2    | 9.1    | 2.8 | 9.5    | 6.8    | 2.5    | 7.0    |
| 2014 | 3.5 | 9.3    | 9.0    | 3.1    | 9.0    | 3.5 | 10.2   | 10.5   | 2.9    | 10.5   | 3.5 | 8.4    | 7.6    | 3.5    | 7.7    |
| 2015 | 3.6 | 10.6   | 9.0    | 3.1    | 9.1    | 3.6 | 10.4   | 10.5   | 3.1    | 10.5   | 3.5 | 10.7   | 7.6    | 3.1    | 7.8    |
| 2016 | 3.7 | 10.0   | 9.8    | 3.1    | 9.8    | 3.8 | 10.9   | 10.9   | 3.3    | 10.9   | 3.6 | 9.2    | 8.8    | 3.0    | 8.8    |
| 2017 | 3.7 | 8.7    | 9.9    | 3.3    | 9.8    | 3.8 | 9.8    | 11.5   | 3.3    | 11.4   | 3.5 | 7.7    | 8.4    | 3.3    | 8.3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실업률=(실업자/15세이상 인구)×100

#### 3-1-4. 신설법인 비율

전체 신설법인 중 청년층이 대표자로 있는 신설법인의 비율을 통해 청년들이 얼마나 창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2010년 신설법인 중에서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경우는 30.7%였으나 2017년에는 27.0%로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청년 창업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8년 상반기까지의 결과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0년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의 수는 18,518개소였던데 반해, 2017년 26,526개소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개소 수는 급상승하였으나 전체 신설법인 개수 역시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자의 연령을 30세 미만과 30대로 구분할 경우, 30대 미만의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17년 6.3%로 증가하여 젊은 청년들의 창업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 반면, 30대 비중은 같은 기간 25.5%에서 20.7%로 낮아져 전체 청년 신설법인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결과로 보면 30세 미만과 30대 대표자 비율 모두 지난 2017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통상 창업이 연 초를 비롯한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휴·폐업이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2018년도 청년층의 신설법인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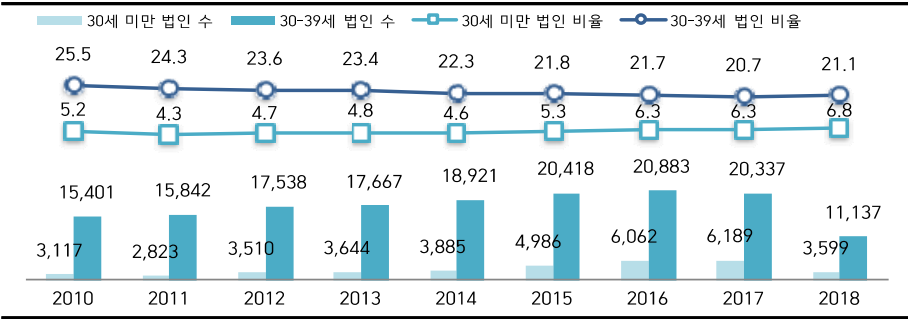


그림 Ⅲ-44 전산업 기준 청년층 신설법인 수 및 비율(2010~2018년)

표 Ⅲ-52 연도별 전산업 기준 신설법인 수 및 비율 추이

(단위: 개소(%))

| 연도        | 계             | 30세 미만     | 30-39세       |
|-----------|---------------|------------|--------------|
| 2010      | 60,312(100.0) | 3,117(5.2) | 15,401(25.5) |
| 2011      | 65,110(100.0) | 2,823(4.3) | 15,842(24.3) |
| 2012      | 74,162(100.0) | 3,510(4.7) | 17,538(23.6) |
| 2013      | 75,479(100.0) | 3,644(4.8) | 17,667(23.4) |
| 2014      | 84,697(100.0) | 3,885(4.6) | 18,921(22.3) |
| 2015      | 93,768(100.0) | 4,986(5.3) | 20,418(21.8) |
| 2016      | 96,155(100.0) | 6,062(6.3) | 20,883(21.7) |
| 2017      | 98,330(100.0) | 6,189(6.3) | 20,337(20.7) |
| 2018(상반기) | 52,790(100.0) | 3,599(6.8) | 11,137(21.1) |

\* 출처: 중소기업본부(각 연도). 신설법인동향.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 주: 기타제품제조업\(담배제조업, 산업용기계\) 포함](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C&conn_path=I2(2010-2016년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09N_102&conn_path=I2(2017-2018년 자료)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a></p>
</div>
<div data-bbox=)

### 3-1-5.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

통계청의 기업생멸통계를 통해 청년 고용주(대표)의 증감 여부를 살펴본 결과, 신설법인 중에서 29세 이하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은 활동 기업이나 신생기업 모두 지난 2011년 이후 큰 변화 없이 활동기업 1.1% 내외, 신생기업비율 0.4% 내외, 소멸기업 0.2%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단, 30대 고용주(대표) 비율의 경우 소폭이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서 살펴본 신설법인 수 및 비율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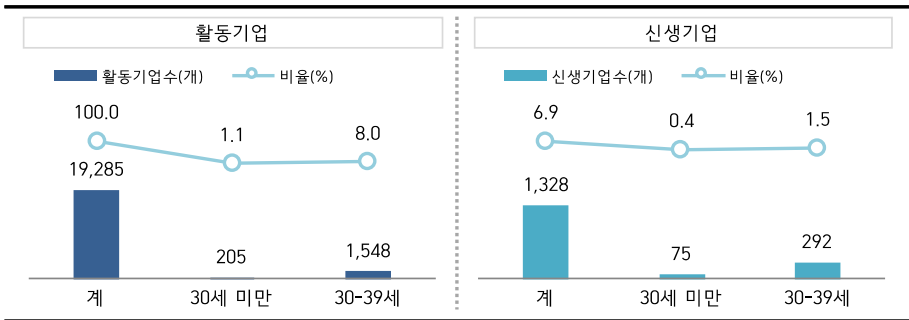


그림 III-45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수 및 비율(2016년)

표 III-53 연도별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수 및 비율 추이

(단위: 개(%))

| 연도   | 활동기업              |              |                | 신생기업           |             |              | 소멸기업           |             |              |
|------|-------------------|--------------|----------------|----------------|-------------|--------------|----------------|-------------|--------------|
|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 2011 | 16,583<br>(100.0) | 183<br>(1.1) | 1,468<br>(8.9) | 1,273<br>(7.7) | 66<br>(0.4) | 289<br>(1.7) | 967<br>(5.8)   | 38<br>(0.2) | 181<br>(1.1) |
| 2012 | 17,146<br>(100.0) | 175<br>(1.0) | 1,455<br>(8.5) | 1,254<br>(7.3) | 61<br>(0.4) | 286<br>(1.7) | 1,058<br>(6.2) | 39<br>(0.2) | 187<br>(1.1) |
| 2013 | 17,846<br>(100.0) | 169<br>(0.9) | 1,427<br>(8.0) | 1,200<br>(6.7) | 58<br>(0.3) | 274<br>(1.5) | 970<br>(5.4)   | 32<br>(0.2) | 169<br>(0.9) |
| 2014 | 18,433<br>(100.0) | 174<br>(0.9) | 1,453<br>(7.9) | 1,346<br>(7.3) | 64<br>(0.3) | 296<br>(1.6) | 1,009<br>(5.5) | 32<br>(0.2) | 157<br>(0.9) |
| 2015 | 18,553<br>(100.0) | 186<br>(1.0) | 1,484<br>(8.0) | 1,244<br>(6.7) | 65<br>(0.4) | 280<br>(1.5) | 894<br>(4.8)   | 31<br>(0.2) | 154<br>(0.8) |
| 2016 | 19,285<br>(100.0) | 205<br>(1.1) | 1,548<br>(8.0) | 1,328<br>(6.9) | 75<br>(0.4) | 292<br>(1.5) | -              | -           | -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기업생멸행정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2&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 주 1) 신생률: 당해연도(t)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신생률(t년도) = (t년도)신생기업수/(t년도)활동기업수×100)
- 2) 소멸률: 당해연도(t) 활동기업에 대한 소멸기업의 비율(소멸률(t년도) = (t년도)소멸기업수/(t년도)활동기업수×100)

### 3-1-6. 니트(NEET) 비율

청년 니트(NEET)는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며 OECD에서는 형식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훈련까지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는 니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OECD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4년부터는 청년 니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산출 및 제출하고 있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산출한 니트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현재 19.1%로 나타나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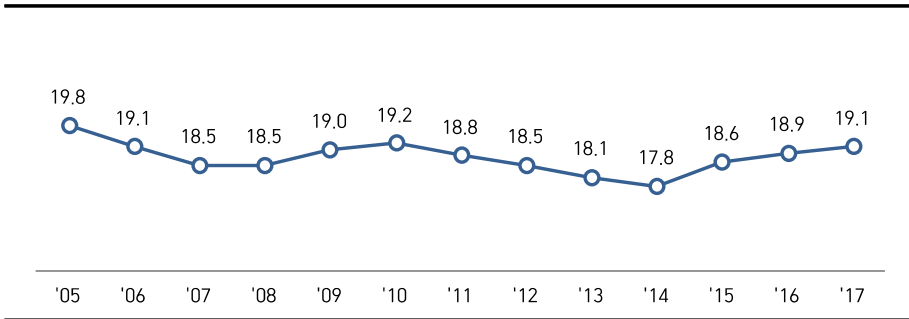


그림 III-46 니트(NEET) 비율(2005~2017년)

표 III-54 연도별 니트(NEET) 비율 추이(OECD 기준)

(단위: %)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니트(%) | 19.8 | 19.1 | 18.5 | 18.5 | 19.0 | 19.2 | 18.8 | 18.5 | 18.1 | 17.8 | 18.6 | 18.9 | 19.1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 주 1) 2014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결과임.  
2) 니트는 재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닌 경우임.

### 3-1-7. 비정규직 비율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기준 32.9%으로, 2003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 2012년 이후부터는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15~19세의 경우 75.4%로 매우 높으며, 20대는 전체 비율과 유사하고, 30대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15~29세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35.7%로 집계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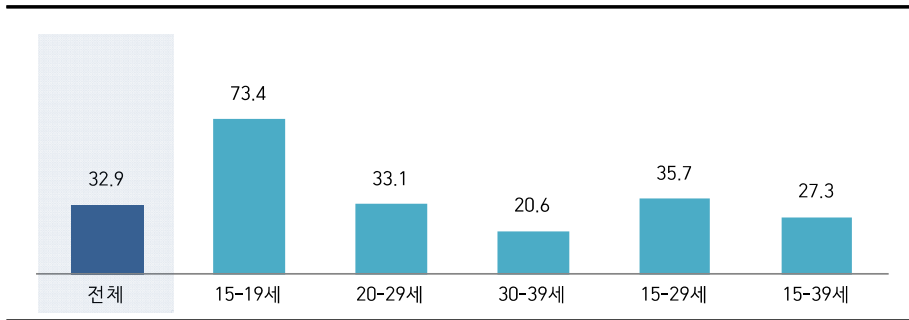


그림 III-47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2017년)

표 III-55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15-39세 |
|------|------|--------|--------|--------|--------|--------|
| 2003 | 32.6 | 62.5   | 29.6   | 26.3   | 31.8   | 29.0   |
| 2004 | 37.0 | 62.1   | 33.4   | 32.2   | 35.0   | 33.5   |
| 2005 | 36.6 | 70.3   | 33.0   | 30.3   | 35.2   | 32.6   |
| 2006 | 35.4 | 71.1   | 31.1   | 29.7   | 33.1   | 31.3   |
| 2007 | 35.8 | 71.0   | 31.4   | 29.8   | 33.5   | 31.5   |
| 2008 | 33.8 | 64.9   | 31.0   | 26.8   | 32.8   | 29.5   |
| 2009 | 34.8 | 75.0   | 31.6   | 25.2   | 33.9   | 29.0   |
| 2010 | 33.2 | 69.6   | 31.1   | 23.4   | 33.3   | 27.7   |

| 연도   | 전체   | 15-19세 | 20-29세 | 30-39세 | 15-29세 | 15-39세 |
|------|------|--------|--------|--------|--------|--------|
| 2011 | 34.2 | 69.6   | 31.6   | 24.4   | 34.0   | 28.5   |
| 2012 | 33.2 | 76.1   | 30.5   | 23.1   | 33.8   | 27.6   |
| 2013 | 32.5 | 74.8   | 31.1   | 22.2   | 34.0   | 27.1   |
| 2014 | 32.2 | 70.0   | 32.0   | 21.8   | 34.7   | 27.3   |
| 2015 | 32.4 | 74.3   | 32.1   | 21.2   | 35.1   | 27.2   |
| 2016 | 32.8 | 75.2   | 32.2   | 21.1   | 35.2   | 27.3   |
| 2017 | 32.9 | 73.4   | 33.1   | 20.6   | 35.7   | 27.3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1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 주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결과에 따른 것임.  
 2) 비정규직 비율=(해당 연령층 비정규직 수/해당 연령층 임금근로자 수)×100

### 3-1-8. 신규 채용률

대졸 신입직원 경쟁률 자료를 통해 현재 국내에 직접적 통계 자료가 없는 신규 채용률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보았다. 대졸 신입사원의 경쟁률은 2008년 26.3대 1에서 2016년 35.7대 1로,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같은 기간 24.4대 1에서 31.3대 1로 증가하였으나 비제조업은 27.8대 1에서 43.5대 1로 비교적 더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경쟁률이 30.3대 1에서 38.5대 1로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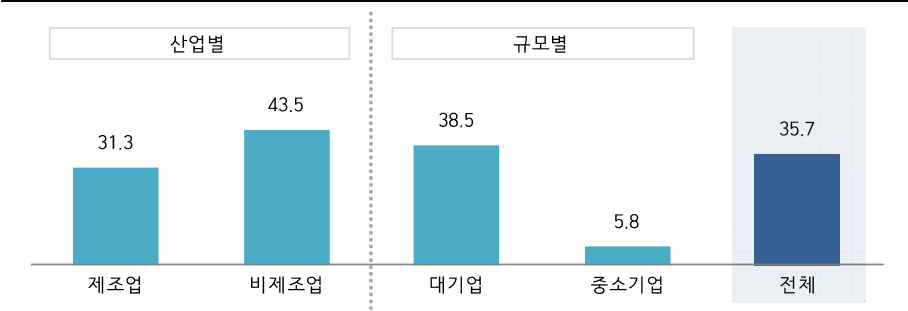


그림 III-48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2017년)

표 III-56 연도별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추이

(단위: 명)

| 연도   | 산업     |        | 규모     |       | 전체     |
|------|--------|--------|--------|-------|--------|
|      | 제조업    | 비제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
| 2008 | 24.4:1 | 27.8:1 | 30.3:1 | 8.4:1 | 26.3:1 |
| 2013 | 25.6:1 | 34.5:1 | 31.3:1 | 6.0:1 | 28.6:1 |
| 2015 | 29.4:1 | 37.0:1 | 35.7:1 | 6.6:1 | 32.3:1 |
| 2017 | 31.3:1 | 43.5:1 | 38.5:1 | 5.8:1 | 35.7:1 |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각 연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웹사이트 [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6023](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6023)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서 규모에 따른 경쟁률은 300인 이상 기업, 300인 미만 기업으로 나뉘.

3-1-9. 청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2013년 이래 2018년에도 ‘안정적인 회사(30.8%)’로 보고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급여가 높은 회사(22.2%)’,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13.2%)’,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년간 줄곧 차순위 선호를 보였던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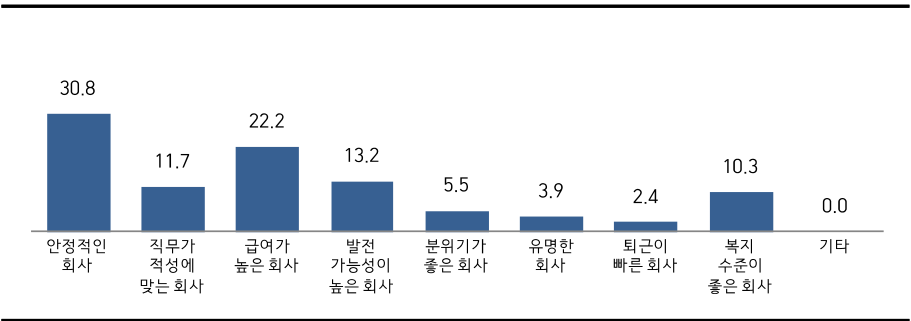


그림 III-49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2018년)

표 III-57 연도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 연도   | 안정적인 회사 |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급여가 높은 회사 |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분위가 좋은 회사 | 유명한 회사 | 퇴근이 빠른 회사 |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기타  |
|------|---------|---------------|-----------|---------------|-----------|--------|-----------|--------------|-----|
| 2013 | 36.6    | 15.2          | 20.0      | 12.4          | 9.6       | 1.6    | 4.3       | -            | 0.3 |
| 2015 | 37.5    | 15.2          | 25.9      | 8.4           | 8.2       | 1.7    | 2.7       | -            | 0.4 |
| 2016 | 31.0    | 25.6          | 18.3      | 10.5          | 8.8       | 2.9    | 2.7       | -            | 0.1 |
| 2017 | 31.4    | 22.3          | 19.5      | 8.8           | 9.0       | 1.6    | 6.9       | -            | 0.4 |
| 2018 | 30.8    | 11.7          | 22.2      | 13.2          | 5.5       | 3.9    | 2.4       | 10.3         | 0.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복지수준이 좋은 회사' 는 2018년 신규 추가된 보기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1-10.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취업 이유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2017년 59.4%에서 4.8%p 상승한 63.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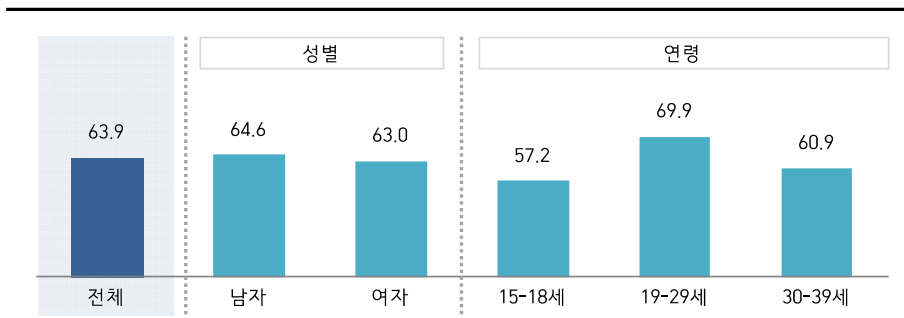


그림 III-50 중소기업 취업 의향(2018년)



표 Ⅲ-58 연령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3 | 62.8 | 62.6 | 63.0 | -      | 63.4   | 62.2   |
| 2015 | 50.1 | 53.4 | 46.6 | -      | 54.3   | 46.1   |
| 2016 | 68.9 | 68.7 | 69.1 | 63.4   | 73.4   | 66.2   |
| 2017 | 59.4 | 57.7 | 61.3 | 57.5   | 63.9   | 55.5   |
| 2018 | 63.9 | 64.6 | 63.0 | 57.2   | 69.9   | 60.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한편,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없는 청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낮은 급여 수준'이 20.7%로 뒤를 이었다. 두 가지 사유는 조사연도에 따라 다소간의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매 년도마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 중소기업 비취업 의향 이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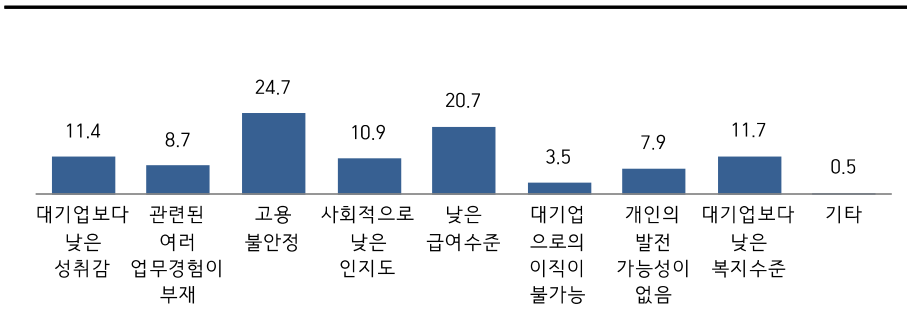


그림 Ⅲ-51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2018년)

표 III-59 연도별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단위: %)

| 연도   | 대기업<br>보다 낮은<br>성취감 | 관련된<br>여러 업무<br>경험이<br>부재 | 고용<br>불안정 | 사회적<br>으로<br>낮은<br>인지도 | 낮은<br>급여 수준 | 대기업<br>으로의<br>이직이<br>불가능 | 개인의<br>발전<br>가능성이<br>없음 | 대기업<br>보다 낮은<br>복지수준 | 기타  |
|------|---------------------|---------------------------|-----------|------------------------|-------------|--------------------------|-------------------------|----------------------|-----|
| 2013 | 14.0                | 12.9                      | 25.0      | 12.9                   | 18.0        | 1.6                      | 12.4                    | -                    | 3.2 |
| 2015 | 11.4                | 13.0                      | 20.6      | 16.8                   | 21.0        | 3.0                      | 14.0                    | -                    | -   |
| 2016 | 10.1                | 4.2                       | 28.2      | 11.1                   | 22.6        | 1.8                      | 15.8                    | -                    | 5.7 |
| 2017 | 13.9                | 8.0                       | 20.6      | 8.4                    | 19.8        | 2.8                      | 13.3                    | 13.9                 | 1.7 |
| 2018 | 11.4                | 8.7                       | 24.7      | 10.9                   | 20.7        | 3.5                      | 7.9                     | 11.7                 | 0.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2)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1-11. 청년 창업 의향 여부 및 경험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창업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는 응답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17년 12.7%에서 2018년 5.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남자(6.2%)가 여자(5.2%)보다, 타 연령대 대비 10대(9.1%)가 창업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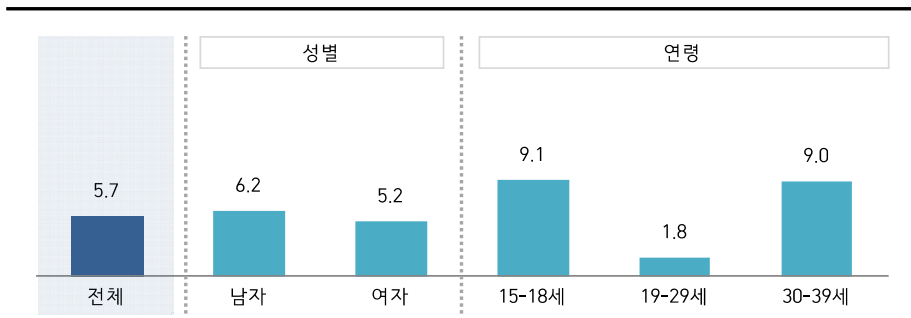


그림 III-52 창업 경험(2018년)

표 III-60 연도별 창업 경험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5 | 7.4  | 11.3 | 3.1  | -      | 3.1    | 11.5   |
| 2016 | 20.1 | 21.1 | 18.6 | 4.5    | 8.0    | 32.3   |
| 2017 | 12.7 | 15.8 | 9.2  | 8.0    | 6.4    | 19.1   |
| 2018 | 5.7  | 6.2  | 5.2  | 9.1    | 1.8    | 9.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5년-2016년 조사에서는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며, 2017년 조사부터는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창업을 고려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는 2017년 35.8%에서 대폭 하락한 22.7%로 조사되었다. 남자가 26.3%로 여자(18.7%)보다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창업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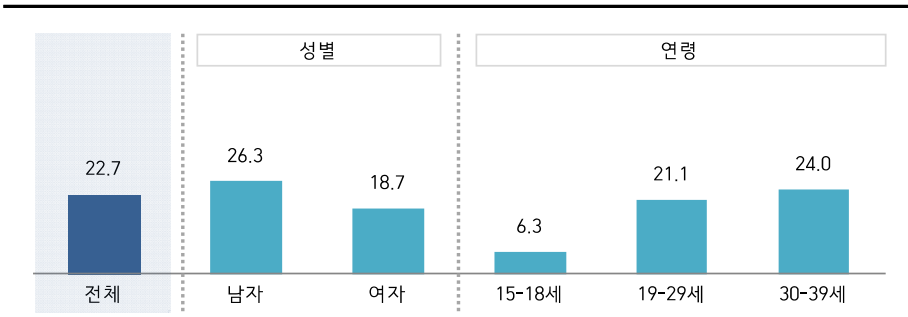


그림 III-53 창업 의사(2018년)

표 III-61 연도별 창업 의사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3 | 25.2 | 28.5 | 21.8 | -      | 17.0   | 32.9   |
| 2015 | 12.5 | 13.9 | 11.2 | -      | 11.4   | 13.7   |
| 2016 | 29.4 | 34.2 | 24.2 | 18.4   | 27.8   | 34.6   |
| 2017 | 35.8 | 36.2 | 35.3 | 36.0   | 37.6   | 34.0   |
| 2018 | 22.7 | 26.3 | 18.7 | 6.3    | 21.1   | 24.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년~2016년 조사에서는 창업 고려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017년 조사에서는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적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1-12. 청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1.7%(‘충분히 받고 있다’+‘받고 있는 편이다’)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 비율(1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도 조사결과 대비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36.7%에서 31.7%로 5.0%p 하락한 반면, 보통(46.8%→50.3%) 응답과 받고 있지 못하다(16.6%→17.9%)는 응답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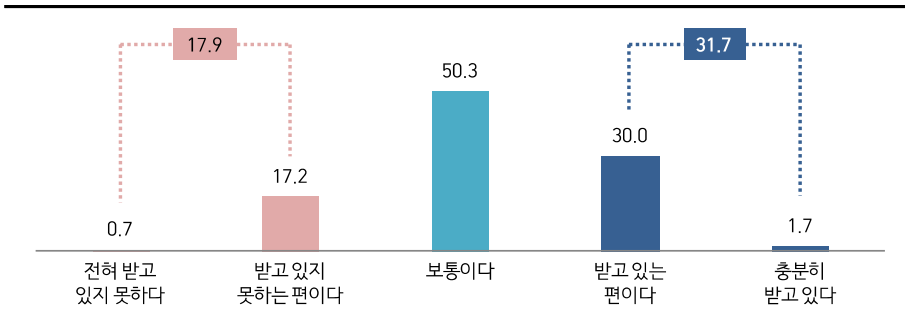


그림 III-54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2018년)

표 III-62 연도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단위: %)

| 연도   |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받고 있는 편이다 | 충분히 받고 있다 |
|------|--------------|---------------|------|-----------|-----------|
| 2013 | 0.6          | 12.1          | 46.4 | 39.8      | 1.4       |
| 2015 | 0.3          | 9.3           | 46.8 | 41.1      | 2.5       |
| 2016 | 1.2          | 14.4          | 50.9 | 28.0      | 5.5       |
| 2017 | 2.3          | 14.3          | 46.8 | 30.4      | 6.3       |
| 2018 | 0.7          | 17.2          | 50.3 | 30.0      | 1.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1-13. 청년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현재 취업중인 청년들의 이직 의향은 2017년 30.2%에서 2018년 25.0%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2015년과 더불어 본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이직 의향 비율이다.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더 나은 보수와 복지를 위해(55.8%)',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15.0%)', '더 나은 근무환경(14.1%)' 등의 순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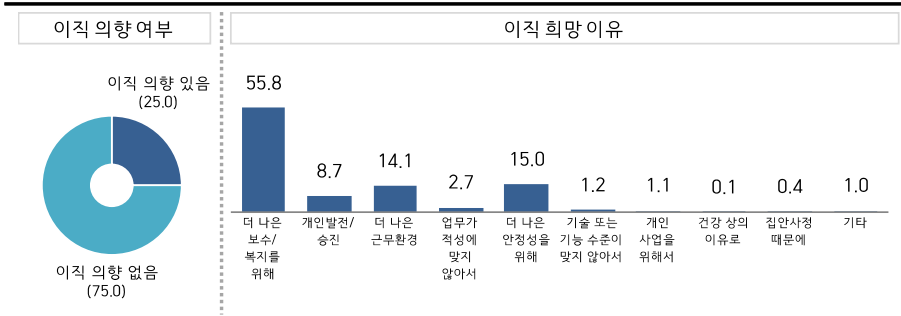


그림 III-55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2018년)

표 III-63 연도별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

(단위: %)

| 연도   | 이직 의향 여부 |          | 이직 희망 이유       |         |           |                |              |                     |            |           |          |     |
|------|----------|----------|----------------|---------|-----------|----------------|--------------|---------------------|------------|-----------|----------|-----|
|      | 이직 의향 있음 | 이직 의향 없음 |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 개인발전/승진 | 더 나은 근무환경 |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개인 사업을 위해서 | 건강 상의 이유로 | 집안사정 때문에 | 기타  |
| 2013 | 30.1     | 69.9     | 53.1           | 11.5    | 14.1      | 1.6            | 15.6         | 0.5                 | 1.0        | 0.5       | -        | 2.1 |
| 2015 | 25.0     | 75.0     | 51.2           | 14.8    | 14.2      | 3.7            | 14.2         | -                   | 1.2        | -         | 0.6      | -   |
| 2016 | 29.4     | 70.6     | 47.6           | 10.1    | 17.4      | 4.4            | 13.2         | 1.8                 | 3.7        | -         | 0.8      | 1.0 |
| 2017 | 30.2     | 69.8     | 52.1           | 10.8    | 16.5      | 3.0            | 9.9          | 0.7                 | 4.0        | 0.5       | 2.4      | 0.0 |
| 2018 | 25.0     | 75.0     | 55.8           | 8.7     | 14.1      | 2.7            | 15.0         | 1.2                 | 1.1        | 0.1       | 0.4      | 1.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2-1. 청년 소득

청년 소득은 가구주 기준이며 29세 이하 월 임금 총액은 2007년 약 155만원에서 2017년 약 198만원으로 상승하였다. 30대 월 임금총액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238만원에서 314만원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9세 이하 대비 30대 월 임금총액 상승폭이 다소 큰 것으로 파악된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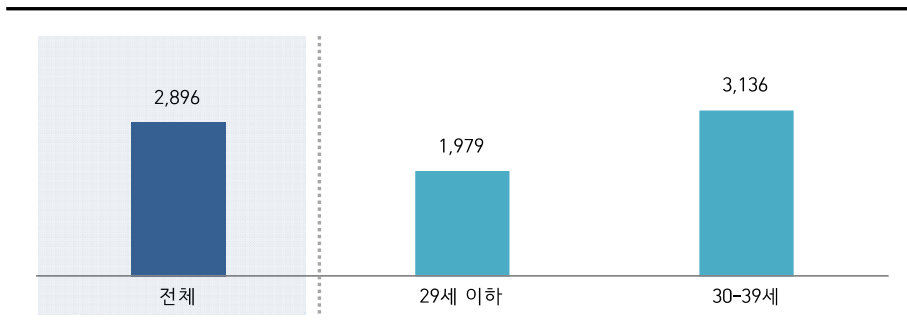


그림 III-56 월임금총액(2017년)

표 III-64 연도별 월임금총액 추이

(단위: 천원)

| 연도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연도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
| 2007 | 2,178 | 1,551  | 2,380  | 2013 | 2,617 | 1,815  | 2,780  |
| 2008 | 2,279 | 1,612  | 2,489  | 2014 | 2,700 | 1,901  | 2,961  |
| 2009 | 2,277 | 1,611  | 2,466  | 2015 | 2,740 | 1,869  | 2,963  |
| 2010 | 2,326 | 1,636  | 2,540  | 2016 | 2,833 | 1,942  | 3,094  |
| 2011 | 2,428 | 1,727  | 2,619  | 2017 | 2,896 | 1,979  | 3,136  |
| 2012 | 2,527 | 1,779  | 2,720  |      |       |        |        |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 3-2-2. 청년 소비

청년들의 가계 지출은 29세 이하 가구의 경우 2007년 약 200만원으로 집계된 이후 2013년 27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15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한 경향을 보인 후 해당 연령구간의 통계 생산이 중지되었다. 최근의 경향까지 확인 가능한 30대 가구의 통계를 살펴보면 이 같은 추이가 현재까지도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즉, 30대 가구 가계 지출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 2014년 약 345만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 기준 312만원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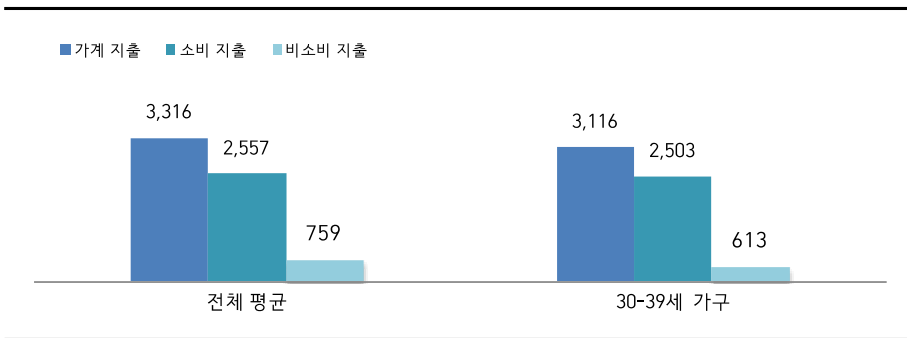


그림 III-57 청년 소비(2017년)



표 III-65 연도별 청년 소비 추이

(단위: 천원)

| 연도   | 전체 평균 |       |       | 29세 이하 가구 |       |       | 30-39세 가구 |       |       |
|------|-------|-------|-------|-----------|-------|-------|-----------|-------|-------|
|      |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 2007 | 2,584 | 2,016 | 568   | 2,008     | 1,647 | 361   | 2,649     | 2,086 | 563   |
| 2008 | 2,718 | 2,114 | 604   | 2,064     | 1,695 | 369   | 2,807     | 2,189 | 618   |
| 2009 | 2,776 | 2,149 | 626   | 2,107     | 1,717 | 390   | 2,875     | 2,232 | 644   |
| 2010 | 2,961 | 2,287 | 674   | 2,279     | 1,891 | 389   | 3,077     | 2,391 | 686   |
| 2011 | 3,115 | 2,393 | 722   | 2,510     | 2,053 | 457   | 3,207     | 2,501 | 705   |
| 2012 | 3,217 | 2,457 | 759   | 2,632     | 2,134 | 498   | 3,215     | 2,488 | 727   |
| 2013 | 3,262 | 2,481 | 781   | 2,700     | 2,188 | 512   | 3,341     | 2,564 | 777   |
| 2014 | 3,356 | 2,551 | 804   | 2,541     | 2,093 | 448   | 3,459     | 2,667 | 792   |
| 2015 | 3,373 | 2,563 | 810   | 2,336     | 1,917 | 419   | 3,451     | 2,667 | 784   |
| 2016 | 3,361 | 2,550 | 812   |           |       |       | 3,362     | 2,577 | 785   |
| 2017 | 3,316 | 2,557 | 759   |           |       |       | 3,116     | 2,503 | 613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 주 1) 2017년에는 전용표본 설계, 조사방법 변경, 연간통계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전년 결과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전국 2인 이상 가구 →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주지표로 공표).  
2) 2016년부터 39세 이하 가구로 표기됨.

###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장년 대비 청년의 상대임금은 40대와 50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40대 대비 29세 이하 청년들의 상대임금은 2007년 59.9%에서 2017년 57.9%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30대 역시 9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50대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92.4% 수준이며 29세 이하는 63.1%이고 30대는 거의 50대의 평균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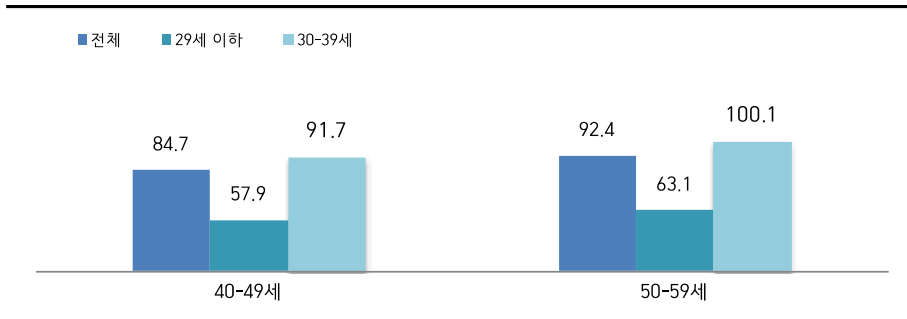


그림 III-58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2017년)

표 III-66 연도별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추이

(단위: %)

| 연도   | 40-49세 |        |        | 50-59세 |        |        |
|------|--------|--------|--------|--------|--------|--------|
|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 2007 | 84.1   | 59.9   | 91.9   | 88.9   | 63.3   | 97.2   |
| 2008 | 84.6   | 59.9   | 92.4   | 90.7   | 64.1   | 99.0   |
| 2009 | 84.4   | 59.7   | 91.4   | 92.2   | 65.2   | 99.8   |
| 2010 | 85.1   | 59.8   | 92.9   | 93.4   | 65.7   | 102.0  |
| 2011 | 85.0   | 60.4   | 91.6   | 94.0   | 66.9   | 101.4  |
| 2012 | 85.3   | 60.1   | 91.9   | 93.9   | 66.1   | 101.1  |
| 2013 | 85.7   | 59.4   | 91.1   | 91.4   | 63.4   | 97.1   |
| 2014 | 85.2   | 60.0   | 93.4   | 95.5   | 67.2   | 104.7  |
| 2015 | 83.9   | 57.3   | 90.8   | 94.2   | 64.3   | 101.9  |
| 2016 | 84.4   | 57.8   | 92.2   | 94.7   | 64.9   | 103.4  |
| 2017 | 84.7   | 57.9   | 91.7   | 92.4   | 63.1   | 100.1  |

\* 출처: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1) 상대임금 = (해당 연령층의 월임금총액 / 기준 연령층의 월임금총액) × 100

2)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특별급여 / 12개월

###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특수형태를 제외할 경우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형태를 포함하더라도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 제외 수치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다소간의 등하락이 있더라도 줄곧 4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 42.3%로 급감한 후 현재까지 45%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형태를 포함할 경우 상대임금 수준이 다소 올라가긴 하나 이 역시 2014년 50% 선이 붕괴된 후 다소 회복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연령별로 29세 이하가 30대 보다 상대임금 수준이 낮았고 30대를 포함하더라도 정규직에 비해 청년 비정규직은 60%가 되지 않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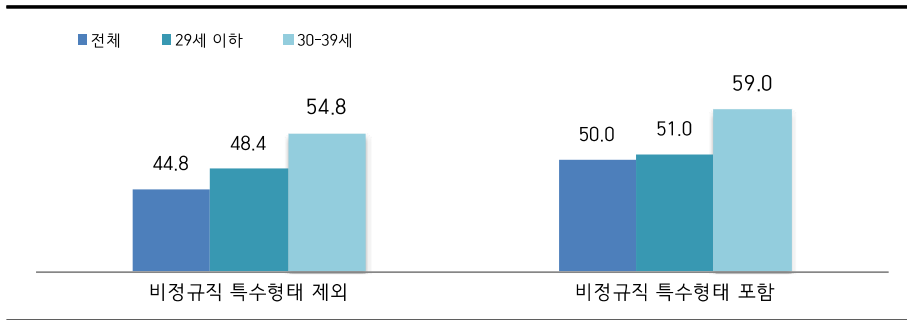


그림 III-59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2017년)

표 Ⅲ-67 연도별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추이

(단위: %)

| 연도   |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        |        | 비정규직 특수형태 포함 |        |        |
|------|--------------|--------|--------|--------------|--------|--------|
|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 2007 | 48.5         | 58.5   | 52.1   | 55.4         | 61.5   | 61.8   |
| 2008 | 47.5         | 55.2   | 53.0   | 53.7         | 58.0   | 60.7   |
| 2009 | 47.3         | 54.2   | 52.1   | 52.7         | 56.2   | 56.8   |
| 2010 | 46.5         | 52.7   | 52.1   | 51.8         | 55.4   | 57.9   |
| 2011 | 46.5         | 54.0   | 52.8   | 52.3         | 55.5   | 57.0   |
| 2012 | 46.2         | 51.1   | 53.9   | 51.6         | 53.2   | 57.1   |
| 2013 | 47.0         | 50.7   | 57.3   | 55.4         | 53.1   | 64.1   |
| 2014 | 42.3         | 45.4   | 50.6   | 48.6         | 47.7   | 57.0   |
| 2015 | 43.0         | 47.0   | 53.2   | 49.2         | 49.3   | 58.3   |
| 2016 | 44.0         | 48.6   | 54.4   | 50.0         | 50.5   | 58.7   |
| 2017 | 44.8         | 48.4   | 54.8   | 50.0         | 51.0   | 59.0   |

\* 출처: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주 1) 상대임금 = (해당 연령층의 월임금총액 / 기준 연령층의 월임금총액) × 100

2)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특별급여 / 12개월

### 3-2-5. 청년 부채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9세 이하의 경우 부채 규모가 2010년 936만 원에서 2017년 2,385만원으로 늘었다. 30대의 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 3,981만 원에서 5,95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보유가구의 중앙값으로 보면 같은 기간 29세 이하는 84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었고 30대는 2,900만원에서 5,950만 원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부채도 지속 증가세에 놓여 있으나 20대와 30대 가구의 증가세는 훨씬 더 급격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수준의 증가폭이므로 향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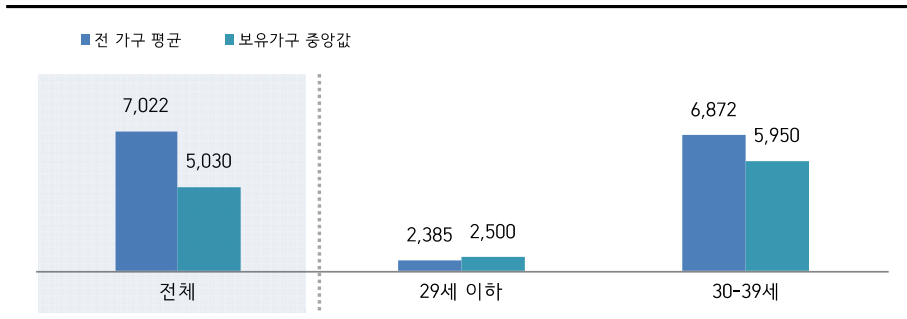


그림 III-60 청년 가구의 부채(2017년)

표 III-68 연도별 청년 가구주 부채 추이

(단위: 만원)

| 연도   |          | 전체    | 29세 이하 | 30-39세 |
|------|----------|-------|--------|--------|
| 2010 | 전가구 평균   | 4,618 | 936    | 3,981  |
|      | 보유가구 중앙값 | 3,000 | 840    | 2,900  |
| 2011 | 전가구 평균   | 5,205 | 1,268  | 4,609  |
|      | 보유가구 중앙값 | 3,080 | 1,000  | 3,000  |
| 2012 | 전가구 평균   | 5,450 | 1,283  | 4,405  |
|      | 보유가구 중앙값 | 3,240 | 1,000  | 3,200  |
| 2013 | 전가구 평균   | 5,858 | 1,401  | 4,890  |
|      | 보유가구 중앙값 | 3,646 | 852    | 3,530  |
| 2014 | 전가구 평균   | 6,051 | 1,481  | 5,257  |
|      | 보유가구 중앙값 | 4,007 | 1,078  | 4,024  |
| 2015 | 전가구 평균   | 6,256 | 1,491  | 5,463  |
|      | 보유가구 중앙값 | 4,500 | 1,550  | 4,800  |
| 2016 | 전가구 평균   | 6,719 | 1,681  | 5,920  |
|      | 보유가구 중앙값 | 5,000 | 2,006  | 5,220  |
| 2017 | 전가구 평균   | 7,022 | 2,385  | 6,872  |
|      | 보유가구 중앙값 | 5,030 | 2,500  | 5,950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2017년 결과는 잠정치임.

### 3-2-6.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다음 해의 적정 최저 임금 수준을 물어보고 있으나 매해 조사가 이듬해 최저임금 발표시점 전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2017년부터는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제시(최저임금 발표 전이라면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그 다음해(조사년도의 2년 후) 최저임금으로 적절한 금액을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년도 조사결과와 조사년도에 발표된 이듬해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제 최저임금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간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조사결과, 청년들이 적정하다고 보고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7,858원이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실제 최저 임금은 6,47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2017년 조사에서 청년들이 응답한 2019년 적정 최저임금은 8,786원이었지만 실제 발표된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나타나 간극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차이는 436원으로 많이 좁혀졌다. 2018년 조사결과, 청년들이 응답한 2020년 적정 최저임금은 9,235원이었는데, 같은 방식의 비교를 통해 내년 조사에서 실제 최저임금과의 간극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위: 원/시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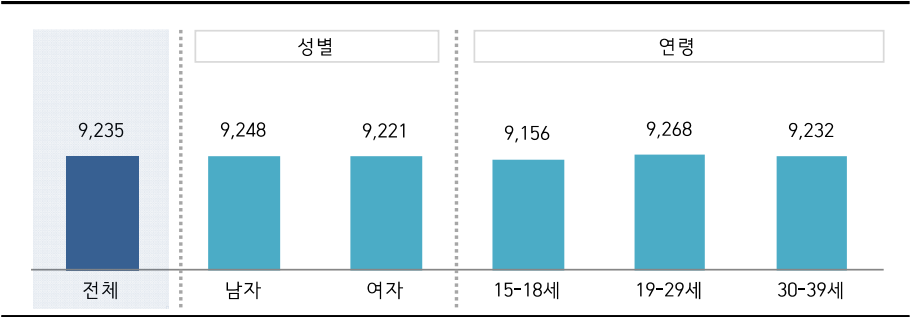


그림 III-61 적정 최저 임금(2018년)

표 III-69 연도별 적정 최저 임금 추이

(단위: 원/시간당)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2017년) | 7,585 | 7,668 | 7,495 | 7,505  | 7,550  | 7,645  |
| 2017(2019년) | 8,786 | 8,835 | 8,732 | 8,692  | 8,811  | 8,789  |
| 2018(2020년) | 9,235 | 9,248 | 9,221 | 9,156  | 9,268  | 9,232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6년 자료는 2017년, 2017년 자료는 2019년, 2018년 자료는 2020년 적정 최저 임금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2-7. 생활비 및 가족 지원 비율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64만원 수준으로 2017년 75만원 대비 하락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30대의 감소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의 비율은 31.2%였으며 20대의 생활비 가족 지원 비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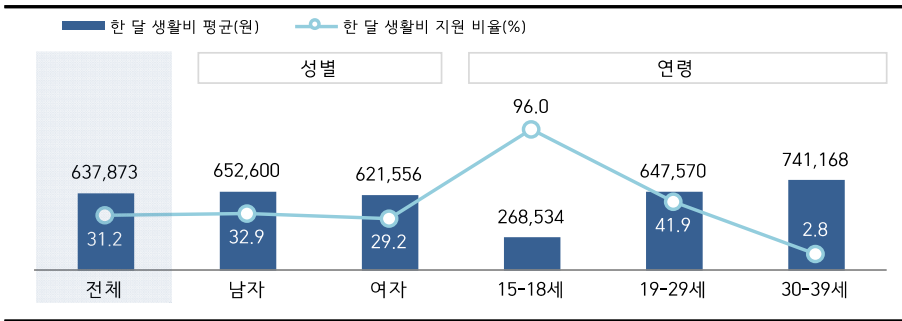


그림 III-62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2018년)

표 III-70 연도별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추이

(단위: 원,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한 달 생활비 평균(원)    | 747,148 | 778,258 | 712,762 | 243,904 | 713,227 | 933,273 |
|      |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 26.3    | 26.7    | 25.8    | 93.3    | 28.9    | 3.4     |
| 2018 | 한 달 생활비 평균(원)    | 637,873 | 652,600 | 621,556 | 268,534 | 647,570 | 741,168 |
|      |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 31.2    | 32.9    | 29.2    | 96.0    | 41.9    | 2.8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중·고등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 3-2-8. 채무 여부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5~39세 청년들 중 2018년 현재 채무가 있는 경우는 25.1%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이나 2016년보다는 높으나 2017년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 남성이 27.0%로 여성(23.0%)보다 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채무가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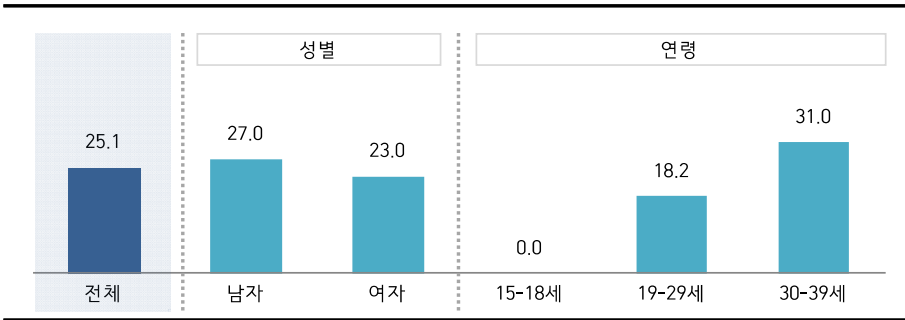


그림 III-63 채무 여부(2018년)

표 III-71 연도별 채무 여부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5 | 21.8 | 19.8 | 24.0 | -      | 7.4    | 35.5   |
| 2016 | 20.2 | 21.1 | 19.1 | 0.0    | 9.6    | 30.9   |
| 2017 | 27.1 | 27.8 | 26.3 | 6.8    | 17.7   | 36.9   |
| 2018 | 25.1 | 27.0 | 23.0 | 0.0    | 18.2   | 31.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갚아야 할 채무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학자금 대출 포함)한 비율(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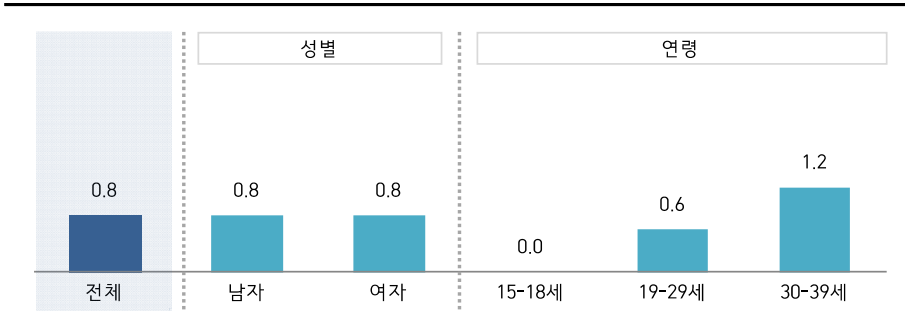
### 3-2-9. 물질적 박탈감 경험여부

다음의 <표 III-69>에서 <표 III-77>까지는 물질적 박탈감 경험과 관련한 결과이다. 이 질문은 유럽연합에서 발간하는 Youth Report에도 포함된 문항으로 추후에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질문은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가지에서 결핍을 경험한다면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고 4가지 이상에서 결핍을 경험할 경우에는 심한 물질적 박탈률(severe material deprivation rate)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가지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한 비율은 2.0%였으며, 4가지 이상에서 결핍을 경험한 비율은 0.8%(4개 항목 0.5%, 5개 항목 0.2%, 6개 이상 항목 0.1% 미만)로 집계되어, 15~39세 청년 100명 중 2명은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먼저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가 0.8%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0.6%였으며,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는 10.3%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못한 경우는 1.1%였으며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한 경우는 18.7%였다. TV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는 0.5%였고,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0.3%였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22.4%였고 타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0.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7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각 문항별로 최소 0.1%p~2.0%p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는 비율은 2017년 13.9%에서 2018년 18.7%로 4.8%p 상승하여 다른 문항 대비 변동 폭이 비교적 컸다.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그림 III-64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2018년)

### 표 III-72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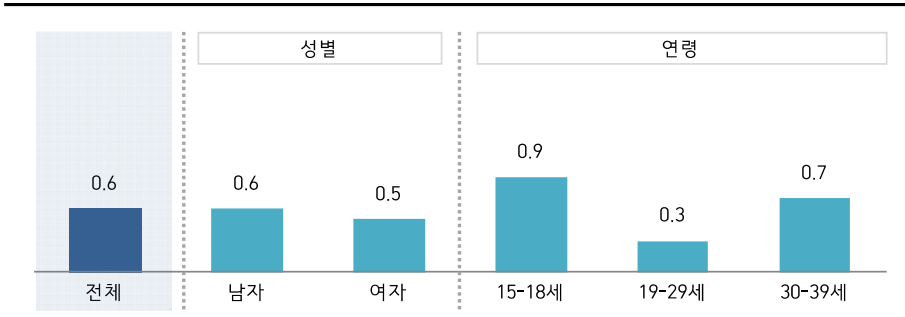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예    | 2.7  | 1.9  | 3.6  | 0.4    | 2.9    | 3.1    |
|      | 아니오  | 86.8 | 87.8 | 85.7 | 68.5   | 84.4   | 94.8   |
|      | 잘 모름 | 10.5 | 10.3 | 10.7 | 31.1   | 12.6   | 2.1    |
| 2018 | 예    | 0.8  | 0.8  | 0.8  | 0.0    | 0.6    | 1.2    |
|      | 아니오  | 82.9 | 81.8 | 84.1 | 58.6   | 78.8   | 93.6   |
|      | 잘 모름 | 16.3 | 17.4 | 15.1 | 41.4   | 20.5   | 5.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III-65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2018년)

표 III-73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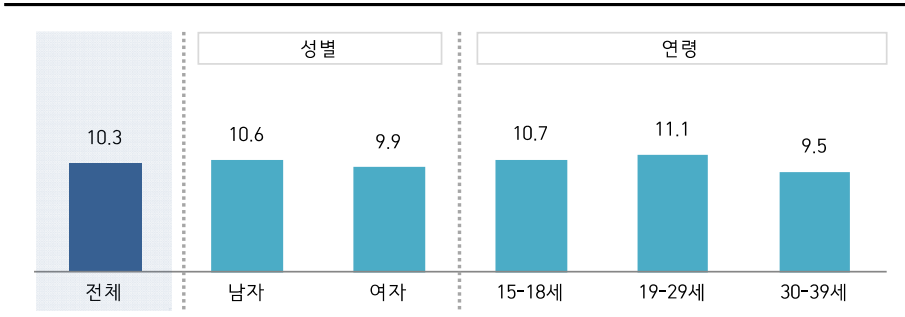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예    | 0.8  | 0.6  | 1.1  | 0.0    | 1.2    | 0.8    |
|      | 아니오  | 90.2 | 90.5 | 90.0 | 72.8   | 88.2   | 97.6   |
|      | 잘 모름 | 8.9  | 8.9  | 9.0  | 27.2   | 10.7   | 1.7    |
| 2018 | 예    | 0.6  | 0.6  | 0.5  | 0.9    | 0.3    | 0.7    |
|      | 아니오  | 85.1 | 84.4 | 85.8 | 65.0   | 80.6   | 94.8   |
|      | 잘 모름 | 14.4 | 15.0 | 13.6 | 34.1   | 19.1   | 4.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그림 III-66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2018년)

표 III-74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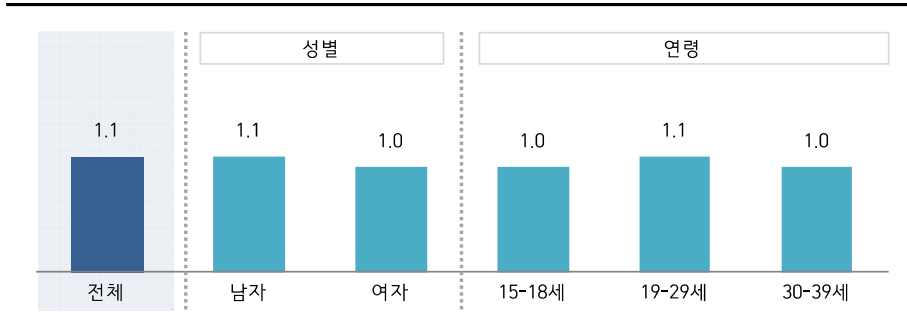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예   | 7.9  | 6.8  | 9.1  | 5.7    | 9.2    | 7.3    |
|      | 아니오 | 92.1 | 93.2 | 90.9 | 94.3   | 90.8   | 92.7   |
| 2018 | 예   | 10.3 | 10.6 | 9.9  | 10.7   | 11.1   | 9.5    |
|      | 아니오 | 89.7 | 89.4 | 90.1 | 89.3   | 88.9   | 90.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III-67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2018년)

표 III-75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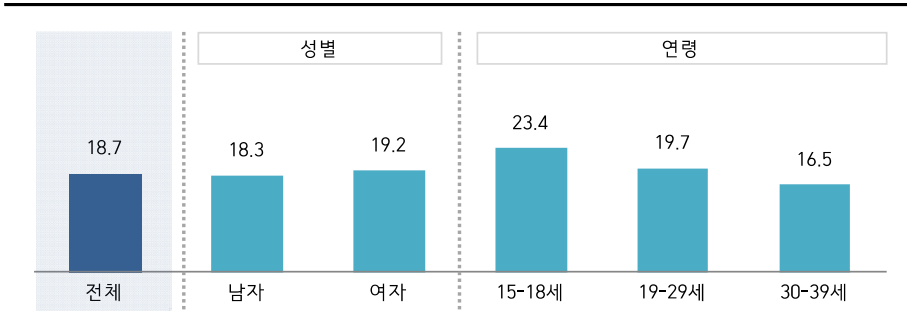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예   | 2.2  | 1.7  | 2.7  | 1.5    | 3.9    | 0.8    |
|      | 아니오 | 97.8 | 98.3 | 97.3 | 98.5   | 96.1   | 99.2   |
| 2018 | 예   | 1.1  | 1.1  | 1.0  | 1.0    | 1.1    | 1.0    |
|      | 아니오 | 98.9 | 98.9 | 99.0 | 99.0   | 98.9   | 99.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그림 III-68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2018년)

표 III-76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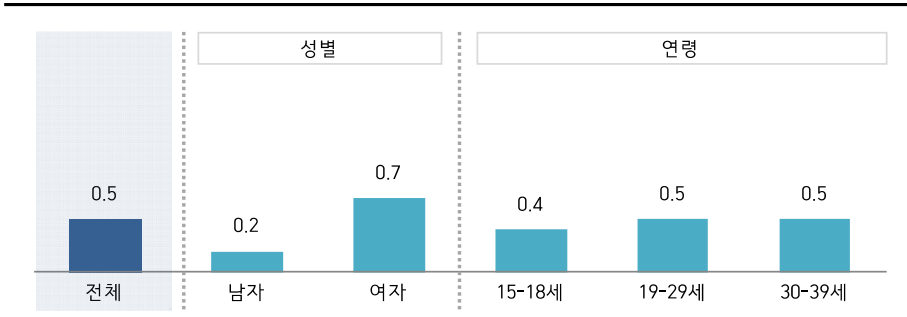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예   | 13.9 | 11.9 | 16.2 | 11.5   | 17.2   | 11.4   |
|      | 아니오 | 86.1 | 88.1 | 83.8 | 88.5   | 82.8   | 88.6   |
| 2018 | 예   | 18.7 | 18.3 | 19.2 | 23.4   | 19.7   | 16.5   |
|      | 아니오 | 81.3 | 81.7 | 80.8 | 76.6   | 80.3   | 83.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그림 III-69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2018년)

### 표 III-77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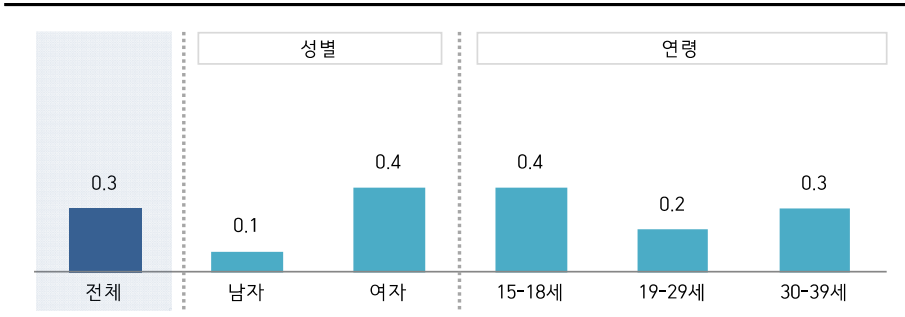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예   | 2.7  | 2.7  | 2.7  | 1.7    | 4.3    | 1.3    |
|      | 아니오 | 97.3 | 97.3 | 97.3 | 98.3   | 95.7   | 98.7   |
| 2018 | 예   | 0.5  | 0.2  | 0.7  | 0.4    | 0.5    | 0.5    |
|      | 아니오 | 99.5 | 99.8 | 99.3 | 99.6   | 99.5   | 99.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III-70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2018년)

표 III-78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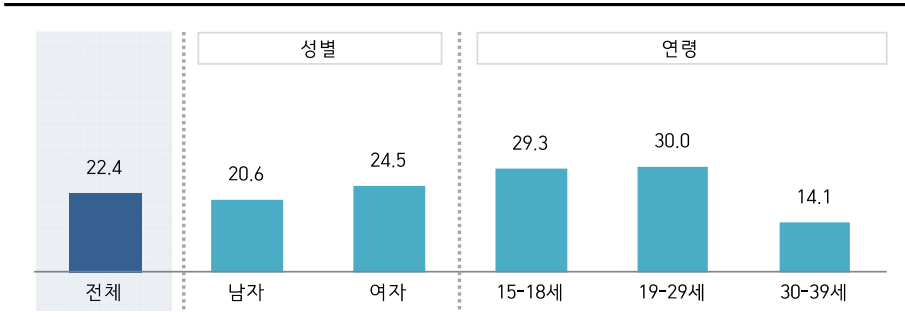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예   | 0.7  | 0.8  | 0.6  | 0.7    | 1.0    | 0.3    |
|      | 아니오 | 99.3 | 99.2 | 99.4 | 99.3   | 99.0   | 99.7   |
| 2018 | 예   | 0.3  | 0.1  | 0.4  | 0.4    | 0.2    | 0.3    |
|      | 아니오 | 99.7 | 99.9 | 99.6 | 99.6   | 99.8   | 99.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그림 Ⅲ-71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2018년)

표 Ⅲ-79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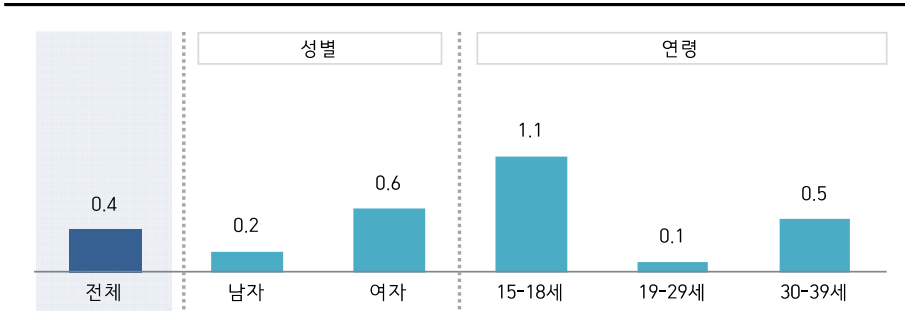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예   | 24.6 | 23.3 | 26.0 | 24.1   | 36.1   | 13.2   |
|      | 아니오 | 75.4 | 76.7 | 74.0 | 75.9   | 63.9   | 86.8   |
| 2018 | 예   | 22.4 | 20.6 | 24.5 | 29.3   | 30.0   | 14.1   |
|      | 아니오 | 77.6 | 79.4 | 75.5 | 70.7   | 70.0   | 85.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그림 III-7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2018년)

표 III-80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예   | 0.3  | 0.4  | 0.2  | 1.1    | 0.2    | 0.1    |
|      | 아니오 | 99.7 | 99.6 | 99.8 | 98.9   | 99.8   | 99.9   |
| 2018 | 예   | 0.4  | 0.2  | 0.6  | 1.1    | 0.1    | 0.5    |
|      | 아니오 | 99.6 | 99.8 | 99.4 | 98.9   | 99.9   | 99.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 주거

4-1-1. 청년층 주거형태

15~24세 청년을 기준으로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6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세가 11.2%,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 9.4%, 사글세가 6.6%, 자가가 5.1%, 관사 및 사택 등 무상이 5.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 기준을 청년고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29세까지로 확장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 30대까지로 기준 연령을 상승할 경우 자가(30.7%)와 전세(24.8%)의 비율이 다소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층 주거형태의 연도별 추이는 전반적으로 전세는 감소하는데 비해 월세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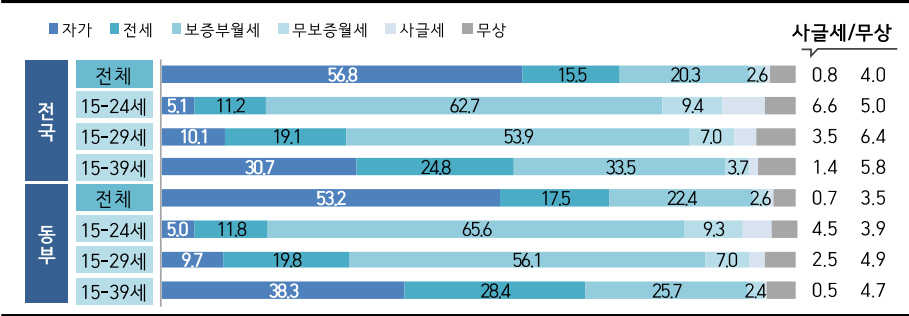


그림 III-73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2015년)

표 III-81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 구분 | 연령     | 연도   | 자가   | 전세<br>(월세없음) | 보증금<br>있는 월세 | 보증금<br>없는 월세 | 사글세  | 무상(관사,<br>사택 등) |
|----|--------|------|------|--------------|--------------|--------------|------|-----------------|
| 전국 | 전체     | 2000 | 54.2 | 28.2         | 10.7         | 2.0          | 2.2  | 2.8             |
|    |        | 2005 | 55.6 | 22.4         | 15.1         | 2.1          | 1.8  | 3.1             |
|    |        | 2010 | 54.2 | 21.7         | 18.2         | 2.0          | 1.3  | 2.7             |
|    |        | 2015 | 56.8 | 15.5         | 20.3         | 2.6          | 0.8  | 4.0             |
|    | 15-24세 | 2000 | 7.5  | 36.1         | 30.4         | 9.4          | 13.2 | 3.5             |
|    |        | 2005 | 6.5  | 23.8         | 46.6         | 8.9          | 10.3 | 3.8             |
|    |        | 2010 | 5.6  | 16.2         | 59.0         | 8.2          | 8.1  | 2.8             |
|    |        | 2015 | 5.1  | 11.2         | 62.7         | 9.4          | 6.6  | 5.0             |
|    | 15-29세 | 2000 | 14.3 | 48.0         | 22.5         | 4.8          | 6.2  | 4.1             |
|    |        | 2005 | 12.7 | 33.3         | 38.3         | 5.6          | 5.4  | 4.6             |
|    |        | 2010 | 11.6 | 27.6         | 48.0         | 5.0          | 3.9  | 3.9             |
|    |        | 2015 | 10.1 | 19.1         | 53.9         | 7.0          | 3.5  | 6.4             |
|    | 15-39세 | 2000 | 32.0 | 43.7         | 15.0         | 2.5          | 3.1  | 3.6             |
|    |        | 2005 | 31.9 | 34.5         | 24.1         | 2.9          | 2.5  | 4.1             |
|    |        | 2010 | 29.5 | 32.3         | 30.0         | 2.6          | 1.8  | 3.8             |
|    |        | 2015 | 30.7 | 24.8         | 33.5         | 3.7          | 1.4  | 5.8             |
| 동부 | 전체     | 2000 | 49.1 | 32.6         | 12.1         | 1.9          | 2.2  | 2.1             |
|    |        | 2005 | 51.6 | 25.4         | 16.8         | 2.1          | 1.7  | 2.4             |
|    |        | 2010 | 50.3 | 24.3         | 20.1         | 2.0          | 1.3  | 2.1             |
|    |        | 2015 | 53.2 | 17.5         | 22.4         | 2.6          | 0.7  | 3.5             |
|    | 15-24세 | 2000 | 6.9  | 38.2         | 32.1         | 8.1          | 12.0 | 2.7             |
|    |        | 2005 | 6.3  | 25.0         | 49.2         | 7.8          | 8.6  | 3.0             |
|    |        | 2010 | 5.4  | 16.7         | 61.8         | 7.8          | 6.3  | 2.1             |
|    |        | 2015 | 5.0  | 11.8         | 65.6         | 9.3          | 4.5  | 3.9             |
|    | 15-29세 | 2000 | 13.3 | 50.3         | 23.3         | 4.3          | 5.8  | 2.9             |
|    |        | 2005 | 12.2 | 34.7         | 39.8         | 5.1          | 4.7  | 3.6             |
|    |        | 2010 | 11.1 | 28.3         | 49.9         | 4.8          | 3.2  | 2.7             |
|    |        | 2015 | 9.7  | 19.8         | 56.1         | 7.0          | 2.5  | 4.9             |
|    | 15-39세 | 2000 | 30.5 | 46.2         | 15.4         | 2.3          | 2.9  | 2.6             |
|    |        | 2005 | 31.0 | 36.0         | 24.8         | 2.7          | 2.2  | 3.2             |
|    |        | 2010 | 28.5 | 33.4         | 31.0         | 2.6          | 1.6  | 2.9             |
|    |        | 2015 | 38.3 | 28.4         | 25.7         | 2.4          | 0.5  | 4.7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51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51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2000년의 경우 일반가구수에서 미상인 가구는 제외함.

#### 4-1-2. 청년층 실주거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39세 이하 가구의 실주거비를 전체 실주거비와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매년 39세 이하 가구의 실주거비가 전체 대비 약 1.3-1.4배 가량 높았다. 전체 전국 가구 기준 2007년도의 실주거비는 41,552 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78,906원으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39세 이하 청년층의 실주거비 역시 57,373원에서 107,674원으로 증가하여 절대적인 실주거비 금액에 있어서는 2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 전체 가구와 청년층 가구의 차이 역시 2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 전체 가구 대비 청년층 가구 실주거비의 상대적 비율은 2007년 약 1.38배에서 2016년 1.36배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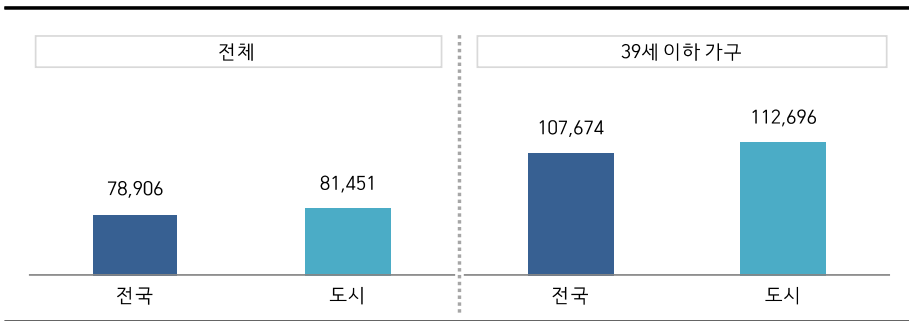


그림 III-74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2016년)

표 III-82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단위: 원)

| 연도   | 전체     |        | 39세 이하 가구 |         |
|------|--------|--------|-----------|---------|
|      | 전국     | 도시     | 전국        | 도시      |
| 2007 | 41,552 | 42,632 | 57,373    | 58,288  |
| 2008 | 40,909 | 41,652 | 54,329    | 54,858  |
| 2009 | 41,946 | 43,131 | 53,072    | 54,807  |
| 2010 | 45,839 | 47,610 | 56,046    | 57,906  |
| 2011 | 49,475 | 51,852 | 67,105    | 70,405  |
| 2012 | 55,207 | 57,250 | 71,996    | 77,576  |
| 2013 | 59,087 | 60,805 | 69,317    | 72,817  |
| 2014 | 61,423 | 63,048 | 81,152    | 87,132  |
| 2015 | 74,227 | 76,264 | 102,720   | 109,586 |
| 2016 | 78,906 | 81,451 | 107,674   | 112,696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nn\\_path=I2\(2007-2016년, 전국 2인 이상 실제주거비\)](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nn_path=I2(2007-2016년, 전국 2인 이상 실제주거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20&conn\\_path=I2\(2007-2016년, 도시 2인 이상 실제주거비\)](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20&conn_path=I2(2007-2016년, 도시 2인 이상 실제주거비))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2007-2016년의 실제주거비는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월세액만을 포함하며, 월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4-1-3. 청년 가구 비율

청년층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가구주 중 청년 연령대 가구주의 비율이다. 청년 고용법 상 기준으로 15~2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 가구 비율은 지난 1980년 15.6%에서 2017년 7.2%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15-24세로 청년 연령을 낮출 경우에도, 같은 기간 5.0%에서 2017년 2.8%로 감소하였다. 30대를 포함할 경우에도, 1980년 43.9%에서 2017년 23.4%로 낮아졌으며 종합적으로 모든 기준에 있어서 청년층 가구 비율은 1980년대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단, 2000년대 이후로만 한정할 경우 감소경향 자체는 여전하나 감소폭은 비교적 점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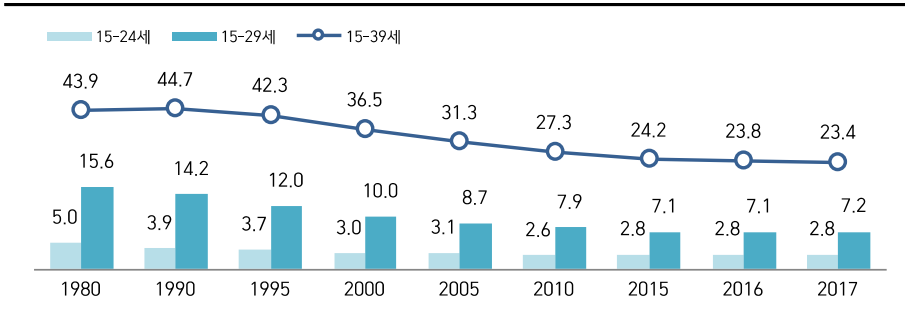


그림 Ⅲ-75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1980~2017년)

표 Ⅲ-83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 15-24세 | 15-29세 | 15-39세 |
|------|--------|--------|--------|
| 1980 | 5.0    | 15.6   | 43.9   |
| 1990 | 3.9    | 14.2   | 44.7   |
| 1995 | 3.7    | 12.0   | 42.3   |
| 2000 | 3.0    | 10.0   | 36.5   |
| 2005 | 3.1    | 8.7    | 31.3   |
| 2010 | 2.6    | 7.9    | 27.3   |
| 2015 | 2.8    | 7.1    | 24.2   |
| 2016 | 2.8    | 7.1    | 23.8   |
| 2017 | 2.8    | 7.2    | 23.4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 주: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가구수/전체 일반가구수×100



####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청년 연령대이면서 가구원이 1인인 경우이다. 청년 고용 법상 기준인 15~29세를 기준으로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39.1%에서 2017년 72.1%로 대폭 증가하였다. 15~24세 1인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56.2%에서 83.0%로 증가하였고, 30대를 포함하였을 때 같은 기간 18.7%에서 43.2%로 높아졌다. 전 연령대에 있어서도 1인 가구 비율은 지속 상승세에 놓여 있으나 전 연령 대비 청년 연령대의 상승폭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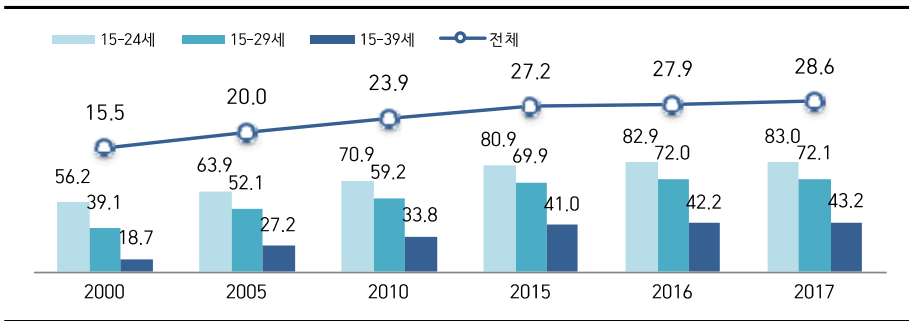


그림 III-76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2000~2017년)

표 III-84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5-24세 | 15-29세 | 15-39세 | 연도   | 전체   | 15-24세 | 15-29세 | 15-39세 |
|------|------|--------|--------|--------|------|------|--------|--------|--------|
| 2000 | 15.5 | 56.2   | 39.1   | 18.7   | 2015 | 27.2 | 80.9   | 69.9   | 41.0   |
| 2005 | 20.0 | 63.9   | 52.1   | 27.2   | 2016 | 27.9 | 82.9   | 72.0   | 42.2   |
| 2010 | 23.9 | 70.9   | 59.2   | 33.8   | 2017 | 28.6 | 83.0   | 72.1   | 43.2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 주 1)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1인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2) 2016년 자료의 경우, 최저 연령이 20세 미만으로 분류되어 있어 15세 미만 1인 가구 인구도 포함되어 산출된 값임.

#### 4-1-5. 부모 동거 여부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부모 동거 비율은 전체적으로 2017년 51.0%에서 2018년 59.5%로 8.0%p 상승하였다. 부모 동거 비율은 남자가 61.4%로 여자(57.5%)보다 높고, 15~18세 청년의 경우, 대다수(99.1%)가 부모와 동거 중이었으며, 20대 역시 84.0%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으나 30대는 27.4%만이 부모와 동거 중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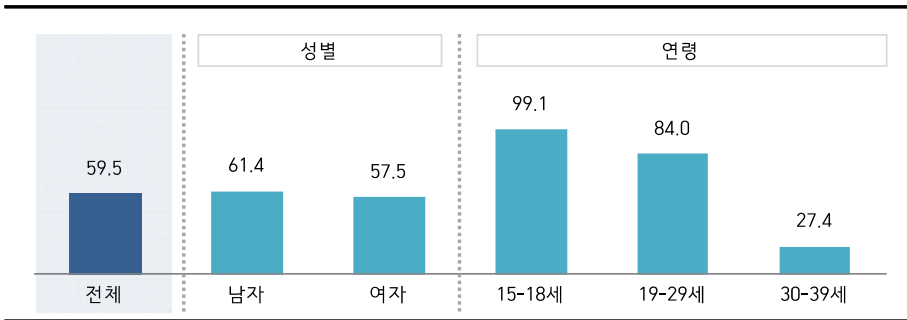


그림 III-77 부모 동거 여부(2018년)

표 III-85 연도별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60.2 | 63.4 | 56.7 | 99.5   | 84.1   | 23.9   |
| 2017 | 51.0 | 54.5 | 47.2 | 98.7   | 69.0   | 18.6   |
| 2018 | 59.5 | 61.4 | 57.5 | 99.1   | 84.0   | 27.4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1-6. 미혼 독립 거주 여부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고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1년 사이에 크게 감소한 15.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16년 수준으로 회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은 여자(11.2%)보다 남자(20.2%)가, 30대(10.6%)보다는 20대(43.7%)가 훨씬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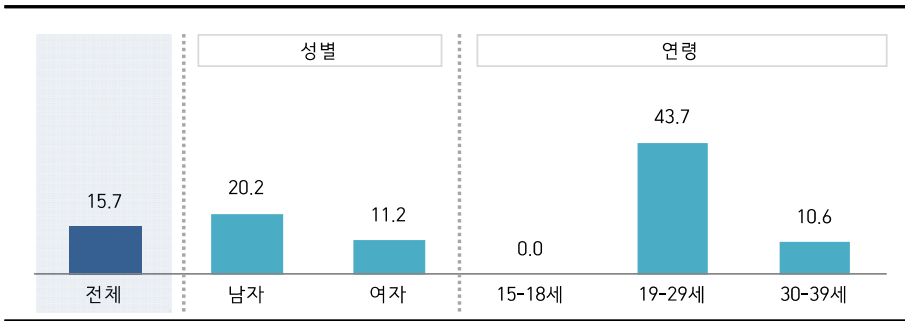


그림 III-78 미혼 혼자 거주 여부(2018년)

표 III-86 연도별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14.9 | 21.5 | 8.9  | -      | 42.4   | 9.3    |
| 2017 | 25.3 | 34.0 | 17.2 | -      | 52.1   | 15.0   |
| 2018 | 15.7 | 20.2 | 11.2 | -      | 43.7   | 10.6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1-7. 1인 가구 주거 형태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다세대/빌라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파트, 원룸 순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원룸 거주 비율이 감소한 반면 다세대/빌라 거주 비율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조사 시기적으로 20대 초중반 대학생 1인 가구의 귀향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조사가 진행되는 점, 조사구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고시원의 경우 가구조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간의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조사 시점을 방학 이전 또는 이후로 조정하거나 통계청 조사구의 모집단 자체가 ‘시설’로 분류되는 주거형태, 즉, 기숙사, 군부대, 양로원, 고시원, 호텔, 모텔, 하숙 등은 제외되는 구조이므로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본설계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나 조정을 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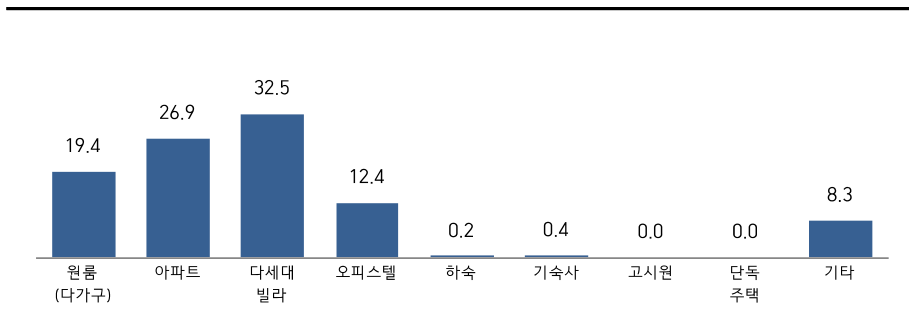


그림 III-79 현재 주거 형태(2018년)

표 III-87 연도별 현재 주거 형태

(단위: %)

| 연도   | 원룸<br>(다가구) | 아파트  | 다세대<br>/빌라 | 오피<br>스텔 | 하숙  | 기숙사 | 고시원 | 단독<br>주택 | 기타  |
|------|-------------|------|------------|----------|-----|-----|-----|----------|-----|
| 2016 | 35.2        | 33.6 | 23.7       | 4.7      | 0.6 | -   | -   | -        | 2.2 |
| 2017 | 37.1        | 27.7 | 22.2       | 6.5      | 0.2 | 2.8 | 0.0 | -        | 3.5 |
| 2018 | 19.4        | 26.9 | 32.5       | 12.4     | 0.2 | 0.4 | -   | -        | 8.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주거 형태별로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비율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빈곤 규모를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고용법 상 기준인 15~29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0년 1.3%에서 2017년 11.9%로 상승하였으며 30대로 확장하더라도 0.7%에서 8.1%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2017년을 기준으로 청년 연령 규정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 구분에서 전 연령대 평균(4.4%)보다 높은 주택 외 거주비율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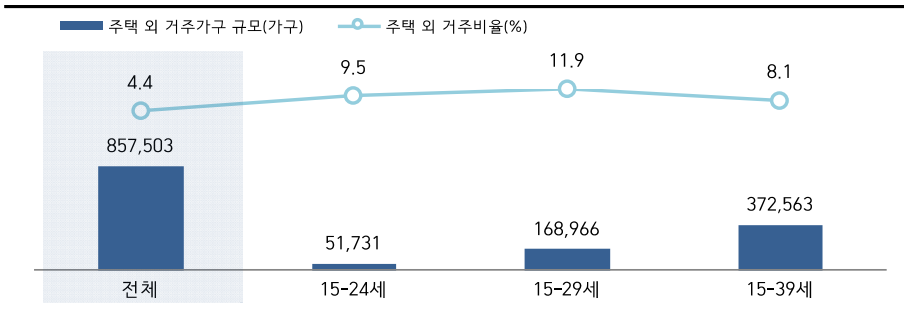


그림 III-80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2017년)

표 III-88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추이

(단위: 가구, %)

| 연도   |    | 전체      | 15-24세 | 15-29세  | 15-39세  |
|------|----|---------|--------|---------|---------|
| 2000 | 규모 | 84,353  | 7,045  | 17,938  | 37,285  |
|      | 비율 | 0.6     | 1.64   | 1.3     | 0.7     |
| 2005 | 규모 | 216,857 | 29,298 | 75,610  | 139,060 |
|      | 비율 | 1.4     | 6.0    | 5.5     | 2.8     |
| 2010 | 규모 | 353,942 | 44,287 | 116,216 | 217,883 |
|      | 비율 | 2.0     | 9.8    | 8.5     | 4.6     |
| 2015 | 규모 | 713,986 | 41,605 | 130,843 | 300,822 |
|      | 비율 | 3.7     | 7.9    | 9.7     | 6.5     |
| 2016 | 규모 | 770,088 | 45,994 | 146,337 | 330,147 |
|      | 비율 | 4.0     | 8.4    | 10.6    | 7.2     |
| 2017 | 규모 | 857,503 | 51,731 | 168,966 | 372,563 |
|      | 비율 | 4.4     | 9.5    | 11.9    | 8.1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4&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 주 1)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주택외의 거주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2) 주택 외 거주: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 4-2-2.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청년층의 주거 관련 경제적 어려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금융과 임대보증금) 비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30세 미만의 경우 2010년 41.2%에서 2017년 99.7%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30대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7.7%에서 154.9%로 크게 증가하였다. 30대는 주로 결혼이나 출산, 육아 및 주거비용 부담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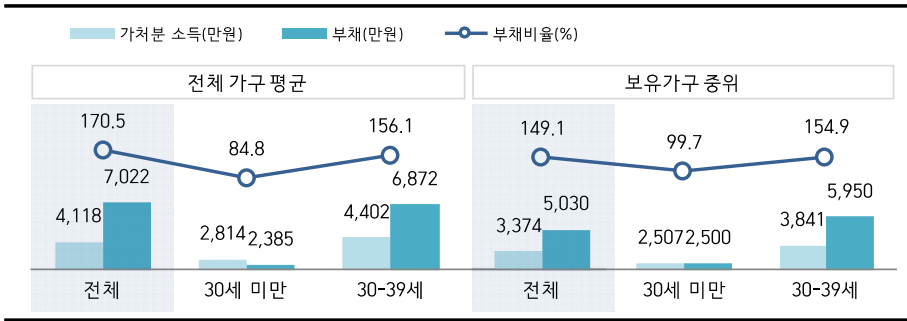


그림 Ⅲ-81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2017년)

표 Ⅲ-89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추이

(단위: 만원, %)

| 연도   |         | 전체        |       |       | 30세 미만    |       |      | 30-39세    |       |       |
|------|---------|-----------|-------|-------|-----------|-------|------|-----------|-------|-------|
|      |         | 가처분<br>소득 | 부채    | 비율    | 가처분<br>소득 | 부채    | 비율   | 가처분<br>소득 | 부채    | 비율    |
| 2010 | 전체가구평균  | 3,047     | 4,618 | 151.6 | 2,272     | 936   | 41.2 | 3,383     | 3,981 | 117.7 |
|      | 보유가구 중위 | 2,395     | 3,000 | 125.3 | 1,928     | 840   | 43.6 | 2,852     | 2,900 | 101.7 |
| 2011 | 전체가구평균  | 3,283     | 5,205 | 158.5 | 2,546     | 1,268 | 49.8 | 3,532     | 4,609 | 130.5 |
|      | 보유가구 중위 | 2,552     | 3,080 | 120.7 | 2,127     | 1,000 | 47.0 | 3,002     | 3,000 | 99.9  |

| 연도   |         | 전체        |       |       | 30세 미만    |       |      | 30-39세    |       |       |
|------|---------|-----------|-------|-------|-----------|-------|------|-----------|-------|-------|
|      |         | 가처분<br>소득 | 부채    | 비율    | 가처분<br>소득 | 부채    | 비율   | 가처분<br>소득 | 부채    | 비율    |
| 2012 | 전체가구평균  | 3,476     | 5,450 | 156.8 | 2,495     | 1,283 | 51.4 | 3,779     | 4,405 | 116.6 |
|      | 보유가구 중위 | 2,776     | 3,240 | 116.7 | 2,265     | 1,000 | 44.2 | 3,256     | 3,200 | 98.3  |
| 2013 | 전체가구평균  | 3,651     | 5,858 | 160.4 | 2,600     | 1,401 | 53.9 | 3,935     | 4,890 | 124.3 |
|      | 보유가구 중위 | 2,946     | 3,646 | 123.8 | 2,255     | 852   | 37.8 | 3,392     | 3,530 | 104.1 |
| 2014 | 전체가구평균  | 3,819     | 6,051 | 158.4 | 2,963     | 1,481 | 50.0 | 4,085     | 5,257 | 128.7 |
|      | 보유가구 중위 | 3,138     | 4,007 | 127.7 | 2,442     | 1,078 | 44.1 | 3,597     | 4,024 | 111.9 |
| 2015 | 전체가구평균  | 3,927     | 6,256 | 159.3 | 2,934     | 1,491 | 50.8 | 4,167     | 5,463 | 131.1 |
|      | 보유가구 중위 | 3,231     | 4,500 | 139.3 | 2,616     | 1,550 | 59.3 | 3,722     | 4,800 | 129.0 |
| 2016 | 전체가구평균  | 4,021     | 6,719 | 167.1 | 2,823     | 1,681 | 59.5 | 4,242     | 5,920 | 139.6 |
|      | 보유가구 중위 | 3,317     | 5,000 | 150.7 | 2,449     | 2,006 | 81.9 | 3,787     | 5,220 | 137.8 |
| 2017 | 전체가구평균  | 4,118     | 7,022 | 170.5 | 2,814     | 2,385 | 84.8 | 4,402     | 6,872 | 156.1 |
|      | 보유가구 중위 | 3,374     | 5,030 | 149.1 | 2,507     | 2,500 | 99.7 | 3,841     | 5,950 | 154.9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 주 1)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4대보험, 이자비용 포함)  
 2) 총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 비율=총부채/가처분소득×100  
 4) 2017년 결과는 잠정치임.

#### 4-2-3. 기숙사 수용률

본 연구의 대상인 만15~39세 청년 중 20대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대학 재학 중인 청년이 많으므로, 이들의 재학 중 거주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지표는 전체 청년의 주거형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공시된 2017년 국내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7%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국공립(22.6%)과 사립(20.0%)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종(43.8%), 울산(33.2%), 강원(33.1%), 전남(32.8%)은 30%를 상회하는 기숙사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13.5%)을 비롯하여 인천(14.4%)과 경기



(16.7%) 등 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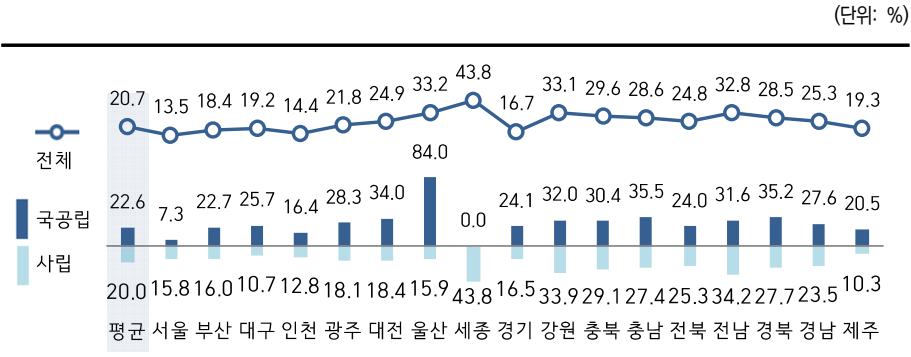


그림 III-82 기숙사 수용률(2017년)

표 III-90 연도별 기숙사 수용률 추이

(단위: %)

| 연도   | 평균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 2014 | 전체  | 16.6 | 8.9  | 13.5 | 16.5 | 12.1 | 19.4 | 23.1 | 30.8  | 31.2 | 14.9 | 31.7 | 24.6 | 22.5 | 21.3 | 29.4 | 25.2 | 20.9 | 16.1 |
|      | 국공립 | 15.1 | 3.6  | 17.6 | 22.0 | 12.7 | 24.5 | 31.2 | 102.9 | 0.0  | 14.4 | 30.3 | 21.8 | 31.4 | 18.5 | 27.6 | 26.7 | 20.3 | 15.9 |
|      | 사립  | 17.4 | 12.8 | 11.4 | 9.7  | 11.7 | 16.8 | 17.4 | 13.9  | 31.2 | 14.9 | 32.7 | 26.4 | 21.2 | 23.1 | 31.7 | 25.0 | 21.5 | 18.4 |
| 2015 | 전체  | 18.4 | 11.0 | 14.1 | 15.9 | 11.8 | 20.4 | 23.8 | 31.9  | 31.6 | 14.9 | 32.0 | 27.8 | 25.1 | 22.2 | 32.3 | 26.6 | 22.6 | 15.5 |
|      | 국공립 | 17.0 | 5.3  | 17.4 | 20.8 | 11.9 | 20.3 | 19.7 | 89.4  | 0.0  | 13.8 | 29.9 | 27.8 | 31.0 | 19.9 | 28.8 | 26.7 | 24.3 | 15.8 |
|      | 사립  | 18.4 | 13.9 | 12.3 | 9.9  | 11.7 | 17.1 | 16.8 | 15.1  | 31.6 | 14.9 | 33.6 | 27.8 | 24.2 | 23.9 | 36.4 | 26.6 | 21.2 | 12.4 |
| 2016 | 전체  | 19.5 | 11.8 | 17.1 | 18.2 | 12.1 | 21.1 | 24.4 | 31.9  | 32.4 | 15.9 | 31.3 | 29.3 | 27.6 | 23.3 | 33.7 | 27.7 | 23.4 | 15.2 |
|      | 국공립 | 17.6 | 5.7  | 20.0 | 21.2 | 11.7 | 21.0 | 19.9 | 82.2  | 0.0  | 13.8 | 30.7 | 29.5 | 33.2 | 21.0 | 30.7 | 34.2 | 25.3 | 15.9 |
|      | 사립  | 19.4 | 14.7 | 15.5 | 10.4 | 12.5 | 17.9 | 17.5 | 15.5  | 32.4 | 15.9 | 31.7 | 27.2 | 26.7 | 24.9 | 37.2 | 26.8 | 21.8 | 9.7  |
| 2017 | 전체  | 20.7 | 13.5 | 18.4 | 19.2 | 14.4 | 21.8 | 24.9 | 33.2  | 43.8 | 16.7 | 33.1 | 29.6 | 28.6 | 24.8 | 32.8 | 28.5 | 25.3 | 19.3 |
|      | 국공립 | 22.6 | 7.3  | 22.7 | 25.7 | 16.4 | 28.3 | 34.0 | 84.0  | 0.0  | 24.1 | 32.0 | 30.4 | 35.5 | 24.0 | 31.6 | 35.2 | 27.6 | 20.5 |
|      | 사립  | 20.0 | 15.8 | 16.0 | 10.7 | 12.8 | 18.1 | 18.4 | 15.9  | 43.8 | 16.5 | 33.9 | 29.1 | 27.4 | 25.3 | 34.2 | 27.7 | 23.5 | 10.3 |

\* 출처: 대학알리미(각 연도). 기숙사 수용률.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을 포함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언제쯤 장만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향후 10~20년 이내’가 32.6%로 가장 높았고, ‘향후 20년 이후’라는 응답도 25.2%로 낮다. 종합적으로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청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향후 20년 이후’ 응답과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지난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주택 마련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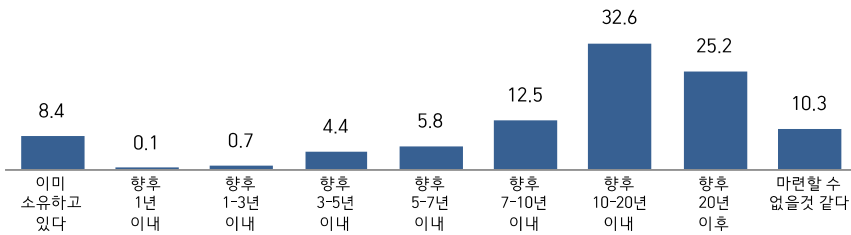


그림 III-83 주거 마련 시기 의견(2018년)

표 III-91 연도별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추이

(단위: %)

| 연도   | 이미 소유하고 있다 | 향후 1년 이내 | 향후 1-3년 이내 | 향후 3-5년 이내 | 향후 5-7년 이내 | 향후 7-10년 이내 | 향후 10-20년 이내 | 향후 20년 이후 |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
|------|------------|----------|------------|------------|------------|-------------|--------------|-----------|---------------|
| 2013 | 14.9       | 1.4      | 3.1        | 6.8        | 9.0        | 19.7        | 30.2         | 10.7      | 4.2           |
| 2015 | 11.9       | 0.4      | 1.7        | 3.8        | 11.6       | 21.0        | 31.9         | 11.1      | 6.6           |
| 2016 | 13.6       | 0.4      | 0.9        | 5.4        | 8.2        | 12.5        | 34.8         | 17.8      | 6.3           |
| 2017 | 17.2       | 0.7      | 3.8        | 5.6        | 9.4        | 14.5        | 27.3         | 14.9      | 6.6           |
| 2018 | 8.4        | 0.1      | 0.7        | 4.4        | 5.8        | 12.5        | 32.6         | 25.2      | 10.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2-5. 공동주거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공동주거(share house) 경험 여부와 의향에 관해 물어본 결과, 먼저 2018년의 공동주거 경험률은 2.5%로 2017년 대비 4.6%p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최초 조사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공동주거 경험률이 2.8%로 여자(2.1%)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대 대비 20대(3.4%)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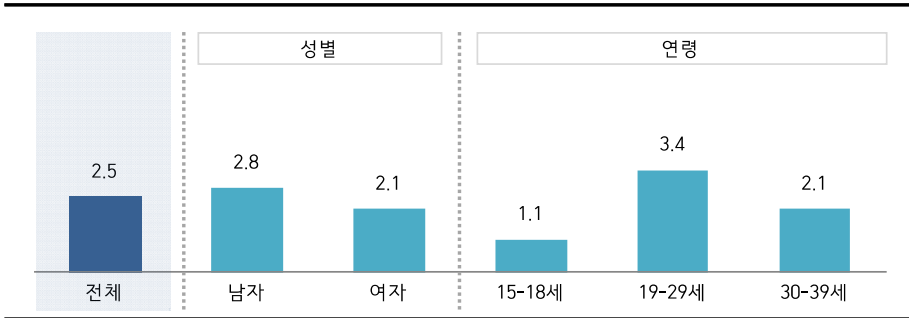


그림 III-84 공동주거 경험(2018년)

표 III-92 연도별 공동주거 경험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5 | 9.5 | 10.9 | 7.9 | -      | 10.9   | 8.2    |
| 2016 | 9.1 | 9.4  | 8.7 | 7.3    | 11.2   | 7.6    |
| 2017 | 7.1 | 8.2  | 6.0 | 2.4    | 8.4    | 7.3    |
| 2018 | 2.5 | 2.8  | 2.1 | 1.1    | 3.4    | 2.1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공동주거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공동주거 의향은 2.8%로, 공동주거 경험율과 마찬가지로 2017년보다 5.2%p나 감소하였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거 의향은 남성(2.9%)이 여성(2.7%)보다 다소 높았으며, 10대(6.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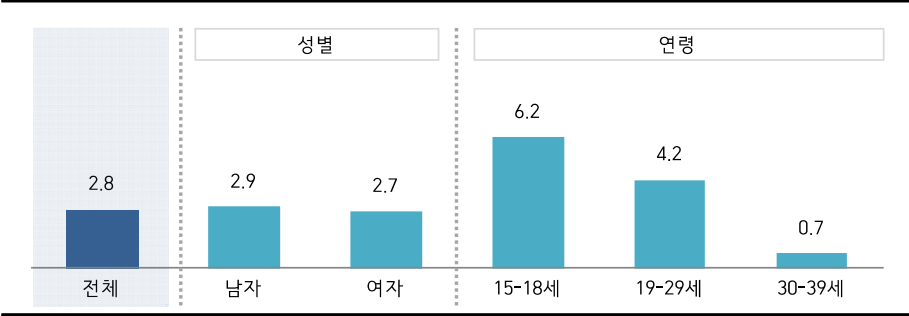


그림 III-85 공동주거 의향(2018년)

표 III-93 연도별 공동주거 의향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5 | 17.9 | 18.4 | 17.3 | -      | 24.2   | 11.9   |
| 2016 | 7.6  | 8.0  | 7.2  | 14.7   | 9.6    | 3.4    |
| 2017 | 8.0  | 8.5  | 7.4  | 17.9   | 9.1    | 3.9    |
| 2018 | 2.8  | 2.9  | 2.7  | 6.2    | 4.2    | 0.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공동주거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2-6. 평소 주거 생각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평소 주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는데, ‘내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1.5%로 2017년 대비 2.4%p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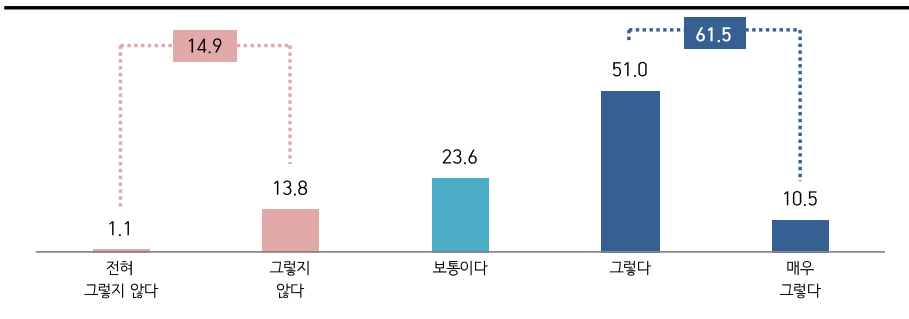


그림 III-86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2018년)

표 III-94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단위: %)

| 연도   | 전혀<br>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013 | 1.1          | 11.9   | 26.3 | 47.8 | 12.9   |
| 2015 | 1.1          | 13.7   | 24.4 | 48.5 | 12.3   |
| 2016 | 1.0          | 12.1   | 25.2 | 48.5 | 13.3   |
| 2017 | 2.3          | 14.8   | 19.0 | 47.7 | 16.2   |
| 2018 | 1.1          | 13.8   | 23.6 | 51.0 | 10.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지금의 집값 수준은 적정하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5.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나 지난 2017년에 비해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다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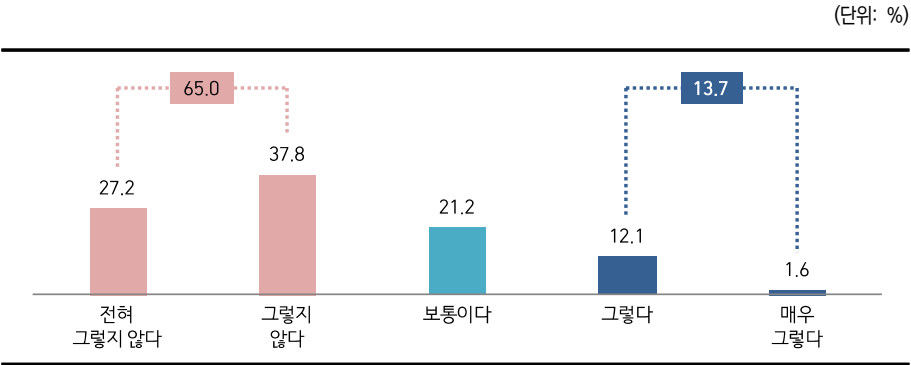


그림 III-87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2018년)

표 III-95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단위: %)

| 연도   | 전혀<br>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013 | 14.8         | 45.5   | 28.6 | 9.2  | 1.9    |
| 2015 | 23.0         | 38.3   | 25.6 | 11.6 | 1.5    |
| 2016 | 27.4         | 42.0   | 21.6 | 8.0  | 1.0    |
| 2017 | 29.1         | 40.3   | 22.0 | 8.0  | 0.7    |
| 2018 | 27.2         | 37.8   | 21.2 | 12.1 | 1.6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47.1%로, 2017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청년 스스로가 주택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입장이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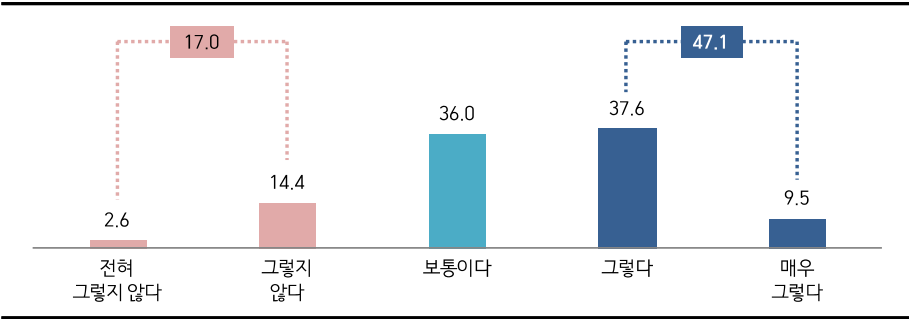


그림 III-88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표 III-96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

| 연도   | 전혀<br>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013 | 5.5          | 29.1   | 36.7 | 25.1 | 3.6    |
| 2015 | 2.8          | 20.4   | 42.0 | 28.3 | 6.5    |
| 2016 | 6.5          | 20.5   | 41.6 | 26.7 | 4.7    |
| 2017 | 7.0          | 25.6   | 34.5 | 25.1 | 7.8    |
| 2018 | 2.6          | 14.4   | 36.0 | 37.6 | 9.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5) 건강

###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청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정기적인 운동 습관을 살펴보았다. 정기적인 운동습관 중 걷기에 대한 실천율의 기준은 최근 1주일 간 1회당 10분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으로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이다. 걷기 실천율은 20대의 경우 2007년 50.9%에서 2016년 48.1%로 소폭 감소하였고, 30대 역시 같은 기간 39.6%에서 37.4%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남성의 실천율이 20대 52.2%, 30대 39.3%로 여성(각각 43.6%, 35.4%) 대비 높고, 20대 실천율이 48.1%로 30대의 실천율 37.4%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걷기 운동을 행하는 비율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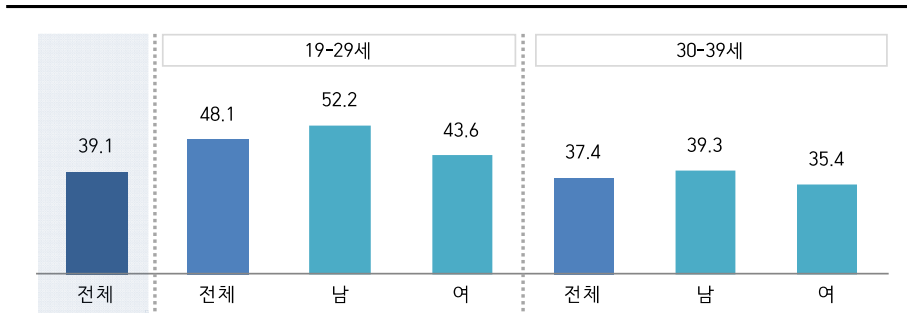


그림 III-89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 실천율(2016년)



표 III-97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걷기 실천율

(단위: %)

| 연도   | 전체   | 19-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7 | 45.8 | 50.9   | 56.0 | 45.6 | 39.6   | 40.0 | 39.1 |
| 2008 | 46.9 | 55.1   | 60.4 | 49.4 | 41.6   | 43.9 | 39.2 |
| 2009 | 46.0 | 53.0   | 57.9 | 47.6 | 42.2   | 43.2 | 41.2 |
| 2010 | 40.9 | 50.9   | 55.8 | 45.7 | 38.3   | 40.7 | 35.7 |
| 2011 | 37.6 | 49.8   | 55.2 | 43.9 | 34.9   | 37.9 | 32.0 |
| 2012 | 38.7 | 50.6   | 53.0 | 48.0 | 39.0   | 40.3 | 37.7 |
| 2013 | 37.4 | 49.0   | 57.1 | 39.6 | 35.7   | 39.3 | 32.2 |
| 2014 | 41.3 | 51.9   | 57.9 | 45.4 | 37.1   | 36.5 | 37.6 |
| 2015 | 40.6 | 50.8   | 55.3 | 45.8 | 39.0   | 39.6 | 38.4 |
| 2016 | 39.1 | 48.1   | 52.2 | 43.6 | 37.4   | 39.3 | 35.4 |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영양조사. 걷기실천율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54&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54&conn_path=1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걷기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만19세 이상)

또한,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과 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천한 분율을 살펴보았다. 20대의 경우 2014년부터 3년간 각각 72.3%→66.7%→61.9%로 나타나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30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58.0%→51.2%→49.1%로 동일한 감소 추이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률이 여성보다 높는데 남녀 간의 차이는 30대보다는 20대에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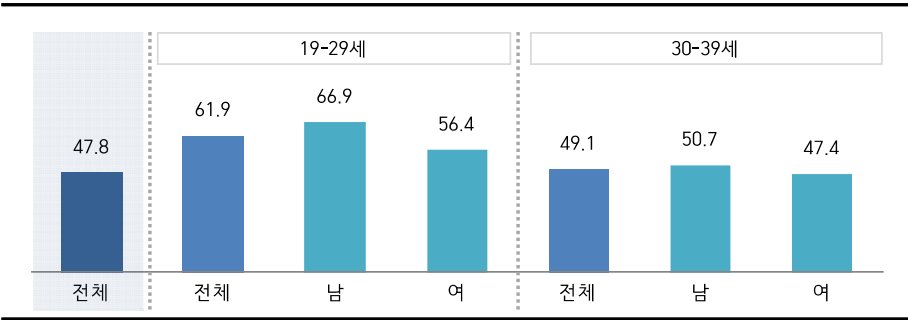


그림 III-90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2016년)

표 III-98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 연도   | 전체   | 19-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14 | 57.1 | 72.3   | 79.8 | 64.1 | 58.0   | 58.2 | 57.8 |
| 2015 | 51.0 | 66.7   | 72.1 | 60.8 | 51.2   | 54.3 | 48.3 |
| 2016 | 47.8 | 61.9   | 66.9 | 56.4 | 49.1   | 50.7 | 47.4 |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영양조사.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23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23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만19세 이상)

### 5-1-2. 비만율

청년 비만율은 20대의 경우 2007년 22.0%에서 2016년 27.2%로, 30대 역시 같은 기간동안 27.8%에서 34.2%로 증가하였다. 전체 연령의 비만 유병률 역시 2007년 32.1%에서 2016년 35.5%로 증가하였으나 청년층의 증가 추세가 보다 급격한 것으로 파악되어 청년들의 비만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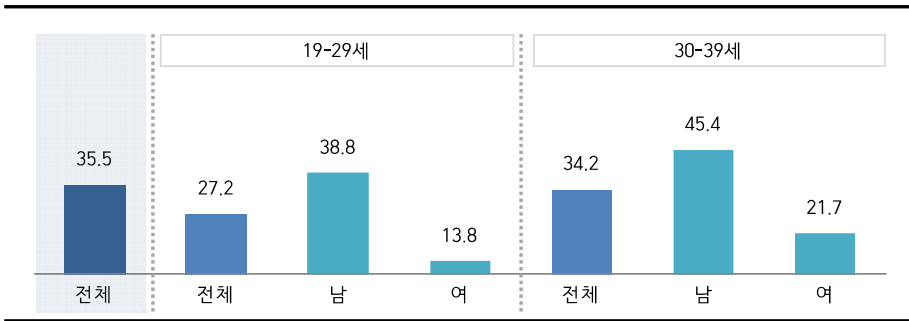


그림 III-91 비만 유병률(2016년)

표 III-99 연도별 비만 유병률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9-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7 | 32.1 | 22.0   | 31.0 | 12.6 | 27.8   | 41.7 | 12.8 |
| 2008 | 31.0 | 23.0   | 31.0 | 14.1 | 28.0   | 38.2 | 17.0 |
| 2009 | 31.9 | 22.1   | 29.0 | 14.3 | 29.5   | 38.5 | 19.6 |
| 2010 | 31.4 | 20.5   | 28.3 | 12.1 | 31.0   | 42.3 | 19.0 |
| 2011 | 31.9 | 21.7   | 26.2 | 16.9 | 31.5   | 40.7 | 21.7 |
| 2012 | 32.8 | 22.4   | 30.5 | 13.6 | 32.5   | 40.6 | 23.7 |
| 2013 | 32.5 | 22.4   | 29.3 | 14.4 | 33.2   | 47.1 | 17.9 |
| 2014 | 31.5 | 23.9   | 32.0 | 15.0 | 31.8   | 43.9 | 18.6 |
| 2015 | 34.1 | 23.5   | 32.4 | 13.4 | 32.9   | 43.6 | 21.1 |
| 2016 | 35.5 | 27.2   | 38.8 | 13.8 | 34.2   | 45.4 | 21.7 |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영양조사. 비만 유병률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0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만19세 이상)

### 5-1-3. 스트레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비율로 집계된다. 관련 통계를 통해 청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경우 2007년 28.0%에서 2016년 32.8%로, 30대도 같은 기간 28.0%에서 37.7%로 증가하였다. 조사대상 전체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7년 27.1%에서 2016년 27.9%로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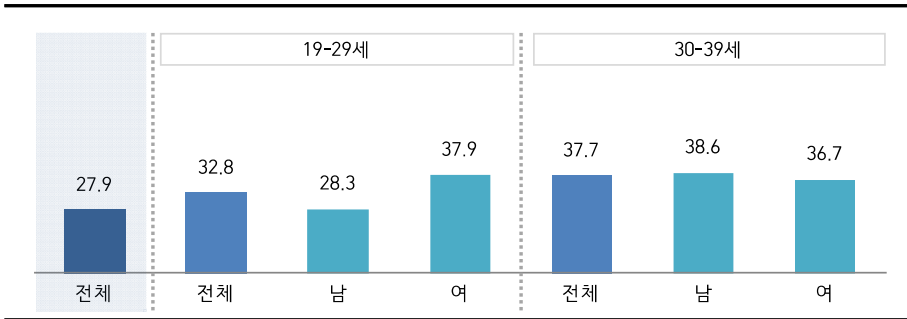


그림 III-92 스트레스 인지율(2016년)

표 III-100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9-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7 | 27.1 | 28.0   | 21.3 | 34.9 | 28.0   | 27.0 | 29.0 |
| 2008 | 28.9 | 32.6   | 26.2 | 39.6 | 33.6   | 36.5 | 30.5 |
| 2009 | 31.0 | 34.6   | 27.5 | 42.4 | 36.4   | 37.8 | 34.9 |
| 2010 | 28.2 | 32.1   | 25.8 | 38.8 | 32.9   | 32.3 | 33.4 |
| 2011 | 27.9 | 34.9   | 29.7 | 40.6 | 33.1   | 33.2 | 33.0 |
| 2012 | 27.0 | 34.0   | 23.1 | 45.5 | 30.1   | 29.8 | 30.4 |
| 2013 | 23.8 | 26.5   | 23.1 | 30.5 | 27.7   | 29.0 | 26.5 |
| 2014 | 25.5 | 28.9   | 22.2 | 36.3 | 34.0   | 32.5 | 35.4 |
| 2015 | 29.6 | 36.9   | 31.7 | 42.8 | 38.7   | 41.3 | 36.0 |
| 2016 | 27.9 | 32.8   | 28.3 | 37.9 | 37.7   | 38.6 | 36.7 |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영양조사,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conn\\_path=l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conn_path=l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만19세 이상)

#### 5-1-4. 우울증

청년층의 우울에 대한 통계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서 우울감 경험률로 살펴보았다. 우울감 경험률은 1년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비율로 집계된다. 20대와 30대 모두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대는 2007년 9.7%에서 2015년 14.9%로, 30대는 9.3%에서 10.3%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의 우울감 경험률은 12.7%에서 13.3%로 소폭 증가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30대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연령대 경험률의 변화 추이에 수렴하는 반면 20대는 비교적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의 증가폭이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정신건강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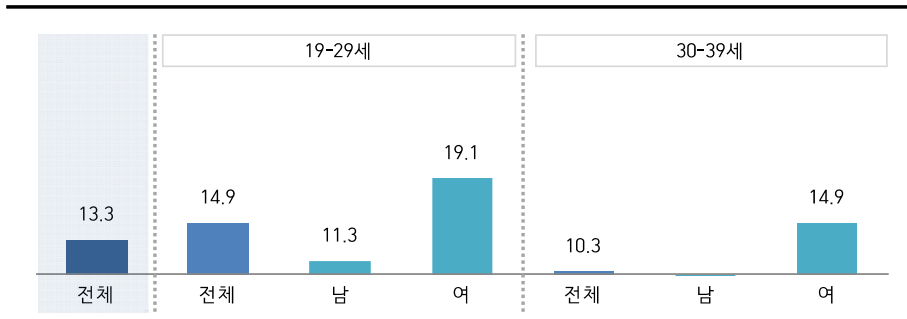


그림 III-93 우울감 경험률(2015년)

표 III-101 연도별 우울감 경험률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9-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7 | 12.7 | 9.7    | 5.0  | 14.6 | 9.3    | 6.5  | 12.3 |
| 2008 | 14.5 | 12.4   | 8.4  | 16.6 | 10.8   | 8.6  | 13.1 |
| 2009 | 15.0 | 13.3   | 7.9  | 19.1 | 11.9   | 9.3  | 14.6 |
| 2010 | 12.8 | 11.8   | 5.8  | 18.1 | 9.1    | 5.6  | 12.8 |
| 2011 | 13.4 | 13.6   | 10.7 | 16.6 | 11.6   | 10.6 | 12.7 |
| 2012 | 12.9 | 9.3    | 5.7  | 13.1 | 10.8   | 8.5  | 13.2 |
| 2013 | 10.7 | 10.4   | 8.5  | 12.6 | 7.6    | 4.2  | 11.0 |
| 2015 | 13.3 | 14.9   | 11.3 | 19.1 | 10.3   | 5.9  | 14.9 |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우울증상 경험률. pp.162-165.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 우울감 경험률. p.113.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 주 1) 우울증상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만19세 이상)  
 2) 우울증상 경험률은 2014년 이후 우울감 경험률로 명칭 변경 및 2년 주기 순환조사 실시

### 5-1-5. 자살률

인구 10만 명 당 자살 건 수로 집계되는 자살률을 확인한 결과, 청년층에 해당하는 연령구간에서 15~19세의 자살률이 2017년 7.2%로 가장 낮고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35-39세의 경우 25.6%에 달하였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연령에 걸쳐, 그리고 청년에 해당하는 각 연령대 별로도 자살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인구 10만명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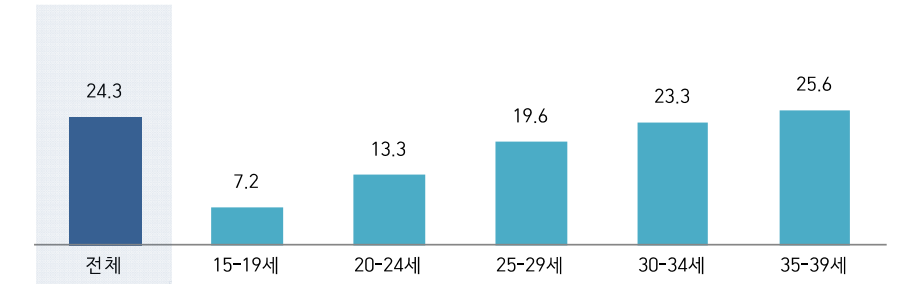


그림 III-94 자살률(2017년)

표 III-102 연도별 자살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명 당)

| 연도   | 전체   | 15-19세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
| 2009 | 31.0 | 10.7   | 20.3   | 29.3   | 31.2   | 31.5   |
| 2010 | 31.2 | 8.3    | 18.3   | 29.3   | 29.7   | 29.4   |
| 2011 | 31.7 | 8.9    | 17.7   | 30.1   | 30.4   | 30.6   |
| 2012 | 28.1 | 8.2    | 14.9   | 23.9   | 28.3   | 26.5   |
| 2013 | 28.5 | 7.9    | 14.5   | 21.7   | 27.8   | 28.9   |
| 2014 | 27.3 | 7.2    | 13.6   | 22.4   | 26.9   | 29.0   |
| 2015 | 26.5 | 6.5    | 13.2   | 19.9   | 24.7   | 25.5   |
| 2016 | 25.6 | 7.9    | 13.3   | 19.8   | 25.2   | 24.1   |
| 2017 | 24.3 | 7.2    | 13.3   | 19.6   | 23.3   | 25.6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 5-1-6. 흡연율

흡연율은 평생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며 현재도 피고 있는 경우로 산출하는데, 최근 통계인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대(25.4%)보다 30대(30.4%)의 흡연율이 더 높고 남자의 흡연율이 여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대는 2007년 27.8%에서 2016년 25.4%로, 같은 기간 30대도 32.0%에서 30.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체 연령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역시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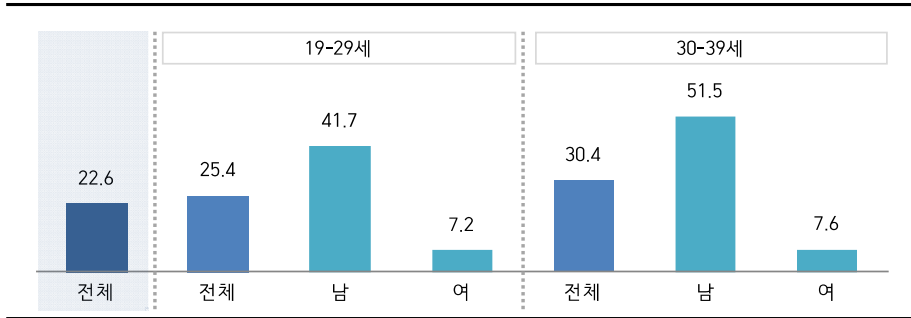


그림 III-95 현재 흡연율(2016년)



표 III-103 연도별 현재 흡연을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9-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7 | 25.0 | 27.8   | 47.5 | 7.6  | 32.0   | 58.3 | 4.4 |
| 2008 | 27.3 | 33.9   | 53.6 | 12.7 | 32.4   | 56.4 | 7.1 |
| 2009 | 26.6 | 32.4   | 51.9 | 11.1 | 32.8   | 56.2 | 7.9 |
| 2010 | 26.9 | 27.8   | 47.3 | 7.4  | 35.0   | 60.9 | 7.6 |
| 2011 | 26.3 | 28.3   | 44.9 | 10.4 | 36.6   | 63.7 | 8.9 |
| 2012 | 25.0 | 28.0   | 41.5 | 13.6 | 32.5   | 54.8 | 9.0 |
| 2013 | 23.2 | 24.1   | 37.0 | 9.1  | 30.7   | 54.5 | 6.9 |
| 2014 | 23.3 | 22.5   | 34.8 | 8.9  | 30.0   | 53.2 | 7.0 |
| 2015 | 21.6 | 23.7   | 38.7 | 6.9  | 27.7   | 48.0 | 6.7 |
| 2016 | 22.6 | 25.4   | 41.7 | 7.2  | 30.4   | 51.5 | 7.6 |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0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현재 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만19세 이상)

### 5-1-7. 음주율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6년을 기준으로 청년들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대가 70.8%, 30대가 69.6%로 나타나 조사대상 전체 평균인 59.4%보다 약 10%p 가량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남자의 음주율이 여자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도별로 살펴볼 경우, 20대는 2007년 68.9%에서 2016년 70.8%로, 30대는 62.1%에서 69.6%로 각각 증가하였는데 특히 30대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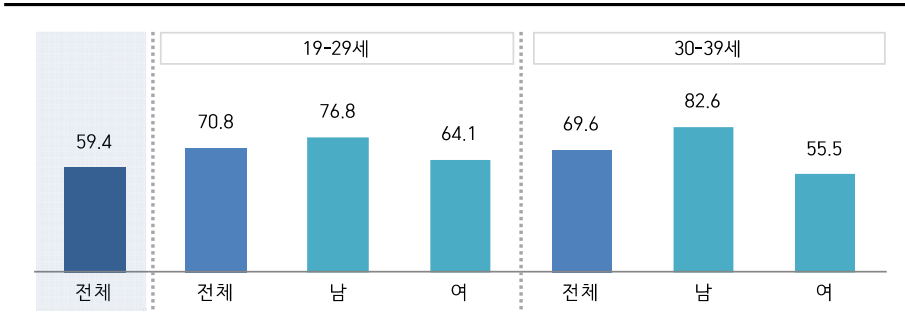


그림 III-96 월간 음주율(2016년)

표 III-104 연도별 월간 음주율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9-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7 | 56.7 | 68.9   | 74.6 | 63.1 | 62.1   | 79.9 | 43.5 |
| 2008 | 58.7 | 69.9   | 75.6 | 63.8 | 65.5   | 79.9 | 50.3 |
| 2009 | 58.3 | 69.6   | 82.7 | 55.4 | 64.5   | 78.1 | 50.1 |
| 2010 | 59.3 | 67.3   | 81.6 | 52.1 | 67.5   | 84.9 | 49.1 |
| 2011 | 59.2 | 73.0   | 84.8 | 60.2 | 67.5   | 81.9 | 52.6 |
| 2012 | 56.6 | 66.6   | 74.9 | 57.7 | 63.9   | 79.0 | 48.0 |
| 2013 | 58.3 | 72.4   | 81.2 | 62.3 | 67.4   | 78.5 | 56.4 |
| 2014 | 58.1 | 69.1   | 77.1 | 60.3 | 66.4   | 79.0 | 53.9 |
| 2015 | 58.7 | 67.4   | 76.9 | 56.6 | 65.5   | 80.0 | 50.6 |
| 2016 | 59.4 | 70.8   | 76.8 | 64.1 | 69.6   | 82.6 | 55.5 |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1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12&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월간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만19세 이상)

### 5-1-8. 주관적 체형 인식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5~39세 청년들에게 주관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물어본 결과, 보통 체형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54.1%로 가장 높았고,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23.8%('매우 비만' 2.2%+'약간 비만' 21.6%), 마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22.0%('약간 마른 편' 20.7%+'매우 마른 편' 1.3%)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지난 3년간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마른 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6년 16.0%→'17년 20.9%→'18년 22.0%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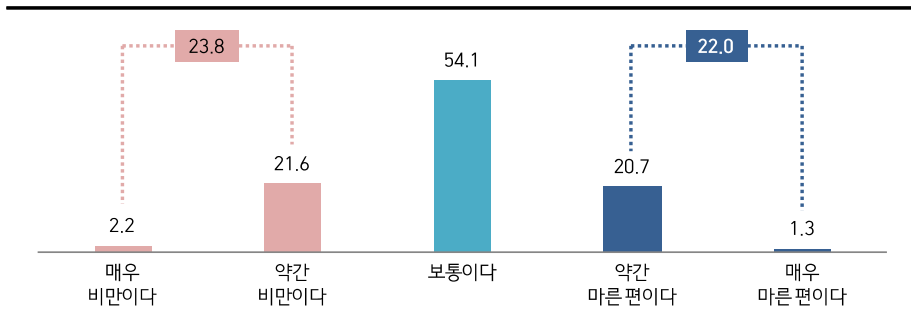


그림 III-97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2018년)

표 III-105 연도별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

| 연도   | 매우 비만이다 | 약간 비만이다 | 보통이다 | 약간 마른 편이다 | 매우 마른 편이다 |
|------|---------|---------|------|-----------|-----------|
| 2016 | 2.5     | 20.4    | 61.1 | 14.6      | 1.4       |
| 2017 | 3.9     | 20.8    | 54.4 | 18.1      | 2.8       |
| 2018 | 2.2     | 21.6    | 54.1 | 20.7      | 1.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5-1-9.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청년들의 인식하는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질문은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조사 결과, 청년의 90.7%가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그렇다’ 62.0%+‘매우 그렇다’ 28.7%)하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5%(‘전혀 그렇지 않다’ 0.2%+‘그렇지 않다’ 1.3%)에 불과하였다.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자(92.8%)가 여자(88.4%)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15~18세 93.6%, 19~29세 90.9%, 30~39세 89.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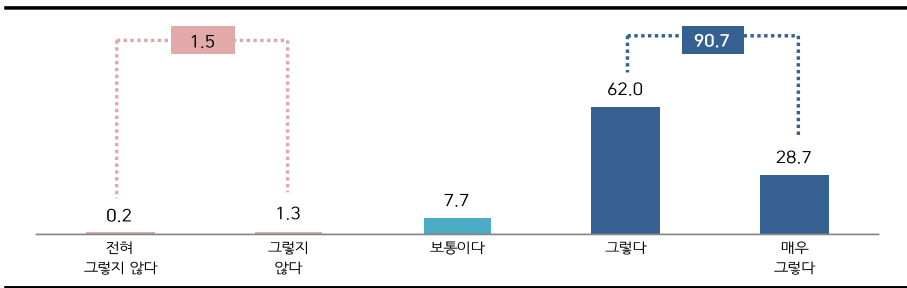


그림 III-98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2018년)

표 III-106 연도별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0.2  | 0.2  | 0.3  | 0.1    | 0.5    | 0.1    |
|      | 그렇지 않다    | 1.3  | 1.1  | 1.6  | 1.1    | 1.6    | 1.2    |
|      | 보통이다      | 7.7  | 5.8  | 9.8  | 5.1    | 7.0    | 9.1    |
|      | 그렇다       | 62.0 | 60.2 | 64.0 | 55.8   | 58.5   | 66.7   |
|      | 매우 그렇다    | 28.7 | 32.6 | 24.4 | 37.8   | 32.4   | 22.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8년 신규문항임.

#### 5-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유럽연합에서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정도’,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등 5개 문항을 토대로 주관적 웰빙 지수(WHO, 1998)를 산출하여 Youth Report에 보고하고 있는데, 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2017년도부터 해당 문항을 조사표에 포함하여 유럽연합에 포함된 국가들과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5개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 6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는데, 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의 총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웰빙 지수가 나쁜 것으로 해석된다(WHO, 1998).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주관적 웰빙 지수가 13점 미만인 청년은 26.6%였으며, 남자(27.1%)가 여자(26.0%)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15~18세 19.3%, 19~29세 27.7%, 30~39세 27.9%).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48.4%(대부분 44.7%+항상 3.7%)로 나타나 2017년(37.8%) 대비 10.6%p 상승하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어릴수록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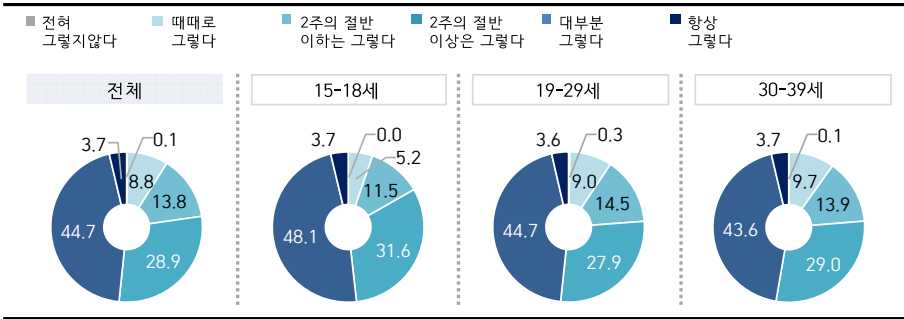


그림 III-99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2018년)

표 III-107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단위: %)

| 연도   |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전혀 그렇지 않다      | 1.2  | 0.9  | 1.6  | 0.2    | 1.5    | 1.2    |
|      | 때때로 그렇다        | 16.4 | 16.4 | 16.5 | 9.0    | 15.8   | 19.2   |
|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 13.2 | 13.9 | 12.4 | 11.2   | 13.7   | 13.2   |
|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31.3 | 30.7 | 32.0 | 28.3   | 29.7   | 33.9   |
|      | 대부분 그렇다        | 34.4 | 34.0 | 34.9 | 43.9   | 36.0   | 30.0   |
|      | 항상 그렇다         | 3.4  | 4.1  | 2.7  | 7.4    | 3.3    | 2.5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0.1  | 0.2  | 0.1  | 0.0    | 0.3    | 0.1    |
|      | 때때로 그렇다        | 8.8  | 9.1  | 8.4  | 5.2    | 9.0    | 9.7    |
|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 13.8 | 15.5 | 12.0 | 11.5   | 14.5   | 13.9   |
|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28.9 | 28.0 | 29.9 | 31.6   | 27.9   | 29.0   |
|      | 대부분 그렇다        | 44.7 | 43.4 | 46.0 | 48.1   | 44.7   | 43.6   |
|      | 항상 그렇다         | 3.7  | 3.8  | 3.5  | 3.7    | 3.6    | 3.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두 번째 질문인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질문에 대한 “그렇다” 응답 비율은 41.1%(대부분 32.9%+항상 8.2%)로 2017년(40.8%) 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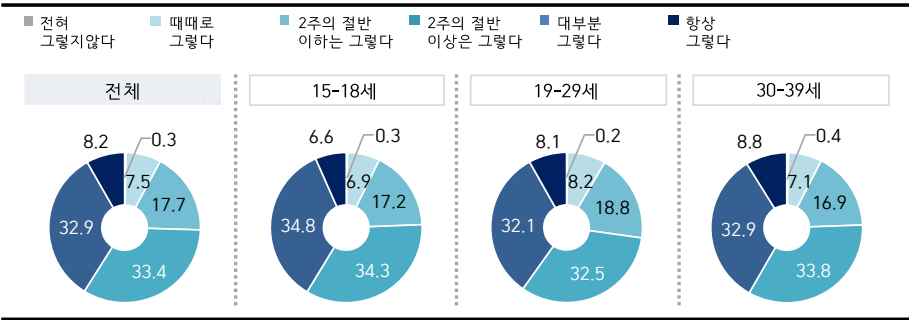


그림 III-100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2018년)

표 III-108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전혀 그렇지 않다      | 2.2  | 1.5  | 2.9    | 1.0    | 2.3    |
|      | 때때로 그렇다        | 15.0 | 15.2 | 14.8   | 9.7    | 14.7   |
|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 15.2 | 16.0 | 14.3   | 13.6   | 14.5   |
|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26.8 | 25.7 | 28.1   | 25.2   | 26.2   |
|      | 대부분 그렇다        | 36.5 | 36.6 | 36.3   | 44.0   | 37.1   |
| 2018 | 항상 그렇다         | 4.3  | 5.0  | 3.6    | 6.5    | 5.0    |
|      | 전혀 그렇지 않다      | 0.3  | 0.4  | 0.2    | 0.3    | 0.2    |
|      | 때때로 그렇다        | 7.5  | 6.9  | 8.2    | 6.9    | 8.2    |
|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 17.7 | 18.1 | 17.2   | 17.2   | 18.8   |
|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33.4 | 34.7 | 31.9   | 34.3   | 32.5   |
|      | 대부분 그렇다        | 32.9 | 32.5 | 33.2   | 34.8   | 32.1   |
|      | 항상 그렇다         | 8.2  | 7.4  | 9.2    | 6.6    | 8.1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세 번째로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 비율은 40.2%(2017년 36.9% 대비 +3.3%p)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어릴수록 긍정적인 응답비중이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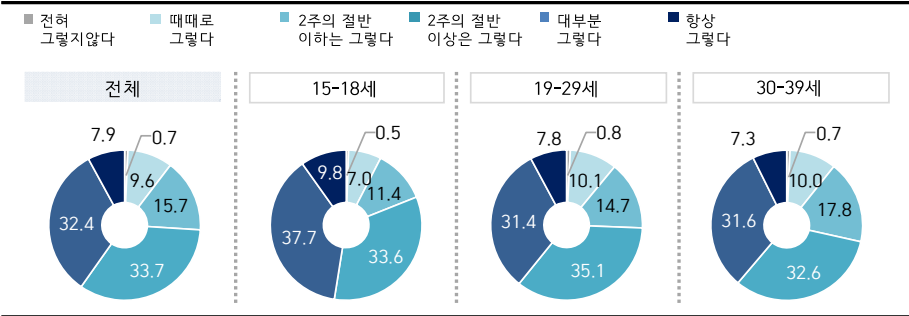


그림 III-101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2018년)

표 III-109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단위: %)

| 연도   |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전혀 그렇지 않다      | 2.3  | 2.2  | 2.5  | 0.7    | 2.3    | 2.9    |
|      | 때때로 그렇다        | 15.8 | 15.0 | 16.6 | 7.2    | 14.6   | 19.5   |
|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 15.5 | 15.0 | 16.1 | 14.7   | 16.3   | 15.0   |
|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29.5 | 30.1 | 28.7 | 27.3   | 28.7   | 30.9   |
|      | 대부분 그렇다        | 31.5 | 31.8 | 31.1 | 39.4   | 32.3   | 28.3   |
|      | 항상 그렇다         | 5.4  | 5.8  | 4.9  | 10.8   | 5.7    | 3.4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0.7  | 0.7  | 0.7  | 0.5    | 0.8    | 0.7    |
|      | 때때로 그렇다        | 9.6  | 9.6  | 9.6  | 7.0    | 10.1   | 10.0   |
|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 15.7 | 15.5 | 15.9 | 11.4   | 14.7   | 17.8   |
|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33.7 | 32.8 | 34.7 | 33.6   | 35.1   | 32.6   |
|      | 대부분 그렇다        | 32.4 | 32.6 | 32.1 | 37.7   | 31.4   | 31.6   |
|      | 항상 그렇다         | 7.9  | 8.7  | 6.9  | 9.8    | 7.8    | 7.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는 응답은 38.0%(2017년 24.6% 대비 +13.4%p)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이 어릴수록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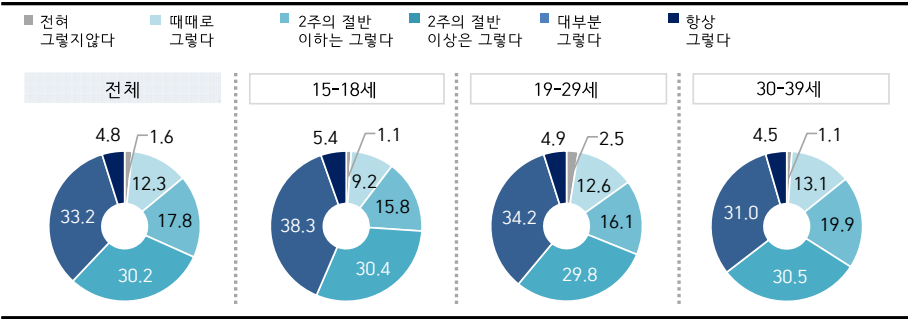


그림 III-102 나쁜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2018년)

표 III-110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단위: %)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전혀 그렇지 않다 | 9.8  | 8.6  | 11.2 | 5.9    | 10.2   | 10.6   |
|      | 때때로 그렇다   | 21.9 | 22.3 | 21.5 | 18.8   | 20.7   | 24.2   |
|      | 2주의 절반 이하 | 17.5 | 18.2 | 16.7 | 16.3   | 17.1   | 18.1   |
|      | 2주의 절반 이상 | 26.2 | 26.7 | 25.6 | 30.8   | 25.2   | 25.8   |
|      | 대부분 그렇다   | 21.9 | 21.7 | 22.1 | 23.8   | 23.4   | 19.8   |
|      | 항상 그렇다    | 2.7  | 2.5  | 2.9  | 4.4    | 3.4    | 1.4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1.6  | 1.0  | 2.3  | 1.1    | 2.5    | 1.1    |
|      | 때때로 그렇다   | 12.3 | 13.2 | 11.4 | 9.2    | 12.6   | 13.1   |
|      | 2주의 절반 이하 | 17.8 | 18.2 | 17.5 | 15.8   | 16.1   | 19.9   |
|      | 2주의 절반 이상 | 30.2 | 30.1 | 30.3 | 30.4   | 29.8   | 30.5   |
|      | 대부분 그렇다   | 33.2 | 33.0 | 33.5 | 38.3   | 34.2   | 31.0   |
|      | 항상 그렇다    | 4.8  | 4.6  | 5.0  | 5.4    | 4.9    | 4.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34.3%(2017년 22.2% 대비 +12.1%p)이고 성, 연령에 따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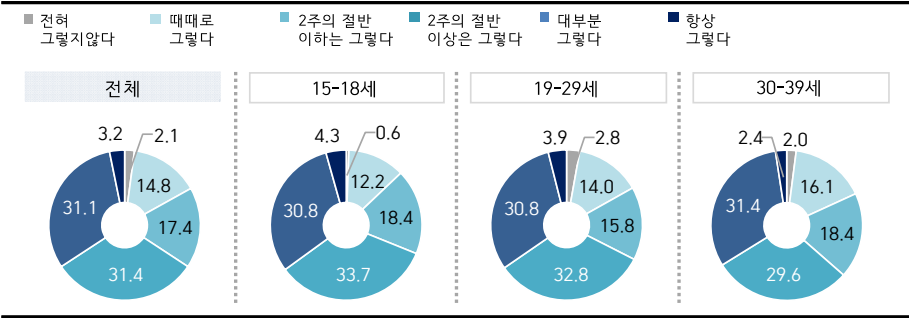


그림 III-103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2018년)

표 III-111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단위: %)

| 연도   |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전혀 그렇지 않다      | 6.1  | 6.1  | 6.1  | 3.0    | 6.7    | 6.3    |
|      | 때때로 그렇다        | 26.3 | 25.7 | 26.8 | 17.4   | 24.7   | 30.5   |
|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 17.4 | 16.9 | 18.1 | 18.3   | 16.8   | 17.8   |
|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28.1 | 29.0 | 27.0 | 28.8   | 29.2   | 26.7   |
|      | 대부분 그렇다        | 19.7 | 19.5 | 20.0 | 27.8   | 19.6   | 17.4   |
|      | 항상 그렇다         | 2.5  | 2.9  | 2.0  | 4.7    | 3.0    | 1.2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2.1  | 1.8  | 2.4  | 0.6    | 2.8    | 2.0    |
|      | 때때로 그렇다        | 14.8 | 14.0 | 15.6 | 12.2   | 14.0   | 16.1   |
|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 17.4 | 17.2 | 17.6 | 18.4   | 15.8   | 18.4   |
|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31.4 | 32.6 | 30.1 | 33.7   | 32.8   | 29.6   |
|      | 대부분 그렇다        | 31.1 | 31.2 | 30.9 | 30.8   | 30.8   | 31.4   |
|      | 항상 그렇다         | 3.2  | 3.2  | 3.3  | 4.3    | 3.9    | 2.4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5-2-1. 청년 병원 이용

입원을 제외하고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나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외래이용율을 통해 청년들의 병원 이용 추이를 확인하였다. 20대의 병원 이용율은 2007년 18.6%에서 2016년 24.0%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30대는 23.0%에서 25.3%로 증가하였으나 그 변화 폭이 20대보다 적었다. 전반적으로 20대의 병원 이용율의 상승폭이 큰 반면 30대 이용율은 전체 연령 병원이용율 평균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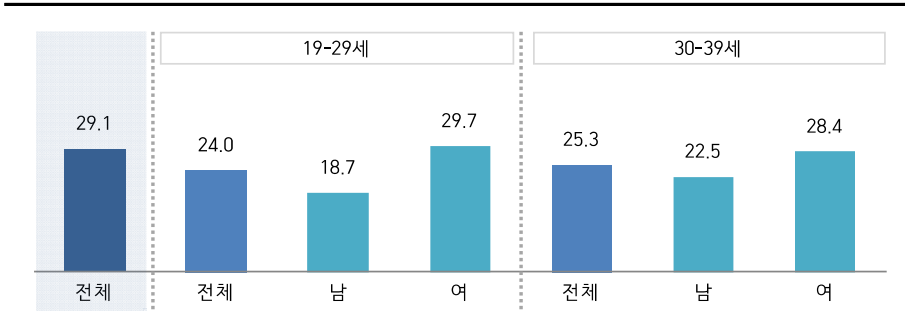


그림 III-104 청년 병원 이용율(2016년)

표 III-112 연도별 청년 병원 이용율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9-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7 | 27.8 | 18.6   | 16.5 | 20.6 | 23.0   | 20.4 | 25.6 |
| 2008 | 30.0 | 21.4   | 16.2 | 26.9 | 20.2   | 16.7 | 23.8 |
| 2009 | 28.7 | 22.5   | 17.5 | 28.0 | 20.7   | 18.0 | 23.7 |
| 2010 | 31.4 | 23.2   | 17.8 | 29.0 | 24.9   | 19.6 | 30.5 |
| 2011 | 31.0 | 25.4   | 24.0 | 26.8 | 22.8   | 21.1 | 24.6 |
| 2012 | 30.7 | 25.7   | 18.8 | 33.0 | 24.4   | 20.5 | 28.5 |
| 2013 | 31.6 | 22.6   | 17.4 | 28.6 | 25.3   | 22.4 | 28.2 |
| 2014 | 31.6 | 25.9   | 23.4 | 28.7 | 24.2   | 21.1 | 27.1 |
| 2015 | 30.9 | 25.7   | 20.7 | 31.2 | 26.3   | 18.9 | 33.5 |
| 2016 | 29.1 | 24.0   | 18.7 | 29.7 | 25.3   | 22.5 | 28.4 |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주간 외래이용율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94&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94&conn_path=1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주: 2주간 외래이용율은 최근 2주 동안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율(만19세 이상)

##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청년들의 민간 의료 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10대는 2008년 69.3%에서 2015년 82.0%로, 같은 기간 20대는 63.2%에서 76.5%로, 30대는 77.8%에서 8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81%, 2.61%로 나타나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인 1.79%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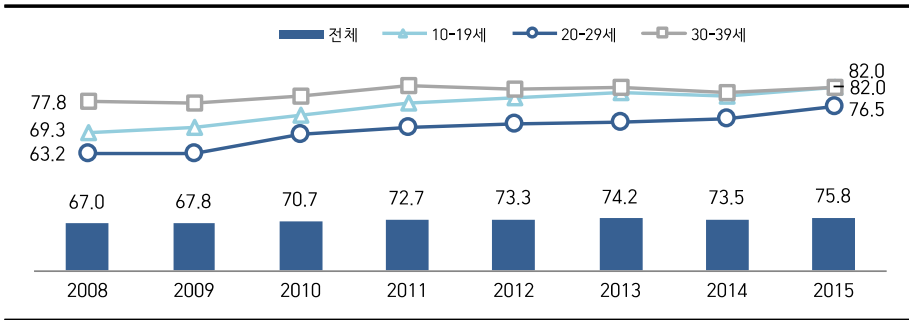


그림 Ⅲ-105 연령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2008~2015년)

표 Ⅲ-113 연도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0-19세 | 20-29세 | 30-39세 |
|---------|------|--------|--------|--------|
| 2008    | 67.0 | 69.3   | 63.2   | 77.8   |
| 2009    | 67.8 | 70.4   | 63.4   | 77.6   |
| 2010    | 70.7 | 74.0   | 68.8   | 79.4   |
| 2011    | 72.7 | 77.5   | 70.5   | 82.3   |
| 2012    | 73.3 | 78.9   | 71.8   | 81.5   |
| 2013    | 74.2 | 80.3   | 71.9   | 82.1   |
| 2014    | 73.5 | 79.7   | 72.9   | 80.4   |
| 2015    | 75.8 | 82.0   | 76.5   | 82.0   |
| 연평균 증가율 | 1.79 | 2.81   | 2.61   | 1.12   |

\* 출처: 국민건강보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5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Ⅰ), p.141, p.144. 한국의료패널 웹사이트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view.do?bbsid=13&seq=1791>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주: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개인단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종신/연금보험이 포함됨.

### 5-2-3. 건강검진 수검 여부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38.1%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연령별로 보았을 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직장인으로서 법정 건강검진 대상이 다수인 30대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3.2%의 수검율을 보였으나 10대와 20대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0~20%대의 수검율을 보이고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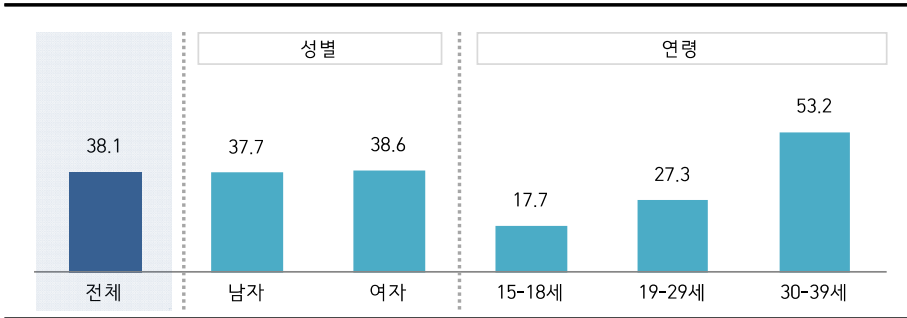


그림 III-106 건강검진 수검 여부(2018년)

표 III-114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예   | 38.1 | 37.7 | 38.6 | 17.7   | 27.3   | 53.2   |
|      | 아니오 | 61.9 | 62.3 | 61.4 | 82.3   | 72.7   | 46.8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8년 신규 문항임.

#### 5-2-4.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질환 발생 시 청년들의 80.7%는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은 질환이 발생 하더라도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 또는 바르거나(15.7%)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는 비율(6.8%)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20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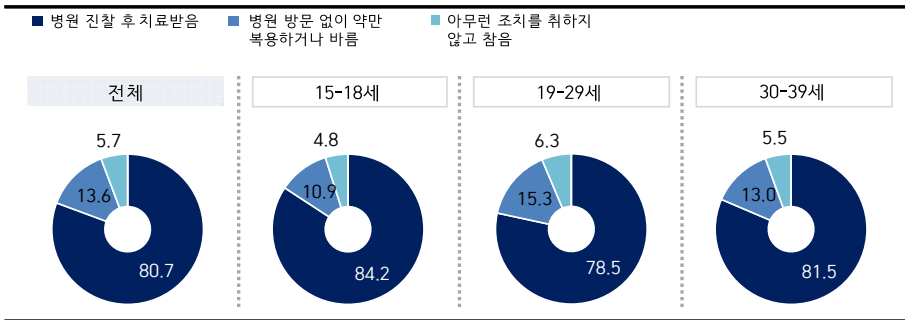


그림 III-107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2018년)

표 III-115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 80.7 | 77.6 | 84.1 | 84.2   | 78.5   | 81.5   |
|      |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13.6 | 15.7 | 11.3 | 10.9   | 15.3   | 13.0   |
|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5.7  | 6.8  | 4.5  | 4.8    | 6.3    | 5.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8년 신규문항임.

질환이 발생해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그에 대한 이유로는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77.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9.9%)’로 나타나 이들 두 가지 사유가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응답한 비율은 여성(69.4%)보다 남성(82.1%)이, 연령대가 어릴수록(15-18세 84.5%, 19-29세 80.5%, 30-39세 72.2%) 높은 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15.4%)보다 여성(26.9%)이, 연령대가 높을수록(15-18세 11.4%, 19-29세 16.8%, 30-39세 25.0%) 높게 나타나 성과 연령대에 따라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는 사유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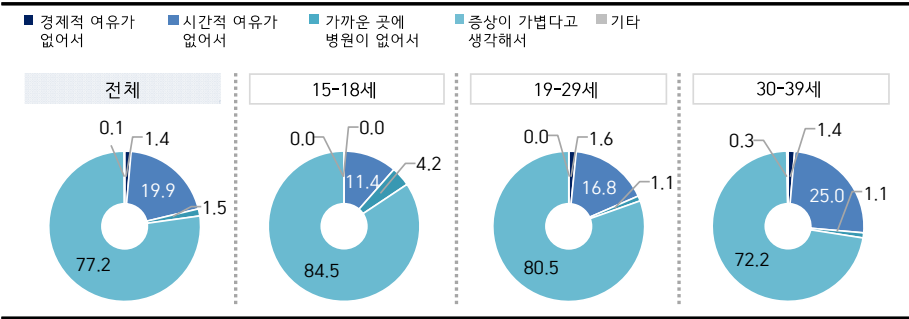


그림 III-108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2018년)

표 III-116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1.4  | 1.2  | 1.5  | 0.0    | 1.6    | 1.4    |
|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19.9 | 15.4 | 26.9 | 11.4   | 16.8   | 25.0   |
|      |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1.5  | 1.0  | 2.2  | 4.2    | 1.1    | 1.1    |
|      |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77.2 | 82.1 | 69.4 | 84.5   | 80.5   | 72.2   |
|      | 기타             | 0.1  | 0.2  | 0.0  | 0.0    | 0.0    | 0.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질환 발생 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거나 기타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2) 2018년 신규 문항임



### 5-2-5. 성형수술 여부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의 성형수술 경험은 10.4%로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결과인 2018년을 기준으로, 남자(2.5%)보다 여자(19.1%)의 성형수술 경험이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3.0%)에 비해 20대, 30대의 성형수술 비율이 각각 11.8%, 1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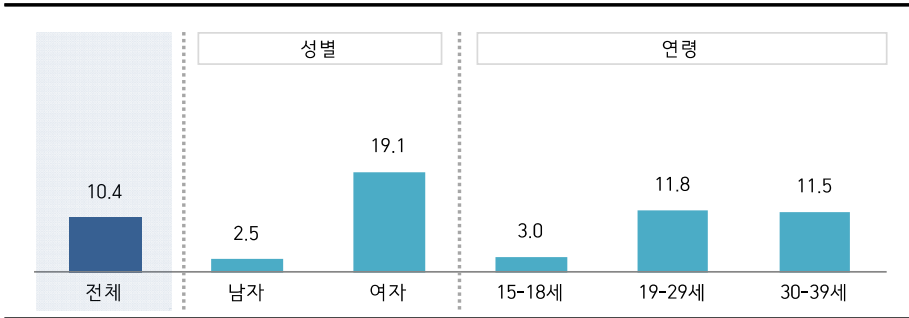


그림 III-109 성형수술 경험(2018년)

표 III-117 연도별 성형수술 경험

(단위: %)

| 연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12.7 | 2.7 | 23.5 | 5.6    | 16.9   | 10.9   |
| 2017 | 11.8 | 2.2 | 22.3 | 3.7    | 13.6   | 12.4   |
| 2018 | 10.4 | 2.5 | 19.1 | 3.0    | 11.8   | 11.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성형수술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5-2-6. 성형수술 목적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성형수술 목적을 살펴본 결과, 미용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부 비율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2016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 99%가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였으나 남성의 11.6%는 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실시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 100%, 20대 역시 99.5%가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하였고, 30대의 경우 의료목적 성형수술이 4.0%를 차지하여 타 연령대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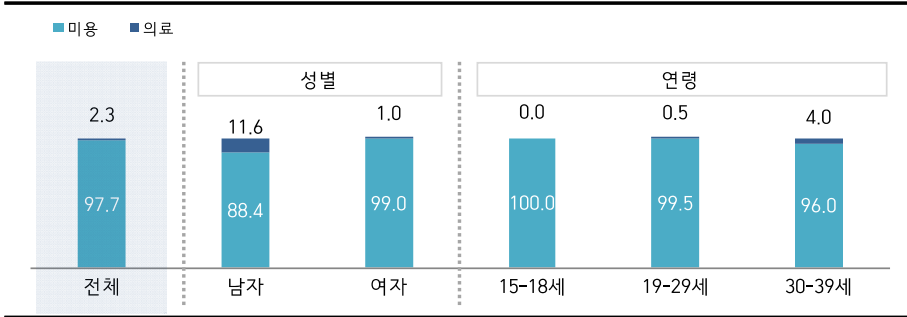


그림 III-110 성형수술 목적(2018년)

표 III-118 연도별 성형수술 목적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의료 | 10.0 | 26.1 | 8.0  | 5.8    | 10.0   | 10.7   |
|      | 미용 | 90.0 | 73.9 | 92.0 | 94.2   | 90.0   | 89.3   |
| 2017 | 의료 | 11.3 | 37.9 | 8.3  | 5.5    | 13.6   | 9.3    |
|      | 미용 | 88.7 | 62.1 | 91.7 | 94.5   | 86.4   | 90.7   |
| 2018 | 의료 | 2.3  | 11.6 | 1.0  | 0.0    | 0.5    | 4.0    |
|      | 미용 | 97.7 | 88.4 | 99.0 | 100.0  | 99.5   | 96.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의료는 화상치료나 안검하수 등의 의료 목적으로 시술을 한 경우이며, 미용은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술 등을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한 경우를 말함.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6) 문화와 가치관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유형

청년들이 문화 및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유형은 휴식활동, 취미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가지 활동 유형은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10대, 20대, 30대 모두 95% 전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말에는 휴식, 취미오락, 사회 및 기타 활동 이외에도 관광활동(10대 71.0%, 20대 83.6%, 30대 87.3%), 스포츠 참여활동(10대 81.6%, 20대 85.9%, 30대 77.8%)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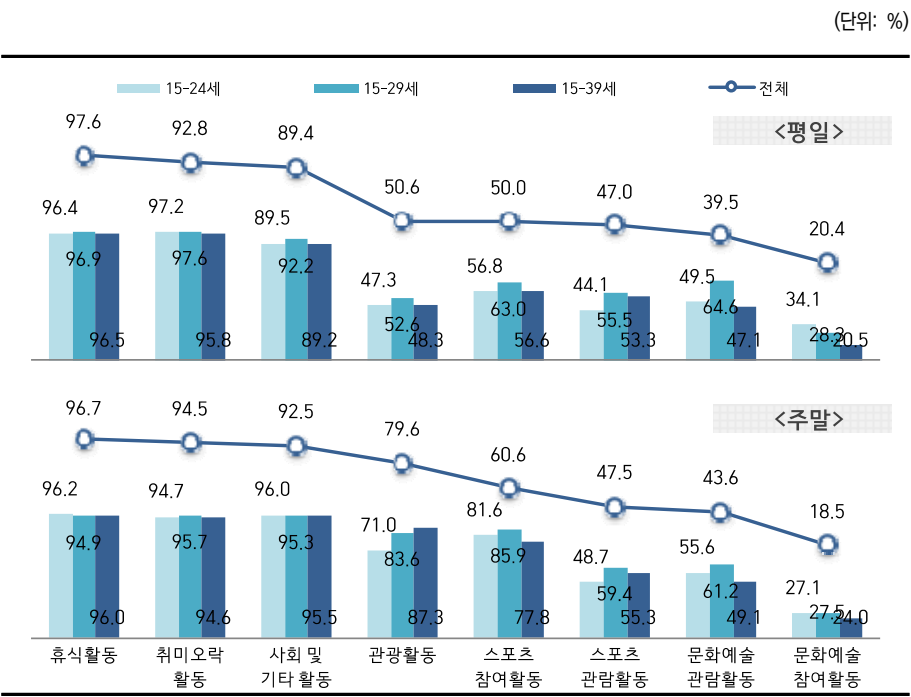


그림 III-111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2016년)

표 III-119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 휴식활동 | 취미<br>오락활동 | 사회 및<br>기타활동 | 관광활동 | 스포츠<br>참여활동 | 스포츠<br>관람활동 | 문화예술<br>관람활동 | 문화예술<br>참여활동 |
|--------|--------|------|------------|--------------|------|-------------|-------------|--------------|--------------|
| 평<br>일 | 전체     | 97.6 | 92.8       | 89.4         | 50.6 | 50.0        | 47.0        | 39.5         | 20.4         |
|        | 15-19세 | 96.4 | 97.2       | 89.5         | 47.3 | 56.8        | 44.1        | 49.5         | 34.1         |
|        | 20-29세 | 96.9 | 97.6       | 92.2         | 52.6 | 63.0        | 55.5        | 64.6         | 28.3         |
|        | 30-39세 | 96.5 | 95.8       | 89.2         | 48.3 | 56.6        | 53.3        | 47.1         | 20.5         |
|        | 전체     | 96.7 | 94.5       | 92.5         | 79.6 | 60.6        | 47.5        | 43.6         | 18.5         |
| 휴<br>일 | 15-19세 | 96.2 | 94.7       | 96.0         | 71.0 | 81.6        | 48.7        | 55.6         | 27.1         |
|        | 20-29세 | 94.9 | 95.7       | 95.3         | 83.6 | 85.9        | 59.4        | 61.2         | 27.5         |
|        | 30-39세 | 96.0 | 94.6       | 95.5         | 87.3 | 77.8        | 55.3        | 49.1         | 24.0         |
|        | 전체     | 96.7 | 94.5       | 92.5         | 79.6 | 60.6        | 47.5        | 43.6         | 18.5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pp.72-74.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View.jsp?pSeq=1662&pMenuCD=0406000000&pType=02](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View.jsp?pSeq=1662&pMenuCD=0406000000&pType=02)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주: 2016년 조사결과임.

## 6-1-2.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201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일보다는 휴일에서의 감소 경향이 보다 뚜렷한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도 비교적 큰 편으로 나타났다.

(단위: 시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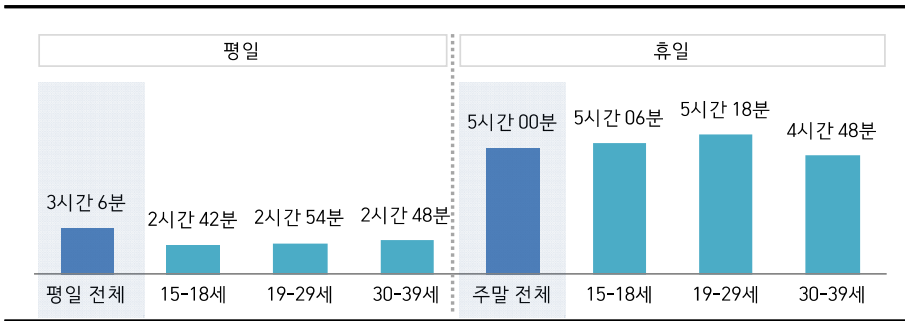


그림 III-112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2016년)

표 III-120 연도별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단위: 시간, 분)

| 연도   | 전체<br>(평일) | 연령     |        |        | 전체<br>(휴일) | 연령     |        |        |
|------|------------|--------|--------|--------|------------|--------|--------|--------|
|      |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06 | 3시간06분     | 3시간33분 | 2시간50분 | 2시간38분 | 5시간27분     | 7시간30분 | 5시간19분 | 4시간47분 |
| 2008 | 2시간58분     | 3시간19분 | 2시간34분 | 2시간17분 | 6시간40분     | 7시간35분 | 7시간46분 | 6시간02분 |
| 2010 | 4시간00분     | 3시간06분 | 3시간42분 | 3시간12분 | 7시간00분     | 6시간18분 | 7시간24분 | 6시간42분 |
| 2012 | 3시간18분     | 2시간36분 | 3시간06분 | 2시간28분 | 5시간06분     | 4시간48분 | 5시간36분 | 4시간48분 |
| 2014 | 3시간34분     | 3시간07분 | 3시간19분 | 3시간08분 | 5시간46분     | 5시간37분 | 6시간04분 | 5시간31분 |
| 2016 | 3시간06분     | 2시간42분 | 2시간54분 | 2시간48분 | 5시간00분     | 5시간06분 | 5시간18분 | 4시간48분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CurrentPage=1&pType=02&pTab=01&pSearchType=01&pSearchWord=%EC%97%AC%EA%B0%80%ED%99%9C%EB%8F%99&x=0&y=0](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CurrentPage=1&pType=02&pTab=01&pSearchType=01&pSearchWord=%EC%97%AC%EA%B0%80%ED%99%9C%EB%8F%99&x=0&y=0)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 30대 등 청년층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0대의 경우 2006년 8만9천원에서 2016년 7만4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16만6천원에서 14만3천원으로, 30대는 16만8천원에서 15만9천원으로 낮아졌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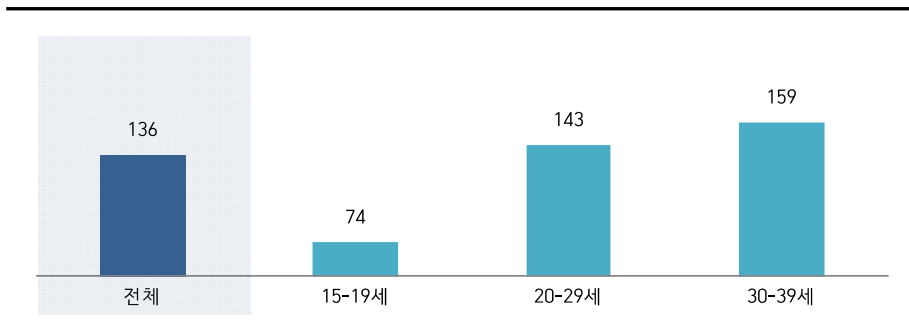


그림 III-113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2016년)

표 III-121 연도별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단위: 천원)

| 연도   | 전체  | 15-19세 | 20-29세 | 30-39세 |
|------|-----|--------|--------|--------|
| 2006 | 142 | 89     | 166    | 168    |
| 2008 | 139 | 32     | 175    | 160    |
| 2010 | 168 | 62     | 205    | 196    |
| 2012 | 125 | 60     | 156    | 150    |
| 2014 | 130 | 61     | 147    | 156    |
| 2016 | 136 | 74     | 143    | 159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currentPage=1&pType=02&pTab=01&pSearchType=01&pSearchWord=%EC%97%AC%EA%B0%80%ED%99%9C%EB%8F%99&x=0&y=0](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currentPage=1&pType=02&pTab=01&pSearchType=01&pSearchWord=%EC%97%AC%EA%B0%80%ED%99%9C%EB%8F%99&x=0&y=0)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6-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 만족도를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대가 4.6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을 30대(4.50점), 10대(4.35점)의 순이었다. 직전 조사년도인 2014년 대비 10대, 20대, 30대 등 모든 청년층에서 문화 및 여가 생활 만족 수준이 소폭 하락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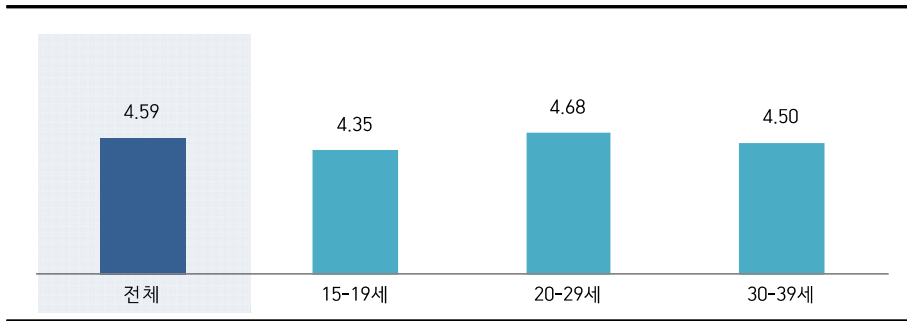


그림 III-1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2016년)

표 III-122 연도별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추이

(단위: 점)

| 연도   | 전체   | 15-19세 | 20-29세 | 30-39세 |
|------|------|--------|--------|--------|
| 2012 | 2.56 | 2.45   | 2.61   | 2.52   |
| 2014 | 4.54 | 4.41   | 4.69   | 4.56   |
| 2016 | 4.59 | 4.35   | 4.68   | 4.50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currentPage=1&pType=02&pTab=01&pSearchType=01&pSearchWord=%EC%97%AC%EA%B0%80%ED%99%9C%EB%8F%99&x=0&y=0](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currentPage=1&pType=02&pTab=01&pSearchType=01&pSearchWord=%EC%97%AC%EA%B0%80%ED%99%9C%EB%8F%99&x=0&y=0)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주: 2012년에는 4점 척도로 2014년부터는 5점 척도로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함(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만족함).

### 6-1-5. 독서율

청년들의 독서율은 20대, 30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대 독서율은 2011년 89.5%였으나 2016년 78.7%로, 30대 독서율은 같은 기간 85.3%에서 73.1%로 낮아졌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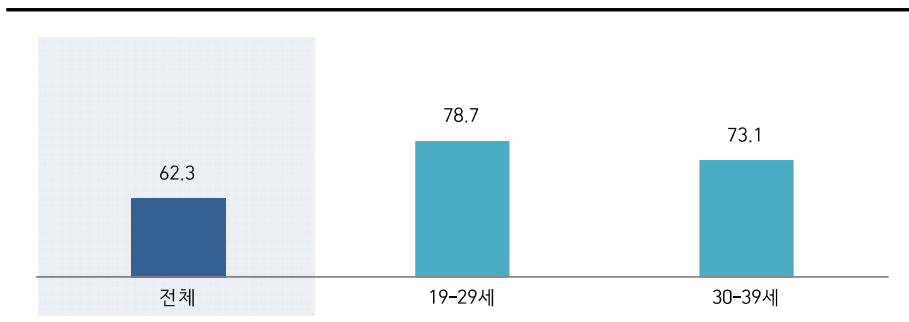


그림 III-115 연간 독서율(2016년)

표 III-123 연도별 연간 독서율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9-29세 | 30-39세 |
|------|------|--------|--------|
| 2011 | 73.7 | 89.5   | 85.3   |
| 2013 | 72.7 | 89.0   | 83.4   |
| 2015 | 67.4 | 91.1   | 80.5   |
| 2016 | 62.3 | 78.7   | 73.1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Type=02&pSearchType=01&pSearchWord=%EA%B5%AD%EB%AF%BC%EB%8F%85%EC%84%9C](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Type=02&pSearchType=01&pSearchWord=%EA%B5%AD%EB%AF%BC%EB%8F%85%EC%84%9C)와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554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554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 주 1) 종이책과 전자책을 1권 이상 읽은 성인의 독서율임.  
2) 2013년도는 18-29세임.



### 6-2-1. 주관적 행복감

청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2016년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9세 이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3점을 기점으로 등락을 보이다 2016년 6.5점, 2017년 6.6점으로 상승하였고 30대는 2013년 이후 3년간 줄곧 6.4점이던 것이 2016년 6.5점, 2017년 6.7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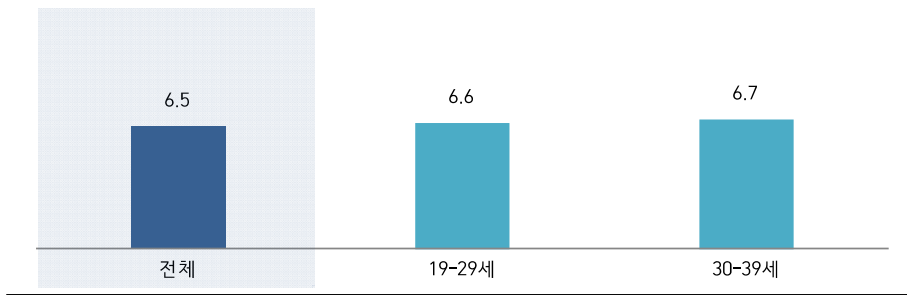


그림 III-116 주관적 행복감(2017년)

표 III-124 연도별 주관적 행복감 추이

(단위: 점)

| 연도   | 전체  | 19-29세 | 30-39세 |
|------|-----|--------|--------|
| 2013 | 6.3 | 6.5    | 6.4    |
| 2014 | 6.2 | 6.3    | 6.4    |
| 2015 | 6.2 | 6.4    | 6.4    |
| 2016 | 6.3 | 6.5    | 6.5    |
| 2017 | 6.5 | 6.6    | 6.7    |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웹사이트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주: 어제 주관적으로 경험한 정서 중 행복감을 묻는 문항으로, 0점(전혀 행복하지 않았다)~10점(매우 행복했다)으로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 점수임.

### 6-2-2. 삶의 만족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16년 이후부터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9세 이하는 2013년 5.7점에서 2015년 5.8점으로 미미한 변화를 보이다 2016년에 이르러 6점대를 넘어섰고 30대 역시 같은 2013년 이후 3년간 5.8점으로 변화가 없던 것이 2016년 5.9점으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 6점대를 넘어섰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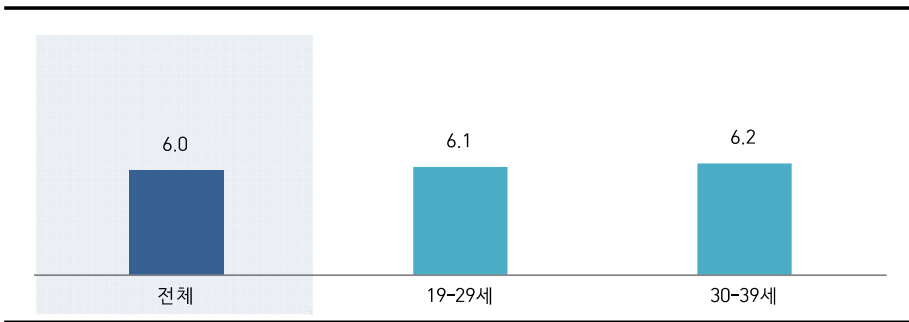


그림 III-117 삶의 만족도(2017년)

표 III-125 연도별 삶의 만족도 추이

(단위: 점)

| 연도   | 전체  | 19-29세 | 30-39세 |
|------|-----|--------|--------|
| 2013 | 5.7 | 5.7    | 5.8    |
| 2014 | 5.7 | 5.9    | 5.8    |
| 2015 | 5.7 | 5.8    | 5.8    |
| 2016 | 5.8 | 6.1    | 5.9    |
| 2017 | 6.0 | 6.1    | 6.2    |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웹사이트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List.do?seSubCode=BIZ017A001>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문항으로,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매우 만족한다)으로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 점수임.

### 6-2-3. 주관적 계층의식

청년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9세 이하는 2013년 4.7점에서 2017년 5.4점으로 상승하였고 30대의 경우도 같은 기간 4.8점에서 5.5점으로 상승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과거에 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점차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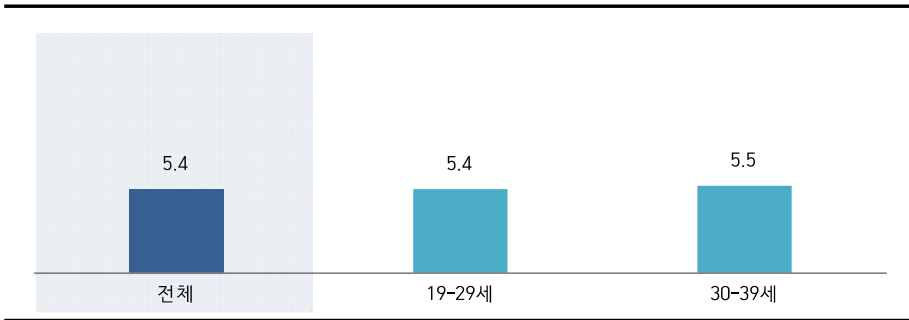


그림 III-118 주관적 계층의식(2017년)

표 III-126 연도별 주관적 계층의식 추이

(단위: 점)

| 연도   | 전체  | 19-29세 | 30-39세 |
|------|-----|--------|--------|
| 2013 | 4.7 | 4.7    | 4.8    |
| 2014 | 4.8 | 4.8    | 5.0    |
| 2015 | 5.0 | 4.8    | 5.1    |
| 2016 | 5.1 | 5.1    | 5.3    |
| 2017 | 5.4 | 5.4    | 5.5    |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웹사이트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주: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0점(매우 낮다)~10점(매우 높다)으로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 점수임.

#### 6-2-4. 가치 항목별 선호도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는 청년들의 선호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과 여가, 현실과 이상, 결과와 과정, 개인과 집단 등 4개 항목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제시하고 각 청년들이 보다 중시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구조로 측정하였다. 4개 항목 모두 7점 척도로 4점을 중간 지점으로 하며, 1점에서 3점까지는 왼쪽 가치(일, 현실, 결과, 개인)를, 5점에서 7점까지는 오른쪽 가치(여가, 이상, 과정, 집단)를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일과 여가 중에서는 여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5.6%로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31.0%)보다 높게 나타났고, 현실과 이상 중에서는 현실 선호가 61.4%로 이상(16.4%)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과와 과정 중에서는 결과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이 51.2%로 과정(22.1%)보다 높고 마지막으로 집단과 개인 중에서는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38.5%로 집단 중시(25.0%) 대비 높게 나타났다.

4개 가치 항목 모두 지난 2016, 2017년 응답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청년들은 지난 3년간 큰 가치 선호 변화 없이 일보다는 여가를, 이상보다는 현실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그리고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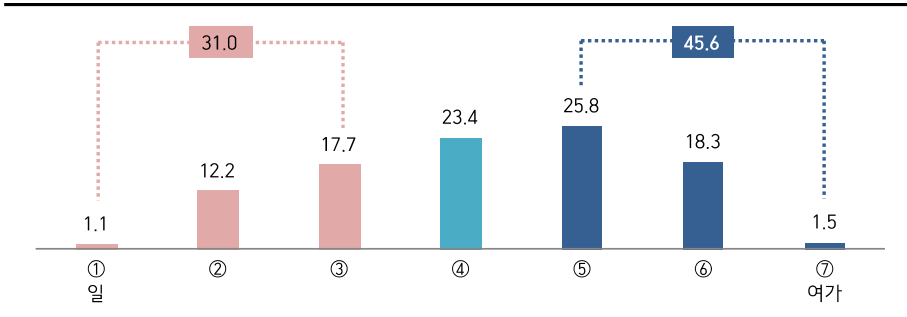


그림 Ⅲ-119 일과 여가 중 선호하는 가치(2018년)

표 Ⅲ-127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단위: %)

| 연도   | ← 일 |      |      |      | 여가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016 | 3.1 | 13.0 | 18.4 | 24.8 | 22.3 | 16.2 | 2.1 |
| 2017 | 3.4 | 13.4 | 15.2 | 24.6 | 19.5 | 19.5 | 4.5 |
| 2018 | 1.1 | 12.2 | 17.7 | 23.4 | 25.8 | 18.3 | 1.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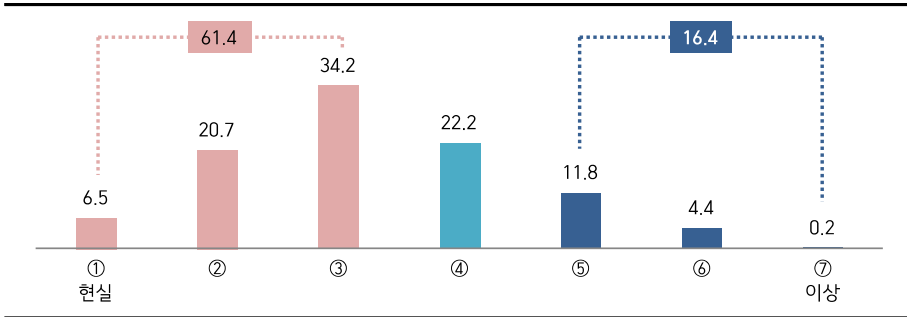


그림 Ⅲ-120 현실과 이상 중 선호하는 가치(2018년)

표 Ⅲ-128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단위: %)

| 연도   | ← 현실 |      |      |      | 이상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016 | 12.4 | 28.8 | 26.8 | 18.0 | 9.6  | 4.0 | 0.4 |
| 2017 | 11.6 | 30.8 | 23.9 | 18.6 | 7.8  | 5.9 | 1.4 |
| 2018 | 6.5  | 20.7 | 34.2 | 22.2 | 11.8 | 4.4 | 0.2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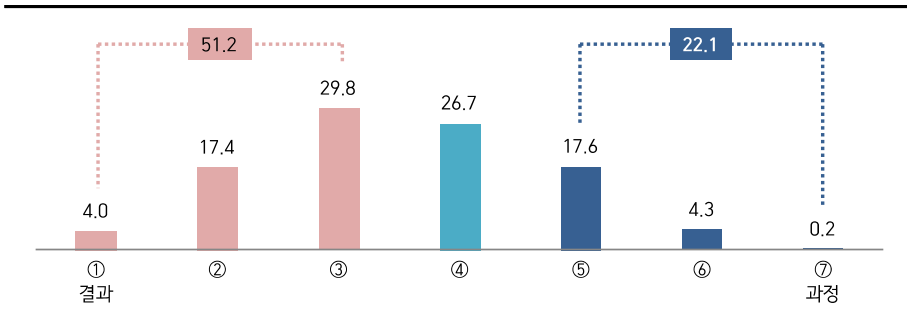


그림 Ⅲ-121 결과와 과정 중 선호하는 가치(2018년)

표 Ⅲ-129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단위: %)

| 연도   | ← 결과 |      |      |      | 과정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016 | 9.7  | 21.1 | 22.8 | 25.3 | 14.5 | 5.4 | 1.2 |
| 2017 | 8.7  | 22.9 | 20.1 | 24.7 | 12.0 | 9.0 | 2.6 |
| 2018 | 4.0  | 17.4 | 29.8 | 26.7 | 17.6 | 4.3 | 0.2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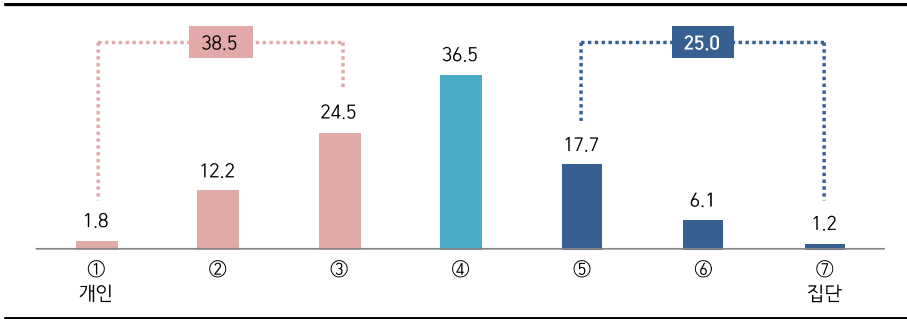


그림 Ⅲ-122 개인과 집단 중 선호하는 가치(2018년)

표 Ⅲ-130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단위: %)

| 연도   | ← 개인 |      |      |      | 집단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016 | 6.3  | 13.0 | 22.1 | 37.4 | 14.6 | 5.6 | 1.0 |
| 2017 | 4.0  | 14.0 | 20.3 | 36.5 | 13.3 | 9.5 | 2.4 |
| 2018 | 1.8  | 12.2 | 24.5 | 36.5 | 17.7 | 6.1 | 1.2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6-2-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재산이나 경제력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재산·경제력과 나머지 요건들 간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어 재산·경제력을 중시하는 현상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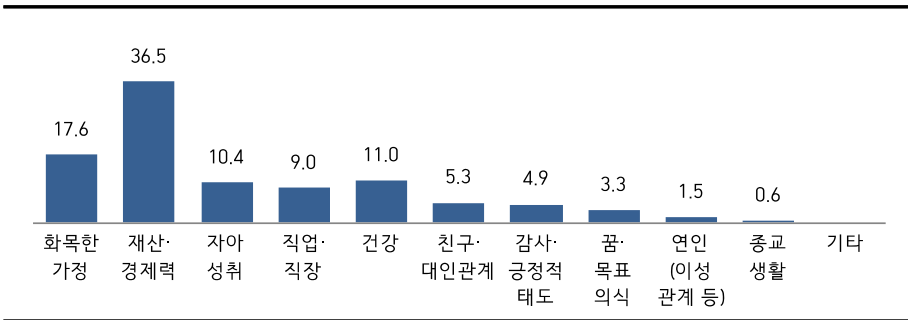


그림 III-123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2018년)

표 III-131 연도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

| 연도   | 화목한 가정 | 재산·경제력 | 자아 성취 | 직업·직장 | 건강   | 친구·대인관계 | 감사·긍정적 태도 | 꿈·목표 의식 | 연인 (이성 관계 등) | 종교 생활 | 기타  |
|------|--------|--------|-------|-------|------|---------|-----------|---------|--------------|-------|-----|
| 2013 | 27.9   | 23.2   | 15.0  | 7.1   | 6.9  | 4.6     | 8.9       | 3.3     | 2.4          | 0.7   | -   |
| 2015 | 27.6   | 23.3   | 17.5  | 7.3   | 6.2  | 3.1     | 8.0       | 4.4     | 1.5          | 1.0   | 0.1 |
| 2016 | 27.1   | 24.3   | 12.3  | 11.4  | 8.0  | 5.0     | 4.9       | 4.9     | 1.4          | 0.6   | -   |
| 2017 | 26.4   | 27.8   | 10.1  | 4.5   | 14.2 | 4.3     | 6.4       | 4.7     | 0.7          | 0.7   | -   |
| 2018 | 17.6   | 36.5   | 10.4  | 9.0   | 11.0 | 5.3     | 4.9       | 3.3     | 1.5          | 0.6   | -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7) 관계와 참여

### 7-1-1. 사회적 관계망

통계청에서 수행한 사회조사의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해 보았다. 가장 최근의 집계 년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 측정항목 모두에서 전체 연령 대비 청년(10대, 20대, 30대) 연령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연령대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10대나 20대, 30대와 상관없이 3개 항목 모두에서 청년들의 응답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30대에서(2011년 77.7%, 2017년 82.0%, +4.3%p),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는 20대에서(2011년 59.2%, 2017년 65.2%, +6.0%p),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는 10대에서(2011년 84.6%, 2017년 88.8%, +4.2%p) 각각 상승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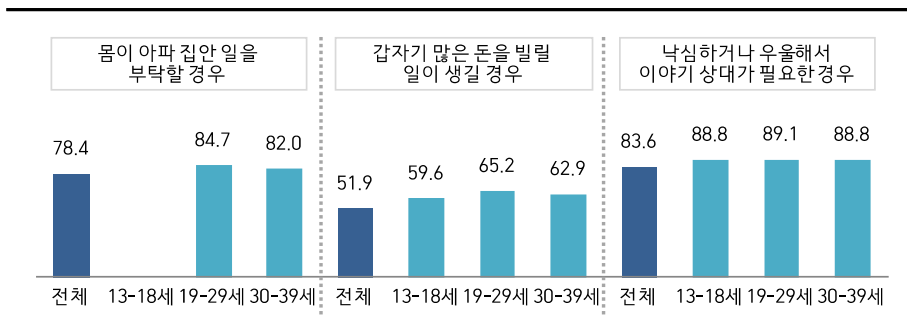


그림 III-124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2017년)

표 III-132 연도별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단위: %)

| 연도   | 몸이 아파 집안일을<br>부탁할 경우 |        |        |        |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br>일이 생길 경우 |        |        |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br>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        |        |
|------|----------------------|--------|--------|--------|--------------------------|--------|--------|--------|------------------------------|--------|--------|--------|
|      | 전체                   | 13-18세 | 19-29세 | 30-39세 | 전체                       | 13-18세 | 19-29세 | 30-39세 | 전체                           | 13-18세 | 19-29세 | 30-39세 |
| 2011 | 75.9                 | -      | 82.3   | 77.7   | 48.6                     | 58.6   | 59.2   | 57.6   | 81.0                         | 84.6   | 88.4   | 86.7   |
| 2013 | 74.7                 | -      | 80.1   | 78.0   | 47.0                     | 57.8   | 59.1   | 55.2   | 81.1                         | 88.0   | 88.0   | 86.2   |
| 2015 | 76.8                 | -      | 82.6   | 78.5   | 50.1                     | 63.8   | 61.5   | 59.1   | 82.4                         | 89.0   | 88.8   | 86.5   |
| 2017 | 78.4                 | -      | 84.7   | 82.0   | 51.9                     | 59.6   | 65.2   | 62.9   | 83.6                         | 88.8   | 89.1   | 88.8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 7-1-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부모 부양에 대한 청년층의 견해를 통계청에서 수행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6년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0대와 20대, 30대 모두 각각 43.8%, 49.9%, 50.5%로 가장 높았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연령대와 무관하게 모든 청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전 청년 연령대에 걸쳐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매년 5%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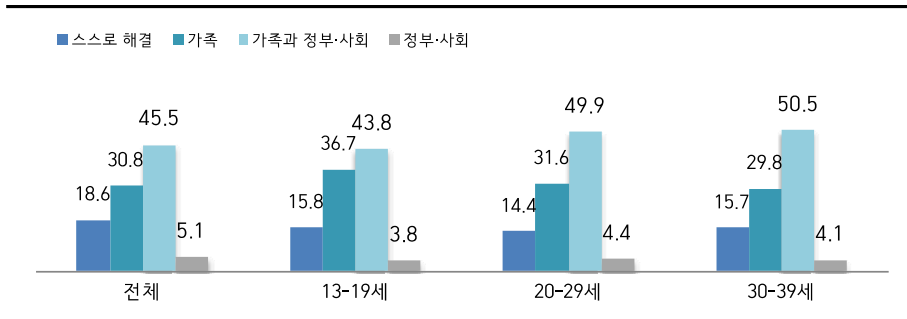


그림 III-12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2016년)

표 III-133 연도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연도   | 전체   |      |      |     | 13-19세 |      |      |     | 20-29세 |      |      |     | 30-39세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2002 | 9.6  | 70.7 | 18.2 | 1.3 | 11.2   | 67.5 | 19.3 | 1.8 | 9.0    | 66.5 | 23.0 | 1.3 | 7.9    | 68.3 | 22.5 | 1.1 |
| 2006 | 7.8  | 63.4 | 26.4 | 2.3 | 8.4    | 58.0 | 31.3 | 2.2 | 6.7    | 61.4 | 29.9 | 1.9 | 6.0    | 60.9 | 31.3 | 1.8 |
| 2008 | 11.9 | 40.7 | 43.6 | 3.8 | 12.1   | 41.7 | 42.9 | 3.3 | 10.8   | 39.1 | 47.1 | 3.0 | 9.8    | 37.4 | 49.1 | 3.7 |
| 2010 | 12.7 | 36.0 | 47.4 | 3.9 | 11.8   | 42.0 | 43.2 | 2.9 | 10.8   | 37.3 | 49.5 | 2.4 | 11.2   | 32.4 | 52.8 | 3.7 |
| 2012 | 13.9 | 33.2 | 48.7 | 4.2 | 10.9   | 37.2 | 48.5 | 3.3 | 11.2   | 34.0 | 51.2 | 3.6 | 11.1   | 30.3 | 54.8 | 3.7 |
| 2014 | 16.6 | 31.7 | 47.3 | 4.4 | 13.7   | 38.9 | 43.7 | 3.6 | 13.8   | 33.6 | 49.6 | 3.1 | 14.2   | 28.7 | 52.7 | 4.2 |
| 2016 | 18.6 | 30.8 | 45.5 | 5.1 | 15.8   | 36.7 | 43.8 | 3.8 | 14.4   | 31.6 | 49.9 | 4.4 | 15.7   | 29.8 | 50.5 | 4.1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 \* 주 1) ① 스스로 해결, ② 가족, ③ 가족과 정부·사회, ④ 정부·사회  
2) 기타 항목을 제외한 결과임.  
3)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은 15-19세임.

### 7-1-3. 가족관계 만족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10대의 만족도는 2006년 54.6%의 만족(약간+매우)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6년에는 72.8%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대와 30대도 각각 같은 기간 동안 53.5%에서 65.2%로, 56.3%에서 62.8%로 높아졌으나 10대에 비해 상승폭이 적고 10대의 지속적 증가세와 달리 해를 거듭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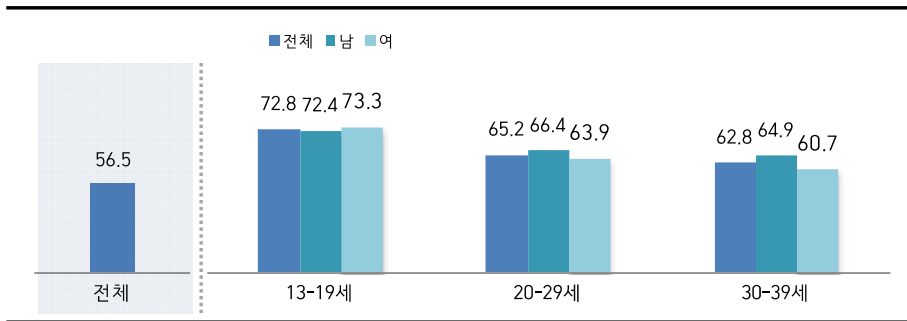


그림 III-126 가족관계 만족도(2016년)

표 III-134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3-19세 |      |      | 20-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6 | 50.3 | 54.6   | -    | -    | 53.5   | -    | -    | 56.3   | -    | -    |
| 2008 | 56.1 | 62.2   | 62.1 | 62.2 | 65.4   | 64.5 | 66.2 | 62.0   | 63.7 | 60.2 |
| 2010 | 54.8 | 62.7   | 61.3 | 64.3 | 64.8   | 64.6 | 65.1 | 59.7   | 61.7 | 57.6 |
| 2012 | 56.1 | 68.0   | 68.3 | 67.7 | 65.0   | 65.5 | 64.4 | 62.3   | 64.4 | 60.0 |
| 2014 | 55.2 | 70.8   | 70.4 | 71.1 | 63.6   | 63.6 | 63.6 | 61.5   | 63.4 | 59.5 |
| 2016 | 56.5 | 72.8   | 72.4 | 73.3 | 65.2   | 66.4 | 63.9 | 62.8   | 64.9 | 60.7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9R&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9R&conn_path=1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 주 1)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감을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에 응답한 값을 합산한 결과임.

2) 2006년, 2008년, 2010년은 15-19세임.

#### 7-1-4. 친한 친구 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어려운 상황일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만한 친한 친구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2018년 조사 결과, 친한 친구가 있다는 응답한 비율은 92.1%이며, 이는 지난 2017년 응답 비율(96.1%)보다 4.0%p 하락한 결과이며, 2년 전인 2016년도(91.3%)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8년 결과를 기준으로, 여자(93.0%)가 남자(91.3%)보다 친한 친구의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3년 내내 지속되고 있었다.

친한 친구 수의 경우, 2018년에는 청년 1명 당 평균 4.7명이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친한 친구 수(5.0명)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 결과(3.2명)보다는 상승하였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달리 친한 친구 수는 남자가 평균 4.8명으로 여자(4.6명)보다 다소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의 평균 친구 수가 5.0명으로 가장 높았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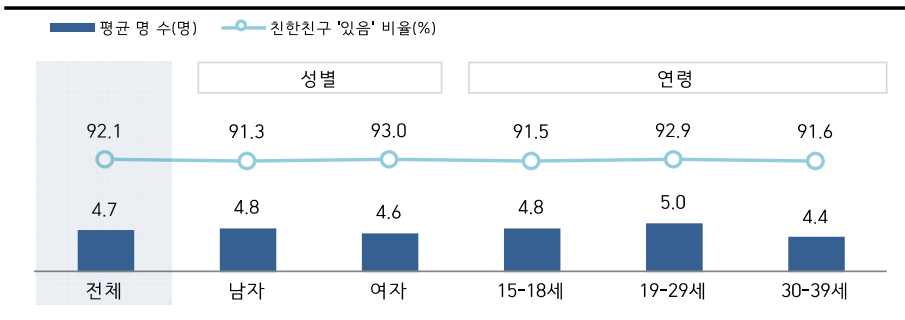


그림 III-127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2018년)

표 Ⅲ-135 연도별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단위: %, 명)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6 | %  | 91.3 | 90.6 | 92.1 | 94.6   | 93.4   | 88.1   |
|      | 평균 | 3.2  | 3.5  | 2.9  | 3.7    | 3.2    | 2.9    |
| 2017 | %  | 96.1 | 95.3 | 97.0 | 95.1   | 97.3   | 95.2   |
|      | 평균 | 5.0  | 5.2  | 4.7  | 6.4    | 5.1    | 4.3    |
| 2018 | %  | 92.1 | 91.3 | 93.0 | 91.5   | 92.9   | 91.6   |
|      | 평균 | 4.7  | 4.8  | 4.6  | 4.8    | 5.0    | 4.4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7-1-5. 세대갈등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질문하여 청년 관점에 기성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한 견해를 묻고, 그에 따른 세대 갈등을 파악하고 있다. 기성세대에 대한 3문항, 노인세대에 대한 4문항 등 총 7문항에 걸쳐 질문하고 있다.

먼저 기성세대에 대한 응답 결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청년들의 67.8%가 동의(‘그렇다’ 61.1%+‘매우 그렇다’ 6.7%)하였다. 또한,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4.5%(‘그렇다’ 29.4%+‘매우 그렇다’ 5.1%)만이 동의하였고,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 31.6%가 동의(‘그렇다’ 27.9%+‘매우 그렇다’ 3.7%)하였다. 특히, 기성세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은 2017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2017년 결과, 각각 22.5%, 21.5%)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먼저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8.6%가 동의(‘그렇다’ 43.6%+‘매우 그렇다’ 5.0%)하고 있었다.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4.1%가 동의(‘그렇다’ 31.8%+‘매우 그렇다’ 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21.3%: ‘전혀 그렇지 않다’ 0.7%+‘그렇지 않다’ 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47.8%가 동의(‘그렇다’ 41.0%+‘매우 그렇다’ 6.7%)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15.9%: ‘전혀 그렇지 않다’ 1.3%+‘그렇지 않다’ 14.6%)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35.2%가 동의(‘그렇다’ 31.9%+‘매우 그렇다’ 3.3%)해 앞선 노인에 대한 응답 결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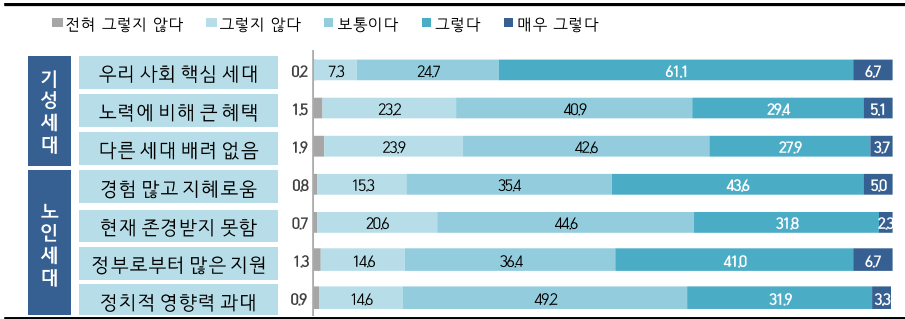


그림 III-128 세대 갈등(2018년)

표 III-136 연도별 세대 갈등 추이

(단위: %)

| 연도   | 구분        |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           |                    |                  | 노인에 대한 생각           |             |                            |                |
|------|-----------|-----------------------|--------------------|------------------|---------------------|-------------|----------------------------|----------------|
|      |           |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 세대이다 |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 2016 | 전혀 그렇지 않다 | 0.6                   | 2.4                | 1.8              | 2.2                 | 1.1         | 1.3                        | 4.0            |
|      | 그렇지 않다    | 9.7                   | 26.5               | 29.8             | 18.5                | 20.0        | 21.5                       | 23.3           |
|      | 보통이다      | 31.9                  | 42.7               | 39.0             | 41.0                | 38.5        | 42.5                       | 43.5           |
|      | 그렇다       | 50.3                  | 25.6               | 26.1             | 33.4                | 36.7        | 31.1                       | 24.6           |
|      | 매우 그렇다    | 7.5                   | 2.8                | 3.3              | 5.0                 | 3.7         | 3.6                        | 4.5            |
| 2017 | 전혀 그렇지 않다 | 1.1                   | 3.8                | 3.1              | 2.7                 | 1.4         | 2.4                        | 2.8            |
|      | 그렇지 않다    | 12.1                  | 32.3               | 32.2             | 15.7                | 19.9        | 19.0                       | 17.3           |
|      | 보통이다      | 29.1                  | 41.5               | 43.3             | 36.9                | 41.3        | 44.2                       | 47.1           |
|      | 그렇다       | 49.9                  | 20.8               | 18.7             | 40.3                | 33.7        | 30.8                       | 27.2           |
|      | 매우 그렇다    | 7.7                   | 1.7                | 2.8              | 4.4                 | 3.6         | 3.6                        | 5.6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0.2                   | 1.5                | 1.9              | 0.8                 | 0.7         | 1.3                        | 0.9            |
|      | 그렇지 않다    | 7.3                   | 23.2               | 23.9             | 15.3                | 20.6        | 14.6                       | 14.6           |
|      | 보통이다      | 24.7                  | 40.9               | 42.6             | 35.4                | 44.6        | 36.4                       | 49.2           |
|      | 그렇다       | 61.1                  | 29.4               | 27.9             | 43.6                | 31.8        | 41.0                       | 31.9           |
|      | 매우 그렇다    | 6.7                   | 5.1                | 3.7              | 5.0                 | 2.3         | 6.7                        | 3.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7-2-1. 자원봉사 참여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비율을 확인한 결과,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결과를 기준으로 10대는 78.4%, 20대와 30대는 각각 11.5%와 10.7%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0대는 2006년 59.5%에서 2017년 78.6%로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고, 20대의 역시 소폭이긴 하지만 같은 기간 8.3%에서 11.5%로 증가한 반면, 30대는 같은 기간 10.2%에서 10.7%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원봉사 활동 시간은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으나 30대는 2013년 27.3%에서 2017년 20.5%로 집계되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단위: %, 회,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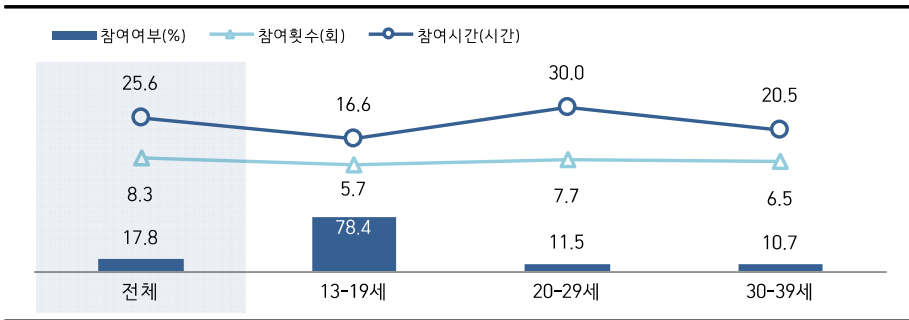


그림 III-129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2017년)

표 III-137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추이

(단위: %, 회, 시간)

| 연도   | 전체   |     |      | 13~19세 |     |      | 20~29세 |     |      | 30~39세 |     |      |
|------|------|-----|------|--------|-----|------|--------|-----|------|--------|-----|------|
|      | 여부   | 횟수  | 시간   | 여부     | 횟수  | 시간   | 여부     | 횟수  | 시간   | 여부     | 횟수  | 시간   |
| 2006 | 14.3 | -   | -    | 59.5   | -   | -    | 8.3    | -   | -    | 10.2   | -   | -    |
| 2009 | 19.3 | -   | -    | 79.8   | -   | -    | 13.9   | -   | -    | 13.6   | -   | -    |
| 2011 | 19.8 | 7.1 | -    | 77.7   | 4.3 | -    | 13.2   | 8.1 | -    | 11.2   | 8.7 | -    |
| 2013 | 19.9 | 7.6 | 25.1 | 80.1   | 5.4 | 16.4 | 13.7   | 7.4 | 28.7 | 11.2   | 7.6 | 27.3 |
| 2015 | 18.2 | 7.8 | 24.4 | 76.6   | 5.4 | 16.0 | 11.6   | 8.3 | 30.6 | 10.6   | 6.9 | 20.8 |
| 2017 | 17.8 | 8.3 | 25.6 | 78.4   | 5.7 | 16.6 | 11.5   | 7.7 | 30.0 | 10.7   | 6.5 | 20.5 |

\* 출처 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2)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2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2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3)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3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3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 주 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참여횟수임.  
3)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참여시간임.  
4) 2006년, 2009년은 15~19세임.

7-2-2. 기부활동

청년들의 기부활동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부한 비율이 2011년에 정점에 달했다가 2012년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10대의 기부활동 비율은 정점에 달했던 2011년 41.1%에 비해 2017년에는 20.9%를 보여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10대에 미치지 못하는 20대와 30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5.5%에서 20.7%로, 40.2%에서 31.2%로 하락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물품 기부보다는 현금 기부 비율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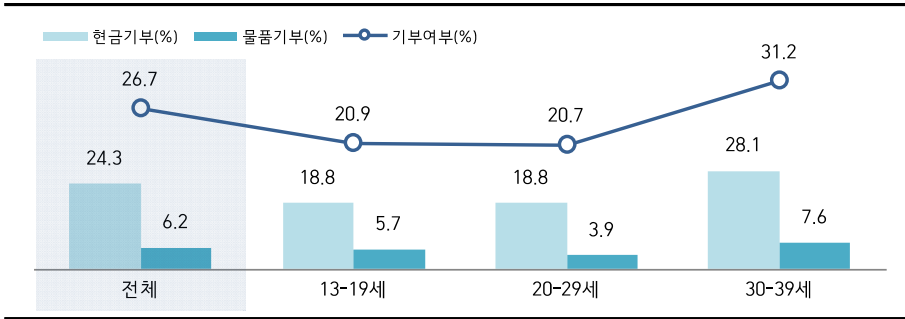


그림 III-130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2017년)

표 III-138 연도별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단위: %)

| 연도   | 전체   |      |     | 13-19세 |      |     | 20-29세 |      |     | 30-39세 |      |      |
|------|------|------|-----|--------|------|-----|--------|------|-----|--------|------|------|
|      | 기부   | 현금   | 물품  | 기부     | 현금   | 물품  | 기부     | 현금   | 물품  | 기부     | 현금   | 물품   |
| 2006 | 31.6 | -    | -   | 15.3   | -    | -   | 19.2   | -    | -   | 36.3   | -    | -    |
| 2009 | 32.3 | -    | -   | 19.4   | -    | -   | 23.2   | -    | -   | 38.4   | -    | -    |
| 2011 | 36.4 | 34.8 | 8.5 | 41.1   | 39.6 | 4.0 | 25.5   | 23.7 | 5.2 | 40.2   | 38.3 | 10.2 |
| 2013 | 34.6 | 32.5 | 5.9 | 30.1   | 28.2 | 4.7 | 24.8   | 23.1 | 3.3 | 38.0   | 35.6 | 6.7  |
| 2015 | 29.9 | 27.4 | 6.2 | 31.0   | 28.4 | 5.7 | 20.8   | 18.8 | 3.9 | 32.2   | 28.7 | 7.6  |
| 2017 | 26.7 | 24.3 | 6.2 | 20.9   | 18.8 | 5.1 | 20.7   | 18.8 | 4.2 | 31.2   | 28.1 | 7.6  |

\* 출처 1) 기부 여부: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62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62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2) 현금기부 여부: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8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81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3) 물품기부 여부: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0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01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 \* 주 1) 기부 여부: 지난 1년 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현금기부 여부: 지난 1년 간 현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물품기부 여부: 지난 1년 간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4) 2006년, 2009년은 15-19세임.

### 7-2-3. 단체참여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단체활동 참여 비율을 확인한 결과,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7년 결과를 토대로 10대는 33.5%, 20대는 41.9%, 30대는 48.1%의 참여율을 보였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2006년 19.3%에서 2017년 33.5%로 증가하였고 20대 역시 같은 기간 32.7%에서 41.9%로 상승하였으며, 30대 역시 39.4%에서 48.1%로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3개 조사년도로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의 급증세와 달리 201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감소 양상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10대보다 20대, 20대보다 30대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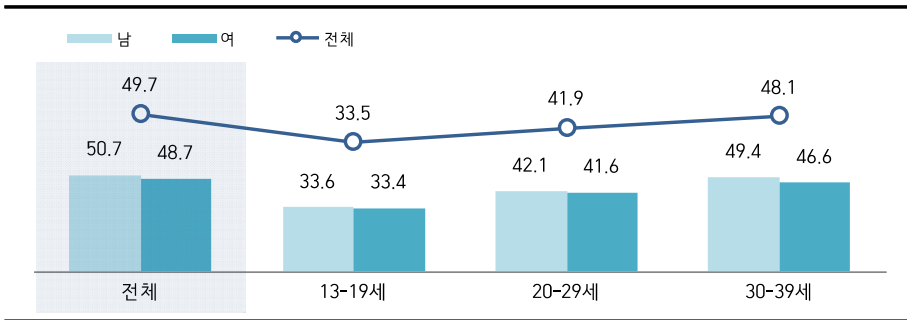


그림 III-131 단체참여(2017년)

표 III-139 연도별 단체참여 추이

(단위: %)

| 연도   | 전체   | 13-19세 |      |      | 20-29세 |      |      | 30-39세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06 | 38.8 | 19.3   | -    | -    | 32.7   | -    | -    | 39.4   | -    | -    |
| 2009 | 39.8 | 22.0   | 21.4 | 22.5 | 35.6   | 34.1 | 37.0 | 40.3   | 43.9 | 36.5 |
| 2011 | 46.6 | 32.4   | 34.8 | 29.7 | 44.1   | 43.5 | 44.7 | 46.2   | 49.1 | 43.2 |
| 2013 | 50.1 | 35.1   | 35.0 | 35.2 | 48.0   | 48.8 | 47.2 | 49.2   | 52.6 | 45.7 |
| 2015 | 48.9 | 31.9   | 32.4 | 31.3 | 44.9   | 46.4 | 43.3 | 48.1   | 50.6 | 45.5 |
| 2017 | 49.7 | 33.5   | 33.6 | 33.4 | 41.9   | 42.1 | 41.6 | 48.1   | 49.4 | 46.6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2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2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 \* 주 1) 지난 1년 간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여가활동 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등의 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06년, 2009년은 15-19세임.

#### 7-2-4. 투표율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우리나라의 주요한 선거의 투표율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참정권 의식을 살펴보았다.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선거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청년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먼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대 전반 연령의 투표율이 2002년 57.9%였던 것이 2017년 77.1%로 크게 증가하였고, 20대 후반도 같은 기간 55.2%에서 74.9%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30대의 대선 투표율도 증가하였으나 20대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에 있어서도 대통령 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20대 젊은 청년층 투표율이 비교적 크게 상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39.9%에 불과하였으나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인 2016년에는 55.3%로 증가하였고 20대 후반 역시 같은 기간 34.2%에서 49.8%로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30대 전반은 45.1%에서 48.9%로, 30대 후반은 56.5%에서 52.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3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20대와 달리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지방 선거 역시 30대 투표율 상승폭이 20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전 선거보다 감소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증가폭이나 투표율의 절대 수치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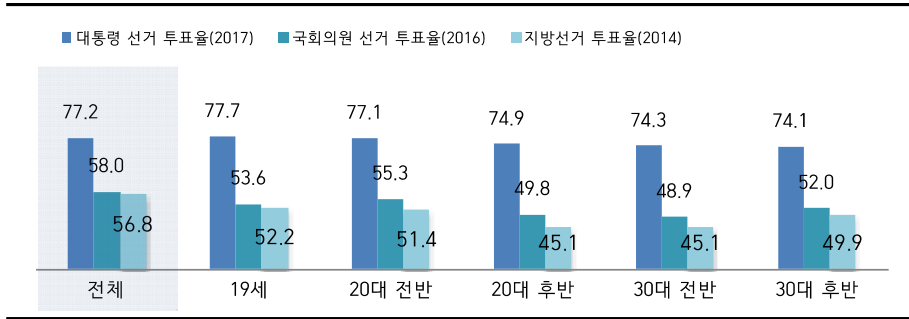


그림 Ⅲ-132 선거 투표율(각 선거별 최근년도)

표 Ⅲ-140 연도별 선거 투표율 추이

(단위: %)

| 선거         | 연도   | 전체   | 19세  | 20대 전반 | 20대 후반 | 30대 전반 | 30대 후반 |
|------------|------|------|------|--------|--------|--------|--------|
| 대통령<br>선거  | 2002 | 70.8 | -    | 57.9   | 55.2   | 64.3   | 70.8   |
|            | 2007 | 63.0 | 54.2 | 51.1   | 42.9   | 51.3   | 58.5   |
|            | 2012 | 75.8 | 74.0 | 71.1   | 65.7   | 67.7   | 72.3   |
|            | 2017 | 77.2 | 77.7 | 77.1   | 74.9   | 74.3   | 74.1   |
| 국회의원<br>선거 | 2000 | 57.2 | -    | 39.9   | 34.2   | 45.1   | 56.5   |
|            | 2004 | 60.6 | -    | 46.0   | 43.3   | 53.2   | 59.8   |
|            | 2008 | 46.1 | 33.2 | 32.9   | 24.2   | 31.0   | 39.4   |
|            | 2012 | 54.2 | 47.2 | 45.4   | 37.9   | 41.8   | 49.1   |
|            | 2016 | 58.0 | 53.6 | 55.3   | 49.8   | 48.9   | 52.0   |
| 지방선거       | 1998 | 52.7 | -    | 37.8   | 30.5   | 40.3   | 51.8   |
|            | 2002 | 48.9 | -    | 36.3   | 27.0   | 34.5   | 44.8   |
|            | 2006 | 51.6 | 37.9 | 38.3   | 29.6   | 37.0   | 45.6   |
|            | 2010 | 54.5 | 47.4 | 45.8   | 37.1   | 41.9   | 50.0   |
|            | 2014 | 56.8 | 52.2 | 51.4   | 45.1   | 45.1   | 49.9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연도).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63>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 주 1) 투표율=(투표자수/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 및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청년들이 인식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해보았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은 3점 만점을 기준으로 1점(매우 신뢰)에서 3점(거의 신뢰하지 않음)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의 통계 생산년도인 2016년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10대가 1.31점, 20대 30대가 각각 1.30점으로 조사되어 중앙정부, 지방정부보다 국회가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연령대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0대가 각각 1.44점으로 20대, 30대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도 점수는 2003년 10대가 1.33점이었으나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2016년 기준으로는 1.44점으로 집계되었으며 20대와 30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41점에서 1.59점으로, 1.41점에서 1.53점으로 신뢰도가 다소 향상되었다. 지방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점차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2003년에는 거의 3점 만점 중 1점(거의 신뢰하지 않음)에 육박하는 1.08점(10대), 1.17점(20대), 1.82점(30대)에 이르던 것이 현재는 모두 1.30점 대 수준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점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청년층은 중앙 및 지방정부, 국회를 신뢰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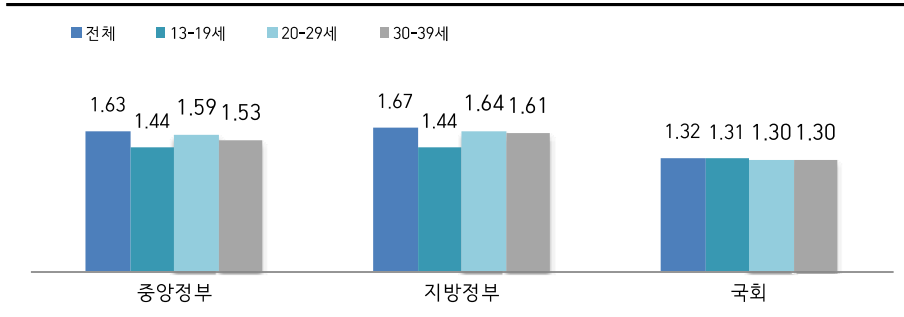


그림 Ⅲ-133 정부 및 국회 신뢰도(2016년)

표 Ⅲ-141 연도별 정부 및 국회 신뢰도 추이

(단위: 점)

| 연도   | 중앙정부 |       |       |       | 지방정부 |       |       |       | 국회   |       |       |       |
|------|------|-------|-------|-------|------|-------|-------|-------|------|-------|-------|-------|
|      | 전체   | 13-19 | 20-29 | 30-39 | 전체   | 13-19 | 20-29 | 30-39 | 전체   | 13-19 | 20-29 | 30-39 |
| 2003 | 1.52 | 1.33  | 1.41  | 1.41  | 1.59 | 1.41  | 1.44  | 1.41  | 1.25 | 1.08  | 1.17  | 1.20  |
| 2004 | 1.48 | 1.57  | 1.37  | 1.40  | 1.61 | 1.62  | 1.44  | 1.44  | 1.22 | 1.05  | 1.14  | 1.16  |
| 2005 | 1.51 | 1.73  | 1.54  | 1.48  | 1.66 | 1.73  | 1.56  | 1.55  | 1.26 | 1.36  | 1.16  | 1.17  |
| 2006 | 1.56 | 1.71  | 1.65  | 1.55  | 1.68 | 1.63  | 1.60  | 1.53  | 1.31 | 1.25  | 1.25  | 1.20  |
| 2007 | 1.58 | 1.55  | 1.70  | 1.55  | 1.67 | 1.69  | 1.70  | 1.56  | 1.31 | 1.25  | 1.28  | 1.21  |
| 2008 | 1.63 | 1.53  | 1.51  | 1.45  | 1.67 | 1.57  | 1.55  | 1.51  | 1.35 | 1.35  | 1.26  | 1.22  |
| 2009 | 1.63 | 1.70  | 1.55  | 1.49  | 1.67 | 1.85  | 1.63  | 1.51  | 1.28 | 1.28  | 1.22  | 1.18  |
| 2010 | 1.75 | 1.70  | 1.58  | 1.53  | 1.76 | 1.94  | 1.63  | 1.59  | 1.37 | 1.27  | 1.31  | 1.25  |
| 2011 | 1.65 | 1.74  | 1.60  | 1.54  | 1.65 | 1.70  | 1.61  | 1.52  | 1.35 | 1.44  | 1.28  | 1.27  |
| 2012 | 1.62 | 1.65  | 1.62  | 1.51  | 1.70 | 1.61  | 1.61  | 1.46  | 1.30 | 1.34  | 1.33  | 1.23  |
| 2013 | 1.70 | 1.75  | 1.60  | 1.61  | 1.69 | 1.93  | 1.64  | 1.61  | 1.36 | 1.40  | 1.31  | 1.30  |
| 2014 | 1.56 | 1.46  | 1.47  | 1.36  | 1.60 | 1.49  | 1.54  | 1.39  | 1.31 | 1.24  | 1.29  | 1.20  |
| 2016 | 1.63 | 1.44  | 1.59  | 1.53  | 1.67 | 1.44  | 1.64  | 1.61  | 1.32 | 1.31  | 1.30  | 1.30  |

\* 출처: 김지범, 강정한,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외(201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센터 웹사이트 [http://kgss.skku.edu/?page\\_id=39](http://kgss.skku.edu/?page_id=39)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 주 1) 각 기관별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서 거의 신뢰하지 않음(1), 다소 신뢰(2), 매우 신뢰(3), 에 응답한 값의 평균임.

2) 2015년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수행되지 않음.

### 7-2-6. 의견 표명 행동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표명 방식을 파악하고자, 가장 낮은 수준의 의견 표시 방법인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부터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항의 전화하기’에 이르는 5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여러 가지 반대 의견 표시 방법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는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38.1%(‘아마도 참여함’ 35.1%+‘확실히 참여함’ 3.0%)이었고 33.1%(‘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9.1%+‘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4.0%)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참여 의사와 비참여 의사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등을 착용하기’ 역시 참여 의사가 36.5%,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가 33.7%로 나타나 참여 의사와 비참여 의사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서명에 참여하기’도 참여 의사가 35.4%, 비참여 의사가 34.9%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는 청년들의 21.8%(‘아마도 참여함’ 20.0%+‘확실히 참여함’ 1.8%)만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 45.9%(‘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18.3%+‘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7.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항의전화 하기’도 17.1%(‘아마도 참여함’ 15.4%+‘확실히 참여함’ 1.7%)의 낮은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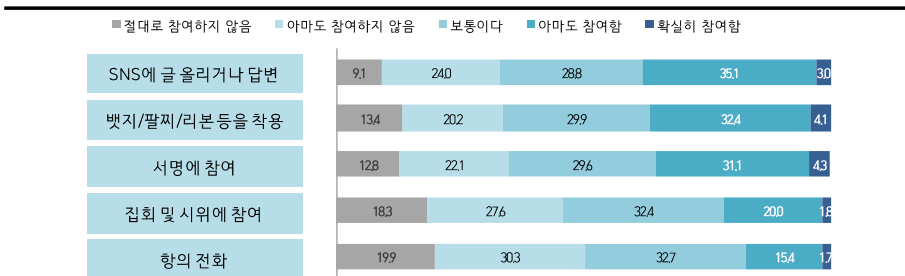


그림 III-134 의견 표명 행동(2018년)

표 III-142 연도별 의견 표명 행동

(단위: %)

| 연도   | 구분          |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 서명에 참여하기 |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항의전화하기 |
|------|-------------|-------------------|--------------------------------|----------|---------------|--------|
| 2016 |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 14.3              | 16.5                           | 14.9     | 24.4          | -      |
|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 24.4              | 25.2                           | 19.9     | 33.5          | -      |
|      | 보통이다        | 27.8              | 25.3                           | 31.0     | 29.5          | -      |
|      | 아마도 참여함     | 30.5              | 28.4                           | 28.2     | 11.2          | -      |
|      | 확실히 참여함     | 3.0               | 4.6                            | 6.0      | 1.5           | -      |
| 2017 |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 12.9              | 13.0                           | 10.4     | 17.0          | 22.2   |
|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 27.5              | 28.0                           | 22.7     | 34.1          | 34.5   |
|      | 보통이다        | 28.0              | 29.0                           | 28.4     | 29.4          | 25.7   |
|      | 아마도 참여함     | 28.1              | 25.9                           | 32.9     | 17.5          | 14.8   |
|      | 확실히 참여함     | 3.5               | 4.1                            | 5.6      | 2.1           | 2.8    |
| 2018 |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 9.1               | 13.4                           | 12.8     | 18.3          | 19.9   |
|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 24.0              | 20.2                           | 22.1     | 27.6          | 30.3   |
|      | 보통이다        | 28.8              | 29.9                           | 29.6     | 32.4          | 32.7   |
|      | 아마도 참여함     | 35.1              | 32.4                           | 31.1     | 20.0          | 15.4   |
|      | 확실히 참여함     | 3.0               | 4.1                            | 4.3      | 1.8           | 1.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항의전화하기'는 2017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7-2-7. 정치적 효능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참여 능력, 가치관과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선거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등 3개 질문을 구성하였다.

먼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39.1%(‘그렇다’ 37.4%+‘매우 그렇다’ 1.7%)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25.2%)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의 긍정 응답 비율 38.4%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0.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 응답 비율(19.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7년 긍정 응답 비율인 45.2%에 비해 4.5%p 하락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7년 33.0% 대비 2.0%p 하락한 31.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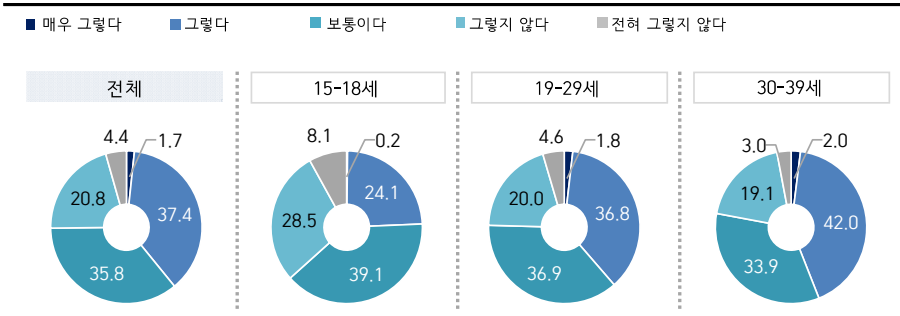


그림 III-135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018년)

표 III-143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전혀 그렇지 않다 | 2.6  | 2.9  | 2.2  | 5.7    | 2.6    | 1.6    |
|      | 그렇지 않다    | 16.9 | 16.0 | 17.9 | 28.8   | 16.4   | 13.8   |
|      | 보통이다      | 42.0 | 39.4 | 44.9 | 41.8   | 42.5   | 41.6   |
|      | 그렇다       | 33.8 | 35.5 | 32.0 | 22.4   | 34.2   | 36.9   |
|      | 매우 그렇다    | 4.6  | 6.2  | 2.9  | 1.3    | 4.2    | 6.1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4.4  | 4.2  | 4.6  | 8.1    | 4.6    | 3.0    |
|      | 그렇지 않다    | 20.8 | 19.8 | 21.8 | 28.5   | 20.0   | 19.1   |
|      | 보통이다      | 35.8 | 34.7 | 37.0 | 39.1   | 36.9   | 33.9   |
|      | 그렇다       | 37.4 | 39.0 | 35.7 | 24.1   | 36.8   | 42.0   |
|      | 매우 그렇다    | 1.7  | 2.3  | 1.0  | 0.2    | 1.8    | 2.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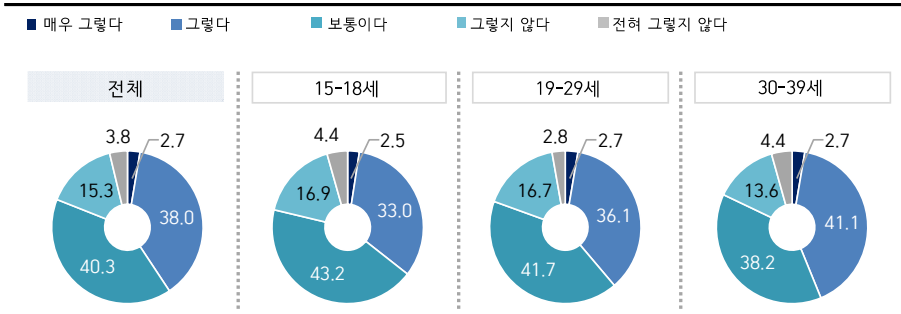


그림 Ⅲ-136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2018년)

표 Ⅲ-144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전혀 그렇지 않다 | 1.7  | 1.8  | 1.5  | 1.4    | 1.9    | 1.6    |
|      | 그렇지 않다    | 12.2 | 11.9 | 12.6 | 17.8   | 11.8   | 11.0   |
|      | 보통이다      | 40.9 | 39.1 | 42.9 | 47.4   | 38.9   | 41.0   |
|      | 그렇다       | 40.0 | 41.3 | 38.6 | 30.9   | 42.7   | 40.1   |
|      | 매우 그렇다    | 5.2  | 5.9  | 4.4  | 2.4    | 4.7    | 6.4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3.8  | 3.8  | 3.8  | 4.4    | 2.8    | 4.4    |
|      | 그렇지 않다    | 15.3 | 14.0 | 16.7 | 16.9   | 16.7   | 13.6   |
|      | 보통이다      | 40.3 | 39.9 | 40.7 | 43.2   | 41.7   | 38.2   |
|      | 그렇다       | 38.0 | 39.4 | 36.4 | 33.0   | 36.1   | 41.1   |
|      | 매우 그렇다    | 2.7  | 2.9  | 2.5  | 2.5    | 2.7    | 2.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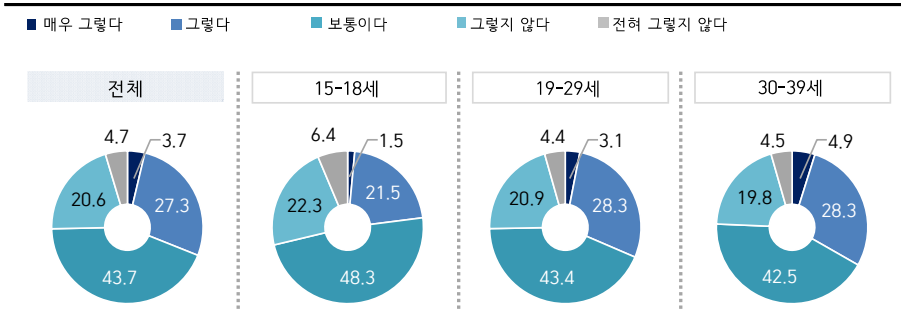


그림 III-137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18년)

표 III-145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7 | 전혀 그렇지 않다 | 3.8  | 4.4  | 3.2  | 4.5    | 3.7    | 3.8    |
|      | 그렇지 않다    | 19.8 | 20.3 | 19.3 | 21.3   | 20.1   | 19.1   |
|      | 보통이다      | 43.4 | 41.9 | 45.1 | 45.2   | 42.0   | 44.3   |
|      | 그렇다       | 29.7 | 29.7 | 29.6 | 25.9   | 30.5   | 29.9   |
|      | 매우 그렇다    | 3.3  | 3.6  | 2.9  | 3.1    | 3.6    | 2.9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4.7  | 4.6  | 4.8  | 6.4    | 4.4    | 4.5    |
|      | 그렇지 않다    | 20.6 | 19.5 | 21.7 | 22.3   | 20.9   | 19.8   |
|      | 보통이다      | 43.7 | 43.9 | 43.4 | 48.3   | 43.4   | 42.5   |
|      | 그렇다       | 27.3 | 27.8 | 26.8 | 21.5   | 28.3   | 28.3   |
|      | 매우 그렇다    | 3.7  | 4.1  | 3.3  | 1.5    | 3.1    | 4.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 2018년 부가설문조사 : 신규 졸업(예정)자 실태

##### 1)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현황

본 실태조사에서 지난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 사이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신규 졸업자는 5.3%, 2018년 8월에서 2019년 8월 사이 졸업 예정인 신규졸업 예정자는 6.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연령 별로 10대는 신규졸업 예정자, 20대는 신규졸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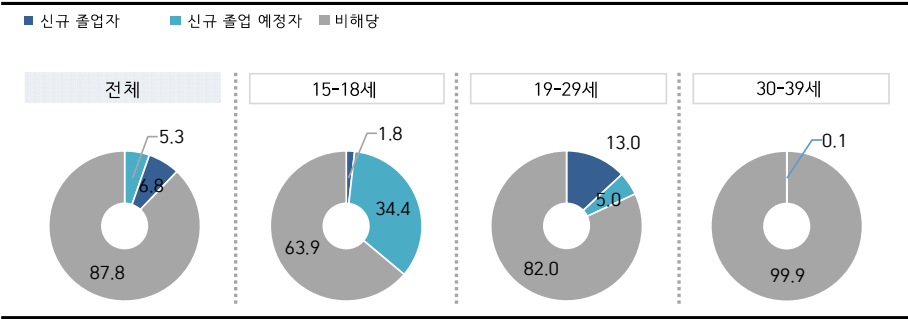


그림 III-138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현황

표 III-146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현황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신규졸업자   | 5.3  | 5.1  | 5.6  | 1.8    | 13.0   | 0.1    |
|      | 신규졸업예정자 | 6.8  | 6.4  | 7.3  | 34.4   | 5.0    | 0.0    |
|      | 비해당     | 87.8 | 88.5 | 87.1 | 63.9   | 82.0   | 99.9   |

## 2)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

신규 졸업(예정)자들이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비율이 50.1%,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상담을 제공 받은 비율이 76.5%로 나타났다. 반면, 취·창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취업 정보를 제공 받은 비율과 진로 상담을 제공받은 경험 비율은 각각 36.5%, 3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창업 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는 남자(54.0%)가 여자(46.2%) 대비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그 외 학교 진로상담, 취·창업기관 취업 정보 및 진로 상담 이용 비율은 모두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창업 기관 진로 상담을 제외한 모든 취업·진로 서비스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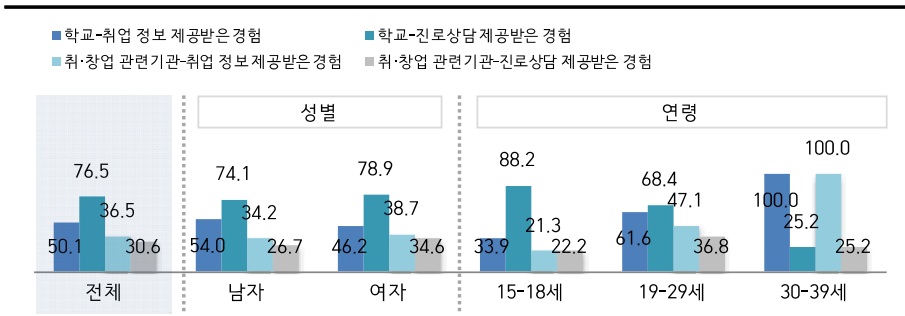


그림 III-139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

표 III-147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 50.1 | 54.0 | 46.2 | 33.9   | 61.6   | 100.0  |
|      | 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76.5 | 74.1 | 78.9 | 88.2   | 68.4   | 25.2   |
|      |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 36.5 | 34.2 | 38.7 | 21.3   | 47.1   | 100.0  |
|      |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 30.6 | 26.7 | 34.6 | 22.2   | 36.8   | 25.2   |

\* 주: 각 질문에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3)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 도움 정보

신규 졸업(예정)자들이 졸업 전 받은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학교에서 받은 진로상담의 도움 정도가 62.2%(그렇다 56.7%+매우 그렇다 5.5%)로 4개 진로 서비스 유형 중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취업 정보(58.0%), 학교에서 받은 취업 정보(5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창업기관으로부터의 진로 상담은 47.4%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졸업 전 받은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 4개 유형 모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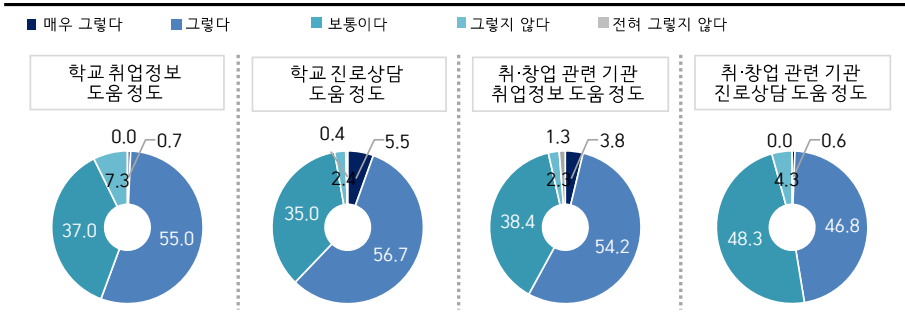


그림 III-140 졸업 전 취창업·진로 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표 III-148 졸업 전 취창업·진로 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단위: %)

| 연도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018 | 1) 학교에서 받은 취업 정보         | 0.0       | 7.3    | 37.0 | 55.0 | 0.7    |
|      | 2) 학교에서 받은 진로 상담         | 0.4       | 2.4    | 35.0 | 56.7 | 5.5    |
|      |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취업 정보 | 1.3       | 2.3    | 38.4 | 54.2 | 3.8    |
|      |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로 상담 | 0.0       | 4.3    | 48.3 | 46.8 | 0.6    |

\* 주: 각 질문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4) 졸업 후 계획

신규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계획은 청년 취업의 주 연령대인 20대만을 놓고 살펴보면 상위 교육기관 진학 계획이 25%, 취업이 67.0%로 나타났다. 이러한 졸업 후 계획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주를 이루는 10대는 대부분 상위 교육 기관으로 진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와 30대는 취업을 계획한 경우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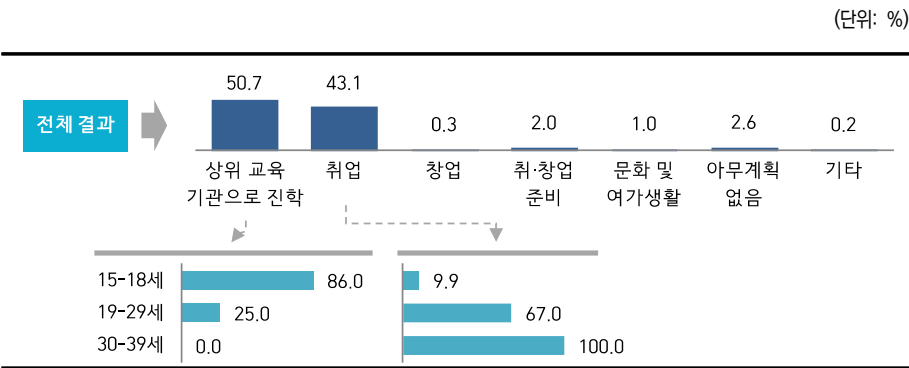


그림 III-141 졸업 후 계획

표 III-149 졸업 후 계획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 50.7 | 49.9 | 51.6 | 86.0   | 25.3   | 0.0    |
|      | 취업          | 43.1 | 41.6 | 44.7 | 9.9    | 67.0   | 100.0  |
|      | 창업          | 0.3  | 0.0  | 0.6  | 0.0    | 0.5    | 0.0    |
|      | 취·창업 준비     | 2.0  | 1.8  | 2.2  | 0.9    | 2.9    | 0.0    |
|      | 문화 및 여가생활   | 1.0  | 1.1  | 1.0  | 1.0    | 1.1    | 0.0    |
|      | 아무계획 없음     | 2.6  | 5.3  | 0.0  | 1.9    | 3.2    | 0.0    |
|      | 기타          | 0.2  | 0.3  | 0.0  | 0.4    | 0.0    | 0.0    |

### 5)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청년 신규 졸업자들은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0대는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을, 20대는 상담과 더불어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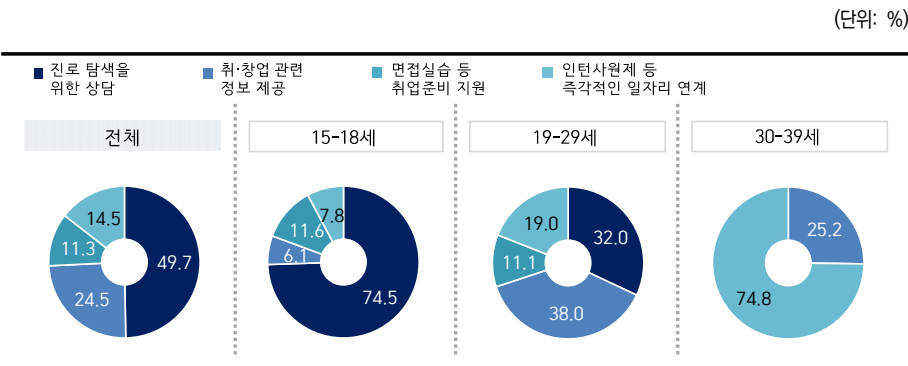


그림 III-142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표 III-150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        | 49.7 | 50.2 | 49.2 | 74.5   | 32.0   | 0.0    |
|      |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 24.5 | 25.3 | 23.8 | 6.1    | 38.0   | 25.2   |
|      | 면접 실습 등 취업준비 지원     | 11.3 | 9.9  | 12.6 | 11.6   | 11.1   | 0.0    |
|      | 인턴사원제 등 즉각적인 일자리 연계 | 14.5 | 14.5 | 14.5 | 7.8    | 19.0   | 74.8   |

6)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여부

청년 신규 졸업자들의 23.7%는 졸업 후 현 학교가 소재중인 지역을 이탈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고 연령별 차이도 적은 편이나 10대 보다는 20대의 현 학교 소재지 이탈 예정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졸업 후 학교 소재지를 이탈 예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6.3%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집단의 경우 아직 졸업 후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로 유추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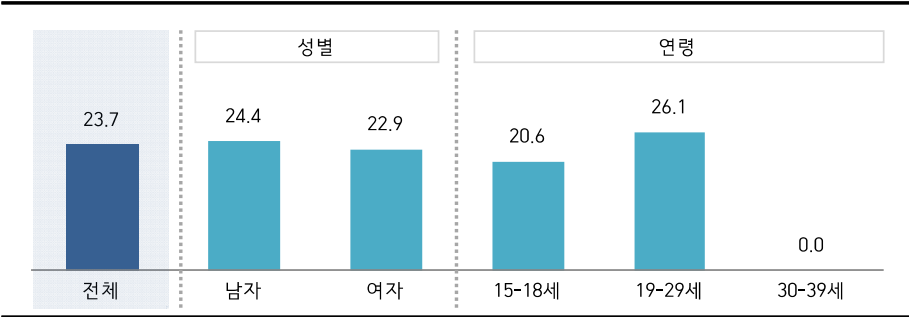


그림 III-143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여부(이탈 예정 비율)

표 III-151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여부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예<br>(이탈 예정)        | 23.7 | 24.4 | 22.9 | 20.6   | 26.1   | 0.0    |
|      | 아니오<br>(이탈하지 않을 예정) | 50.0 | 40.2 | 59.8 | 46.5   | 52.2   | 100.0  |
|      | 잘 모르겠음              | 26.3 | 35.4 | 17.3 | 33.0   | 21.6   | 0.0    |

7)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

신규 졸업(예정)자에 대해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을 “성별에 따른 차별”, “학벌에 따른 차별”, “학력에 따른 차별” 등 3개 차별 요인과 졸업 후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족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등 4개 항목에 걸쳐 조사하였다. 먼저 3개 차별 요인 별로 살펴보면, 졸업 예정자의 45.6%는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이러한 차별 예상은 남자(42.0%)보단 여자(49.1%)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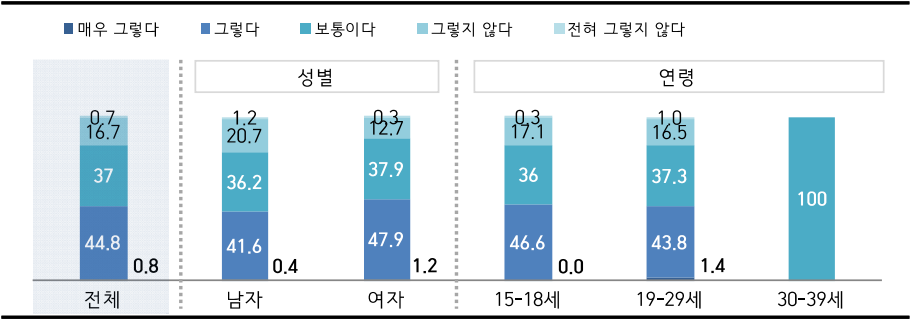


그림 III-144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표 III-152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0.7  | 1.2  | 0.3  | 0.3    | 1.0    | 0.0    |
|      | 그렇지 않다    | 16.7 | 20.7 | 12.7 | 17.1   | 16.5   | 0.0    |
|      | 보통이다      | 37.0 | 36.2 | 37.9 | 36.0   | 37.3   | 100.0  |
|      | 그렇다       | 44.8 | 41.6 | 47.9 | 46.6   | 43.8   | 0.0    |
|      | 매우 그렇다    | 0.8  | 0.4  | 1.2  | 0.0    | 1.4    | 0.0    |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응답 결과 졸업 예정자들의 6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역시 남자(61.3%)보다는 여자(70.9%)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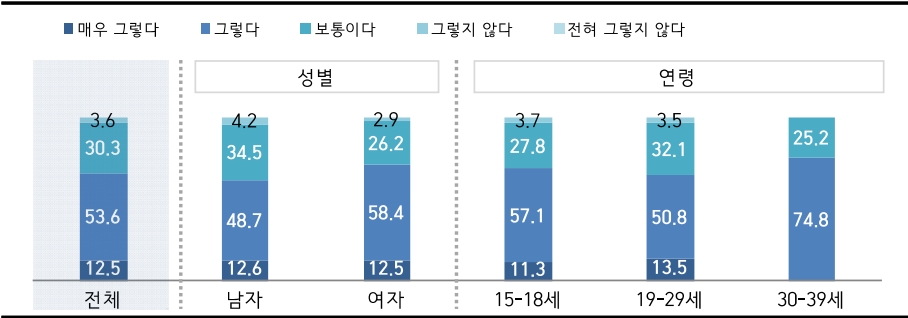


그림 III-145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표 III-153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0.0  | 0.0  | 0.0  | 0.0    | 0.0    | 0.0    |
|      | 그렇지 않다    | 3.6  | 4.2  | 2.9  | 3.7    | 3.5    | 0.0    |
|      | 보통이다      | 30.3 | 34.5 | 26.2 | 27.8   | 32.1   | 25.2   |
|      | 그렇다       | 53.6 | 48.7 | 58.4 | 57.1   | 50.8   | 74.8   |
|      | 매우 그렇다    | 12.5 | 12.6 | 12.5 | 11.3   | 13.5   | 0.0    |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 인식의 경우 졸업 예정자들의 74.8%가 ‘그렇다’고 응답 하여 3개 차별 요인 중 가장 높은 차별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령별 10대(81.6%)에서 타 연령대 대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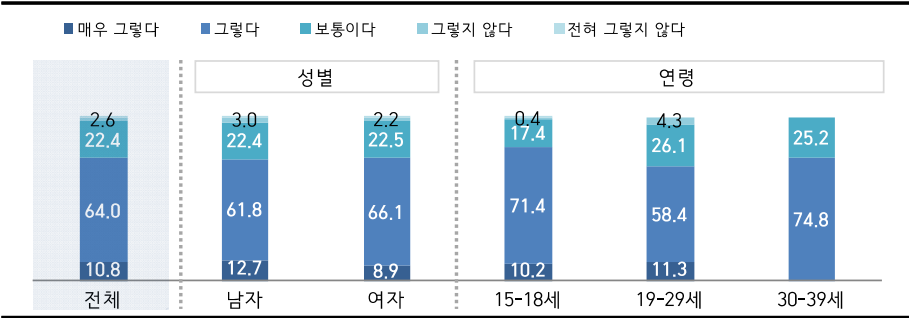


그림 III-146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표 III-154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 있다고 생각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0.2  | 0.1  | 0.3  | 0.5    | 0.0    | 0.0    |
|      | 그렇지 않다    | 2.6  | 3.0  | 2.2  | 0.4    | 4.3    | 0.0    |
|      | 보통이다      | 22.4 | 22.4 | 22.5 | 17.4   | 26.1   | 25.2   |
|      | 그렇다       | 64.0 | 61.8 | 66.1 | 71.4   | 58.4   | 74.8   |
|      | 매우 그렇다    | 10.8 | 12.7 | 8.9  | 10.2   | 11.3   | 0.0    |

한편, 향후 본인이 졸업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 혹은 전망은 신규 졸업(예정)자 과반수 가량(51.6%)이 보통 정도의 경제 수준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풍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비율은 36.3%, 궁핍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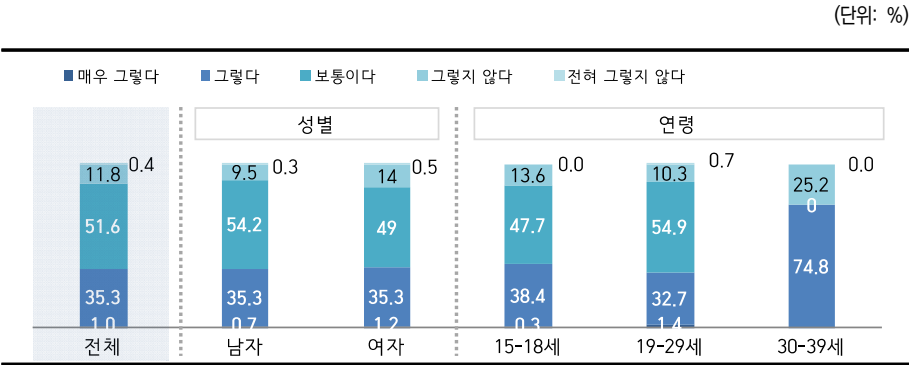


그림 Ⅲ-147 졸업 이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

표 Ⅲ-155 졸업 이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전혀 그렇지 않다 | 0.4  | 0.3  | 0.5  | 0.0    | 0.7    | 0.0    |
|      | 그렇지 않다    | 11.8 | 9.5  | 14.0 | 13.6   | 10.3   | 25.2   |
|      | 보통이다      | 51.6 | 54.2 | 49.0 | 47.7   | 54.9   | 0.0    |
|      | 그렇다       | 35.3 | 35.3 | 35.3 | 38.4   | 32.7   | 74.8   |
|      | 매우 그렇다    | 1.0  | 0.7  | 1.2  | 0.3    | 1.4    | 0.0    |



## ○ — 제4장 청년 신규 졸업자의 일과 생활실태 면담조사

- 1. 청년 신규졸업(예정)자의  
현황과 논의
- 2. 청년 신규졸업(예정)자  
면담조사
- 3. 정책적 시사점



## 1. 청년 신규졸업자의 현황과 논의

### 1) 청년 신규졸업자의 현황

고용률과 실업률을 해석할 때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시계열적 분석과 인구감소 효과와 구조적인 기저효과를 함께 종합적으로 감안해 고용지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18). 통계청에 따르면 신규졸업자<sup>14)</sup>(15~29세)의 실업률은 2015년 14.5%, 2016년 15.0%, 2017년 15.9%로 나타났으며, 기졸업자(15~29세)의 실업률은 2015년 8.7%, 2016년 9.6%, 2017년 9.8%로 나타났다. 최근 10여 년간(2009~2017)의 시계열자료를 보더라도 신규졸업자의 실업률은 12.1~15.9%, 졸업자의 실업률은 7.2~9.8% 사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신규졸업자가 기졸업자에 비해 취직이 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2017년 졸업자 21.8%인 반면 신규졸업자의 체감실업률은 33.6%로 11.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김종욱, 2018).

최근 9년간의 주요 고용지표 통계수치에서 신규졸업자의 실업률은 졸업자의

13) 이 장은 임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4) 본 연구에서 청년 신규졸업자를 경제활동인구 조사(15~29세) 중 조사연도와 최종학교 졸업연도가 같거나 한 해 차이나는 청년으로 정의하였는데 예를 들어 2018년 신규 졸업 청년이라 함은 2017년이나 2018년에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의미한다(김종욱, 2018; 김복순, 20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에 비하여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첫 일자리 진입이 어려웠던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최근 10여 년간(2009~2017)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졸업자의 취업률 저조,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대책뿐만 아니라, 교육적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V-1 졸업자·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주요 고용지표 현황

(단위: 천명, %)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졸업자       | 인구  | 4,401 | 4,293 | 4,202 | 4,137 | 4,025 | 4,003 | 4,092 | 4,222 | 4,318 |
|           | 고용률 | 68.3  | 67.9  | 68.1  | 68.3  | 68.4  | 68.9  | 68.4  | 68.8  | 68.5  |
|           | 실업률 | 7.7   | 7.5   | 7.2   | 7.5   | 7.6   | 8.6   | 8.7   | 9.6   | 9.8   |
| 신규<br>졸업자 | 인구  | 997   | 1,080 | 1,083 | 1,091 | 1,089 | 1,082 | 1,151 | 1,190 | 1,200 |
|           | 고용률 | 57.5  | 54.9  | 54.8  | 54.6  | 56.6  | 55.3  | 56.3  | 56.3  | 55.2  |
|           | 실업률 | 12.4  | 12.1  | 12.6  | 12.4  | 13.6  | 14.9  | 14.5  | 15.0  | 15.9  |

\* 출처: 김종욱(2018).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 노동리뷰(4월호), p.8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주: 1) 괄호 안은 고용지표의 증가율임  
2) 고용률: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X100  
3) 실업률: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X100

졸업자·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학력별 실업률(김종욱, 2018)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고졸의 실업률은 8%대~14%대로 나타났으며, 신규초대졸의 실업률은 9%대~14%대로, 신규대졸의 실업률은 13%대~18.3%로 나타나서 최근 9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신규대졸자의 실업률이 가장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는데 2017년 기존 대졸자 실업률 11.2%보다 18.3%로 약 7%p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졸업자와 신규졸업자의 학력별 실업률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신규졸업자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규졸업자 청년(15~29세)의 학력별 실업률을 보면, 신규고졸과 신규 초대졸 보다는 신규대졸의 실업률이 2009-2017년 최근 9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큰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신규대졸의 실업대책이 심각한 당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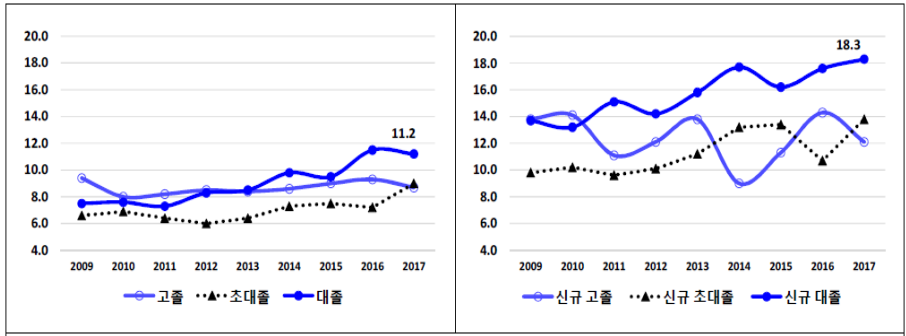


그림 IV-1 졸업자·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학력별 실업률

\* 출처: 김중욱(2018).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 노동리뷰(4월호), p.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주: 신규졸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중 조사연도와 최종학교 졸업연도가 같거나 한 해 차이나는 청년으로 정의함. 예를 들어 2017년 신규 졸업 청년이라 함은 2016년이나 2017년에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뜻함(김중욱, 2018: 86).

2018년도의 경우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함께 보면, 신규졸업자의 실업률은 17.7%, 경제활동참가율은 63.3%이며, 졸업자의 실업률은 10.0%,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나타났다<sup>15)</sup>. 이처럼 신규졸업자에 비하여 졸업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실업 여부를 떠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졸업자에 많으며

15)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8년 1~8월까지의 자료 분석.

상대적으로 신규졸업자는 취업준비에 대한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2018)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에서 20대 초반은 고학력층에서 주로 고용이 감소하지만, 고졸자는 도소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후반은 고학력층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래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는 주로 청년층에서 나타났으나, 이는 청년의 취업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방식의 구직활동 증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18; 3).

대학 진학률은 2011년에서 2017년까지 72.5%에서 68.9%까지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15-39세)은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등을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100-101).

표 IV-2 진학률(고등학교-대학교)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체 | 79.0 | 72.5 | 71.3 | 70.7 | 70.9 | 70.8 | 69.8 | 68.9 |
| 남자 | 77.6 | 70.2 | 68.6 | 67.4 | 67.6 | 67.3 | 66.3 | 65.3 |
| 여자 | 80.5 | 75.0 | 74.3 | 74.5 | 74.6 | 74.6 | 73.5 | 72.7 |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p.100에서 대학진학률 부분을 재인용.

- \* 주: 1) 진학률=(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당해 연도 졸업자의 진학률임.  
 2) 고등학교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진학자 수 기준변경: 2010년까지 대학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대학생등록자 기준으로 변경.

청년(15~29세)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school to work) 이행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첫 취업 소요기간의 장기화이며(한요셉, 2017; 김정숙, 2018; 한국행정연구원,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성별·최종 학력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소요기간은 2004년에는 10.5개월이었으나 2017년 현재는 11.6개월로 약 1.1개월 증가해왔다. 또한 고졸 여성의 경우 이행기간이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고졸 남성의 이행기간이 18.5개월로 전문대졸 남성 11.6개월, 대졸 남성 9.2개월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요셉, 2017).

표 IV-3 성별·최종 학력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 연도   |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전체   |    | 10.5 | 10.3 | 11.5 | 10.9 | 10.9 | 10.8 | 10.4 | 10.9 | 10.5 | 11.4 | 11.6 | 11.0 | 11.2 | 11.6 |
| 고졸   | 남성 | 18.5 | 18.8 | 21.0 | 19.4 | 20.3 | 20.8 | 19.8 | 20.4 | 18.6 | 19.0 | 20.2 | 19.3 | 18.2 | 18.5 |
|      | 여성 | 9.6  | 9.8  | 11.7 | 11.4 | 11.6 | 10.3 | 11.3 | 13.1 | 13.7 | 15.5 | 15.9 | 14.6 | 14.1 | 13.9 |
| 전문대졸 | 남성 | 9.5  | 8.7  | 10.6 | 9.7  | 9.1  | 11.0 | 9.7  | 9.2  | 8.0  | 10.8 | 10.0 | 10.5 | 10.9 | 11.6 |
|      | 여성 | 6.4  | 6.6  | 7.4  | 6.8  | 6.6  | 6.6  | 5.8  | 6.4  | 6.7  | 7.4  | 7.3  | 7.3  | 7.7  | 8.2  |
| 대졸   | 남성 | 7.2  | 6.7  | 7.5  | 7.2  | 7.9  | 8.0  | 7.5  | 7.9  | 7.7  | 7.9  | 8.7  | 8.3  | 7.6  | 9.2  |
|      | 여성 | 7.3  | 7.1  | 7.4  | 8.0  | 8.3  | 7.6  | 8.0  | 8.4  | 8.3  | 8.5  | 8.3  | 6.6  | 8.2  | 8.2  |

\* 출처: 한요셉(201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7.7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P.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04~2017년)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지난 10년(2008년에서 2017년) 동안 첫 취업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11-12개월로 대부분 나타났지만,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첫 취업소요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10년 동안 증가하였다(김정숙, 2018: 96). 이러한 현상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첫 취업소요기간의 평균만이 아니라 3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이 줄고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이에 대한 취업준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2) 청년 신규졸업자의 정의와 사회적 의미

청년 신규 졸업자와 관련된 용어는 신규 학졸자, 초기 경력자, 첫 일자리, 입직자 등이다. 신규졸업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종욱(2018)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중 조사연도와 최종학교 졸업연도가 같거나 한 해 차이나는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2017년 신규 졸업 청년이라 함은 2016년이나 2017년에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의미한다. 김복순(2014)은 신규졸업자의 정의를 청년층 신규학졸자를 경제활동인구조사(3월기준)에서 15-29세를 대상으로 졸업연도와 조사연도가 일치하는 자를 의미하며, 신규학졸자의 첫 일자리는 조사연도 3월 기준 취업상태에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하 신규학졸자 분석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3월)와 경제활동인구조사(3월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년 신규졸업자를 경제활동인구 조사(15-29세) 중 조사연도와 최종학교 졸업연도가 같거나 한 해 차이나는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신규 졸업 청년이라 함은 2017년이나 2018년에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의미한다(김종욱, 2018; 김복순, 20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15~29세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15~34세 이하를 의미한다.

청년 신규졸업자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 신규졸업자는 국가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진 희망세대로서 실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으며, 노동시장 이행 초기에 직장에서 학습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인적자본 능력이 하락하며 실업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취업가능성이 저하된다(권대봉, 전재식, 2010). 둘째, 경력 초기 일자리 유무 및 특성은 청년의 삶의 전반과 생활실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력초기의 일자리 특성이

장기적인 영향을 가진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과 임금의 장기효과가 존재하며, 교육수준 별로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장기효과가 작동하고 있다.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이 졸업 후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청년고용대책의 프로그램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한요셉, 2017).

## 2. 청년 신규졸업(예정)자 면담조사

###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2017년부터 본조사와 더불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 부가조사는 신규졸업(예정)자에 대한 조사이다. 면담조사는 통계자료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신규졸업자의 일과 생활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청년 개개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처방에 활용하고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신규졸업(예정) 면담대상은 만19~30세 청년으로서 2017년에서 2018년 졸업자와 2019년 8월 졸업예정자이다. 교육별, 성별, 취업유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독특한 사례보다는 평범한 사례를 가진 대상을 선정하였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신규졸업자는 총 28명이며, 이중 졸업예정자는 4명이다. 실제 면담실시를 위해서 교육별, 성별, 취업유무를 고려하여 한 그룹 당 4~5명씩 총 6회의 소규모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지 개발과정은 신규졸업자 관련 문헌고찰을 통한 현황파악 및 주요 변인을 검토하여 1차 조사지 개발, 연구진 협의, 20대 청년대상 간담회,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 실시, 면담조사지 수정·보완을 통하여 확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일상생활과 사회관계, 취업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과 일자리의 질, 창업,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적 인식, 정책적 지원에 대한 영역이다.

표 IV-4 신규졸업(예정)자 면담대상자 특성

| 교육                | 성별    | 취업유무    | 번호 | 면담대상자 | 연령 | 졸업년도           |
|-------------------|-------|---------|----|-------|----|----------------|
| 고졸<br>(9명)        | 남(4명) | 취업(2명)  | 1  | 송00   | 19 | 2018년 2월 졸업    |
|                   |       |         | 2  | 최00   | 19 | 2017년 2월 졸업    |
|                   |       | 미취업(2명) | 3  | 유00   | 20 | 2017년 2월 졸업    |
|                   |       |         | 4  | 하00   | 20 | 2017년 2월 졸업    |
|                   | 여(5명) | 취업(3명)  | 5  | 김00   | 19 | 2017년 2월 졸업    |
|                   |       |         | 6  | 김00   | 19 | 2018년 2월 졸업    |
|                   |       |         | 7  | 백00   | 19 | 2018년 2월 졸업    |
|                   |       | 미취업(2명) | 8  | 김00   | 19 | 2017년 2월 졸업    |
|                   |       |         | 9  | 최00   | 19 | 2018년 2월 졸업    |
| 전문대<br>졸<br>(10명) | 남(5명) | 취업(3명)  | 10 | 인00   | 23 | 2017년 2월 졸업    |
|                   |       |         | 11 | 홍00   | 24 | 2018년 2월 졸업    |
|                   |       |         | 12 | 전00   | 25 | 2017년 2월 졸업    |
|                   |       | 미취업(2명) | 13 | 정00   | 19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
|                   |       |         | 14 | 김00   | 26 | 2018년 2월 졸업    |
|                   | 여(5명) | 취업(2명)  | 15 | 장00   | 24 | 2017년 2월 졸업    |
|                   |       |         | 16 | 장00   | 23 | 2017년 2월 졸업    |
|                   |       | 미취업(3명) | 17 | 윤00   | 23 | 2017년 2월 졸업    |
|                   |       |         | 18 | 정00   | 22 | 2017년 2월 졸업    |
|                   |       |         | 19 | 김00   | 19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
| 대졸<br>(9명)        | 남(5명) | 취업(2명)  | 20 | 이00   | 23 | 2018년 2월 졸업    |
|                   |       |         | 21 | 김00   | 26 | 2017년 2월 졸업    |
|                   |       | 미취업(3명) | 22 | 이00   | 24 | 2018년 2월 졸업    |
|                   |       |         | 23 | 김00   | 25 |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
|                   |       |         | 24 | 장00   | 23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
|                   | 여(4명) | 취업(2명)  | 25 | 김00   | 25 | 2018년 2월 졸업    |
|                   |       |         | 26 | 우00   | 28 | 2017년 8월 졸업    |
|                   |       | 미취업(2명) | 27 | 신00   | 25 | 2018년 2월 졸업    |
|                   |       |         | 28 | 최00   | 24 | 2017년 2월 졸업    |

\* 주: 본 연구의 신규졸업자 면담대상은 만19-30세 청년으로서 2017년에서 2018년 졸업자와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수집은 2018년 7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연구진과 조사원이 협업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방법은 신규졸업(예정)자를 고졸/전문대졸/대졸로 나누고 취업유무로 분류하여 총 6그룹(28명)으로 나누어 1회에 4-5명씩 총6회의 좌담회(Focus Group Discussion) 방식으로 소요시간은 약 1시간30분 정도로 소규모 집단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틀은 면담 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방법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개방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순으로 분석하였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표 IV-5 신규졸업자 면담 조사내용

| 구분 |                     | 조사내용                                                         |
|----|---------------------|--------------------------------------------------------------|
| 1  | 일상생활과 사회관계          | 용돈/대출, 소속감/공동체, 가족, 멘토, 졸업유예 여부                              |
| 2  | 취업에 대한 인식           | 취업상황 체감, 기업선발 기준, 취업 후 이직, 취업 후 만족, 취업준비, 진로 및 취업계획          |
| 3  |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과 일자리의 질 | 취업에 걸리는 기간, 근로조건, 선호하는 일자리, 일자리의 질                           |
| 4  | 창업                  | 창업에 대한 생각, 창업지원                                              |
| 5  |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 학교교육의 유용성(학교 외 교육을 받은 이유 등), 학교의 취업 지원, 학교 외 취업정보, 학교 외 직업훈련 |
| 6  | 사회적 인식              | 취업 시기, 취업의 중요요인, 사회진출기대, 일자리 높이, 공시족                         |
| 7  | 정책적 지원              | 정부의 취업정책, 정책적 지원 요구                                          |

## 2) 조사결과 분석

### (1) 신규졸업자의 일상생활과 사회관계

신규졸업자의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로 용돈/대출, 소속감/공동체, 가족, 멘토, 졸업유예 여부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를 취업유무별,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 성별로 분석하였다.

취업유무별로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를 살펴보면, 용돈에 대하여 취업자는 월급으로 미취업자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월급으로 용돈을 마련하며 적당한 용돈은 한달 평균 5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속감은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가족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하루 평균 30분 정도 가족들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심리적인 의지/도움,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취업자는 먼저 취업을 한 친구가, 미취업자는 이해 및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멘토라고 대답하였다. 졸업유예에 대해서는 취업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로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를 살펴보면, 학력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며, 취미 동호회 가입을 희망하였다. 학력 상관없이 가족들과 함께 진로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고졸의 경우 경제적인 도움을, 대졸의 경우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 용돈이 부족할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졸의 경우 졸업유예에 다소 부정적인 반면, 대졸의 경우 졸업유예에 다소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및 대졸에 비해 고졸의 경우 취업준비를 위한 멘토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고졸의 경우 현직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멘토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성별로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를 살펴보면, 남성 및 여성 모두 직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용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및 여성 모두 가족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끼지만, 여성의 경우 소속감 없이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다소 있었다. 남성의 경우 아버지와, 여성의 경우 자매와의 대화 빈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친구가 멘토이며, 남성의 경우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여성의 경우 사회경험이 풍부한 현직 종사자 멘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유예에 대해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말하였다.

○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의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취업자는 먼저 취업을 한 친구가, 미취업자는 이해 및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멘토라고 대답하였다. 전문대졸 및 대졸에 비해 고졸의 경우 취업준비를 위한 멘토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고졸의 경우 현직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멘토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친구가 멘토이며, 남성의 경우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여성의 경우 사회경험이 풍부한 현직 종사자의 멘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멘토 |              |                                                                                                                                     |
|-----------------|--------------|-------------------------------------------------------------------------------------------------------------------------------------|
| 취업자             | 친구           | • 저도 친구들. 일단 면접 팁이나 자기 소개서 이력서 이런 걸 코멘트 달아주고(여성, 대졸, 취업, 26)                                                                        |
|                 | 선생님          | • 교수님. 저는 이 회사에 자리가 났는데 면접을 보라 그런 식으로(여성, 전문대졸, 취업, 15)<br>• 선생님이 자소서 첨삭도 봐 주시고 면접도 봐 주시고(여성, 고졸, 취업, 5)                            |
| 미취업자            | 친구           | • 선생님 같이 자기들이 각자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고 직접 와서 도움도 주고 친구들이 저한테 잘해요(남성, 대졸, 미취업, 23)                                                   |
|                 | 선생님          | •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신데 대학 관련 진로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각종 대회에 참여시켜서 상도 따게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게 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3)         |
|                 | 현직에 있는 멘토 희망 | •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직에 있는 사람(여성, 고졸, 미취업, 8)                                                                              |
| 고졸              | 취업 준비 멘토 없음  | • 없어요.(남성 고졸 미취업3)<br>• 저는 친척 형, 누나들. 따로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거의 다 가족이 아니면.(남성 고졸 미취업4)<br>• 저도 없어요(남성 고졸 취업 2).<br>• 저는 딱히 없어요(여성 고졸 미취업8). |

|       |                     |                                                                                                                                                                      |
|-------|---------------------|----------------------------------------------------------------------------------------------------------------------------------------------------------------------|
|       | 현직에 있는 멘토 희망        | • 제가 가고 싶은 직업에 현직으로 있는 사람(여성,고졸,미취업,9)                                                                                                                               |
| 전문 대졸 | 멘토 역할 있음            | • 졸업한 과의 형인데 그 형이 먼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어떤 걸 준비하라고 많이 도움을 줬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1)                                                                           |
| 대졸    | 친구들을 통한 취업 준비       | • 저도 일찍 취업한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스테디했던 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여성, 대졸, 취업, 25)<br>• 친구들이 저보다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그런 애들한테 자기소개서라든지 첨삭을 하든지 제 고민이나 제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남성, 대졸, 미취업, 23) |
|       | 누나, 삼촌 등 가족을 통한 도움  | • 삼촌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은 따라가지 말라고 항상 하셨어요. 돈은 나중에 따라 온다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서 일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남성, 대졸, 취업, 20)                                                                      |
| 남성    | 친구 및 선배를 통해         | • 대학원 간 친구도 있고 취업한 친구도 있고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남성, 대졸, 미취업, 23)                                                                         |
|       | 작업에 대한 실제 혹은 객관적 평가 | •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직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멘토였으면 좋겠어요.(남성, 고졸, 미취업, 4)<br>• 저는 제가 희망하는 직업군을 준비하다 실패한 사람(남성,고졸,미취업 ,3)                                                           |
| 여성    | 친구들을 통해             | • 남자 친구가 먼저 사회생활을 엄청 오래해서 제가 뭔가 사회 생활할 때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예 모르겠는걸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                                                                  |
|       | 사회 경험 풍부 및 현직 종사자   | •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여성, 고졸, 미취업, 8)                                                                                                                          |

## (2) 취업에 대한 의식

신규졸업자의 취업에 대한 의식으로 취업상황 체감, 기업선발 기준, 취업 후 이직, 취업 후 만족, 취업준비, 진로 및 취업계획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를 취업유무별,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 성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취업에 대해 면담한 결과를 취업유무별로 살펴보면, 취업이 안되는 이유로 취업자는 취업에 대한 개인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미취업자는 근로계약서 등 열악한 근로환경, 시장 축소 등 사회 문제 및 취업정책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얘기하였다. 신규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선발 기준에 대해 취업자는 인상, 학력·학벌을, 미취업자는 자격조건으로 자격증·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취업 후 이직하는 이유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고, 더 나은 환경·조건을 위해

이직한다고 말하였다. 취업자 대부분은 잦은 야근과 회식,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 인상 및 워라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로 취업자는 직무공부 및 학원을 통해 취업을 준비한 반면, 미취업자는 외국어 및 자격증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해 취업자는 혼자 힘으로 취업을 준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멘토 및 컨설팅 전문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미취업자는 경제적 지원 및 인맥 등이 가장 원하고 있었다. 진로 및 취업계획 관련하여 적성 및 진로에 대해 취업자는 적성검사 및 친구의 영향을, 미취업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 및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인턴십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계획에 도움받기를 원하였다.

둘째,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로 취업에 대한 면담결과로는 고졸은 현실과 맞지 않는 취업정책으로 인해, 전문대졸은 취업 의욕을 감소시키는 기업의 근로 환경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한 반면, 대졸의 경우 자신의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선발 기준에 대해 고졸 및 전문대졸은 자격조건, 대졸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며, 신규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선발 기준으로 고졸 및 전문대졸은 자격증 및 전문성을, 대졸은 이미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이직하는 이유에 대해, 고졸은 직장 내 차별과 업무 부적응으로, 전문대졸은 더 나은 환경·조건을 위해, 대졸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후 만족하는 이유로 고졸의 경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만족하는 반면, 전문대졸 및 대졸의 경우 잦은 야근 및 회식, 출장 등 업무로 인하여 불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로 고졸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외국어 공부에, 전문대졸은 이력서 및 자격증 공부에, 대졸은 하루 평균 7시간 정도를 취업학원 등에 할애하고 있었다. 취업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해 고졸은 현업에 종사하는 멘토, 전문대졸은 취업 관련 정보, 대졸은 전문적인 취업 컨설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계획 관련하여 적성 및 진로에 대해 고졸은 선생님,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전문대졸 및 대졸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향을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개인의 취업 목표 때문에, 여성은 근로환경이나 스펙, 학벌 등 높은 사회적 선발 기준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기업 선발 기준에 대해 남성 및 여성은 자격조건이라 생각하며, 신규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선발 기준으로 남성 및 여성 모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및 전문성을 중요시 여겼다. 취업 후 이직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여성은 직장 내 차별, 더 나은 환경·조건을 위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만족하는 이유로 남성은 잦은 야근 및 수직적 상하관계 등 업무 환경으로 인하여, 여성은 업무의 적성 등의 이유로 직장에 다소 불만족하고 있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남성은 급여 인상 및 워라밸이 필요하다는 반면, 여성은 직장 내 복리후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취업준비로 남성은 외국어 공부 및 경력 활동을 주로 하며, 여성은 자격증 준비 및 직무 공부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해 남성은 직무 관련 정보 및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여성은 멘토와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진로 및 취업계획 관련하여 남성의 경우 지인의 영향을 통해 진로가 정해진 반면, 여성의 경우 아직 진로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해 남성 및 여성 모두 취업 정보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 ○ 취업 후 이직

취업후 이직할 생각을 하는 이유로는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 직장 내 부당함, 자격증 준비, 동료와의 갈등이라고 말하였다.

| 취업 후 이직 |                 |                                                                                                                                                                                         |
|---------|-----------------|-----------------------------------------------------------------------------------------------------------------------------------------------------------------------------------------|
| 취업자     | 더 나은 직장에서의 이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가 맞지 않거나 똑같은 더 좋은 조건으로 연봉협상을 해서 가는 것 같아요.(여성,전문대졸,취업자,15)</li> </ul>                                                                           |
|         | 이상과 현실의 괴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고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남성,대졸,취업자,20)</li> </ul>                                                                                          |
| 고졸      | 직장 내 부당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자라고 무시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여성,고졸,미취업,8)</li> <li>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부당한 경우가 있어서 이직하거나(여성,고졸,미취업,9)</li> </ul>                                                |
| 전문대졸    | 영어, 면접, 자소서 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 성적 따 놓고 면접이랑 자소서 컨설팅 받아가면서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ul>                                                                           |
| 대졸      |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회사의 걸모습 연봉만 보고 들어갔는데 막상 돈을 받고도 못 하겠다(여성, 대졸, 미취업, 28)</li> <li>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고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남성, 대졸, 취업, 20)</li> </ul>            |
|         | 자격증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자격증 중심으로,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을 보장해 주는 거라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남성, 대졸, 취업, 20)</li> </ul>                                                           |
| 남성      | 동료와의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 좋은 경우가 있다면 직원들 간에 불화가 있다든지 업무가 안 맞는 다든지..(남성,전문대졸,취업,11)</li> <li>감정적인 문제가 개인한테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간의 갈등 때문에(남성,고졸,미취업,4)</li> </ul> |

### ○ 취업준비

취업자는 직무공부, 취업학원에 투자하였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및 면접을 위한 멘토와 컨설팅을 필요로 하였으며, 미취업자는 외국어공부, 자격증공부를 하고 있고, 돈과 인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고졸은 외국어공부, 멘토가 필요하며, 전문대졸은 서류작성, 자격증공부, 정보제공필요, 대졸은 취업학원 및 컨설팅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남성은 외국어공부, 경력준비, 정보제공, 컨설팅을 필요로 하고, 여성은 자격증공부, 직무공부, 멘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취업준비 |       |                                                                                                                                                                     |
|------|-------|---------------------------------------------------------------------------------------------------------------------------------------------------------------------|
| 취업자  | 직무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에는 4시간 정도 언어 관련해서 공부하고 여행사 용어 따로 공부하고.(남성,고졸,취업,1)</li> <li>저는 한 4, 5시간 정도. 학원에서 직접 캐드 같은 것도 배웠었고(남성,전문대졸,취업,12)</li> </ul> |
|      | 취업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성패 통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7시간 정도 투자했어요.(여성,대졸,취업,26)</li> </ul>                                                                       |
|      | 멘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소서를 계속 쓰기는 하지만 막막해서 누가 검토해 주고 교수님이 봐준다고 해도 여러 명이 보시니까 한계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분이 필요해요.(여성,전문대졸,취업,15)</li> </ul>                 |

|      |         |                                                                                                                                                                                                                                                                                                                                                                                                                             |
|------|---------|-----------------------------------------------------------------------------------------------------------------------------------------------------------------------------------------------------------------------------------------------------------------------------------------------------------------------------------------------------------------------------------------------------------------------------|
|      | 컨설팅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팅을 받아야 기본적인 이력서를 쓸 때 필요한데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면접을 못 보기 때문에 컨설팅.(남성,대졸,취업,20)</li> </ul>                                                                                                                                                                                                                                                                                     |
| 미취업자 | 외국어 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원 수업 시간을 포함해서 6시간 영어공부를 하고 있어요. 당장 수업을 못 들어서 수업을 듣기 위한 점수를 습득하기 위해서 6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남성,고졸,미취업,3)</li> </ul>                                                                                                                                                                                                                                                                    |
|      | 자격증 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자격증 공부 같은 걸 도서관에 가서 관련서적을 보면서 2-3시간씩 하고 세미나나 강의가 있을 때 관련 과 강의가 있으면 가서 듣기도 해요.(남성,전문대졸,미취업,13)</li> </ul>                                                                                                                                                                                                                                                                          |
|      | 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디 공부를 하러 다니든가 아니면 카페에서 공부를 해도 일단 하루에 만원씩 드는 건 기본이고, 식비 드는 것도 그렇고, 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자격증 시험을 봐도 요즘 엄청 싼 게 2만 원 정도예요.(여성,전문대졸,미취업,18)</li> <li>일단 취업을 하다 보면 학원이라든지 시험 볼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 (중략) 내가 이 하나에 집중하고 목표를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준비하는데 따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남성,대졸,미취업,23)</li> </ul>                                                                                              |
|      | 인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희 보건복지 쪽은 실습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관련직종 종사자 분들께 얼굴을 많이 익혀 두고 일을 잘 하는 애라는 인식을 시켜서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 이직할 때 좋다고 생각.(남성,전문대졸,미취업,13)</li> </ul>                                                                                                                                                                                                                                         |
| 고졸   | 외국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원 수업 시간을 포함해서 6시간 영어공부를 하고 있어요. 당장 수업을 못 들어서 수업을 듣기 위한 점수를 습득하기 위해서 6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남성,고졸,미취업,3)</li> </ul>                                                                                                                                                                                                                                                                    |
|      | 멘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멘토가 필요함(여성,고졸,취업,7)</li> <li>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현업에 있는 사람. 제가 길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안내가 필요한데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여성, 고졸 미취업 8)</li> <li>일단 정보를 조금 접했으면 좋겠어요. 박람회라든지 은사 특강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일단 저를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하면 변호사나 법조인, 교사는 어떻게 보면 되는 과정이 심플하잖아요.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3).</li> </ul> |
| 전문대졸 | 서류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꾸준히 하지는 않고 그런 이력서를 넣을 시기에는 많이 하면 3, 4시간까지 하고 평소에 한 두 시간을 하는데 자격증 준비도 그렇고 이력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 회사에 대해 알아보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여성,전문대졸,미취업,18)</li> </ul>                                                                                                                                                                                                                                  |
|      | 자격증 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증 공부 같은 걸 도서관에 가서 관련서적을 보면서 2-3시간씩 하고 세미나나 강의가 있을 때 관련 과 강의가 있으면 가서 듣기도 해요.(남성,전문대졸,미취업자,13)</li> </ul>                                                                                                                                                                                                                                                                            |
|      | 정보제공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같은 게 좀 더 찾기가 쉽거나 제가 가려는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직업이 있고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남성,전문대졸,취업,10)</li> </ul>                                                                                                                                                                                                                                                                     |
| 대졸   | 취업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성패 통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7시간 정도 투자했어요.(여성,대졸,취업,26)</li> </ul>                                                                                                                                                                                                                                                                                                                               |
|      | 컨설팅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팅이나 취업 정보. 말씀하신대로 처음이라 아웃라인을 설명해주면 훨씬 더 좋아서 준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취업 정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 관련된 사람들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빨리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여성,대졸,취업,26)</li> </ul>                                                                                                                                                                                                                  |

|    |      |                                                                                                                                                                                                                                                                                         |
|----|------|-----------------------------------------------------------------------------------------------------------------------------------------------------------------------------------------------------------------------------------------------------------------------------------------|
| 남성 | 외국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 수업 시간을 포함해서 6시간 영어공부를 하고 있어요. 당장 수업을 못 들어서 수업을 듣기 위한 점수를 습득하기 위해서 6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남성,고졸,미취업,3)</li> </ul>                                                                                                                              |
|    | 경력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단 방학 때 일반적인 알바를 한다기보다는 그 회사에 가려는 회사와 관련된 쪽에서 짧게라도 경험을 해 보려고 했어요. 하루에 9시간 정도 경험을 했어요.(남성,전문대졸,취업,11)</li> </ul>                                                                                                                                |
|    | 정보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개인한테 열린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배들이나 학교에서 아니면 학과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로 방향에 대해서 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올린다고 하지만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아보는 게 아니라 못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먼저 주도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남성,대졸,미취업,24)</li> </ul> |
|    | 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을 받아야 기본적인 이력서를 쓸 때 필요한데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면접을 못 보기 때문에 컨설팅.(남성,대졸,취업,20)</li> </ul>                                                                                                                                               |
| 여성 | 자격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은 학기 중에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최소 1시간 하고 자격증을 준비할 때 시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여성,전문대졸,미취업,19)</li> </ul>                                                                                                      |
|    | 직무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병원이 상시 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 중에서 블라인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전공도 공부하고 하루에 5-6시간 정도 공부해요.(여성,전문대졸,미취업,17)</li> </ul>                                                                                                               |
|    | 멘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소서를 계속 쓰기는 하지만 막막해서 누가 검토해 주고 교수님이 봐준다고 해도 여러 명이 보시니까 한계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분이 필요해요.(여성,전문대졸,취업,15)</li> </ul>                                                                                                                                   |

### ○ 진로 및 취업계획

적성 및 진로에 대해 취업자는 적성검사 및 친구의 영향을, 미취업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 및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인턴십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계획에 도움받기를 원하였다. 고졸은 선생님,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전문대졸 및 대졸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남성의 경우 지인의 영향을 통해 진로가 정해진 반면, 여성의 경우 아직 진로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였다. 진로에 대해 남성 및 여성 모두 취업 정보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 진로 및 취업계획 |                            |                                                                                                                                                                                                                                                                                                                           |
|-----------|----------------------------|---------------------------------------------------------------------------------------------------------------------------------------------------------------------------------------------------------------------------------------------------------------------------------------------------------------------------|
| 취업자       | <p>체험 프로그램으로 진로계획에 도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인턴십 같은 것도 포함될 것이고 아니면 캠프 형식으로 짧게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실제 뭘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돌아 가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남성,전문대졸,취업,12)</li> </ul>                                                                                                             |
|           | <p>적성검사를 통해 진로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검사하잖아요. 항상 직종이 똑같더라 고요. 해 보니 맞아서 내 적성인가 보다 하고 있어요(여성, 대졸, 취업, 25)</li> <li>저는 적성에 맞는 게 제 적성이 내근직인데 자주 출장을 보내서 (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 <p>주로 친구의 도움을 받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알았거든요 친구가 뭘 준비하면 빠르게 입사할 수 있다 그런 걸 알려줬어요(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미취업자      | <p>인턴 프로그램으로 진로 계획에 도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향을 정하기는 정했는데 정보를 주는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남성, 대졸, 미취업, 24)</li> <li>인턴십을 서너 개 정도 다른 분야로.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4)</li> <li>저는 여러 명이 일하는 것보다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업무 그런 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남성, 고졸, 미취업, 4)</li> </ul>                                        |
|           | <p>가족의 도움을 받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삼촌과 약간 진지한 얘기, 진로 얘기를 많이 하는 데 삼촌이 저한테 얘기하다 너한테는 이 길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고졸        | <p>현 직장과의 적성의 불일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 직무를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여성, 고졸, 취업, 6)</li> </ul>                                                                                                                                                                                                                                       |
|           | <p>주변사람들의 도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 주시는 말을 들으면서 제 적성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남성, 고졸, 미취업, 4)</li> <li>저는 아빠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뉴스나 정치적 주제를 던져 놓고 항상 의견을 물었어요(남성, 고졸, 미취업, 3)</li> <li>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현업에 있는 사람. 제가 길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안내가 필요한데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여성, 고졸, 미취업, 8)</li> </ul> |
| 전문대졸      | <p>인턴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인턴십을 재미로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일부터 다른 분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적성에 맞을 수도(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4)</li> </ul>                                                                                                                                                                                    |
|           | <p>진로가 정해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해서 진로를 그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회사에 가고 싶어서 그쪽에서만 계속 준비를 했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1)</li> </ul>                                                                                                                                                                      |
| 대졸        | <p>진로가 정해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진 꿈 (여성, 대졸, 미취업, 27)</li> </ul>                                                                                                                                                                                                                   |
|           | <p>교수님의 도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는 교수님 도움 받고. 여기 자리가 남을 텐데 한번 면접을 보고 해 보라고(남성, 대졸, 취업, 20)</li> </ul>                                                                                                                                                                                                              |



### (3)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과 일자리의 질

신규졸업자의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과 일자리의 질로서 취업에 걸리는 기간, 근로조건, 선호하는 일자리, 일자리의 질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를 취업유무별,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 성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취업유무별로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과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3개월, 미취업자는 1~2년으로 취업 소요 기간을 예상한다고 말하였다. 근로 조건에 대해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연봉 및 복지를 중시하며 기대 연봉 수준에 대해 취업자는 최소 2,400만 원 정도, 미취업자는 최소 1,000만 원 정도 라고 말하였다. 선호하는 일자리로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적성 및 연봉을 가장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취업자의 경우 ‘워라밸<sup>16)</sup>’을, 미취업자의 경우 근무 환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적성에 맞는 직장을, 미취업자는 연봉이 높고 경력이 인정되는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로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과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근로 조건에 대해 고졸 및 전문대졸은 업무시간을, 대졸은 복지를 중시하였다. 기대 연봉 수준에 대해 고졸 및 전문대졸은 2,400만 원 정도를, 대졸은 3,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였다. 선호하는 일자리로 고졸 및 대졸은 연봉을, 전문대졸은 워라밸 및 업무 적성을 가장 고려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졸은 높은 연봉과 경력 인정을, 전문대졸은 근무 환경을, 대졸은 복지혜택이 좋은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성별로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과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면, 근로 조건에 대해 남성은 연봉을, 여성은 직업의 안정성 등 근로 환경을 중시하였다. 기대 연봉 수준에 대해 남성의 경우 3,000만 원 정도, 여성은 2,400만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다. 선호하는 일자리로 남성은 워라밸을, 여성은 업무의 적성, 집과 직장과의

---

16)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거리를 고려한다고 말하였다. 남성 및 여성 모두 연봉이 높은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 근로조건

근로 조건에 대해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연봉 및 복지를 중시하며 기대 연봉 수준에 대해 취업자는 최소 2,400만 원 정도, 미취업자는 최소 1,000만 원 정도라고 말하였다. 고졸 및 전문대졸은 업무시간을, 대졸은 복지를 중시하였다. 기대 연봉 수준에 대해 고졸 및 전문대졸은 2,400만 원 정도를, 대졸은 3,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였다. 남성은 연봉을, 여성은 직업의 안정성 등 근로 환경을 중시하였다. 기대 연봉 수준에 대해 남성의 경우 3,000만 원 정도, 여성은 2,400만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다.

| 근로 조건 |               |                                                                                                                                                          |
|-------|---------------|----------------------------------------------------------------------------------------------------------------------------------------------------------|
| 취업자   | 복지 우선         | • 복지 혜택이 많은 직장을 기대했거든요(남성, 대졸, 취업, 20)                                                                                                                   |
|       | 희망 연봉         | • 2600(남성, 대졸, 취업, 21)<br>• 2400에서 2500 정도(여성, 전문대졸, 취업, 15)                                                                                             |
| 미취업자  | 복지 우선         | • 저만의 워라벨에 맞춰서 그렇게 회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퇴근 시간도 늦지 않은(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                                                                                         |
|       | 희망 연봉         | • 월급은 160에서 170이면 좋을 것 같고 최저시급만 아니면 좋을 것 같고 따로 개인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9)<br>• 생각한 적이 없는데 3천은 안 되게(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br>• 3천 정도(남성, 대졸, 미취업, 24) |
| 고졸    | 업무시간 및 사내 분위기 | •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 제가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내 분위기가 좀 좋았으면(여성, 고졸, 미취업, 8)<br>•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했어요. 위아래 없고 사무실에 주방이 있고 그런 조건들을 기대했어요.(남성, 고졸, 취업, 2)          |
|       | 안정성 중요        | • 연봉이 높은 곳은 야근이 잦으니까 저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끝나는걸 원하거든요. 안정성을 원해요(남성, 고졸, 취업, 1)                                                                                 |
| 전문대졸  | 개인 시간         | • 저녁이 있는 삶을 원했는데 여기는 야근만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삶이 아니에요.(여성, 전문대졸, 취업, 15)                                                                                        |
|       | 연봉 중요         | • 일이 힘들어도 월급날 들어오는 돈 액수를 보면 마음이 다 잡아지기 때문에(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                                                                                            |
| 대졸    | 복지 우선         | • 보험 여러 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복지가 되어 있는 회사.(남성, 대졸, 미취업, 23)                                                                                                |
|       | 연봉 중요         | • 일단 연봉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남성, 대졸, 미취업, 23)                                                                |

|    |                |                                                                                                                                                                                                                                                                                             |
|----|----------------|---------------------------------------------------------------------------------------------------------------------------------------------------------------------------------------------------------------------------------------------------------------------------------------------|
| 남성 | 연봉 중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봉. 안정성이 안 좋다면 다른 직업을 찾으면 되니까(남성, 고졸, 취업, 2)</li> <li>• 연봉을 중요시하는 데 어차피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공무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데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li>• 한 기업에 다니는 데 이직하면서 몸값을 불리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중요해요(남성, 대졸, 취업, 20)</li> </ul>      |
| 여성 | 직업의 안정성 및 근무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너무 적지만 많다면 안정성(여성, 고졸, 취업, 5)</li> <li>• 저요. 나중에 기술이 있으면 재택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오래 가고 싶어서 이 회사를 선택했어요(여성, 전문대졸, 취업, 15)</li> <li>•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은 언제 썰릴지 모르잖아요.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여성, 대졸, 취업, 25)</li> </ul> |

### ○ 선호하는 일자리

선호하는 일자리로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적성 및 연봉을 가장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취업자의 경우 ‘워라벨<sup>17)</sup>’을, 미취업자의 경우 근무 환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일자리로 고졸과 대졸은 연봉을, 전문대졸은 워라벨 및 업무 적성을 가장 고려한다고 하였다. 선호하는 일자리로 남성은 워라벨을, 여성은 업무의 적성과 집과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한다고 말하였다.

| 선호하는 일자리 |      |                                                                                                                         |
|----------|------|-------------------------------------------------------------------------------------------------------------------------|
| 취업자      | 적성중요 | • 저는 첫 번째는 제 직무와 적성에 맞는지를 보고 그 다음은 연봉.(여성,고졸,취업,5)                                                                      |
|          | 연봉중요 | • 저는 돈을 좀 많이 받고 회사 사람들과 잘 맞는 것.(남성,대졸,취업,21)                                                                            |
|          | 워라벨  | • 첫째는 워라벨이고 다음은 퇴근 후 연락이 안 와서 일과 가정이 분리되는.(여성,전문대졸,취업,15)                                                               |
| 미취업자     | 연봉중요 | • 직장생활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봉”(남성,고졸,미취업,4)                                                              |
|          | 적성중요 | • 첫 직장이니까 앞으로 일할 날이 많잖아요. 이직할 수도 있고. 첫 직장은 급여가 적어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 적성에 맞는 회사. 두 번째는 근무환경. 시간을 잘 지키는 회사. (여성,전문대졸,미취업,19) |
| 고졸       | 적성중요 | • 저는 첫 번째는 제 직무와 적성에 맞는지를 보고 그 다음은 연봉.(여성,고졸,취업,5)                                                                      |
|          | 연봉중요 | • 직장생활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봉.(남성,고졸,미취업,4)                                                              |

17)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          |       |                                                                                                  |
|----------|-------|--------------------------------------------------------------------------------------------------|
| 전문<br>대졸 | 위라벨   | • 첫째는 위라벨이고 다음은 퇴근 후 연락이 안 와서 일과 가정이 분리되는.(여성,전문대졸,취업,15)                                        |
|          | 근무환경  | • 1순위는 근무 환경이고 2순위는 체계가 잡힌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설 기업 말고 어느 정도 룰도 있고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는 회사.(여성,전문대졸,미취업,18) |
| 대졸       | 연봉중요  | • 저는 돈을 좀 많이 받고 회사 사람들과 잘 맞는 것.(남성,대졸,취업,21)                                                     |
|          | 좋은 동료 | •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은. 두 번째는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일이 많아도.(여성,대졸,미취업,27)                                     |
| 남성       | 위라벨   | • 저도 일단 제 생활을 중요시 생각해서 일이 어느 정도 있어도 제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복지가 좋으면 좋겠고.(남성,대졸,미취업,23)                 |
|          | 연봉중요  | • 저는 돈을 좀 많이 받고 회사 사람들과 잘 맞는 것.(남성,대졸,취업,21)                                                     |
|          | 근무환경  | • 제가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으면 하고 두 번째는 대도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남성,대졸,미취업,24)                                  |
| 여성       | 연봉중요  | • 저는 연봉을 보고 두 번째는 복리후생.(여성,고졸,취업,6)                                                              |
|          | 근무환경  | • 1순위는 근무 환경이고 2순위는 체계가 잡힌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설 기업 말고 어느 정도 룰도 있고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는 회사.(여성,전문대졸,미취업,18) |
|          | 위라벨   | • 첫째는 위라벨이고 다음은 퇴근 후 연락이 안 와서 일과 가정이 분리되는.(여성,전문대졸,취업,15)                                        |

## ○ 일자리의 질

취업자는 적성이 맞는 직장을, 미취업자는 연봉이 높고 경력이 인정되는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은 높은 연봉과 경력 인정을, 전문대졸은 근무 환경을, 대졸은 복지혜택이 좋은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 및 여성 모두 연봉이 높은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 일자리의 질 |                   |                                                                                                                                  |
|--------|-------------------|----------------------------------------------------------------------------------------------------------------------------------|
| 취업자    | 적성에 맞는 직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한테 맞는 직장. 적성이 맞는 직장(여성,고졸,취업,5)</li> <li>• 개인의 적성에 잘 맞는 회사.(여성, 고졸, 취업, 7)</li> </ul> |
|        | 좋은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쪽은 경력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쌓다 보면 수월해지지 않을까 (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ul>               |
| 미취업자   | 연봉이 높은 직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까 말씀하신 일이 많고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가 좋고(여성, 대졸, 미취업, 28)</li> </ul>                              |

|          |                                      |                                                                                                                                                                                                                                           |
|----------|--------------------------------------|-------------------------------------------------------------------------------------------------------------------------------------------------------------------------------------------------------------------------------------------|
|          | 좋은<br>일자리<br>에<br>대한<br>자신감<br>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들 것 같기는 해요(남성, 고졸, 미취업, 4)</li> <li>• 전공 먼저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남성, 고졸, 미취업, 4)</li> </ul>                                                                                                           |
| 고졸       | 높은 연봉과<br>경력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금 말한 걸 조합한 연봉 높고 여유롭고 경력 인정도 되고 집과 가깝고 (여성, 고졸, 미취업, 8)</li> </ul>                                                                                                                              |
|          | 좋은<br>일자리<br>에<br>대한<br>자신감<br>하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전문적인 공부 더 필요해요(여성, 고졸, 미취업, 9)</li> <li>• 심화된 전공과 학벌(남성, 고졸, 미취업, 3)</li> </ul>                                                                                                               |
| 전문<br>대졸 | 좋은 근무<br>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li> </ul>                                                                                                                                                    |
|          | 좋은<br>일자리<br>에<br>같은<br>자신<br>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쪽은 경력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쌓다 보면 수월해지지 않을까 (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ul>                                                                                                                        |
| 대졸       | 좋은<br>복지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이 보장되고 돈을 많이 주고 복지혜택이 좋은 회사. 그 리고 워라벨(여성, 대졸, 취업, 25)</li> <li>• 일한 만큼 복지를 잘해주는 회사(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 대체로 좋은<br>일자리<br>에<br>같은<br>자신<br>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기본적으로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주변사람이 인정하고 저도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남성       | 연봉이 높은<br>직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이 되고 돈 많이 주는 곳(남성, 전문대졸, 취업, 11)</li> <li>• 아직 직장생활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봉(남성, 고졸, 미취업, 4)</li> </ul>                                                                           |
| 여성       | 연봉이 높은<br>직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 많이 주는 곳(여성, 전문대졸, 취업, 16)</li> </ul>                                                                                                                                                           |
|          | 좋은<br>일자리<br>에<br>대한<br>자신감<br>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 대학도 안 가고 전공도 사실 회계 전공으로 이런 회사는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좋은 회사를 가려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여성, 고졸, 미취업, 8)</li> <li>• 다른 사람들은 유학 갔다 오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스펙 정도가 부족해서(여성, 전문대졸, 취업, 16)</li> </ul> |

#### (4) 창업

신규졸업자의 창업 관련하여 창업에 대한 생각, 창업지원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를 취업유무별,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 성별로 분석하였다.

취업유무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청년 창업에 긍정적인 반면, 미취업자는 부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미취업자는 정부의 물질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로 살펴보면, 고졸의 경우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전문대졸 및 대졸의 경우 긍정적으로 말하였다. 고졸은 정부 및 재정적 지원, 전문대졸은 창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대졸은 재정적 지원 및 학교의 도움이 필요로 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및 여성은 청년 창업에 긍정적인 반면,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물질적인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   |                      |                                                                                                        |
|------|----------------------|--------------------------------------------------------------------------------------------------------|
| 취업자  | 젊은 나이에 도전            | •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젊은 나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1)                                 |
|      | 긍정적                  | •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도전해서 성공하면 주변 인식도 좋아지니까(여성, 고졸, 취업, 7)                                                   |
|      | 청년 창업을 위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 학교에서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런 건 현저히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졸업하면 당연히 취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 전문대졸, 취업, 11)   |
| 미취업자 | 너무 이른 창업             | • 지금 한다고 하면. 스무 살 초반에 창업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여성, 고졸, 미취업, 8)                                              |
|      | 청년 창업을 위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 정부의 지원 같은 개인적인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여성, 고졸, 미취업, 9)                                                    |
| 고졸   | 창업 성공률 낮음            | •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남성, 고졸, 미취업, 3)<br>• 아무래도 창업을 하다 보면 실패도 많을 것 같아서 반대예요.(여성, 고졸, 취업, 6)                   |
|      | 창업을 권하는 분위기가 아님      | • 없어요.(남성, 고졸, 미취업, 3)                                                                                 |
| 전문대졸 | 청년 창업을 위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 학교에서는 취업위주로 도움을 주세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br>• 학교에서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런 건 현저히 적으니까(남성, 전문대졸, 취업, 11) |
|      | 취업난으로 창업 경험에 대해 긍정적  | • 일단 요즘 취업난도 심하고 물론 창업을 하려면 바로 잘되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경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                    |
| 대졸   | 창업을 통한 아이디어 증가       | • 취업도 안 되고 뭔가 창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게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가 점차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입니다(여성, 대졸, 취업, 25)  |
| 남성   | 무한한 가능성              | •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제 막 시작했고 새로운 기업이니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남성, 고졸, 취업, 2)       |
| 여성   | 기회 획득                | • 요즘 프로그램,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봤는데 보면서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여성, 대졸, 미취업, 27)                  |
|      | 청년창업 성공에 부정적         | • 그게 진짜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다 잘 되는 데 한번 도전해볼까? 그러면 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만 더 도드라지니까(여성, 대졸, 미취업, 28)     |

## (5)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신규졸업자의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유용성(학교 외 교육을 받은 이유 등), 학교의 취업지원, 학교 외 취업정보, 학교 외 직업훈련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를 취업유무별,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 성별로 살펴보았다.

취업유무별로 살펴보면, 취업자는 이론과 실무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취업자는 전공 지식과 취업의 연계 및 준비에 학교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취업자·미취업자 모두 취업을 위해 외국어 등 학교 교육 외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경우 취업지원센터 이용이 높은 반면, 취업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을 통해 취업알선 받은 경험이 있었다. 취업자는 취업사이트 및 취업 관련 학원을 통해, 미취업자는 취업 관련 인터넷/어플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제공 하는 취업 정보 외 추가적인 정보를 스스로 획득하고 있었다. 취업자는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훈련, 미취업자는 인성 등 기초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로 살펴보면, 학력에 상관없이 학교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말하였다. 취업정보는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로 얻는다고 하였으며, 특히 전문대졸은 지인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대졸은 취업 학원을 통한 기업 정보 및 학교홈페이지 공고 사이트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한다고 하였다. 고졸 및 대졸은 취업 준비에 적격인 직업훈련, 전문대졸은 인성 등 기초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 외국어 등 외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취업 지원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센터 시설,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로 취업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은 학교 선배를 통해, 여성은 학원을 통해 취업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및 여성 모두 취업 준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 학교교육의 유용성

취업자는 이론과 실무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취업자는 전공 지식과 취업의 연계 및 준비에 학교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취업자·미취업자 모두 취업을 위해 외국어 등 학교교육 외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상관없이 학교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말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 외국어 등 외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교육의 유용성 |               |                                                                                                                                                                               |
|-----------|---------------|-------------------------------------------------------------------------------------------------------------------------------------------------------------------------------|
| 취업자       | 이론과 실무의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단 처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런 걸 잘 안 알려주니까 도움이 안됐던 것 같아요.(여성, 고졸, 취업, 6)</li> </ul>                                                 |
|           | 입시 위주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내용 자체가 사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하던 것만 하고 수학과 국어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남성, 고졸, 취업, 1)</li> </ul>                                             |
|           | 취업을 위한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 교육이 나온 게 학교는 진도 빠서 사실 교수들이 가르치기보다는 대충 하고 자기 연구하기 바빠서. 따로 배우는 건 내가 모르면 애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ul> |
| 미취업자      | 전공 지식 도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게 제일 큰 도움이라고 생각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li> </ul>                                                            |
|           | 취업과 연계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는 제가 나온 학과는 피부 관리학과인데 다들 학원에서 배워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으로 취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여성, 대졸, 미취업, 27)</li> </ul>               |
|           | 취업을 위한 외국어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역 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금액은 주 5회 2시간 26만원. 1주일에 10시간 정도. 스터디 1시간 필참이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남성, 고졸, 미취업, 3)</li> </ul>                                  |
| 고졸        | 이론과 실무의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교육의 영어는 성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인 것에서 필요성에 의문.(남성, 고졸, 미취업, 3)</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시장이 어떻게 창업이 어떻게 지금 고용 태세가 어떻게 그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남성, 고졸, 취업, 2)</li> <li>• 교육 내용 자체가 사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하던 것만 하고 수학과 국어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예요.(남성 고졸 취업, 1)</li> <li>• 일단 처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런 걸 잘 안 알려주니까 도움이 안됐던 것 같아요.(여성 고졸 취업 6)</li> <li>• 저는 과목은 도움이 됐었는데 그걸 실제 사용하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실무와 이론은 역시 많이 달랐어요.(여성고졸 취업 5)</li> <li>• 저는 실업계를, 특성화고를 나와서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오면 취업 잘 된다, 자격증만 따면 취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데 정작 취업된 애들은 별로 없고(여성 고졸, 미취업, 8)</li> <li>• 제가 인문계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게 과연 사회에서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요.(남성 고졸 미취업 3).</li> </ul> |
|       | 외부 교육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아까 말씀 드린 인크루트에서 알선 같은 걸 해 주셨어요.(남성, 고졸, 취업, 1)</li> </ul>                                                                                                                                                                                                                                                                                                                                                                                                                                                                                                                                                              |
| 전문 대졸 | 이론과 실무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배운 건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li>• 저도 같아요. 책으로 배운 것과 실무가 너무 달라서.(여성 전문대졸, 취업, 16)</li> </ul>                                                                                                                                                                                                                                                                                                                                                                                                                                                                                                             |
|       | 자격증 관련 정보 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희는 자격증이 많이 필요한데 자격증 관련 정보나 교육을 체계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3)</li> </ul>                                                                                                                                                                                                                                                                                                                                                                                                                                                                                                                                     |
|       | 기본 과정에 치우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할 때는 심화 과정을 묻는데 저희가 배우는 건 너무 기본 과정이라서 그걸 활용하기도 많이 부족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li> </ul>                                                                                                                                                                                                                                                                                                                                                                                                                                                                                                                                    |
| 대졸    | 대체로 학원에서 지식 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는 한 과 전체로 다 하고 그걸 전공을 하든 안하든 모든 인원이 다 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해주는데 학원에서는 아예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더 시험에 능통할 수 있게 팁을 많이 준다고 할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여성, 대졸, 미취업, 27)</li> </ul>                                                                                                                                                                                                                                                                                                                                                                                                                                           |
|       | 이론과 실무의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과 실무가 너무 반대더라고요. 일하면서 실무를 해 보니까(남성, 대졸, 취업, 20)</li> <li>•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것과 막상 회사에 가니까 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여성, 대졸, 취업, 25)</li> <li>•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론 수업이 실습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 스스로 학습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냥 혼자 강의 듣고 충분히 회사에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 교육을 안 받아도 회사에 가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 학교의 취업지원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센터 이용이 높은 반면, 취업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관을 통해 외부 기관을 알선 받은 경험이 있었다. 학교의 취업 지원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센터 시설,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학교의 취업지원 |                 |                                                                                                                                                              |
|----------|-----------------|--------------------------------------------------------------------------------------------------------------------------------------------------------------|
| 취업자      | 졸업자 초대 강연       | • 기존에 취업한 선배님들이 학교 전서로 책도 만들어줬고 신청하면 자기 소개서 첨삭도 해 주고 멘토 신청하면 멘토님과 서로 연락할 수 있게 해 주고 프로그램이 다양했어요(여성, 대졸, 취업, 25)                                               |
|          | 취업정보제공 부족       | • 제가 다 해야 하나까. 자신이 전공 분야부터 쌓아 올리는 것에 치중했었지 취업 정보는 거의. 아예 그런 과목조차 안 했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0)                                                                     |
|          | 취업 준비 기관 알선     | • 기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들도 취업을 알선해 주시는 분들인데 학교에서 단체로 거기에 가입을 하라고 해서 학교랑 그 기업 두 군데에서 알선을 받았었어요. (여성, 고졸, 취업, 5)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센터 이용 경험    | • 한 명 한 명 잡아서 해 주는 멘투맨으로 한 명씩 해서 직접적으로 상담해 주고 실무자와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그런 현장 얘기가 많이 필요하지요(남성, 대졸, 미취업, 22)                                                           |
|          | 형식적인 컨설팅        | • 나머지 애들은 형식적으로 1대1로 상담해 주고 거의 신경 안 써요.(여성, 고졸, 미취업, 8)                                                                                                      |
| 고졸       |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 부족 | • 저도 인문계이다 보니까 과에 대한 설명이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진로를 위해서(남성, 고졸, 미취업, 4)                                                                                                 |
|          | 진로 상담보다 수업 위주   | • 인문계는 진로 상담은 거의 안 해요. 있어도 자습 하고(남성, 고졸, 미취업, 3)                                                                                                             |
|          | 한정적 정보 제공       | • 적어도 어떤 사이트라든지 어디에서 이런 걸 접할 수 있다는 것 만이라도 알려주면 좋겠어요(남성, 고졸, 취업, 2)                                                                                           |
| 전문대졸     | 기업과 연계          | • 취업 상담도 엄청 많이 해주고 취업해주는 업체랑 연결도 많이 해 주고 기업들이 와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강의도 엄청 많아서 충분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                                          |
|          | 취업 관련 과목 부재     | • 자신이 전공 분야부터 쌓아 올리는 것에 치중했었지 취업 정보는 거의. 아예 그런 과목조차 안 했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0)                                                                                  |
| 대졸       | 취업지원센터 이용       | • 학교 안에 취업지원센터나 그런 게 잘 준비되어 있고 상담해주는 분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학과로 공지가 많이 와요(남성, 대졸, 미취업, 22)<br>• 취업 지원 센터라고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공고 같은 걸 다 붙여놓고 알려줘요(여성, 대졸, 취업, 26) |
|          | 교수님을 통한 진로 상담   | • 일단 교수님과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교수님이 지금 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확신을 줬다고 할까? 그런 점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남성, 대졸, 미취업, 23)                                     |
|          | 취업률에만 고집        | • 학생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학교 무슨 과 100% 취업 이 걸 만들려고 그냥 고집어 넣는(여성, 대졸, 미취업, 27)                                                                                      |

## ○ 학교 이외의 취업정보

취업자는 취업사이트 및 취업 관련 학원을 통해, 미취업자는 취업 관련 인터넷/어플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제공 하는 취업 정보 외 추가적인 정보를 스스로 획득하고 있었다. 취업정보는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로 정보를 얻는 다고 하였으며, 특히 전문대졸은 지인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대졸은 취업 학원을 통한 기업 정보 및 학교홈페이지 공고 사이트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한다고 하였다.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로 취업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은 학교 선배를 통해, 여성은 학원을 통해 취업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이외의 취업정보 |                            |                                                                                                                                                                                                                             |
|-------------|----------------------------|-----------------------------------------------------------------------------------------------------------------------------------------------------------------------------------------------------------------------------|
| 취업자         | 취업사이트<br>통해 정보<br>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사이트.(남성, 고졸, 취업, 1)</li> <li>제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두면 맞는 공고들만 볼 수 있는 점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런 사이트 조작 없다면 정보를 얻을 곳이 없으니까 한 곳에 모아두고 그랬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여성, 고졸, 취업, 5)</li> </ul>                         |
|             | 취업 관련<br>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원에다가 매니저가 리스트업 해줘서 그렇게 보게 됐고 실제 많은 도움이 됐어요.(남성, 대졸, 취업, 21)</li> <li>저도 학원이 좋았어요 저만의 케이스로 해서 봐주고 여기저기 지원할 수 있게 해 주고(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미취업자        | 인터넷<br>사이트를 통해<br>정보 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지인들이 말해주기도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li> </ul>                                                                                                                     |
|             | 어플 통해<br>정보 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는 어플이요. 밴드. 연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여성, 대졸, 미취업, 27)</li> </ul>                                                                                                                            |
| 고졸          | 취업 사이트를<br>통한 정보 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사람이나 워크넷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 받았어요(여성, 고졸, 취업,,6)</li> </ul>                                                                                                                               |
| 전문대졸        | 인터넷<br>서칭을 통한<br>정보 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으로 찾아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4)</li> </ul>                                                                                                                                             |
|             | 선배 혹은<br>친구를 통해<br>정보 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지인들이 말해주기도 하고(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li> <li>저는 멘토. 학과 선배를 통해서 제일 많이 얻었고 인터넷 검색 해서 잡플래닛에 보면 각 기업에 대해서 봤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1)</li> </ul>                                               |
| 대졸          | 인터넷<br>사이트를<br>통한 정보<br>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가 친구들한테 글을 잘 못 써서 자소서 그런 얘기할 때 도움을 받는 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틀과 합격 수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스펙 준비도 같은 사람들이 저보다 좀 더 하게 되고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정보를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 취업 관련<br>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원이요. 학원이 공부 끝나고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            |                                                                                                                                                      |
|----|------------|------------------------------------------------------------------------------------------------------------------------------------------------------|
|    | 학교 홈페이지    | •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로 올라오거든요(남성, 대졸, 취업, 20)                                                                                                                |
| 남성 | 취업 사이트     | • 저도 네이버 카페를 많이 이용해요. 취업대학교라고 거기랑 전년차라고 승무원에 특화된 곳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같은 관심사를 많이 얘기해요(남성, 대졸, 미취업, 23)                                                      |
|    | 학교 선배들을 통해 | • 학교 선배들이라든지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공고가 났더라 그런 식으로 접했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2)<br>• 학교 선배들(남성, 대졸, 미취업, 24)                                                          |
| 여성 | 취업 사이트     | • 사람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 사이트.(여성, 고졸, 취업, 5)                                                                                                                |
|    | 학원 서비스     | • 학원이 서비스가 훨씬 좋았어요. 상담하는 시간도 길었고 맞춤형 상담을 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기업 리스트업하고 제가 원하는 조건의 기업 정보도 받았고 첨삭도 그렇고 면접 질문도 다 뽑아서 받고 그래서 훨씬 좋았어요(여성, 대졸, 취업, 25) |

### ○ 직업훈련

취업자는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훈련, 미취업자는 인성 등 기초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고졸 및 대졸은 취업 준비에 적극적인 직업훈련, 전문대졸은 인성 등 기초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남성 및 여성 모두 취업 준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직업훈련 |             |                                                                                                                                                                                               |
|------|-------------|-----------------------------------------------------------------------------------------------------------------------------------------------------------------------------------------------|
| 취업자  | 이론 대비 실습 교육 | • 아무래도 제뽕 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쪽으로 자기 직업을 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여성, 고졸, 취업, 5)                                                                                                |
|      | 단기교육의 장점    | • 시간이 단기로 할 수 있다 보니까 3개월이면 3개월 집중해서 코스를 밟을 수 있어서.(여성, 전문대졸, 취업, 15)                                                                                                                           |
| 미취업자 | 학교교육의 도움    | • 아무래도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서 영향도 많고 같은 분야의 주변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나기 때문에(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br>• 학교 교육에 대해서보다는 학교에 가고 싶었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학원 같은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남성, 대졸, 미취업, 24)                               |
| 고졸   | 실제업무 경험     | • 실제로 해 보면 막연하게 얘기를 듣거나 공부하는 것보다는 느껴지는 게 많을 것이고 실제로 업무에서 하는 걸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여성, 고졸, 미취업, 8)<br>• 직업 훈련 교육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은 입시 준비로 바쁘잖아요. 직업 훈련 교육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남성, 고졸, 취업, 1) |
| 전문대졸 | 학교의 역량      | • 거기에서 영향도 많고 같은 분야의 주변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나기 때문에(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                                                                                                                                  |
| 대졸   | 취업 집중       | • 당연히 직업훈련이 좀 더 자기가 취업할 곳에 와 닿게 도움이                                                                                                                                                           |

|    |           |                                                                                                                                                                                                                                                                                                                                                     |
|----|-----------|-----------------------------------------------------------------------------------------------------------------------------------------------------------------------------------------------------------------------------------------------------------------------------------------------------------------------------------------------------|
|    |           | <p>될 것 같아요(남성, 대졸, 미취업,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훈련소는 자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강의 끝나고 남아서 더 할 수도 있고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남성 | 실무 위주의 도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남성, 전문대졸, 취업, 10)</li> <li>• 저도 직업 훈련. 학교는 단체로 하다 보니까 뒤처지는 게 많지 않나 그래서 직업 훈련은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으니까 직업 훈련이 더 좋은 것 같아요(남성, 대졸, 취업, 20)</li> </ul>                                                                                                                 |
| 여성 | 전문적인 도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런데 직업 훈련 받으면 따로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따로 다른 직업을 받고 나서 어떤 직장의 모의 면접 보고 붙으면 인턴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턴 기간 하는 동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성, 고졸, 미취업, 9)</li> <li>• 시간이 단기로 할 수 있다 보니까 3개월이면 3개월 집중해서 코스를 밟을 수 있어서(여성, 전문대졸, 취업, 15)</li> <li>• 저는 직업훈련.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여성, 대졸, 미취업, 27)</li> </ul> |

## (6) 사회적 인식

신규졸업자의 사회적 인식 관련하여 취업시기, 취업의 중요요인, 사회진출기대, 일자리 눈높이, 공시족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를 취업유무별,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 성별로 살펴보았다.

취업유무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겠다고 대부분 말하였다.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력 및 학벌을 취업에 있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신규졸업자들은 미취업자가 사회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청년 및 기업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 취업자는 청년의 눈높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하였다.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자격증시험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취업유무 상관없이 ‘위라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로 살펴보면, 고졸 및 대졸의 경우 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직장을 찾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취업에 있어 고졸 및 대졸의 경우 학력,

학벌이 더 중요하며, 전문대졸의 경우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전문대졸, 대졸 대비 고졸은 사회진출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 기업이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시야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대졸 및 대졸의 경우 기업 및 청년 모두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였다. 고졸 및 대졸자의 경우 안정적인 근무환경 때문에, 전문대졸의 경우 워라밸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및 여성 모두 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직장을 찾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남성의 경우 경험 활동 및 학벌, 여성의 경우 자격증, 흥미와 적성, 경험 활동이 취업에 중요 요인이며, 취업에 있어 학력·학벌을 중요시하였다. 남성 및 여성 모두 사회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으며 남성의 경우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남성은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근무조건’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 ○ 취업 시기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잦은 퇴사 및 후회 방지, 흥미와 적성, 행복 추구를 위해서 원하는 직장에 입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빠른 취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경험이 필요하고, 공백이 길면 취업이 어려워져서, 현실 사회와 타협,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시기 |            |                       |                                                                                                                                   |
|------|------------|-----------------------|-----------------------------------------------------------------------------------------------------------------------------------|
| 취업자  | 원하는 직장이 중요 | 잦은 퇴사 및 후회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빨리 취직한다고 하면 나와 안 맞으면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안 좋을 것 같아서(남성, 대졸, 취업, 20)</li> </ul>               |
|      | 빠른 취업이 중요  | 경험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말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해 봐야 아는 것이 조금이라도 경험을 더 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여성, 고졸, 취업, 5)</li> </ul>        |
|      |            | 취업 준비 기간이 길수록 취업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다니면서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여성, 전문대졸, 취업, 15)</li> </ul> |
| 미취업자 | 원하는 직장이 중요 | 행복 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여성, 대졸, 미취업, 28)</li> </ul>                                |

|          |                  |                                   |                                                                                                                                                                                                           |
|----------|------------------|-----------------------------------|-----------------------------------------------------------------------------------------------------------------------------------------------------------------------------------------------------------|
|          |                  | 잡은 퇴사<br>및 후회<br>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만둔 경우가 있거든요.(여성, 고졸, 미취업, 9)</li> <li>•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남성, 고졸 미취업, 3)</li> </ul>                 |
|          | 빠른<br>취업이<br>중요  | 현실<br>사회와의<br>타협<br>경험 중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뚜렷하게 뭘 하고 싶다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취업해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4)</li> </ul>                                                                                     |
| 고졸       | 원하는<br>직장이<br>중요 | 잡은 퇴사<br>및 후회<br>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8)</li> <li>•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만둔 경우가 있거든요.(여성, 고졸, 미취업, 9)</li> </ul>                                               |
|          | 빠른<br>취업이<br>중요  | 경험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말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해 봐야 아는 것이 조금이라도 경험을 더 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여성, 고졸, 취업, 5)</li> </ul>                                                                                |
| 전문<br>대졸 | 원하는<br>직장이<br>중요 | 흥미/적성<br>이 중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좀 늦게 취업해도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1)</li> </ul>                                                                                 |
|          | 빠른<br>취업이<br>중요  | 취업 준비<br>기간이<br>길수록<br>취업의<br>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다니면서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여성, 전문대졸, 취업, 15)</li> </ul>                                                                         |
|          |                  | 경험 중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뚜렷하게 뭘 하고 싶다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취업해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4)</li> <li>• 빨리 사회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경험해 보고 나한테 맞는 걸 거기에서 찾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ul> |
| 대졸       | 원하는<br>직장이<br>중요 | 행복 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여성, 대졸, 미취업자, 28)</li> </ul>                                                                                                       |
|          |                  | 잡은 퇴사<br>및 후회<br>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빨리 취직한다고 하면 나와 안 맞으면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안 좋을 것 같아서(남성, 대졸, 취업, 20)</li> </ul>                                                                                       |
|          | 빠른<br>취업이<br>중요  | 현실<br>사회와의<br>타협<br>경험 중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느 정도 자기와 스스로 타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타협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직장을 갖는 게 중요해요.(남성, 대졸, 미취업, 24)</li> </ul>                                                                      |

## ○ 취업의 중요요인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력 및 학벌을 취업에 있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에 있어 고졸 및 대졸의 경우 학력, 학벌이 더 중요하며, 전문대졸의 경우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남성의 경우 경험 활동 및 학벌, 여성의 경우 자격증, 흥미와 적성, 경험 활동이 취업에 중요요인이며, 취업에 있어 학력·학벌을 중요시하였다. 취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졸 학력, 학벌, 자격증, 경험 등 활동, 개인능력, 흥미와 전문성, 인맥, 학벌을

통한 인맥 등으로 대답하였다.

| 취업의 중요요인<br>(취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학력, 학벌, 능력 등) |      |                      |                                                                                                        |
|------------------------------------------------|------|----------------------|--------------------------------------------------------------------------------------------------------|
| 취업자                                            | 중요요인 | 자격증                  | • 자격증(여성, 전문대졸, 취업, 15)                                                                                |
|                                                |      | 학벌                   | • 좋은 기업에 붙는 걸 봐도 학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여성, 대졸, 취업, 25)                                                    |
|                                                |      | 경험 등 활동              | • 인턴 경력(여성, 대졸, 취업, 26)<br>• 실무적인 경험(남성, 전문대졸, 취업, 11)                                                 |
|                                                | 학력   | 최소 대졸                | • 대졸 정도는 되어야 수월하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남성, 고졸, 취업, 1)<br>• 4년제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1) |
|                                                | 학벌   | 판단기준은 학벌             | •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봐도 이력서를 보고 애는 어느 학교네? 하면서 스캔하는 게 달라지니까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요(여성, 전문대졸, 취업, 15)              |
|                                                | 개인능력 | 학벌/학력보다 개인 능력 중요/경쟁력 | •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역량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학벌보다 개인의 능력이 더 잘 맞춰주면 취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여성, 고졸, 취업, 6)                |
| 미취업자                                           | 중요요인 | 경험 등 활동              | • 저도 경력인 것 같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을까.(여성, 대졸, 미취업, 28)                                                   |
|                                                |      | 자격증                  | • 자격증(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                                                                               |
|                                                |      | 흥미/전문성               | • 적성과 흥미가 중요해요(여성, 고졸, 미취업, 9)                                                                         |
|                                                | 학력   | 최소 대졸                | • 보통 대학교 졸업이 보통이고.(여성, 고졸, 미취업, 8)<br>• 저는 대학교 졸업 정도.(남성, 고졸, 미취업, 4)                                  |
|                                                | 학벌   | 조건이 비슷하면 학벌 중시       | •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을 때 먼저 끝난 게 좋은 대학이라고 가정했을 때 좋은 대학교에 간 사람들이 좀 더 능력이 있으니까 갔다고 생각을 해요.(남성, 고졸, 미취업, 3)     |
| 고졸                                             | 중요요인 | 자격증                  | • 전문 지식은 아니고 가서 보고 생각하기에 적응 능력과 스펙 정도가 있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남성, 대졸, 미취업, 23)                              |
|                                                |      | 흥미                   | •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해요. 자격증을 따고(여성, 고졸, 취업, 7)<br>• 흥미(남성, 고졸, 미취업, 4)                                        |
|                                                | 학력   | 최소 대졸                | • 보통 대학교 졸업이 보통이고(여성, 고졸, 미취업, 8)<br>• 대졸 이후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여성, 고졸, 취업, 5)                          |
|                                                | 학벌   | 조건이 비슷하면 학벌 중시       | • 높은 학벌일수록 적응력과 흡수력이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벌을 보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남성, 고졸, 미취업, 4)                               |
|                                                | 개인능력 | 개인 능력 더 중요           |                                                                                                        |
| 전문대졸                                           | 중요요인 | 자격증                  | • 자격증(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                                                                               |
|                                                |      | 경험 활동                | • 회사에 맞는 경력이라든지 실무적인 경험(남성, 전문대졸, 취업, 11)                                                              |
|                                                |      | 인맥                   | • 자격증과 인맥. 눈도장.(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3)                                                                     |
|                                                | 학력   | 최소 대졸                | • 저도 학력이 전문대나 대졸이 있어야 입사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있는 게 확실히 좋다고 생각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3)                       |
|                                                | 학벌   | 학벌을 통한 인맥            | • 제가 느낀 건데 취업은 사실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잘 되고 좋은 방법인                                        |



|    |      |                 |                                                                                                                                                                    |
|----|------|-----------------|--------------------------------------------------------------------------------------------------------------------------------------------------------------------|
|    |      | 중요              | 데 그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완전 힘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에서도 많이 만나니까.(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4)                                                                                                    |
|    | 개인능력 | 개인능력이 학벌/학력 보완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단 둘이 있는 데 둘 다 능력치가 비슷하다면 그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학벌을 볼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기업들도 그렇고(남성, 전문대졸, 취업, 11)</li> </ul> |
| 대졸 | 중요요인 | 경험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경력인 것 같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을까.(여성, 대졸, 미취업, 28)</li> </ul>                                                               |
|    |      | 학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 사람의 개인능력 확인하기 전에 보는 게 학벌 또는 스펙이니까 확인하기 전에 학벌로 확인해서(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 학력   | 최소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대졸이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여성, 대졸, 미취업자, 28)</li> <li>기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게 요즘 사회의 인식(여성, 대졸, 취업, 25)</li> </ul>                       |
|    | 학벌   | 판단기준은 학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단 그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이 어찌됐는지 알기 전에 그 사람을 보는 건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에 오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걸로 먼저 거르는 것 같아요(여성, 대졸, 미취업, 27)</li> </ul>    |
|    | 개인능력 | 개인 능력 중요/경쟁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 지식은 아니고 가서 보고 생각하기에 적응 능력과 스펙 정도가 있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 일자리 눈높이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청년 및 기업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 취업자는 청년의 눈높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은 없고 말하였다. 고졸의 경우 기업에서 눈높이를 낮추기보다도 폭넓은 시야로 채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대졸 및 대졸의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였다.

| 일자리 눈높이 |            |                    |                                                                                                                                                                                                                                                                                          |
|---------|------------|--------------------|------------------------------------------------------------------------------------------------------------------------------------------------------------------------------------------------------------------------------------------------------------------------------------------|
| 취업자     | 일자리 눈높이 인식 | 청년 눈높이 낮춰야 할 필요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출대로 낮춘 것 같은데(남성, 고졸, 취업, 1)</li> <li>저는 각자 자기 스타일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라 딱히 눈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여성, 대졸, 취업, 26)</li> <li>저도 일단 개인의 자유이고 하나의 가치관이잖아요 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눈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여성, 대졸, 취업, 25)</li> </ul> |
|         |            | 청년 눈높이를 낮춰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아야 해요.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 너는 왜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남성, 고졸, 취업, 2)</li> <li>자기가 능력이 안되면 일단 아래 쪽에서 시작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li> </ul>                                                                                  |

|     |                  |                      |                                                                                                                                                                                                                                                                                                                                                                                                                      |
|-----|------------------|----------------------|----------------------------------------------------------------------------------------------------------------------------------------------------------------------------------------------------------------------------------------------------------------------------------------------------------------------------------------------------------------------------------------------------------------------|
|     |                  |                      | <p>도 눈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남성, 전문대졸, 취업,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어쨌든 기준이 있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취업하고 싶으면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남성, 대졸, 취업, 21)</li> </ul>                                                                                                                                                                                                                                  |
|     |                  | 기업의<br>눈높이를<br>낮춰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즘 중소기업도 바라는 게 너무 많고 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분들도 눈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여성, 전문대졸, 취업, 15)</li> <li>중소기업이 눈을 낮추기보다는 대기업이 다 블라인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여성, 대졸, 취업, 25)</li> </ul>                                                                                                                                                                                                                      |
|     |                  | 대기업<br>선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끼리도 갑과 을이 있는데 갑 회사에 있을수록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쪽이 좋을 것 같아요.(남성, 고졸, 취업, 1)</li> </ul>                                                                                                                                                                                                                                                                              |
|     |                  | 중소기업<br>선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능력이 되어서 바로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실제로 다녀보면서 경험도 쌓고 자기 가치를 올려서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li>대기업에 가기 오래 걸린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경험을 쌓아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남성, 전문대졸, 취업, 10)</li> </ul>                                                                                                                               |
| 미취업 | 일자리<br>눈높이<br>인식 | 중소기업<br>의 환경<br>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는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대우를 잘 안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8)</li> <li>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려가 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남성, 고졸, 미취업자, 4)</li> </ul>                                                                                                                                                      |
|     |                  | 청년<br>눈높이를<br>낮춰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희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대학을 나와도 다들 대기업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뉴스에서 보면 실업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높게 잡아서 실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여성, 고졸, 미취업자, 9)</li> <li>본인의 눈높이를 낮추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남성, 대졸, 미취업, 24)</li> <li>저도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낮추면 분명히 취업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후지니까 만족이 안 되고 욕심도 욕심인데 최소한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시간도 들었으니까 바라는 거지요.(남성, 대졸, 미취업, 22)</li> </ul> |
|     |                  | 기업의<br>눈높이를<br>낮춰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즘 뉴스를 보니까 중소기업도 사람을 무지하게 높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3)</li> </ul>                                                                                                                                                                                                                                                                                  |
|     | 대기업<br>선호        | 동기<br>부여/최종<br>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을 경험해 보고 나오더라도 경험해서 알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최종 목표는 대기업이지요.(남성, 고졸, 미취업, 4)</li> <li>대기업이 환경이 좋잖아요. 취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얻자는 마인드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남성, 고졸, 미취업, 4)</li> <li>첫 직장은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동기부여도 잘되고 중소기업에 있으면 계속 이직만 하다가 맴돌 것 같아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li> </ul>                                                |

|          |            |                                   |                                                                                                                                                                                                                                                                                                                                      |
|----------|------------|-----------------------------------|--------------------------------------------------------------------------------------------------------------------------------------------------------------------------------------------------------------------------------------------------------------------------------------------------------------------------------------|
|          |            |                                   | <p>위해서라면 오래 걸리더라도 준비할 것 같아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에 가서 후회할 바에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 중소기업<br>선호 | 근무 여건<br>충족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중소기업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여성, 고졸, 미취업, 8)</li> </ul>                                                                                                                                                                                                                              |
| 고졸       | 일자리<br>높이  | 기업에서<br>눈높이가<br>아닌<br>넓은 지야<br>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눈높이를 낮추기보다는 폭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학력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서류라도 낼 수 있게 해 주고 그 사람을 평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학력 얘기하셨지만 아예 막혀있는 경우도 많고. 대졸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여성, 고졸, 취업, 5)</li> </ul>                                                                                                                    |
|          |            | 중소기업<br>의 환경<br>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대우를 잘 안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8)</li> <li>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고루 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남성, 고졸, 미취업자, 4)</li> </ul>                                                                      |
|          | 대기업<br>선호  | 동기<br>부여/최종<br>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을 경험해 보고 나오더라도 경험해서 알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최종 목표는 대기업이지요. ..대기업이 환경이 좋잖아요. 취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얻자는 마인드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남성, 고졸, 미취업, 4)</li> </ul>                                                                                            |
|          | 중소기업<br>선호 | 개인의<br>역량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은 제가 고졸이니까 그에 맞는 사람을 원해요. 대기업도.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빨리 그만두게끔 해요. 필요할 때 쓰고 버린다는 식으로.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탄탄하게 더 오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여성, 고졸, 취업, 5)</li> </ul>                                                                                                                                      |
| 전문<br>대졸 | 일자리<br>높이  | 청년<br>눈높이를<br>낮춰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중소기업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여성, 고졸, 미취업, 8)</li> </ul>                                                                                                                                                                                                                              |
|          |            | 기업의<br>눈높이를<br>낮춰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가 능력이 안되면 일단 아래 쪽에서 시작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눈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li>요즘 중소기업도 바라는 게 너무 많고 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분들도 눈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여성, 전문대졸, 취업, 15)</li> <li>요즘 뉴스를 보니까 중소기업도 사람을 무지하게 높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3)</li> </ul> |
|          | 대기업<br>선호  | 동기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에 있으면 계속 이직만 하다가 맴돌 것 같아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라면 오래 걸리더라도 준비할 것 같아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7)</li> </ul>                                                                                                                                                                                   |
|          | 중소기업<br>선호 | 역량/경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능력이 되어서 바로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실제로 다녀보면서 경험도 쌓고 자기 가치를 올려서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여성, 전문대졸, 취업, 15)</li> </ul>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에 가기 오래 걸린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경험을 쌓아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남성, 전문대졸, 취업, 10)</li> </ul>                                                                                                                       |
| 대졸 | 일자리<br>눈높이 | 청년<br>눈높이<br>낮출 필요<br>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각자 자기 스타일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라 딱히 눈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여성, 대졸, 취업, 26)</li> <li>• 저도 일단 개인의 자유이고 하나의 가치관이잖아요 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눈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여성, 대졸, 취업, 25)</li> </ul> |
|    | 대기업<br>선호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가서 후회할 바에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 공시족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자격증시험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취업유무 상관없이 ‘워라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및 대졸의 경우 안정적인 근무환경 때문에, 전문대졸의 경우 워라벨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남성은 ‘워라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근무 조건’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 공시족<br>(공무원이나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         |                                      |                                                                                                                              |
|----------------------------------|---------|--------------------------------------|------------------------------------------------------------------------------------------------------------------------------|
| 취업<br>자                          | 선호      | 안정적인<br>근무환경<br>및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이 편하고 나중을 봤을 때 대기업보다 오래 일할 수 있어서.(여성, 고졸, 취업, 5)</li> </ul>                        |
|                                  |         | 업무<br>스트레스<br>및 야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춰진 시간에 출근하고 맞춰진 시간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남성, 고졸, 취업, 1)</li> </ul>                      |
|                                  |         | 워라벨<br>(Work<br>and Life<br>Bal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더라도 자기만의 생활이 있고 일과 자기 생활이 분리된 곳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1)</li> </ul>       |
|                                  |         | 노후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밥통, 직업의 안전성 연금도 좋고 복지도 좋고 칼퇴근이 보장되어 있고(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미취<br>업자                         | 비선<br>호 | 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모자람 없이 키울 수 있어서 대기업이 더 좋을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0)</li> </ul>                   |
|                                  | 공정      | 안정적인<br>근무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li> <li>• 직업의 안정성(여성, 대졸, 미취업, 27)</li> </ul>       |
|                                  |         | 워라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삶을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4)</li> </ul>                           |
|                                  | 비선<br>호 | 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이 급여도 더 많고 대기업에서도 충분히 임지를 쌓으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li> </ul> |
| 고졸                               | 선호      | 안정적인<br>근무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여성, 고졸, 미취업, 9)</li> </ul>                                              |

|          |     |             |                                                                                                                                        |
|----------|-----|-------------|----------------------------------------------------------------------------------------------------------------------------------------|
|          |     | 및 조건        | • 대기업보다 일이 편하고 나중을 봤을 때 대기업보다 오래 일할 수 있어서(여성, 고졸, 취업, 5)                                                                               |
|          |     | 노후 보장       | • 대기업에서 퇴직할 때까지 받는 연금과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걸 보면 공무원 수익이 많다고 해서(남성, 고졸, 미취업, 4)                                                    |
| 전문<br>대졸 | 선호  | 워라벨         | • 자기 삶을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4)                                                                                       |
|          |     | 야근 빈도       | • 공무원은 쉬는 날을 다 쉬고 그런데 대기업은 야근도 많고.(여성, 전문대졸, 취업, 16)                                                                                   |
|          | 비선호 | 기업의 보수 및 경력 | • 대기업이 급여도 더 많고 대기업에서도 충분히 입지를 쌓으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br>• 자녀를 모자람 없이 키울 수 있어서 대기업이 더 좋을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0) |
| 대졸       | 선호  | 안정적인 근무환경   | • 직업의 안정성(여성, 대졸, 미취업, 27)                                                                                                             |
|          |     | 업무 스트레스     | • 직업의 안정성과 업무의 강도가 낮다.(여성, 대졸, 취업, 25)                                                                                                 |
|          | 비선호 | 이직의 자유      | • 대기업에서 바짝 벌고 어차피 요새는 평생직장이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한 2,3년 경력만 쌓고 바짝 벌고 1년 쉬다가 다른 직장을 준비하거나 그럴것 같아요.(남성, 대졸, 미취업, 22)                               |

## (7) 정책적 지원

신규졸업자의 정책적 지원 관련하여 정부의 취업정책, 정책적 지원 요구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를 취업유무별,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 성별로 분석하였다.

취업유무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취업 정책은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취업자의 경우 청년취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며, 미취업자의 경우에서도 정책의 운영 개선 및 다양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정부 및 지자체의 금전적인 지원과 취업정책의 실질적인 정책 운영 및 홍보, 기업체에서는 고용(인턴십 등) 확대 및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

교육별(고졸/전문대졸/대졸)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취업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높으며, 청년수당 지급 등 정책들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고졸의 경우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대졸 및 대졸의 경우 청년취

업정책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청년취업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활동이 필요하며, 청년수당에 대해 남성 및 여성 모두 긍정적으로 말하였다. 남성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 취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취업 정책의 효율성을 필요로 하였다.

### ○ 정부의 취업정책

정부의 취업 정책은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취업자의 경우 청년취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며, 미취업자의 경우에서도 정책의 운영 개선 및 다양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취업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높으며, 청년수당 지급 등 정책들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청년취업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활동이 필요하며, 청년수당에 대해 남성 및 여성 모두 긍정적으로 말하였다.

| 정부의 취업정책 |          |             |                                                                                                                                                                                                                                                                                                                      |
|----------|----------|-------------|----------------------------------------------------------------------------------------------------------------------------------------------------------------------------------------------------------------------------------------------------------------------------------------------------------------------|
| 취업자      | 청년취업지원정책 | 실효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같은 게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고 숙련 패키지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기업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더 강화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여성, 대출, 취업, 25)</li> </ul>                                                                                                                                                       |
|          | 청년수당     | 취업준비에 도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에 다니라면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선불리 못 다녔을 것 같고 제가 받은 돈도 도움이 됐고 학원에서 받은 기술력도 도움이 됐어요.(여성, 대출, 취업, 25)</li> <li>•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기가 자리를 잡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출, 취업, 11)</li> <li>• 좀 더 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준비를 오랫동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남성, 고졸, 취업, 1)</li> </ul> |
|          |          | 적용 조건 개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집이 좀 살고 있으면 안 해 줄 것 같아요(여성, 대출, 취업자, 26)</li> <li>• 좋은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그런 면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여성, 전문대출, 취업, 15)</li> </ul>                                                                                                                                      |
| 미취업      | 청년취업지원정책 | 제도 운영 개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쉬운 게 상담자가 빨리 바뀌는 것도 아쉬웠는데 생각보다 정보 제공이 적은 느낌이에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상담자 한 두 명이 100명 정도를 상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수가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잘 안 해 주더라고요(여성, 고졸, 미취업, 9)</li> </ul>                                                                                                                     |

|      |          |                                            |                                                                                                                                                                                                                                                                       |
|------|----------|--------------------------------------------|-----------------------------------------------------------------------------------------------------------------------------------------------------------------------------------------------------------------------------------------------------------------------|
|      |          |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해요. 금전적인 지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적성을 찾는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8)</li> </ul>                                                                                                         |
|      | 청년수당     | 취업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단 취준을 하려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공부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청년 수당을 받으면 내가 그 돈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고 여윌돈을 만들 수도 있어서(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7)</li> <li>•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니까(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li> </ul>              |
|      |          |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혈세만 낭비할 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남성, 고졸, 미취업, 3)</li> </ul>                                                                                                                                                 |
| 고졸   | 청년취업지원정책 | 청년 창업 기업 및 7년 미만 중견 기업에서 청년 고용 시 70-80%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남성, 고졸, 취업자, 2)</li> </ul>                                                                                                                                                                  |
|      |          | 청년 복지 포인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복지 포인트라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복지 포인트를 년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인 같은 채용사이트를 확인하다 보면 그런 걸 가깝게 볼 수 있어요.(여성, 고졸, 취업, 6)</li> <li>•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인크루트에서 봤어요.(남성, 고졸, 취업, 1)</li> </ul>                                                 |
|      | 청년수당     |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안하고 실제로 지인 분들 명함 받으면서 거기다 싸인해 놓고 여기에서 면접 봤다고 거짓말하고 청년수당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남성, 고졸, 취업자, 2)</li> <li>• 그걸 장려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필요하면 빨리 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천천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악용 사례도 있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별로예요.(여성, 고졸, 취업, 5)</li> </ul>            |
| 전문대졸 | 청년취업지원정책 | 취업 소개기/청년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본 경우도 있고(남성, 전문대졸, 취업자, 12)</li> </ul>                                                                                                                                                         |
|      |          | 내일 채용 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에서 얼마 지원해서 한 달에 3만원씩 1600에 이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청년들 목돈 마련해 주면서 서로 원원할 수 있지 않을까(남성, 전문대졸, 취업, 12)</li> </ul>                                                                                                                 |
|      | 청년수당     | 취업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단 취준을 하려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공부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청년 수당을 받으면 내가 그 돈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고 여윌돈을 만들 수도 있어서(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7)</li> <li>•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기가 자리를 잡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남성, 전문대졸, 취업, 11)</li> </ul> |
| 대졸   | 청년취업     | 취업패키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패키지. 중소기업에 가면 2년 적금 하면 1600만원 인가 줘요(여성, 대졸, 취업자, 25)</li> </ul>                                                                                                                                                            |

|  |      |                     |                                                                                                                                                                                                                                                                                         |
|--|------|---------------------|-----------------------------------------------------------------------------------------------------------------------------------------------------------------------------------------------------------------------------------------------------------------------------------------|
|  | 지원정책 | 희망 청년/내일 배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서울 부산에서 희망 청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내일 배움 이런 것처럼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한테 혜택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 교통비 주는 것도 하고. SNS로 알게 됐어요.(남성, 대졸, 취업, 20)</li> </ul>                                                                                                        |
|  |      | 청년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수당. 학교에서 듣고 또는 라디오나 실시간 검색어 포털로 많이 들었어요.(남성, 대졸, 미취업, 22)</li> </ul>                                                                                                                                                                          |
|  | 청년수당 | 취업 준비에 대한 금전적 부담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준비를 하면 금전적인 부담이 클 텐데 그걸 준다는 것만으로 크게 도움(여성, 대졸, 취업자, 25)</li> <li>지원으로 부담감을 덜어줘야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남성, 대졸예정자, 미취업, 23)</li> </ul>                                                                                                              |
|  |      | 조건 등 개선이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준비생들은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4대 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거나 가입된 형태는 그 조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여성, 대졸, 취업, 25)</li> <li>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한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심사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시행(남성, 대졸예정자, 미취업, 23)</li> </ul> |

### ○ 정부 정책 요구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정부 및 지자체의 금전적인 지원과 취업정책의 실질적인 정책 운영 및 홍보, 기업체에서는 고용(인턴십 등) 확대 및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 고졸의 경우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대졸 및 대졸의 경우 청년취업정책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남성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 취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취업 정책의 효율성을 필요로 하였다.

| 정책적 요구 |          |                      |                                                                                                                                                                                  |
|--------|----------|----------------------|----------------------------------------------------------------------------------------------------------------------------------------------------------------------------------|
| 취업자    | 정부 및 지자체 | 금전적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취업, 6)</li> </ul>                                                                                    |
|        |          | 서류과정의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까지 알아보면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안 까다로웠으면 좋겠어요(남성, 대졸, 취업, 21)</li> </ul>                                                        |
|        |          | 기업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기회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으로 실습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취업, 7)</li> <li>하고 싶은 것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지원해줘서 적성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반이 있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취업, 5)</li> </ul> |
|        | 기업       | 블라인드 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블라인드 채용을 했으면 좋겠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인턴 같은 것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너무 적어요(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          |                           |                                                                                                                                                                                                                                     |
|------|----------|---------------------------|-------------------------------------------------------------------------------------------------------------------------------------------------------------------------------------------------------------------------------------|
|      |          | 인턴십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을 다양하게 보고 실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남성, 대출, 취업, 21)</li> </ul>                                                                                                                        |
| 미취업  | 정부 및 지자체 | 금전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 해줄 수 있는 게 돈인 것 같고(남성, 대출, 미취업, 24)</li> </ul>                                                                                                                        |
|      |          |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와 관련된 일을 잘 알고 있는 상담자를 배치해서 정보 제공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9)</li> </ul>                                                                                                               |
|      |          | 청년지원정책 정보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청년수당이나 그런 제도가 정보 제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보 제공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여성, 전문대출, 미취업, 18)</li> </ul>                                                                                                  |
|      | 기업       | 고용 및 인턴십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십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남성, 전문대출, 미취업, 14)</li> <li>• 사람들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고 남녀 균등하게 뽑았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9)</li> </ul>                                                             |
| 고졸   | 정부 및 지자체 | 근무환경 개선 등 정책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 환경 개선 정책(여성, 고졸, 미취업, 8)</li> <li>• 태도가 좀 더 존중해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취업, 7)</li> </ul>                                                                                                        |
|      |          | 인턴십 등 적성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와 관련된 일을 잘 알고 있는 상담자를 배치해서 정보 제공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9)</li> </ul>                                                                                                               |
|      | 기업       | 대우 등 근무환경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환경이나 연봉을 좋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남성, 고졸, 미취업, 4)</li> <li>• 기업이 일단 사회적 책임을 꼭 안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 데 대신에 일한 만큼 주고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는 걸 뚜렷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남성, 고졸, 미취업, 3)</li> </ul>                 |
|      |          | 고용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고 남녀 균등하게 뽑았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9)</li> </ul>                                                                                                                             |
| 전문대출 | 정부 및 지자체 | 서류과정의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제출하는 과정이 있어서 복잡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간소화 해준다면 보완이 필요해요.(여성, 전문대출, 미취업, 19)</li> </ul>                                                                                                 |
|      |          | 청년지원정책 정보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청년수당이나 그런 제도가 정보 제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보 제공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여성, 전문대출, 미취업, 18)</li> </ul>                                                                                                  |
|      |          | 기업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기회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같은 게 정부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여성, 전문대출, 미취업, 17)</li> <li>• 구나 지자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도록 멘토링 할 수 있는 사람, 인사 담당자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해주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남성, 전문대출, 미취업, 14)</li> </ul> |
|      | 기업       | 채용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적인 부분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여성, 전문대출, 미취업, 17)</li> <li>• 기업 자체가 조금 눈을 낮춰서 기회를 동등하게 주면 좋겠어요.(여성, 전문대출, 미취업, 18)</li> </ul>                                                            |
|      |          | 인턴십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십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남성, 전문대출, 미취업, 14)</li> </ul>                                                                                                                            |
| 대출   | 정부 및 지자체 | 금전적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 해줄 수 있는 게 돈인 것 같고(남성, 대출, 미취업, 24)</li> </ul>                                                                                                                        |
|      |          | 서류과정의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수당이나 이런 것처럼 좀 직/간접적으로 청년들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돈이거든요.(남성, 대출, 미취업, 22)</li> <li>• 정부가 금전적으로나 취업 정보도 많이 도움을 주</li> </ul>                                                                          |

|    |          |                      |                                                                                                                                                                                                                                                      |
|----|----------|----------------------|------------------------------------------------------------------------------------------------------------------------------------------------------------------------------------------------------------------------------------------------------|
|    |          |                      | 면 좋겠고 조건이 안 까다로웠으면 좋겠어요.(여성, 대졸, 취업, 26)                                                                                                                                                                                                             |
|    | 기업       | 고용 및 인턴십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블라인드 채용을 했으면 좋겠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인턴 같은 것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너무 적어요.(여성, 대졸, 취업, 26)</li> </ul>                                                                                                                 |
|    |          | 채용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무적인 능력을 보거나 체험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조금 더 자리 수를 늘려서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유익하지 않을까.(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남성 | 정부 및 지자체 | 기업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기회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무적인 능력을 보거나 체험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조금 더 자리 수를 늘려서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유익하지 않을까.(남성, 대졸, 미취업, 23)</li> <li>기업에서는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남성, 대졸, 미취업, 24)</li> </ul>                             |
|    |          |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기업과 연계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더 관련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남성, 대졸, 미취업, 23)</li> </ul>                                                                                   |
|    | 기업       | 인턴십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을 다양하게 보고 실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남성, 대졸, 취업, 21)</li> <li>인턴십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4)</li> </ul>                                                                             |
|    |          | 취업 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기업에서 많이 안 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정보가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남성, 대졸, 미취업, 22)</li> <li>자세하게 알 수 있게 알려주고 확실하게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남성, 전문대졸, 미취업, 13)</li> </ul> |
|    | 정부 및 지자체 | 기업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기회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같은 게 정부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7)</li> </ul>                                                                                                                                        |
|    |          | 서류과정의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잡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간소화 해준다든지 보완이 필요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9)</li> </ul>                                                                                                                   |
|    |          | 금전적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여성, 대졸, 미취업, 27)</li> </ul>                                                                                                                                                                      |
|    |          | 청년지원정책 정보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는 청년수당이나 그런 제도가 정보 제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보 제공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li> </ul>                                                                                                                     |
| 여성 | 기업       | 대우 등 근무환경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 환경 개선 정책(여성, 고졸, 미취업, 8)</li> </ul>                                                                                                                                                                        |
|    |          | 고용 및 인턴십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들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고 남녀 균등하게 뽑았으면 좋겠어요.(여성, 고졸, 미취업, 9)</li> </ul>                                                                                                                                                |
|    |          | 채용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용했을 때 블라인드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력서에 써야 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여성, 대졸, 취업, 25)</li> <li>기업 자체가 조금 눈을 낮춰서 기회를 동등하게 주면 좋겠어요.(여성, 전문대졸, 미취업, 18)</li> </ul>                             |

### 3. 정책적 시사점

최근 11년간(2009~2018) 신규졸업자의 취업률 저조,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대책 뿐 아니라 교육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신규졸업자의 일과 생활실태 면담을 통하여 청년 개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면담조사결과 시사점 및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신규졸업자는 학교를 떠난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지원 시스템 마련과 학교 평가지표에 반영 고려, 둘째, 어떤 정보도 소속도 없이 취업준비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셋째,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취업상담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필요, 넷째, 신규졸업자 첫 일자리 이행을 위해서는 3-6개월, 1-2년, 2-3년 이상의 단기·중장기 취업준비 지원정책이 필요, 다섯째, 신규졸업자의 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필요, 여섯째, 일자리 격차완화를 위해서 직장의 연봉, 복지, 업무시간 단축,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필요, 일곱째, 실무교육이 필요함으로 학교-기업-지역기관과의 협업 교육과정 운영, 여덟째, 고졸 신규 졸업자에게 더욱 취약한 진로 및 취업계획 정책 강화, 아홉째, 취업준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 열번째, 단순직종보다는 신규졸업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내용의 직종개발, 열한번째, 신규졸업자에 대한 청년 및 기업 모두 눈높이를 맞춰서 취업기회 확대 대책마련, 열두번째, 정부 및 지자체의 취업준비 지원 청년수당 활성화와 취업정책의 홍보 활성화 열세번째, 청년 신규졸업자에 대한 일과 생활실태 후속연구 필요를 제언하였다.

표 IV-6 면담조사 결과 신규졸업자의 어려움 및 정책적 시사점

| 영역          | 어려움 및 요구사항                                                                                                                                                                                                                                                                                                       | 정책적 시사점                                                                                                                                                                                                                                                                                                                                                                                                                            |
|-------------|------------------------------------------------------------------------------------------------------------------------------------------------------------------------------------------------------------------------------------------------------------------------------------------------------------------|------------------------------------------------------------------------------------------------------------------------------------------------------------------------------------------------------------------------------------------------------------------------------------------------------------------------------------------------------------------------------------------------------------------------------------|
| 일상 생활 사회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졸업자들은 취업에 도움을 받는 대상이 가족과 친구에게 머물러있어 학교 및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족</li> <li>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li> <li>특히 신규 고졸은 진로 및 취업을 의논할 사람(멘토)이 없어 사회관계망 부족</li> <li>졸업 후 갑자기 사회적 관계망 없이 개별화된 어려움에 처함</li> <li>진로 및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또래 친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졸업자는 학교를 떠난지 얼마 안되었음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및 관계망 지원시스템 마련</li> <li>고졸 신규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li> <li>가족과 단절된 신규졸업자 특성에 맞는 사회지원망 및 소속감을 주는 프로그램 마련</li> <li>상시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전화 운영</li> <li>대부분 친구가 멘토 임으로 또래 멘토, 상호멘토의 역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li> </ul>                                                                                                                            |
| 진로 및 취업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졸업자들은 인턴십 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계획에 도움받기를 원함. 특히 고졸 신규졸업자는 인턴십 체험프로그램 등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없는 문제</li> <li>대부분의 신규졸업자들은 진로 및 취업계획에 도움을 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학교, 기관, 친구, 선배, 멘토, 컨설팅, 정책지원 등) 인터넷으로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하고 학교나 사회시스템에 기대가 크지 않은 편임</li> <li>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겠다고 대부분 말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 및 취업계획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대상의 직업훈련, 인턴십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시급함. 고졸 신규졸업자가 특히 진로 및 취업계획의 취약계층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대졸에 비해 고졸 신규의 첫 취업 이행기간이 가장 장기화되고 있음</li> <li>선 취업 후 진학이나 일-학습병행제도의 활성화와 홍보필요</li> <li>청년 진로 및 취업 계획 포털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및 모니터링 필요</li> <li>청년 현장 진로 및 취업 박람회, 진로포럼 등 지역별 학교중심 취업계획 정보나눔 플랫폼</li> <li>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직장을 찾겠다는 의견이 많음으로 진로 및 취업계획 지원과 일자리의 질이 매우 중요한 정부 대책임을 알 수 있음</li> </ul> |
| 취업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준비 기간이 단기, 중기, 장기로 다양함(단기간, 1년, 2-3년, 3년 이상 등)</li> <li>취업유무별, 학력별로 취업준비 내용에 대한 요구가 다름</li> <li>취업준비를 위해 미취업자는 외국어공부, 자격증공부를 하고 있고, 돈과 인맥을 필요로 함</li> <li>취업준비에서 고졸은 외국어공부, 멘토를 필요로 하며, 전문대졸은 서류작성, 자격증공부, 정보제공필요, 대졸은 취업학원 및 컨설팅을 필요로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졸업자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장기화, 다양화되고 있음으로 단기간 취업, 1년간 취업준비, 2-3년간 취업준비, 3년 이상 취업준비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단기, 중장기적 첫 취업준비생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li> <li>취업준비 내용에 학력별, 취업유무별로 필요로 하는 차이가 나타남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는 취업준비지원</li> <li>취업준비에 필요한 재정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를 위한 모라토리움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마련</li> <li>신규졸업자의 취업준비-입직,진입-직장적응 단계별 통합적 정책 필요</li> </ul>                                                                    |

|           |                                                                                                                                                                                                                                                                                                               |                                                                                                                                                                                                                                                                                                                                      |
|-----------|---------------------------------------------------------------------------------------------------------------------------------------------------------------------------------------------------------------------------------------------------------------------------------------------------------------|--------------------------------------------------------------------------------------------------------------------------------------------------------------------------------------------------------------------------------------------------------------------------------------------------------------------------------------|
| 취업 후 이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후 이직하는 이유는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이 아니라 기대와 다르고 배울 것도 없음, 이상과 현실의 차이, 직장 내 부당함, 동료와 갈등, 무시당함이 대부분이었음</li> <li>취업 후 만족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 연봉, 복리후생, 워라밸(일과생활균형) 등</li> <li>취업 후 불만족하는 이유는 잦은 야근과 회식, 출장, 엄격한 상하관계, 일이 적성에 맞지 않음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후 이직 이유가 기대와 달라서인 경우는 신규졸업자 뿐 아니라 기업에도 불이익임으로 학교에서 직장 이행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좁혀지도록 취업관련 과목 필요</li> <li>조기이직의 배경으로 신규졸업자 직장내 고용관리상의 문제개선을 위한 기업교육 프로그램</li> <li>입사 후 초반 3개월간의 신규졸업자의 직장 적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li> <li>직업훈련은 근속유지보다 경력유지 중심으로 경력개발 프로그램 마련</li> </ul>                                   |
| 일자리의 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조건에 대해 연봉, 복지, 업무시간, 안정성, 워라밸(일과 생활균형), 근무환경을 중시</li> <li>좋은 일자리를 학력별로 고졸은 높은 연봉과 경력 인정을, 전문대졸은 근무 환경을, 대졸은 복지혜택으로 생각함</li> <li>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 원함</li> <li>신규졸업자 청년 및 기업 모두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 기회 확대를 원함. 스펙만으로 과열되는 문제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격차완화를 위해서 직장의 연봉, 복지, 업무시간 단축,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li> <li>학력별로 현재 필요로 하는 일자리 대책 지원이 필요함. 고졸은 높은 연봉과 경력 인정을, 전문대졸은 근무 환경을, 대졸은 복지혜택이 좋은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함.</li> <li>개인의 능력과 꿈 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취업준비기간에 대한 질적 프로그램과 기간에 대한 지원 필요</li> <li>단순한 직종보다는 신규졸업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내용의 직종 개발</li> </ul>  |
| 학교 교육 유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졸업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과 직장에서의 실무가 너무 달라 취업에 어려움</li> <li>학교의 취업 지원은 형식적이며,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센터 시설, 프로그램 개선 필요</li> <li>특히 고졸은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부족, 진로상담보다 수업위주, 한정적 정보 제공에 대한 어려움</li> <li>취업관련은 학원이 더 도움이 되며, 학교는 주변 사람들 친구들과의 만남 때문에 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교육이 필요함으로 학교-기업-지역기관과의 실질적 협업 교육과정 운영 필요</li> <li>직업훈련은 근속유지보다 경력유지 중심 필요</li> <li>단기적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사회구조적 대책 뿐 아니라 교육적 대책 마련으로 정책 활용도 제고도 향상</li> <li>신규졸업자의 학교네트워크 활용지원</li> <li>학교에서의 주기적인 기업 설명회 정례화</li> <li>학교가 기업, 취업 관련 학원이나 기관을 협력, 활용하여 직접적인 맞춤형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li> </ul> |
| 정책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이 체감하는 지원으로 호응이 높은 것은 청년수당, 재정지원, 정보제공 요구</li> <li>기업체에서는 고용(인턴십 등) 확대 및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 기업이 고용확대와 채용개선으로 일자리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무능력,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과 청년이 눈높이 맞추어 채용을 원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및 지자체의 취업준비 지원 청년수당 활성화, 적응조건과 접근성을 쉽게 개선 필요</li> <li>고졸 청년에 적합한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필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취업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음</li> <li>청년 정책에 대하여 학교나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적극 홍보</li> </ul>                                                                                                                        |

## 1) 신규졸업자는 학교를 떠난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지원시스템 마련과 학교 평가지표에 반영 고려

신규졸업자는 학교를 떠난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및 관계망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평가지표에서 신규졸업자 지원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면담결과, 신규졸업자들은 학교보다는 가족의 영향이 크고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가족 중심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 시스템 이용보다는 친구에게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을 하고 있다. 용돈 및 생활비를 위한 대출경험은 다소 있으며, 학교졸업 후 학교라는 소속감과 공동체가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오프라인 공동체가 거의없고,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눈치를 보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듯 신규졸업자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도움을 받는 대상이 가족과 친구에게 대부분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회적 지원이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해결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족과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청년들도 언제든지 정보 문의와 상담 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 신규졸업자는 학교 졸업한 지가 2년 이내의 청년들이므로 학교에서 개별적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정보관리와 학교 도서관이용 등 소속감을 주고 사회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평가(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신규졸업자 지원항목을 평가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어떤 정보도 소속도 없이 취업준비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대책

면담결과, 고졸 신규졸업자의 경우 전문대졸 및 대졸에 비해 취업준비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멘토가 더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졸 신규졸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준비 상담 멘토와 사회적 관계망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대졸에 비해 고졸의 첫 일자리로 이행기간이 가장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고졸과 미취업 신규졸업자는 학교 등 선후배의 네트워크가 거의 없어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현직에 있는 멘토를 희망하였다.

더불어 고졸 뿐만이 아니라 학력에 상관없이 신규졸업자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도움을 받는 대상이 가족과 친구에게 대부분 머물러 있다는 면담결과에서와 같이 가족과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청년들도 포함하여 취업준비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청년 신규졸업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정보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가칭)원스톱 청년 취업상담 전화를 만들어서 신규졸업자, 고졸, 대졸, 성별, 취업유무별 다양한 특성에 맞는 진지한 컨설팅이 될 수 있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면담결과, 대부분의 신규졸업자들은 진로 및 취업계획에 도움을 주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학교, 기관, 친구, 선배, 멘토, 컨설팅 등)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신규졸업자들은 진로 및 취업계획을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등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하려하고 있고 학교나 사회시스템에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로 및 취업계획 관련 취업자는 적성검사 및 친구의 영향을, 미취업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 및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자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사회관계망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미취업자는 개인적 혼자만의 노력에 머물러있는 경향이 보였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계획에 있어서 사회적 시스템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진로 및 취업계획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대상의 직업훈련, 인턴십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 3)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취업상담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직장을 찾겠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계획 지원과 취업준비, 일자리의 질, 일자리 격차완화가 매우 중요한 정부 대책임을 알 수 가 있다.

면담결과 진로 및 취업계획 관련하여 적성 및 진로에 대해 취업자는 적성검사 및 친구의 영향을, 미취업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 및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인턴십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계획에 도움받기를 원하였다. 고졸은 선생님, 친구 등 지인의 도움, 전문대졸 및 대졸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면담결과를 통해, 진로 및 취업계획 관련 사회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객관적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미취업자들은 본인 스스로 결정 및 가족의 영향을 주로 받고 고졸은 사회적 관계망이나 인턴십 체험기회가 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진로 및 취업계획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졸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진로 및 취업계획을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등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하려하고 있고 학교나 사회시스템에 기대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신규졸업자나 미취업자, 고졸, 대졸, 성별로 맞는 진로상담의 접근성이 쉽지 않거나 1차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고 진로나 취업계획을 위한 정보습득이나 사회 시스템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의 사람으로는 취업을 한 친구, 이해 및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멘토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 멘토, 상호 멘토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졸 신규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계획 대책과 관련하여 대학 미진학자를 대상으



로 향후 대학 진학 의사는 2013년 14.2%에서 2017년 3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는 선 취업 후 진학이나 일-학습병행제도 등과 같은 정책추진과 관련이 있는데 대학은 고졸 직후 꼭 가야하는 필수코스라기 보다는 추후 일과 함께 병행하여 언제든 갈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따라서 대학 미진학자, 고졸 신규의 진로 및 취업계획 관련하여 선 취업 후 진학이나 일-학습병행제도의 활성화와 홍보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활용에 탁월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포털 진로 취업계획 및 체험프로그램과 상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창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포털과 전화 상담에 대한 적합성, 정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포털에서 개인정보 및 신고체제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년 진로 및 취업 계획 포털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및 모니터링 필요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뿐아니라 청년현장 진로 박람회, 진로포럼 등으로 상시적인 오프라인 정례 모임 등으로 진로 및 취업계획 정보나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 4) 신규졸업자 첫 일자리 이행을 위해서 3~6개월, 1~2년, 2~3년 이상의 단 기·중장기 취업준비 지원정책 필요

면담결과,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취업자는 직무공부, 취업학원에 투자하였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및 면접을 위한 멘토와 컨설팅을 필요로 하였으며, 미취업자는 외국어공부, 자격증공부를 하고 있고, 돈과 인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고졸은 외국어, 멘토가 필요하며, 전문대졸은 서류작성, 자격증공부, 정보제공, 대졸은 취업학원 및 컨설팅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남성은 외국어, 경력준비, 정보제공, 컨설팅을 필요로 하고, 여성은 자격증, 직무공부,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취업자는 외국어와 자격증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준비 재정지원과

인맥, 멘토, 컨설팅,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15~29세)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school to work) 이행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첫 취업 소요기간의 장기화이며(한국행정연구원, 2018; 한요셉, 2017), 특히 고졸자에게서 두드러진다(한요셉, 2017). 지난 10년(2008년에서 2017년) 동안 첫 취업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11~12개월로 대부분 나타났지만,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첫 취업소요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10년 동안 증가하였다(김정숙, 2018: 96). 이러한 현상은 최근 3년간 첫 취업 소요기간의 평균만이 아니라 3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이 줄고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단기 취업준비 지원정책 뿐 아니라 1~3년 동안 첫 취업준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신규졸업자 첫 일자리 이행을 위해서는 3~6개월 미만 단기 첫 취업준비 지원정책, 1~2년 미만, 3년 이상의 중장기 취업준비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년 신규졸업자가 일자리 진입을 하기 위한 취업준비에 필요한 재정과 프로그램, 사회 연결망,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실제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한요셉(2017)은 졸업 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성별, 교육수준별로 공통적으로 관찰되며 특히 대졸과 전문대졸뿐만 아니라 고졸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제시하였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은 과거보다 뚜렷하게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졸자에게서 두드러진다. 이렇듯 졸업 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 장기화 현상은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첫 취업 소요기간의 장기화 현상은 취업준비의 장기화 현상과 연동되므로 연장선상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5) 신규졸업자의 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필요

면담조사 결과, 취업 후 이직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이상과의 현실 괴리,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 직장 내 부당함, 자격증 준비, 동료와의 갈등이라고 말하였다. 관련하여 취업 후 만족하는 이유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만족, 월급인상, 복리후생 개선(점심시간 한시간 반 등), 일과 생활의 확실한 분리로 자기 생활이 있고 일과 분리되는 워라벨을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취업 후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잦은 야근과 회식, 빈번한 출장, 엄격한 상하관계, 직장 내 나이차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은 점이라고 말하였다.

취업 후 이직하는 이유가 이상과 현실 괴리, 기대와 달라서 라는 의견은 취업 청년과 기업 모두 불이익이므로 실제로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에서 이상과 현실 괴리가 좁혀지도록 실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업선발기준의 공론화도 필요하다. 또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단순 자격증 준비뿐만 아니라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경력관리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담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취업 후 이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박건, 국미애(2016), 한요셉(2017), 고스기 네이코(2018), 한국행정연구원(2018)의 논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박건, 국미애(2016)는 첫 일자리 경험에서 이직이 대부분이며 첫 일자리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직장생활에 대한 청년여성의 기대치와 실제 수준의 격차 때문으로 보았다. 한요셉(2017)은 직업훈련은 근속 유지보다 경력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직자와 근속자의 차이에 대하여 고스기 네이코(2018)는 입사 후 초반 3개월 간의 교육훈련 결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는데 이직자들은 지시가 애매한 상태로 방치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시기가 있었으며 선배 직원과 동등한 업무가 처음부터 맡겨졌다 등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이는 이직자의 경우 직장에서 소통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초기 이직의 배경으로는 직장 내 고용관리 상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보았다.

## 6) 일자리 격차완화를 위해서 직장의 연봉, 복지, 업무시간 단축,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필요

일자리 질에 대하여 면담조사결과, 근로조건에 대해 연봉, 복지, 업무시간,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적성이 맞는 직장을, 미취업자는 연봉이 높고 경력이 인정되는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은 높은 연봉과 경력 인정을, 전문대졸은 근무 환경을, 대졸은 복지혜택이 좋은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규졸업자는 모두 연봉이 높은 직장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해 기업의 연봉, 경력인정, 근무환경 개선, 복지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안정적인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분위기 좋은 회사, 발전가능성이 높은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유명한 회사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취업의향에 대하여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59.4%, 2016년 68.9%가 취업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고용불안정, 낮은 급여수준, 낮은 복지수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청년층이 사회초년생으로 초기 일자리의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직활동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한요셉, 2017; 김종욱, 2018), 청년 신규졸업자의 초기 일자리의 형태에 따라 이후 고용형태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변동할 것이며 학력수준과 성별에 따라서 고용형태의 이행과정에 차이가 존재한다(한요셉, 2017). 청년 고용형태 이행과정분석결과 이미 취업을 한 청년층도 유의한 수준으로 취업의 상태에서 이탈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로 고용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으로 여성이거나 저학력자인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탈이 뚜렷하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따라서

신규졸업자의 일자리의 질은 직장으로서의 빠른 이행과 함께 중요시 되어야한다. 신규졸업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내용의 직종 개발 관련한 정책지원으로, 개인의 능력과 꿈, 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취업준비기간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신규졸업자의 경우는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주변사람이 인정하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는 경력, 진로 및 취업계획이 없을 때, 심화된 전공과 학벌, 전문적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고졸이, 스펙이 부족하거나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은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사회적 관계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진로 및 취업계획이 없고 고졸에서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떨어질 때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학력별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자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졸은 연봉과 경력인정, 전문대졸은 근무환경 개선, 대졸은 복지혜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력별 일자리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일자리 격차와도 연관이 있다. 고졸과 전문대졸이 중소기업 취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연봉, 경력인정, 근무환경 개선, 복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

## 7) 실무교육이 필요하므로 학교-기업-지역기관과의 협업 교육과정 운영

학교-직장으로의 이행을 위해 실제 직장에서 필요한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직장, 기업, 일터에 대한 이해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기업의 실제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면담결과, 취업자는 이론과 실무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취업자는 전공 지식과 취업의 연계 및

준비에 학교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취업자·미취업자 모두 취업을 위해 외국어 등 학교교육 외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상관없이 학교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말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 외국어 등 외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유용성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차이, 입시위주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 전공지식 도움, 취업과 연계 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공교육의 영어 성적은 필요한지 모르지만 실무에서 영어성적 필요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였다. 인크루트 등 알선을 통해 외부 교육경험, 자격증 관련 정보획득에는 대학교육이 도움이 되었고, 취업에서는 심화과정을 요구하는데 대학에서는 너무 기본과정을 배워서 활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대체로 학원에서 지식을 얻고, 이론과 실무가 너무 반대로 생각되며, 취업자도 대학 교육을 안 받아도 회사에 가서 일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과 직장에서 실무가 너무 다르다고 하였다. 학교교육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하였다. 이론과 실무차이로 외부 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외부교육으로 기술 학원, 영어학원, 취업네트워크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 8) 고졸 신규졸업자에게 더욱 취약한 진로 및 취업계획 정책 강화

면담결과, 고졸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부족, 진로상담보다 수업위주, 한정적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고졸 청년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청년이 체감하는 진로 및 취업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졸에 비하여 고졸은 취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고등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진입 시간이 늦어지는 현상과 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고졸 전문대졸 보다는 대졸 실업률이 최근 7년간 눈에 띄게 증가추세지만,

고졸의 직장으로의 이행 기간 장기화 또한 매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을 면담을 통해 추정해 보자면 대졸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우가 많고, 고졸은 진로 및 취업계획에 대한 유예기간, 준비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적성부터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자 경우 취업지원센터 이용률이 높은 반면, 취업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 받은 경험이 있었다. 학교의 취업 지원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센터 시설,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하여 졸업자 초대 강연, 취업정보제공부족, 취업준비 기관 알선, 취업지원센터 이용, 형식적인 컨설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가장 장기화된다는 지난 10년간의 지속적인 통계수치와도 연관이 된다고(한요셉, 2017) 보이며 대학을 미진학하는 고졸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한국행정연구원, 2018)에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계획 대책이 매우 시급함을 말해준다.

#### 9) 취업준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

취업자는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훈련(직업훈련은 자격증뿐만 아니라 기술 습득을 위한 예, 미용기술 등을 의미), 미취업자는 인성 등 기초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고졸 및 대졸은 취업 준비에 적극적인 직업훈련, 전문대졸은 인성 등 기초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남성 및 여성 모두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직업훈련으로 이론 대비 실습교육, 단기교육의 장점, 실제 업무경험, 실무위주

의 도움과 전문적인 도움으로 취업관련은 학원이 더 도움이 되며, 학교는 주변 사람들 친구들과의 만남 때문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 직업훈련 과제(신선미, 김영옥 외, 2017),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성지미, 안주엽, 2012) 등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 교육만으로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채구묵(2007)은 청년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으로 대학교육을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 자격증 취득과정이 업무수행능력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 등을 제시하였다. 권대봉, 전재식(2010)은 대학 교육 등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진학 및 직업선택을 위한 교육정보, 신규 대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조하였다. 한요셉(2017)은 직업훈련의 경우, 성과지표를 근속유지보다는 경력유지 중심으로 설정하고 숙련 축적을 통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식별하고 우대를 강조하였다. 최근 일본의 청년 신규졸업자 취업문제로 사회적 시스템은 일본의 청년 취업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해 온 것은 신규 졸업자 취업시스템이라 부를 수 있는 기업과 학교 및 행정이 관여하는 사회적 장치인데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고등학교나 대학의 졸업시기(3월 말)에 맞추어 '사무계열'과 '기술계열'로 직종을 크게 구분하여 일괄채용을 실시하고 이것을 정년까지의 장기고용을 상정하는 '일본형 고용'의 출발점으로 삼아왔다(고스기 네이코, 2018; 김명중, 2016).

#### 10) 단순직종보다는 신규졸업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특성·내용의 직종개발

면담결과,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겠다고 대부분 말함으로 일자리의 질이 매우 중요한 정부 대책임을 알 수 있다.

신규졸업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신규졸업자의 특성인 열의와 감사와 긍정적 태도, 자아성취, 꿈과 목표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손연정, 2018). 따라



서 신규졸업자의 이러한 특성에 맞는 일자리 내용의 직종 개발 관련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한 직종보다는 사랑, 봉사, 창의, 도전, 꿈, 자아성취 등과 관련된 일자리 내용과 직종 개발 및 교육으로 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서비스, 교육관련 분야의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여 청년이 일할 수 있게 개발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잦은 퇴사 및 후회 방지, 흥미와 적성, 행복 추구를 위해서 원하는 직장에 입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빠른 취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경험이 필요하고, 공백이 길면 취업이 어려워져서, 현실 사회와 타협,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계획이 없는 경우가 첫 일자리 이행기간의 장기화와 취업 후 이직으로 현실에 따라서 근무하지만 경력개발이 되지 않아서 일자리 질이나 고용형태가 나아지지 않고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진로 및 취업계획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11) 신규졸업자에 대한 청년 및 기업 모두 눈높이를 맞춰서 취업기회 확대

면담결과, 취업자 및 미취업자 모두 청년 및 기업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 취업자는 청년의 눈높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하였다. 고졸의 경우 기업이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시야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대졸 및 대졸의 경우 기업 및 청년 모두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였다. 청년 눈높이를 낮추어서 능력이 안 되면 일단 아래에서 시작할 생각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들도 신규졸업자에게 경력이나 자격기술 등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아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기업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기업과 청년 상호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기업에 블라인드채용 및 기업과 청년이 눈높이를 맞추어 채용개선, 고용확대, 인턴십 체험프로그램 확대, 대우 등 근무환경 개선, 면접을 다양하게 보고 실무경험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를 요구하였다. 일방적으로 신규졸

업자들에게만 맞추라고 하는 것은 과열된 스펙, 경력 만들기 등 취업준비를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체에서는 고용(인턴십 등) 확대 및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 기업이 고용확대와 채용개선으로 일자리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무능력,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기업과 청년이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상호 필요하다.

## 12) 정부 및 지자체의 취업준비 청년수당 활성화와 취업정책의 홍보 활성화

면담결과, 청년 정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찾아봐야 알게 되며 개별적으로 SNS, 친구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며 이용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나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적극 홍보하여 청년 개개인의 정책적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청년수당은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서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며, 적용조건과 접근 용이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청년취업 지원정책으로는 취업준비에 청년수당, 청년창업기업 및 7년 미만 중견기업에서 청년고용 시 70-80% 지원, 청년복지포인트, 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에 가면 2년 적금 지원, 지자체별 희망청년/내일배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신규졸업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에 생활비, 교통비, 취업준비수당 등 금전적인 지원, 서류과정의 간소화, 청년지원정책 정보의 홍보, 근무환경 개선 등 일자리 격차완화,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기회마련을 요구하였다. 신규졸업자의 특성에 맞춘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한요셉(2017)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교육수준별로 필요한 지원 내용이 크게 차이를 보여준다. 사회적 지원 관련 연구로는 괜찮은 일자리 마련(김범식, 김묵한, 2014; 곽상신, 2015), 창업지원(황성수, 류지영, 2012), 청년 사회 활동지원(김정숙, 강영배, 2017; 정병순, 김태욱, 2016), 일자리 중재의 선순환(조돈문, 2017), 취업눈높이와 진로정책

2012) 등의 사회적 지원이 강조되었다. 1인 청년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박미선, 강미나 외, 2017), 청년 금융지원 강화방안(금융위원회, 2017), 청·장년층 건강지원으로 금연, 금주, 신체활동 및 영양의 건강생활실천 지원(김동식, 동제연 외, 2016),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이행 지원은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문제로 종합적인 청년생활지원(김영란, 장혜경 외, 2017) 등의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쟁점을 제시하였다.

### 13) 청년 신규졸업자에 대한 일과 생활실태 후속연구 필요

끝으로 그동안 신규졸업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통한 청년 신규 졸업자의 주요 고용지표 현황(김종욱, 2018; 김복순, 2014) 등이 간혹 발표되기도 하였고, 첫 일자리 이행기간의 장기화 현상(한요셉, 2017), 대학-직장 이행과정(김지근, 허경민 외, 2018) 등 부분적인 주제의 연구물들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본 연구처럼 질적 연구로서 신규졸업자의 일과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점이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본 연구의 신규졸업자의 일과 생활실태 면담조사 결과는 질적 연구로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양적 데이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얘기들을 듣고 신규졸업자들의 개별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논하고자 하며, 차후 양적 설계를 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양적 질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면담조사의 질문수가 많고 취업유무별, 학력별, 성별로 다양한 유형의 신규졸업자를 면담하였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질적 양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신규졸업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 —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 2. 정책 제언
- 3.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와 면담조사 등의 결과를 근거로 청년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인구·가족 및 교육, 경제·고용 및 주거, 건강·문화 및 관계, 신규졸업자, 법·제도 기반 등 5가지 분야 19개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그림 V-1 정책 비전 및 제언 분야

18) 이 장은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 2. 정책 제언

### 1)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

#### (1) 출산율 제고에 대한 중점 정책순위 재편

##### 가.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데, 2017년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2명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책 시도가 아직까지 출산율 상승이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청년들이 정부의 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중점 정책순위를 재편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은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에 대해 ‘자녀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표 V-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출산<br>장려금<br>확대 | 출산휴가<br>확대 | 임신출산<br>진료비<br>지원확대 | 자녀의<br>교육비<br>부담완화 | 가구의<br>소득증대 | 가구의<br>주거<br>부담완화 | 여성의<br>경력단절<br>부담완화 | 기타  |
|------|-------|-----------------|------------|---------------------|--------------------|-------------|-------------------|---------------------|-----|
| 2016 | 2,192 | 16.4            | 17.4       | 10.9                | 22.1               | 16.5        | 12.0              | 4.7                 | 0.2 |
| 2017 | 2,321 | 13.5            | 21.2       | 9.6                 | 24.3               | 14.4        | 9.8               | 6.8                 | 0.5 |
| 2018 | 2,641 | 9.9             | 19.2       | 11.6                | 22.4               | 16.7        | 14.3              | 5.9                 | 0.1 |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다. 추진내용

청년들이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다음과 표와 같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직접적인 출산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던 출산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청년들이 출산과 더불어 자녀를 키우는 자신의 생애에 걸쳐 필요한 요인들을 중요도에 따라 재편하는 것이다.

표 V-2 출산율 제고 중점정책의 우선순위 재편

| 우선순위 | 지원정책                  |
|------|-----------------------|
| 1순위  |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 2순위  | 출산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 3순위  | 가구의 소득 증대             |
| 4순위  |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 5순위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 6순위  | 출산 장려금 확대             |
| 7순위  |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라. 추진체계

출산율 제고 정책은 다부처 시행정책이므로 정책 우선순위 조정은 청년기본법 상에서의 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관(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 소요예산

표 V-3 출산정책 우선순위 재편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추진사업               | 추진연도  | 예산  |     |
|--------------------|-------|-----|-----|
|                    |       | 국고  | 지방비 |
| 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구 운영예산 | 2019년 | 500 | -   |
|                    | 2020년 | 600 | -   |
|                    | 2021년 | 700 | -   |

## (2) 육아휴직 및 급여 확대를 통한 육아정책 강화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출산을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완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실태를 앞서 언급했듯이, 출산 이후 육아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비용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육아를 하는 부모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일과 육아의 병행이 여전히 어려운 구조적 측면을 살펴볼 때, 직접적인 비용 지원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실효적인 육아대책이 되는데 한계가 있다. 육아시간과 기회의 배려,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의 철폐 등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은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육아대책으로 ‘육아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를 꼽았고 이는 육아를 위한 생애 전반에서의 배려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V-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무상보육<br>교육비<br>확대 | 육아휴직<br>장려 및<br>급여확대 | 방과후<br>서비스<br>확대 | 아동수당<br>대상자<br>확대 | 자녀의<br>교육비<br>부담완화 | 가구의<br>소득증대 | 가구의<br>주거부담<br>완화 | 여성의<br>경력단절<br>부담완화 | 기<br>타 |
|------|-------|-------------------|----------------------|------------------|-------------------|--------------------|-------------|-------------------|---------------------|--------|
| 2016 | 2,192 | 20.3              | 21.6                 | 5.0              | 2.2               | 23.8               | 14.6        | 8.8               | 3.2                 | 0.4    |
| 2017 | 2,321 | 18.1              | 24.7                 | 5.9              | 4.1               | 24.9               | 10.3        | 7.7               | 4.1                 | 0.2    |
| 2018 | 2,641 | 17.3              | 23.5                 | 5.5              | 6.4               | 18.3               | 14.5        | 7.8               | 6.7                 | 0.1    |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는 2016, 2017년에는 ‘아동수당 신설’로 질문하여 응답 받은 결과임

\*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1%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 다. 추진내용

육아와 관련하여 청년들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육아대책의 중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육아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무상보육 교육비 확대, 가구의 소득 증대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육아휴직 장려의 경우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사회의 조직에 대한 충성과 몰입을 강조하는 직장문화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각 기업의 자율적 풍토 개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혹은 차별 발생 시의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육아대책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역할로서 각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지도 시에 이런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 라. 추진체계

육아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정책의 주요 시행부처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마. 소요예산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보험에서의 육아휴직 급여 예산의 확대와 육아휴직 관련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및 파견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비와 아동수당,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예산과 사교육비 절감정책 예산의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 가. 필요성 및 목적

대졸 청년들의 고용 악화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많은 언론매체에서 다뤄 온지는 오래되었다. 이는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대량의 고등인력이 양성되는 고등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대졸생 규모에 비해 고용 여력이 따라 주는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대학 재학생들이 취업준비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 상에서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 반영, 관련 학사구조 개편 등 취업준비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대학 재학 중에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로 나타났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17.0%로 더 많았다. 졸업 유예의 가장 큰 이유는 취업준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졸업 유예 이유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취업준비를<br>하기 위해 | 진로를<br>결정하지<br>못해서 | 졸업을<br>해도<br>취업이<br>안 될 것<br>같아서 | 경제적으로<br>학비나<br>생활비를<br>벌기<br>위해서 | 문화 및<br>여가생활을<br>누리기<br>위해 | 기타  |
|----|-----|----------------|--------------------|----------------------------------|-----------------------------------|----------------------------|-----|
| 전체 | 274 | 59.1           | 11.6               | 20.7                             | 6.7                               | 1.1                        | 0.9 |
| 성별 | 남자  | 170            | 63.7               | 10.3                             | 18.8                              | 4.7                        | 1.3 |
|    | 여자  | 104            | 49.1               | 14.5                             | 24.9                              | 10.9                       | 0.5 |
|    |     |                |                    |                                  |                                   |                            | 0.0 |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 중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

#### 다. 추진내용

대학생들의 졸업 유예를 방지하고 적기에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학생들에 대해 취업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대학 재학기간의 소모적인 연장에서 벗어나고 적기에 사회에 진출하게 함으로써 사회인으로써의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대학에서는 첫째로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결정과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교육내용적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고 둘째로 진로와 취업지원 및 상담 조직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대학이라면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학과 재편과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라. 추진체계

대학의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개입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촉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마. 소요예산

대학들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 및 취업지원체계 강화 항목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지원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표 V-6 대학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추진사업               | 추진연도  | 예산   |      |
|--------------------|-------|------|------|
|                    |       | 국고   | 지방비  |
| 대학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재정지원 | 2019년 | 2000 | 4000 |
|                    | 2020년 | 2500 | 4000 |
|                    | 2021년 | 2500 | 4500 |

#### (4)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 및 취업 교육과정 확대 개편

#####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동안 청년세대의 고용 악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대졸생에게 관심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우리사회의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에 반해 고교졸업생의 취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반면에 대학 진학률은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교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금년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대학 미진학의 가장 큰 이유가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기 위함(35.8%)으로 나타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교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V-7 대학 미진학 사유 추이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고등학교 시절, 졸업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기타  | 모름/무응답 |
|------|-----|-----------------|-----------------------|-----------------------|-------------------------|-------------------|------------------------------|-----|--------|
| 2016 | 737 | 0.6             | 31.3                  | 22.6                  | 17.4                    | 24.4              | 2.8                          | 1.0 | -      |
| 2017 | 549 | 0.7             | 40.2                  | 9.5                   | 13.0                    | 32.0              | 3.8                          | 0.8 | -      |
| 2018 | 623 | 1.7             | 35.8                  | 15.8                  | 18.0                    | 25.9              | 2.5                          | 0.1 | 0.1    |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현재 중·고등학생은 응답하지 않음

다. 추진내용

취업을 위한 기능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대학진학이 실질적인 교육목적인 상황이라 졸업 이후 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재수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초·중등 국가교육과정 수시 개편 제도를 활용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취업준비와 지원을 위한 기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확충과 취업준비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과정 강화 등을 통해 고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고교를 포함한 초·중등학교의 관리·감독 및 예산 지원 권한, 초·중등교육과정 개편 권한을 가진 교육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마. 소요예산

표 V-8 대학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추진사업              | 추진연도  | 예산   |       |
|-------------------|-------|------|-------|
|                   |       | 국고   | 특별교부금 |
| 초·중등 국가교육과정 개편    | 2019년 | 1000 | 4000  |
|                   | 2020년 | 2000 | 4500  |
|                   | 2021년 | 2000 | 4500  |
| 진로진학상담 교사 확충 및 연수 | 2019년 | 1000 | 10000 |
|                   | 2020년 | 1000 | 15000 |
|                   | 2021년 | 1000 | 20000 |

2)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

(1)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변제 지원 전문기관 설치·운영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에 대해 고용 이외의 삶과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주요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고용 불안에 따른 학업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진 사회적 환경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청년들에게는 높은 주거비나 학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른 연령대부터 채무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들의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채무 변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채무가 있는 청년의 비율이 25.1%로 나타났고, 연령대로 보면 20대(18.2%) 보다 30대(31.0%)의 채무 보유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채무의 이유로는 주거비 마련(61.7%)과 학자금 마련(30.8%)이 대부분의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청년층 채무 발생 이유

(단위: 명, %)

| 구분 |         |   | 사례수 | 학자금 마련 | 주거비 마련 | 생활비 마련 | 창업자금마련 | 기타  |
|----|---------|---|-----|--------|--------|--------|--------|-----|
| 전  | 체       |   | 665 | 30.8   | 61.7   | 3.9    | 3.1    | 0.4 |
|    | 남       | 자 | 351 | 33.9   | 57.2   | 5.0    | 3.5    | 0.3 |
|    | 여       | 자 | 314 | 26.9   | 67.6   | 2.5    | 2.6    | 0.5 |
| 연령 | 만19~29세 |   | 218 | 72.2   | 21.7   | 3.5    | 1.7    | 0.9 |
|    | 만30~39세 |   | 447 | 10.9   | 81.1   | 4.1    | 3.8    | 0.2 |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 다. 추진내용

청년층이 사회 진출 이전부터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정상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 있는 청년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채무가 있는 청년 3명 중 2명이 주거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있고, 3명 중 1명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은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학자금 지원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채무 변제 상담과 개인회생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문기관 설치(혹은 지정)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라. 추진체계

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청년 채무변제 전문기관 설치(혹은 지정)와 예산 확보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마. 소요예산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변제를 위한 상담과 지원 전문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설치예산과 운영예산을 함께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표 V-10 취약계층 청년 채무변제 지원 전문기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추진사업            | 추진연도  | 예산    |       |
|-----------------|-------|-------|-------|
|                 |       | 국고    | 지방비   |
| 취약계층 청년 채무변제 지원 | 2019년 | 10000 | 50000 |
|                 | 2020년 | 15000 | 60000 |
| 전문기관 설치·운영      | 2021년 | 20000 | 80000 |

## (2) 중소기업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연금 제도 도입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취업과 고용 문제를 거론할 때 많이 회자되는 것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성세대 중 일부는 청년들의 도전정신이나 이른바 형그리 정신의 부족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청년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나. 추진근거

금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고용불안정(24.7%)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어서 낮은 급여 수준(20.7%),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11.7%)과 낮은 성취감(11.4%) 순으로 나타나 이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표 V-1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 고용 불안정 |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낮은 급여 수준 |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 기타  |
|------|-------|--------------|------------------|--------|--------------|----------|----------------|----------------|----------------|-----|
| 2016 | 789   | 10.1         | 4.2              | 28.2   | 11.1         | 22.6     | 1.8            | 15.8           | -              | 5.7 |
| 2017 | 1,114 | 11.5         | 8.0              | 20.6   | 8.4          | 19.8     | 2.8            | 13.3           | 13.9           | 1.7 |
| 2018 | 1,163 | 11.4         | 8.7              | 24.7   | 10.9         | 20.7     | 3.5            | 7.9            | 11.7           | 0.5 |

주)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 보기문항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은 2017년도부터 추가된 문항임

\*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6%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다. 추진내용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급여 수준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연금법안을 마련하여 퇴직 이후의 안정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V-12 중소기업연금법(안) 구성체계

| 법령명        | 구성체계                                                                                                                                                    |
|------------|---------------------------------------------------------------------------------------------------------------------------------------------------------|
| 중소기업연금법(안) | 제1장(총칙 및 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금의 목적 규정</li><li>- 연금의 관리 주체 지정(혹은 설치) 규정</li><li>- 연금의 관리 주체 기능 및 책무 규정</li></ul>              |
|            | 제2장(급여 및 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금 지급 급여 산정 규정</li><li>- 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규정</li><li>-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규정</li></ul>                 |
|            | 제3장(비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용부담의 원칙 규정</li><li>-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규정</li><li>- 퇴직수당부담금 규정</li></ul>                                    |
|            | 제4장(중소기업직원 후생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소기업 재직 직원의 후생복지 규정</li><li>- 퇴직 중소기업 직원의 사회기여활동 지원 규정</li><li>- 퇴직 중소기업 직원의 후생복지 규정</li></ul> |
|            |                                                                                                                                                         |
|            |                                                                                                                                                         |
|            |                                                                                                                                                         |
|            |                                                                                                                                                         |
|            |                                                                                                                                                         |
|            |                                                                                                                                                         |

라.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를 주관기관으로 고용노동부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관련 연금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전체 중소기업 임금체계를 기초로 기금 마련 추계를 통해 산정해야 할 것이다.

### (3)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고용위기 해법 우선순위 재편

#### 가. 필요성 및 목적

고용위기 해법에 있어서 상반된 두가지 측면은 개인과 교육(훈련)에서 접근하는 노동공급 측면과 일자리와 경제발전에서 접근하는 노동수요 측면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 등 의사결정을 할 때 각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금년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용위기 해법은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25.8%),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강화(18.8%) 등으로 나타났다.

표 V-13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진로교육<br>내실화와<br>진로지도<br>활성화 | 독일이나<br>스위스식의<br>일과 학습<br>병행제도<br>활성화 | 고학력화로<br>인한<br>대졸자<br>과다 배출<br>억제 | 학교의<br>취업지원<br>강화 | 대기업/공<br>공부문<br>높은선호도<br>(청년높<br>이 제고) | 청년들의<br>능력<br>향상과<br>핵심역량<br>수준 제고 | 미취업<br>청소년 및<br>청년 대상<br>수당,배당,<br>급여 지급 | 기타  |
|------|-------|-----------------------------|---------------------------------------|-----------------------------------|-------------------|----------------------------------------|------------------------------------|------------------------------------------|-----|
| 2016 | 2,192 | 17.9                        | 12.8                                  | 15.5                              | 24.6              | 12.8                                   | 14.5                               | 1.7                                      | 0.1 |
| 2017 | 2,321 | 18.0                        | 13.0                                  | 14.8                              | 23.4              | 14.3                                   | 14.7                               | 1.8                                      | 0.0 |
| 2018 | 2,641 | 18.8                        | 14.0                                  | 14.4                              | 25.8              | 14.0                                   | 11.6                               | 1.4                                      | 0.1 |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2%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용위기 해법은 청년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확대(22.7%), 경제민주화와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 일자

리 확대(22.2%), 대기업 일자리 확대(20.5%) 등이었다.

표 V-14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대기업<br>청년<br>일자리<br>확대 | 공공<br>부문<br>채용<br>확대 | 청년 창업/<br>창직<br>지원을<br>통한<br>일자리확대 | 경제민주화<br>와 관철은<br>중소기업<br>일자리확대 | 근로시간<br>단축을<br>통한<br>일자리<br>나누기확대 | 임금<br>피크제를<br>통한 청년<br>일자리<br>확대 | 해외취업<br>지원을<br>통한 청년<br>일자리확대 | 기타  |
|------|-------|------------------------|----------------------|------------------------------------|---------------------------------|-----------------------------------|----------------------------------|-------------------------------|-----|
| 2016 | 2,192 | 14.6                   | 16.9                 | 26.6                               | 27.3                            | 6.5                               | 5.3                              | 2.4                           | 0.2 |
| 2017 | 2,321 | 14.5                   | 14.7                 | 18.5                               | 32.1                            | 11.6                              | 5.2                              | 3.0                           | 0.3 |
| 2018 | 2,641 | 20.5                   | 16.2                 | 22.7                               | 22.2                            | 8.9                               | 5.8                              | 3.5                           | 0.1 |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2%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다. 추진내용

청년들의 인식을 기초로 노동공급적 측면과 노동수요적 측면의 고용위기 해법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5순위까지 다음과 같이 재편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V-15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 측면의 고용위기 해법 우선순위 재편

(단위: 명, %)

| 우선순위 | 노동공급(개인, 교육) 해법      |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해법       |
|------|----------------------|------------------------|
| 1순위  |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 청년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 2순위  |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 경제민주화와 관철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 3순위  | 대졸자 과대 배출(고학력화) 억제   |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 4순위  |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 공공부문 채용 확대             |
| 5순위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라. 추진체계

고용위기 해법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책 조정 기능이 있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관할할 필요가 있다.

#### (4)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 가. 필요성 및 목적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저성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산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 부담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의 주택 점유형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통계청, 각 년도),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국토교통부, 2018. 5. 8.),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10.5%,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도 3.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주거비 부담에 따라 연애나 결혼, 출산·양육, 내집 마련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박미선, 강미나 외 2017),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덜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중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이나 예술인, 목돈 마련이 어려운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 자금 지원이 요구된다.

#### 다. 추진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부문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다양한 청년층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신혼부부 등 2인 이상의 가구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인 청년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과 더불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 예술인,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라. 추진체계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 지원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지원 정책의 주요 시행부처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마. 소요예산

표 V-16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추진사업         | 추진연도  | 예산      |     |
|--------------|-------|---------|-----|
|              |       | 국고      | 지방비 |
|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 | 2019년 | 300,000 | -   |
|              | 2020년 | 350,000 | -   |
|              | 2021년 | 400,000 | -   |

※ 2018년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 중, 2,247억 원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창업자 임차 보증금 융자지원에 투입한 것을 토대로 작성함.

## (5) 청년이 살기에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불법동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타인을 감시하거나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하는 등의 범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경우, 학업이나 취업, 직장생활 등의 이유로 서울이나 도심 등지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도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용이 높으므로 소득이 높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안전하지 않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청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15~29세 청년층은 주택 이외에 거처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도별 추이를 볼 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V-17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단위: 가구, %)

| 연도   | 구분     | 전체           | 15-24세      | 15-29세       | 15-39세       |
|------|--------|--------------|-------------|--------------|--------------|
| 2000 | 규모(비율) | 84,353(0.6)  | 7,045(1.64) | 17,938(1.3)  | 37,285(0.7)  |
| 2005 | 규모(비율) | 216,857(1.4) | 29,298(6.0) | 75,610(5.5)  | 139,060(2.8) |
| 2010 | 규모(비율) | 353,942(2.0) | 44,287(9.8) | 116,216(8.5) | 217,883(4.6) |



| 연도   | 구분     | 전체           | 15-24세      | 15-29세        | 15-39세       |
|------|--------|--------------|-------------|---------------|--------------|
| 2015 | 규모(비율) | 713,986(3.7) | 41,605(7.9) | 130,843(9.7)  | 300,822(6.5) |
| 2016 | 규모(비율) | 770,088(4.0) | 45,994(8.4) | 146,337(10.6) | 330,147(7.2) |
| 2017 | 규모(비율) | 857,503(4.4) | 51,731(9.5) | 168,966(11.9) | 372,563(8.1)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총조사.

- \* 주 1)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주택이외 거주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2) 주택 외 거주: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 다. 추진내용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나 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CCTV나 가로등 설치 등의 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1인 가구 청년들이 사는 주택에 불법동영상 장비 유무 점검 및 제거도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 라. 추진체계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책의 주요 시행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주거 안전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마. 소요예산

표 V-18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추진사업                                   | 추진연도  | 예산  |     |
|----------------------------------------|-------|-----|-----|
|                                        |       | 국고  | 지방비 |
| 청년층 주거환경 실태 점검 및 주거안정망을 위한 시설물 구축 및 정비 | 2019년 | 500 | 500 |
|                                        | 2020년 | 600 | 600 |
|                                        | 2021년 | 700 | 700 |

### 3)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

#### (1) 국가건강검진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검진항목 확대

#####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학업과 취업, 육아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청년층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2012~2016년 간 20대의 근골격계 및 소화계통, 비뇨생식계통 질환이 증가하였으며,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년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윤소하, 2017.09.20.).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우울증 검사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과열된 입시경쟁과 지속되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진항목을 더욱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청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19~29세 32.8%, 30~39세 37.7%)도 전체 인구(27.9%)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6),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조사한 결과, 15~39세 청년 중 26.6%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우울증 검사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표 V-19 청년층의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별     |         |         |
|------------|------|------|------|---------|---------|---------|
|            |      | 남자   | 여자   | 만15-18세 | 만19-29세 | 만30-39세 |
| 정신건강 수준 나쁨 | 26.6 | 27.1 | 26.0 | 19.3    | 27.7    | 27.9    |
| 정신건강 수준 양호 | 23.7 | 72.9 | 74.0 | 80.7    | 72.3    | 72.1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원문항은 WHO의 Well-Being Index(1998 version)로, 주관적인 정신건강을 묻는 5개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13점 미만일 경우 정신건강 수준이 나쁜 상태로 해석됨.

다. 추진내용

2019년부터 20~30대가 포함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이외에도 스트레스,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추가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이 취약하거나 위험군에 속한 청년들을 선별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 추진체계

청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의 주요 시행부처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표 V-20 청년층의 정신건강 관련 검진항목 확대 위한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추진사업                    | 추진연도  | 예산    |     |
|-------------------------|-------|-------|-----|
|                         |       | 국고    | 지방비 |
| 청년층의 정신건강 관련<br>검진항목 추가 | 2019년 | 1,000 | -   |
|                         | 2020년 | 1,000 | -   |
|                         | 2021년 | 1,000 | -   |

## (2) 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 가. 필요성 및 목적

장기화된 고용난으로 취업경쟁이 가중되면서 20~30대 청년들은 문화생활을 누릴 시간적,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컬처 푸어(문화 빈곤)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16), 15~39세 청년층의 평일 및 휴일에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은 주로 휴식과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이었다.

문화예술은 건강검진, 인적자본 제고, 사회적 자본 및 사회응집력 제고, 범죄예방 등의 사회적 가치가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된다(장훈, 정현일, 김규찬, 박진우, 김기호, 2015).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였으나 생애주기·계층별 문화여가활동 지원 대상은 유·아동 부모, 직장인, 중장년, 장애인을 주로 다루고 있어(문화체육관광부, 2018. 5. 16.), 대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학업 및 취업, 주거 등의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도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 나. 추진근거

앞서 제시한 청년층의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은 감소하고 있으며, 영화, 공연 등의 문화예술 관람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이 소요하는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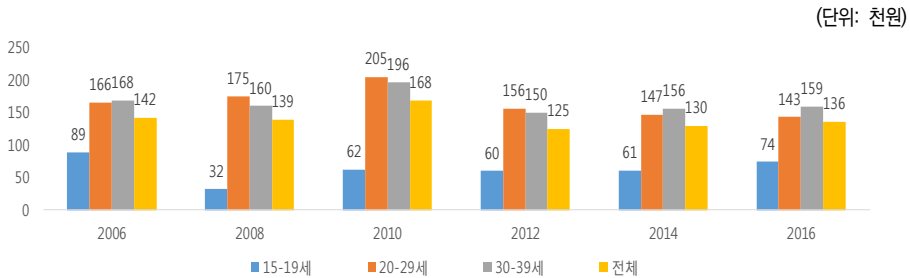


그림 V-2 청년층의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 다. 추진내용

청년층이 문화 및 여가활동을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이 정의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영화 및 연극, 뮤지컬, 음악회, 미술관, 박물관 등의 공연·예술 관람 부문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월별 또는 연도별로 문화·여가활동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유흥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층이 문화 및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 라. 추진체계

청년층의 문화 향유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의 주요 시행부처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마. 소요예산

향후 청년기본법에서 정의되는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청년기본법 제정 후 이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여가활동비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문화·여가활동 관련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 할인 혜택 제공에 따른 기업 지원 예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3)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마을 내 청년-중년-노인 간 소통 기회 마련

#### 가.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 및 세대 내 이해와 공감 부족,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자 노인세대에 대한 혐오와 세대 간 갈등도 이슈화되고 있다.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른 청년층의 불안감으로 인해 노인세대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인세대에 대한 과격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2018)의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증가 때문에 청년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거나 노인복지 확대로 청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을 막기 위해 세대 간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장과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성세대 및 노인세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는 기성세대보다는 노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어 청년과 노인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표 V-21 청년층의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 구분     |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 |               |             | 노인에 대한 생각  |            |                |            |
|--------|-------------|---------------|-------------|------------|------------|----------------|------------|
|        | 우리 사회 핵심세대  |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 | 다른 세대 배려 없음 | 경험 많고 지혜로움 | 현재 존경받지 못함 |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 받음 | 정치적 영향력 과대 |
| 부정적 의견 | 7.5         | 24.7          | 25.8        | 16.4       | 21.3       | 15.9           | 15.5       |
| 긍정적 의견 | 67.8        | 34.5          | 31.6        | 48.5       | 34.1       | 47.7           | 35.2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다. 추진내용

청년과 노인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 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마을 공동체별로 청년과 중장년,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하거나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각자 전문화된 분야에 따라 청년과 노인층 간 교류적인 재능기부를 통한 소통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때, 중장년층이 청년과 노인 간 세대를 연결시키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역에서 청년과 장년, 노인층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과 관련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토론장을 마련하여 세대별 관점과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라. 추진체계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과 중년, 노인 간 소통 기회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소요예산

표 V-22 청년, 중년, 노인 간 세대 통합을 위한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추진사업              | 추진연도  | 예산 |     |
|-------------------|-------|----|-----|
|                   |       | 국고 | 지방비 |
| 지자체별 세대통합 프로그램 시행 | 2019년 | -  | 100 |
|                   | 2020년 | -  | 150 |
|                   | 2021년 | -  | 200 |

#### 4) 신규졸업자 분야

##### (1)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졸업학교의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 가. 필요성 및 목적

신규졸업자는 학교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및 관계망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평가 지표에서 신규졸업자 지원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갓 떠난 신규졸업자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도움을 받는 대상이 가족과 친구에게 대부분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회지원이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가족과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청년들도 언제든지 정보 문의와 상담 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신규졸업자 면담결과, 신규졸업자들은 학교보다는 가족의 영향이 크며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가족 중심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원 시스템 이용보다는 친구나 가족을 통한 정보와 상담을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금년도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신규 졸업자들이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교 밖의 취·창업 관련 기관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창업 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표 V-23 졸업 전 취·창업이나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

(단위: %)

| 연도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자   | 여자   | 15-18세 | 19-29세 | 30-39세 |
| 2018 | 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 50.1 | 54.0 | 46.2 | 33.9   | 61.6   | 100.0  |
|      | 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76.5 | 74.1 | 78.9 | 88.2   | 68.4   | 25.2   |
|      |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 36.5 | 34.2 | 38.7 | 21.3   | 47.1   | 100.0  |
|      |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 30.6 | 26.7 | 34.6 | 22.2   | 36.8   | 25.2   |

#### 다. 추진내용

신규졸업자는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들이므로 학교에서 개별적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정보관리와 학교 도서관이용 등 사회 이행을 원활하게 돕는 시스템을 통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 학교평가(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신규졸업자 지원항목을 평가지표로 고려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추진체계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학교 연결시스템 마련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마. 소요예산

교육부는 신규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정보관리 전담인력 채용과 학교 도서관 이용, 청강 등 부대시설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 (2) 취업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 특성별 실태조사 및 지원

### 가. 필요성 및 목적

진로나 취업에 대한 정보도 소속도 없이 취업준비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신규졸업자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도움을 받는 대상이 가족과 친구에게 대부분 머물러 있다는 면담결과에서와 같이 가족과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청년들도 포함하여 취업준비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면담조사 결과, 대부분의 신규졸업자들은 진로 및 취업계획에 도움을 주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학교, 기관, 친구, 선배, 멘토, 컨설팅 등)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등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청년 신규 졸업자들은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면접실습 등 취업준비지원, 인턴사원제 등 즉각적인 일자리 연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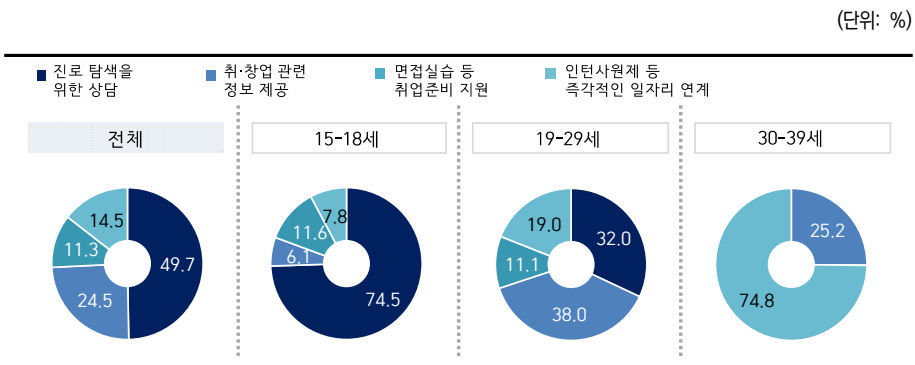


그림 V-3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 다. 추진내용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가칭)원스톱 청년 취업 종합 상담전화 운영과 신규졸업자, 고졸, 대졸, 성별, 취업유무별 다양한 특성에 맞는 컨설팅이 될 수 있게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졸과 미취업 신규졸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준비 상담을 위한 현직 멘토와 사회적 관계망 연결 등 원스톱 서비스 대책마련과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활용에 탁월한 청년들에게 포털을 통한 양질의 진로 취업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창구제공, 이러한 포털과 전화 상담에 대한 적합성, 정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라. 추진체계

취업정보 사각지대 신규졸업자 특성별 지원 대책을 위해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 마. 소요예산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칭)원스톱 청년 취업 종합 상담전화 및 종합 상담 포털 운영 및 모니터링, 전담인력 예산의 확대와 현직에 있는 멘토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 특성별 실태조사 연구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 (3)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가. 필요성 및 목적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기회의 격차가 심하며, 취업자는 실업자의 두배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의 10배 이상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선미, 김영옥 외, 2017).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 및 청년 대상의 직업훈련, 인턴십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면담결과,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인턴십 등 실질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계획에 도움받기를 원하였다. 학력별로는 특히 고졸 신규졸업자의 취약한 진로 및 취업계획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으로 이론 대비 실습교육, 단기교육의 장점, 실제 업무경험, 실무위주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훈련, 미취업자는 인성 등 기초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및 대졸은 취업 준비에 적합한 직업훈련, 전문대졸은 인성 등 기초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학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며, 남성 및 여성 모두 취업 준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신규졸업자 설문조사에서는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74.8%), 학벌(66.1%), 성별(36.3%)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추진내용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진로 및 취업계획 정보나눔 플랫폼 마련, 인터넷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현장 진로·취업 박람회, 진로포럼 등으로 상시적인 오프라인 정례 모임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년 진로 및 취업 계획 포털사이트 구축, 콘텐츠 개발, 모니터링 등과 더불어 진로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지역 진로교육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로 학교에서 지역사회 직업으로의 실질적 이행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 미진학자, 고교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계획 관련하여 고졸자에 대한 국가진로 교육정책의 강화,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확대, 선 취업 후 진학이나 일-학습병행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 라. 추진체계

교육부에서 진로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지역 진로교육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학교에서 지역사회 직업으로의 실질적 이행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확대, 선 취업 후 진학이나 일-학습병행제도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

#### 마. 소요예산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예산,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진로 및 취업계획 정보나눔 플랫폼 마련 예산,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현장 진로·취업 박람회, 진로포럼 등 상시적인 오프라인 정례 모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 (4)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 가. 필요성 및 목적

신규졸업자의 취업 후 이직에 대하여 한요셉(2017)은 직업훈련은 근속유지보다 경력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패널조사에 의하면 2007년 기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의 변동이 활발하며,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이동이 50% 이상 나타났으며, 동시에 취업자의 20.5%가 비경활로, 실업자의 23%가 비경활로, 비경활의 34.7%는 여전히 비경활인구로 잔존하고 있다고 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신규졸업자의 취업후 이직 대책은 진로취업준비부터 취업, 직장적응까지 연결된 문제임으로 연속적 관점에서 신규졸업자의 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신규졸업자 면담조사 결과, 취업 후 이직할 생각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이상과의 현실 괴리’,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 ‘직장 내 부당함’, ‘자격증 준비’, ‘동료와의 갈등’이라고 나타났다. 취업 후 만족하는 이유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월급인상’, ‘복리후생 개선(점심시간 한시간 반 등)’, ‘일과 생활의 확실한 분리’로 자기 생활이 있고 일과 분리되는 워라벨을 중요한 이유로 말하였다. 취업 후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잡은 야근과 회식’, ‘빈번한 출장’, ‘엄격한 상하관계’, ‘직장 내 나이차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은 점’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잡은 퇴사 및 후회 방지, 흥미와 적성, 행복 추구를 위해서 빠른 취업보다는 원하는 직장에 입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빠른 취업이 중요한 이유로는 경험이 필요하고, 공백이 길면

취업이 어려워져서, 현실 사회와 타협,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추진내용

신규졸업자의 취업후 이직 대책은 취업준비단계부터 취업, 직장적응까지 연결된 문제이므로 신규졸업자의 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취업 후 이직하는 이유가 이상과 현실 괴리라는 의견을 고려할 때 실무 교육프로그램, 기업선발기준의 공론화 캠페인 등이 필요하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단순 자격증 준비뿐만 아니라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경력관리 프로그램, 기업의 신규 고용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 라. 추진체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신규졸업자의 취업 후 이직 대책은 진로취업준비부터 취업, 직장적응까지 일련의 연속적인 문제이므로 신규졸업자의 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마. 소요예산

신규졸업자의 취업 후 이직 대책, 신규졸업자의 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실무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선발기준의 공론화 캠페인, 경력관리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

## (5) 학교-기업-지역기관과의 실무교육을 위한 협업 교육과정 운영

### 가. 필요성 및 목적

학교교육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직장에서의 실무의 간극이 좁혀져야 한다. 학교-직장으로의 이행을 위해 실제 직장에서 필요한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직장, 기업, 일터에 대한 이해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기업의 실제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용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과정에서 이상과 현실 괴리가 좁혀지도록 실무교육을 위한 학교-기업 협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특성과 선발기준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신규졸업자 면담결과, 학력에 상관없이 학교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말하였다.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하여 졸업자 초대 강연, 취업정보제공부족, 취업준비 기관 알선, 취업지원센터 이용, 형식적인 컨설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고졸자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 부족, 진로상담보다 수업위주, 한정적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고졸 청년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청년이 체감하는 진로 및 취업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가장 장기화된다는 지난 10년간의 지속적인 통계결과와도 연관이 되며(한요셉, 2017), 대학을 미진학하는 고졸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한국행정연구원, 2018)에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계획 대책이 매우 시급함을 말해준다.



미취업자 경우 취업지원센터 이용이 높은 반면, 취업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외부 기관을 알선 받은 경험이 있었다. 학교의 취업 지원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센터 확충,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추진내용

학교가 주최하는 마을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설명회 활성화, 학교-기업-지역기관의 실무교육을 위한 현장 일터와의 협업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사에게만 진로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기업의 현장 전문가들도 진로교육 멘토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학생들에게 교사와 기업인, 지역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가진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라. 추진체계

학교교육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요 시행부처로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 마. 소요예산

신규졸업자를 위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내 기업설명회 개최의 활성화, 실무교육을 위한 학교-기업 협업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 현장멘토의 진로교육 동참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

## 5) 법·제도 기반 분야

### (1) 청년의 일과 삶을 포괄하는 청년기본법 제정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청년의 일과 삶 전반의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청년에 대한 지원 법령이 대개 취업과 창업에 초점을 맞춰 부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법화되어 추진되다 보니 청년의 전체 삶에 대한 지원이라는 철학의 부재와 더불어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사항들을 담고 여러 지원 정책의 모태가 되는 청년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법안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청년의 정의와 추진주체, 추진시책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 나. 추진근거

현행 청년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앞서 2장에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지원 및 공공기관 고용의무를 다루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 고용촉진에 대한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기업 세액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에 관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청년 창업에 대한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관련 법령은 일단 청년 지원의 범위와 다양성 측면에서 제한적이고, 주로 고용과 창업이라는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더구나 지원의 범위가 해당 정책 관할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한정됨으로써 청년의 일과 삶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 추진내용

청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목적·이념을 규정하는 총칙,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법령의 추진주체와 권한, 법령의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표는 이에 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년기본법안 구성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V-24 청년기본법(안) 구성체계

| 법령명      | 구성체계                                         |
|----------|----------------------------------------------|
| 청년기본법(안) | 제1장(총칙)                                      |
|          | -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 지원의 기본적인 근거사항 규정 |
|          | - 청년의 정의(18세 이상 34세 이하) 규정                   |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          | 제2장(청년정책 기본계획)                               |
|          | -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규정           |
|          |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추진 규정              |
|          | 제3장(청년정책의 추진주체)                              |
|          | -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구 및 조직 규정                   |
|          | -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과 권한 규정                    |
|          | - 청년정책 자문 및 협의기구 규정                          |
|          | 제4장(청년정책의 지원시책)                              |
|          | -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지원 영역 규정                      |
|          |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지원 의무 규정                      |
|          | - 청년 유관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

(4) 추진체계

청년기본법안의 발의는 국회의 정무위원회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소요예산

입법 과정은 통상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예산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 (2) 청년정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분석평가센터 설치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은 그동안 고용 증대 및 실업률 감소를 주요 목표로 여러 정책 사업들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들의 삶의 위기는 고용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청년의 일과 삶 전체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이 계획되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책의 전과정을 중심으로 P-D-C-A(Plan, Do, Check, Action)라는 체계적 관리가 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4조를 살펴보면 청소년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b). 이를 준용하여 청년정책에서도 청년기본법안 제정 시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 관련 조항을 넣어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기관 지정과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다. 추진내용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설치는 별도의 기관 설치 법안으로 하기 보다는 청년기본법안이 제정될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기본법을 통한 관련 정책의 계획수립과 추진실적 보고와 연계되어야 정책의 분석·평가의 결과가 실효적인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청년정책 분석평가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조항(안)을 제안하고 있다.

표 V-25 청년정책 분석평가센터 설치 법조항(안)

| 법령명                  | 청년정책 분석평가센터 설치 법조항(안)                                                                                                                                       |
|----------------------|-------------------------------------------------------------------------------------------------------------------------------------------------------------|
| 청년기본법(안) 내<br>관련 법조항 | 제2장(청년정책 기본계획)                                                                                                                                              |
|                      | 제1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li> <li>-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규정</li> <li>- 기본계획의 분석 및 평가 규정</li> </ul>       |
|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지원기관 설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규정</li> <li>- 청년정책 분석 및 평가 전문기관 설치 규정</li> <li>-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규정</li> </ul> |
|                      | 제3조(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고용·주거·교육·참여·문화·여가 등의 실태조사 규정</li> <li>-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규정</li> <li>-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의 예산지원 규정</li> </ul>      |

(4) 추진체계

청년정책 분석평가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는 청년기본법안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법안의 발의는 국회의 정무위원회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청년기본법안과 마찬가지로 입법 과정은 통상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예산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3. 결론

2018년 들어 청년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서 다루고 있듯이 고용 부진, 합계출산율 저하 등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라 할 정도로 부정적인 보도들과 지표들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청년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와 청년 모두에게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 우리사회의 중심이 될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학교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오로지 청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였던 사회적 풍토가 각종 지표의 악화로 인해 이제는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영향과 구조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청년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두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에 대해 고용이나 취업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이들의 일과 삶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지난 수년간 청년고용의 지속적인 악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반복될수록 청년세대의 생활 곳곳의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파생시켰고 청년의 삶 전체가 침체되는 문제로 확산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취업을 해결해주는 것만으로 생활의 질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시점까지 온 것이다.

작금은 청년의 삶 전반을 파악하여 다방면의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통해 미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우선 청년의 취업을 비롯한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실체적 증거들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가조사로서 신규졸업자와 신규졸업예정자에 대한 실태와 정책 제언도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핵심지표는 인구와 가족(인구, 가족, 교육), 교육과 훈련(교육, 훈련·평생학습), 경제와 고용(직업, 소득 및 소비), 주거(주거현황, 주거여건),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 문화와 가치관(문화 및 여가, 가치관), 관계와 참여(관계, 참여)로 분류하였고, 각 분류마다 핵심지표들을 설정하여 직접적인 설문조사와 기존 통계치에 대한 2차 자료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연차별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규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는 해당 청년들에 대한 질적 접근인 면담조사를 통해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인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욕구,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금년 3년차 연구에서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전년도 통계청 승인을 받은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년도인 2차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청년세대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란 주제로 깊이있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전년도 조사 데이터의 활용성을 넓히고, 학술적 가치와 정책적 함의를 함께 도모하였다.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언은 청년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 셋째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 넷째 신규졸업자 분야, 다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이다.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대한 중점 정책순위 재편, 육아휴직 및 급여 확대를 통한 육아정책 강화,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 및 취업 교육과정 확대 개편을 제안하였다.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변제 지원 전문기관 설치·운영, 중소기업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연금 제도 도입,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고용위기 해법 우선순위 재편,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청년이 살기에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청년

들의 정신건강 관련 검진항목 확대, 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마을 내 청년-중년-노인 간 소통 기회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규졸업자 분야에서는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졸업학교의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취업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 특성별 실태조사 및 지원,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학교-기업-지역기관과의 실무교육을 위한 협업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일과 삶을 포괄하는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분석평가센터 설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의 청년들이 일과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경제 환경과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청년들의 현실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5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우리 청년들의 일과 삶은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지표만으로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지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에는 연차별로 추진되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공개데이터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주제별 혹은 현안별 추이 분석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고스기 네이코 (2018). 최근 일본의 청년 취업문제 : 신규 졸업자 취업시스템의 명암. **국제노동브리프**, 16(1), 9-31.
- 고용노동부 (2017.07.2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 시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881](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881)에서 2018년 5월 10일 인출.
- 고용노동부 (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_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곽상신 (2015). 25특집: 청년 고용문제의 해법 찾기; 청년 일자리의 실태와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사회**, 184, 26-41.
- 관계부처합동 (20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bodo.jsp>에서 2018년 3월 16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18.0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에서 2018년 3월 16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18.03.15.). **청년고용촉진방안 -기업·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  
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에서 2018년 3월 16일  
인출.

관계부처 합동 (2018.7.5.).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  
안**.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018](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018)에서 2018년 7월 10일 인출.

광주광역시 (2016).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청 웹사이트 [https://www.gwangju.go.kr/BD\\_0000000468/boardView.do?seq=268764&infoReturn=&menuId=gwangju0807040100&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BD\\_0000000468](https://www.gwangju.go.kr/BD_0000000468/boardView.do?seq=268764&infoReturn=&menuId=gwangju0807040100&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BD_0000000468)  
에서 2018년 4월 12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교육통계서  
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a).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B2%AD%EB%85%84%EA%B3%A0%EC%9A%A9%EC%B4%89%EC%A7%84%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b).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5&efYd=20180613#0000>에서 2018  
년 10월 18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8). **노인인권 종합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5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한국의료패널 웹사이트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view.do?bbsid=13&seq=1791>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국토교통부 (2018. 5. 8.).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763](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763)에서 2018년 10월 11일 인출.
- 국회청년미래특별위원회 (2018).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미발간 보고서.
- 권대봉, 전재식 (2010). 청년 대졸 미취업 현황과 해소 방안 . **CEO Report**, 23, 1-24.
- 김기현 (2015).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보고 15-R4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이운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17-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6-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식, 동제연, 우영지, 정지원 (2016). **건강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향후 과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2016 연구보고서-6).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명중 (2016). 일본의 청년고용 현황과 청년층 취업지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14(7), 2016.7, 91-111
- 김범식, 김묵한 (2014). **서울시의 괜찮은 일자리에 관한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2014-PR-06). 서울: 서울연구원.
- 김복순 (2014). 신규학졸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9월호), 37-49.
- 김영란, 장혜경, 이운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7-05).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숙 (2018).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이행 수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교육학연구, 24(1). 93-117.

김정숙, 강영배 (201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17-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종욱 (2018).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4월 호), 185-188.

김지근, 허경민, 허다연, 이기학 (2018). 성인도래기의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217-248.

김지범, 강정한,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외 (201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성균관대학교 서버이리서치센터 웹사이트 [http://kgss.skku.edu/?page\\_id=39](http://kgss.skku.edu/?page_id=39)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국립국어원 (2018).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서 2018년 10월 18일 인출.

금융위원회 (2017).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웹사이트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50030&page](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50030&page)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대학알리미 (각 년도). **기숙사 수용률**.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대학알리미 (각 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대학알리미 (각 년도). **평균등록금**.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8년 9월 10일 인출.

대학알리미 (각 년도). **학자금대출 이용학생비율(등록금(학비))**.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8년 9월 10일 인출.

대한민국정부 (2017). **2017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프로그램**. 세종: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라기태 (2016). 청년 니트족: 실태와 정책.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45, 1-6.
- 머니투데이 (2018.05.06.). **받고 또 받고...구멍 뚫린 '너도나도 청년수당'**.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8050414240685659&type=1&gubn=undefined>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View.jsp?pSeq=1662&pMenuCD=0406000000&pType=02](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View.jsp?pSeq=1662&pMenuCD=0406000000&pType=02)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CurrentPage=1&pType=02&pTab=01&pSearchType=01&pSearchWord=%EC%97%AC%EA%B0%80%ED%99%9C%EB%8F%99&x=0&y=0](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CurrentPage=1&pType=02&pTab=01&pSearchType=01&pSearchWord=%EC%97%AC%EA%B0%80%ED%99%9C%EB%8F%99&x=0&y=0)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18. 5. 16.).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에서 2018년 10월 12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Type=02&pSearchType=01&pSearchWord=%EA%B5%AD%EB%AF%BC%EB%8F%85%EC%84%9C](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Type=02&pSearchType=01&pSearchWord=%EA%B5%AD%EB%AF%BC%EB%8F%85%EC%84%9C)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 박건, 국미애 (2016). **청년여성 첫 일자리 실태조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전략 17-02). 세종: 국토연구원.
-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 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2013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3-R45).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법무부 (2017. 12.). **『체류외국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 KOSIS 국가통계포털 웹

사이트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11&confmNo=111004&kosisYn=Y>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법무부 (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_2주간 외래이용을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9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94&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_월간음주를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1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12&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_현재흡연을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0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영양조사\_견기실천을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5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54&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영양조사\_비만 유병을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0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영양조사\_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영양조사\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23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23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_우울증상 경험률**.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 Type=7](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 Type=7)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_우울감 경험률**.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 7](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 7)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17). **전국 지자체 청년 자치법규 추진현황**.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내부자료.
- 서울혁신기획관 (2015.11.). **서울청년 희망프로젝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 계획**. 서울: 서울특별시청 서울혁신기획관.
- 성지미, 안주엽 (2012).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한국경제연구**, 30(3), 5-46.
- 손연정 (2018). 청년세대 행복 결정요인 분석-대학 졸업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플로키움 PPT 발표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선미, 김영옥, 김종숙, 안준기 (2017).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 (2017 연구보고서 14).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용한 (2016). 청년 일자리 현황과 사회인식의 변화 . **2016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대외심포지엄**, 10-11.
- 오호영, 송창용, 송경모 (2012). **청년층의 취업준비가 실태파악을 통한 진로정책 과제** (기본연구 2012·24).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일, 김소라 (2017). 광양만권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구직자와 재직자의 요구 분석. **사회과학연구**, 56(2), 235-266.
- 윤소하 (2017. 9. 20.). **2017년 국정감사|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 윤소하 의원실 웹사이트 [http://yunsoha.kr/xe/act\\_03](http://yunsoha.kr/xe/act_03)

- /9170에서 2018년 1월 4일 인출.
- 의안정보시스템 (2018). **청년 관련 기본법안**.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 이윤주, 김기현, 하형석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서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8).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www.elis.go.kr>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 장훈, 정현일, 김규찬, 박진우, 김기호 (2015).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망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정병순, 김태욱 (2016). **청년 활동 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2015-PR-46)**. 서울: 서울연구원.
- 정현상 (2016).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노동리뷰**, 69-82.
- 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 청년 종합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조돈문 (2017).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과 일자리 중개의 선순환. **현상과 인식**, 41(4), 13-53.
- 중소벤처기업부 (각 년도). **신설법인동향**.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C&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C&conn_path=I2)(2010-2016년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09N\\_10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09N_102&conn_path=I2)(2017-2018년 자료)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년도).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63>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 채구묵 (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35-61.

청년기본법안 (2018).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1990호].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Q8W0I2V1F9V1W6C0Z7B0S4Q8H3O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Q8W0I2V1F9V1W6C0Z7B0S4Q8H3O7)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6739호].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7S0K4Z1K3C1I1C4O2D5T7N8V3B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7S0K4Z1K3C1I1C4O2D5T7N8V3B5)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2017).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7738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H7Z0I6C3Z0G1R8S0E5A5X0N2M4J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H7Z0I6C3Z0G1R8S0E5A5X0N2M4J3)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6).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0024호].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J0Q5G3Y0D1U4M2D3Z4H3A6J8A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J0Q5G3Y0D1U4M2D3Z4H3A6J8A5)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6).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778호].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6E0D8T2Q4W1G4U5R0Y5M7J6C7V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6E0D8T2Q4W1G4U5R0Y5M7J6C7V1)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청년정책기본법안 (2016).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620호].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6C0B8G1A7H1B4L3L5M5L7U9F2R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6C0B8G1A7H1B4L3L5M5L7U9F2R1)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청년발전기본법안 (2016).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070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H1O2K0Z2E1G4X3H0C0D8H0B4Y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H1O2K0Z2E1G4X3H0C0D8H0B4Y1)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최병근 (2017).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1252, 1-4.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보고 2016-1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 (2018a). **2018년 3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에서 2018년 4월 26일 인출.

통계청 (2018b). **2018년 9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71062](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71062)에서 2018년 10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_가구주연령계층별(10세) 자산, 부채, 소득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가계동향조사\_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20&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20&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가계동향조사\_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_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_성 및 학제별 대학졸업소요 기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S&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_성별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및 시기**.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_성별 휴학경험유무, 휴학사유(복수응답), 평균휴학기간(대졸자)**.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S&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_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기업생멸행정통계\_산업별 대표자 성·연령별 종사자수(활동/신생/소멸)**.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2&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망원인통계\_사망원인(236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가족관계 만족도(전반적인 가족관계,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9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9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62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62R&conn_path=I2)에서 2018년 8

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단체 참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SSSP052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2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물품기부 인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0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01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

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사회적 관계망(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자원봉사활동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3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3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2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2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전공과 직업의 일치도(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50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50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23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_현금기부 인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8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81R&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_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_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_시도/성/연령별 혼인율**.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_시도/초혼연령별 혼인**.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6&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_시도별 평균초혼연령**.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_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4&conn_path=I2)에서 2018년 10

월 1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_가구주의 연령별/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51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51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한국경영자총협회 (각 년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웹사이트 [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6023](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6023)에서 2018년 8월 13일 인출.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2018).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 전망. **고용노동브리프** 제84호(2018-06). 1-1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한국일보 (2018.05.12.). [내집 마련 역발상] “청년들 ‘지·옥·고’ 탈출 시켰는데 ‘빈민 주택’이라뇨”.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www.hankookilbo.com/v/9c1fc1b9d94a416682e4e861e7bd26e7>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한국행정연구원 (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01-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웹사이트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한요셉 (201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7-07).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황성수, 류지영 (2012).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이슈페이퍼**, 2012(15), 1-24.



- 内閣府 (2017). 子供・若者白書. Retrieved April 20, 2018, from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9honpen/pdf\\_index.html](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9honpen/pdf_index.html).
- Janaína Paisley (2016).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FRANCE*. Retrieved March 23, 2018, from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france>.
- Karla Malm (2016).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FINLAND*. Retrieved March 23, 2018, from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finland>.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WHO (Five) Well-Being Index (1998 version). Retrieved March 23, 2018, <https://www.who-5.org>.
- \_\_\_\_\_ ( ). 청년 보장에 관한 정보(Tietoa nuorisotakuusta). 핀란드 청년 보장제 홈페이지 <https://nuorisotakuu.fi/tietoa-nuorisotakuusta>에서 2018년 10월 5일 인출.
- \_\_\_\_\_ ( ).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Youth Policy in France). EACEA 홈페이지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overview-France>에서 2018년 10월 8일 인출



## ○ — 부 록



# 부 록

## 1.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청년용\_19-39세)



|  |  |  |  |
|--|--|--|--|
|  |  |  |  |
|--|--|--|--|

### 2018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청년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들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19세~만39세(1978년 7월 1일~1999년 6월 30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15~18세인 가운데 중 · 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          |                                                          |        |                 |        |  |
|----------|----------------------------------------------------------|--------|-----------------|--------|--|
| 면접원 ID   |                                                          | 면접원 이름 |                 | S.V 검증 |  |
| 조사구 일련번호 |                                                          | 거처번호   |                 | 가구번호   |  |
| 주소(구/동)  | 시/도      구/시/군      동/읍/면                                |        |                 |        |  |
| 응답자 연락처  | (      ) - (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 주택 유형    |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 |        |                 |        |  |

| 구 분                   | 남 성                                 | 여 성 | 합 계 |
|-----------------------|-------------------------------------|-----|-----|
| 총 가구원 수               |                                     |     |     |
|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                                     |     |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                                     |     |     |
| 가구당 조사표 부수            | 해당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     |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  |
|------------|--|
|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

## 동 의 서

###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

비동의

###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

비동의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원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명)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I.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 소 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출산장려금 확대          |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 ⑤ 가구의 소득 증대         | ⑥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 |                    |                    |
|--------------------|--------------------|
|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
|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 ④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
|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⑥ 가구의 소득 증대        |
| ⑦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7)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8로 이동

문7-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 8로 이동

문7-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
|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
|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 ⑥ 기타( )               |

문8)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9)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문11)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2)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 영역(문13)으로 이동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4)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5)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6으로 이동
- ② 없다 → 문 20으로 이동

※ 다음(문16~문19)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6)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7)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8) (문16에 ① 또는 문17에 ① 응답자만)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 ②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 ③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 ④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 ⑤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_\_\_\_\_)

문19)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응답 후 문22로 이동

※ 다음(문20~문21)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0)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1)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다음(문22~문24)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2)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3)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문24)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이미 받고 있다

###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26)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27)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된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28)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29)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29-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30)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0-1)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1)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은 모를 경우만 1), 2)에 '⑨ 모름'에 체크)

| 구 분                                          | 예 | 아니오 | 잘 모름 |
|----------------------------------------------|---|-----|------|
|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① | ②   |      |
|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문32)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5-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팽창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6)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 44로 이동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 44로 이동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37)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해 보았습니까?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문38) 귀하는 지난주에 정규교육기관(학교)을 다니셨습니까?

☞ 방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이므로 '① 예' 로 응답,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휴학이나 중퇴인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48로 이동
- ② 아니오

문39) (문38에서 ②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주에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을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를 했지만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41로 이동
- ② 아니오

문40) (문39에서 ②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①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했다
- ②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 ③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 ④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 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
- ⑥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41) (문38에서 ② 응답자와 문39 응답자)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 선택 (V)             |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
|--------------------|-------------------------------------------|
| (1) 1개월 미만 (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
| (2) 1개월 이상 (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
| (3) 1년 이상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

문42) (문38에서 ② 응답자와 문39 응답자) 다음 항목들이 귀하가 교육이나 취업, 직업훈련을 받는데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는 것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해당사항 없음 |
|------------------------------------------|-----------|--------|------|-----|--------|---------|
| (1) 업무 경험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자신감의 결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 (4) 금전적인 이유(학원비, 생활비 부족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7)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8)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9)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0)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1)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2)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줄 수 없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13) 나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문43) (문38에서 ② 응답자와 문39 응답자)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 ① 심리, 정신 건강 문제  
③ 가족 관계의 어려움  
⑤ 대인관계의 어려움  
⑦ 취업 문제  
⑨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 ② 신체 건강 문제  
④ 결혼문제  
⑥ 학업이나 진학문제  
⑧ 경제적인 어려움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8)로 이동



문44)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합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자세히 적을 것 : \_\_\_\_\_)

약 

|  |  |  |  |  |
|--|--|--|--|--|
|  |  |  |  |  |
|--|--|--|--|--|

 만원

-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 ② 개인발전/승진
- ③ 더 나은 근무환경(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다음의 문항들은 전체 대상자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48)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49)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이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대책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참여사업명:                  )
- ② 참여한 적이 있다(참여사업명:                  , 참여년도:          년)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0) 귀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참여사업명:                  )
- ② 참여한 적이 있다(참여사업명:                  , 참여년도:          년)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1) 귀하는 이전에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주거」 영역(문55)으로 이동

문52) (문51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주거」 영역(문55)으로 이동

문53) (문52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54) (문52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주거」 영역(문55)으로 이동
- ② 아니오

문54-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7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
|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 ④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
|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5)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    |  |  |  |  |
|--|----|--|--|--|--|
|  | 전체 |  |  |  |  |
|--|----|--|--|--|--|

| 문항                                    |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곤도조겨라 가조이 아니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밥을 따로 쓰고 거식과 욕식 등은 곤도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④ [두기] 현재 가치 참고 이디      =      [두기] 연연(무성)으로 읽음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① 예                      ② 아니오 ➔ 「건강」 영역(문6)으로 이동

문60-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② 원룸 (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④ 하숙
- ⑤ 기숙사
- ⑥ 고시원
- ⑦ 아파트
-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1)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62)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63)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65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64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64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4로 이동

문64) (문63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65)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구 분                 | 예 | 아니오 |
|---------------------|---|-----|
|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문66)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67)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문 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때때로<br>그렇다 | 2주의<br>절반<br>이하는<br>그렇다 | 2주의<br>절반<br>이상은<br>그렇다 | 대부분<br>그렇다 | 항상<br>그렇다 |
|----------------------------------|-----------------|------------|-------------------------|-------------------------|------------|-----------|
|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나는 집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문68)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69로 이동**

문68-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 ⑦ 매일      |           |

문69)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70)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71)으로 이동

문70-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71)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70-2로 이동

문70-2) (문70-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1)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항 목       | 선호 정도 |   |   |   |   |   |   | 항 목   |
|-----------|-------|---|---|---|---|---|---|-------|
| (1) 일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여가 중시 |
| (2) 현실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이상 중시 |
| (3) 결과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과정 중시 |
| (4) 개인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집단 중시 |

문72)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대인관계

⑩ 꿈·복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73)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VII.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4)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명)

문75)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 문 항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가성세대<br>(40,50대) |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인<br>(70세 이상)   |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76)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문 항                                         |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 보통이다 | 아마도 참여함 | 확실히 참여함 |
|---------------------------------------------|-------------|-------------|------|---------|---------|
|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항의 전화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77)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Ⅷ. 다음은 「신규졸업(예정)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2) 귀하는 지난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에 졸업하였거나, 2018년 8월에서 2019년 8월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매경문항 1)로 이동**

문82-1) 귀하의 졸업연월 또는 졸업예정연월을 기입해주시시오.

■ 졸업자 졸업연월 :     년   월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연월 :     년   월



문83)~문87)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신규졸업(예정)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졸업자는 2017년 2월~2018년 2월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을 졸업한 자.

신규졸업예정자는 2018년 8월~2019년 8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을 졸업할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문83) 귀하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일자리센터 등)으로부터 취업이나 진로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83-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 문항                                      | 문83) 서비스를 받은 경험 | 문83-1) 도움이 되는 정도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84)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①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취·창업 준비

⑤ 문화 및 여가생활

⑥ 아무 계획 없음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85) 귀하는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

②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③ 면접 실습 등 취업준비 지원

④ 인턴사원제 등 즉각적인 일자리 연계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졸업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혼인]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

-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배경문항 3)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4)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구분      | 학교 안 다님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2-3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 잘 모르겠음 |
|---------|---------|---------|--------|---------|-------------|-----------|----------------|--------|
| (1) 본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2)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3)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본인 기준)(※ 문15에 ① 응답자만)는 아래의 문항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 학교소재지<br>(※ 보기1 참조) | 전공계열<br>(※ 보기2 참조) | 입학년월        | 졸업여부                         | 졸업년월<br>(졸업한 경우 응답) |
|---------------------|--------------------|-------------|------------------------------|---------------------|
|                     |                    | ____년 ____월 | ① 졸업<br>② 졸업안함(재학, 중퇴, 휴학 등) | ____년 ____월         |

※ 보기1(소재지)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보기2(전공계열)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배경문항 5) (※ 문36에 ①,② 응답자만)[취업]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 (1) 종사상 지위                     | ① 임금 근로자                                                                                                                                               | ② 비임금 근로자                                     |
| (2) 고용형태                       | ① 정규직(상용근로자)<br>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br>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br>③ 무급가족종사자 |
| (3) 근로시간 유형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                                               |
| (4) 직장유형                       |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br>② 외국인회사<br>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br>④ (재단, 사단)법인단체<br>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br>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br>⑦ 기타 (                      ) |                                               |
| (5) 종사자 수<br>(사업체 기준)          | ① 1-4인                      ② 5-9인<br>③ 10-29인                ④ 30-99인<br>⑤ 100-299인            ⑥ 300-499인<br>⑦ 500인 이상                                |                                               |
| (6) 근속년수<br>(현 직장을 기준으로<br>응답) | <div><div></div><div></div></div> 년 <div><div></div><div></div></div> 개월                                                                               |                                               |

 **기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 직업분류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b>1 관리자</b>                   |                            |                           |                              |                            |                               |    |         |    |         |
| 공공 및 기업 고위직(1)                 | 2225 내트워킹시스템 개발자           | 2482 행사인사                 | 2714 전사                      | 2881 장기감독 및 코치             | 4128 기타원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    |         |    |         |
| 1110 외화교환 고위관리원 및 공공관계관리원      | 2226 컴퓨터 보안 전문가            | 2483 치과기사                 | 2715 경영 및 전담 전문가             | 2882 직업 운동선수               | <b>이윤 창출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4)</b>   |    |         |    |         |
| 1120 기업고위관리원                   | 2227 웹 및 멀티미디어 기술자         | 2484 치과원장사                | 2721 투자 및 신용 분석가             | 2883 장식판 및 장기기계원           | 4211 간호원                      |    |         |    |         |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2)               | 2228 웹 개발자                 | 2485 워드프로세서기사             | 2723 보철 및 금융 상품 개발자          | 288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기사       | 4219 기타 의료 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      |    |         |    |         |
| 1201 정부행정 관리자                  | 2230 정보 시스템 운영자            | 2486 물리 및 작업 치료사          | 2724 증권 및 외환 딜러              | 2889 기타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4221 이혼사                      |    |         |    |         |
| 1202 경영지원 관리자                  | 2240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 2489 임상 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 2725 손해사정인                   | 2891 연예인 및 스포츠 마스코트        | 4222 미용사                      |    |         |    |         |
| 1209 기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 <b>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3)</b>     | 2491 응급구조사                | 2729 기타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 2899 미술사 및 기타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 4223 피복인사 및 패션관리사             |    |         |    |         |
| <b>전문서비스 관리직(3)</b>            | 2311 건축 및 건축공학 기술자         | 2492 회계사                  | 2731 상품/채 전문가                | <b>3 사무 종사자</b>            | 4224 에이전시/리포트 및 분석사           |    |         |    |         |
| 1311 연구 관리자                    | 2312 토목공학 기술자              | 2493 인행사                  | 2732 여행상품 개발자                | <b>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b>   | 4225 직원들을 미용사                 |    |         |    |         |
| 1312 교육 관리자                    | 2313 조경 기술자                | 2494 의약품사                 | 2733 광고 및 홍보 전문가             | 3111 조세관련 사무원              | 4228 기타 미술 관련 서비스 종사원         |    |         |    |         |
| 1313 법률 생활 서비스 및 고도 관리자        | 2314 도시 및 교통계획 전문가         | 2495 간호보조사                | 2734 조사 전문가                  | 3112 관세관련 사무원              | 423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    |         |    |         |
| 1320 보철 및 금융 관련 관리자            | 2315 호텔 및 자영업 관련 전문가       | 2496 연금사                  | 2735 행사/행사자                  | 3113 법무행정 사무원              | 4232 호텔 종사자                   |    |         |    |         |
| 1331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               | 2316 건설기계 시범원              | 2497 사회복지사                | 2741 건설경기 전문가                | 3114 국가지원 및 공공행정 사무원       | 4233 장례상담원 및 장례 지도사           |    |         |    |         |
| 1332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232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2492 보육 교사                | 2742 해외 영업원                  | 3121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 4239 기타(비행승무원 및 의료보조 서비스 종사원) |    |         |    |         |
| 1340 문화예술 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 2322 화학공학 시범원              | 2493 상담상담원 및 청소년 지도사      | 2743 기술 영업원                  | 3122 인사 및 교육 관련 사무원        | <b>음향 및 여가 서비스직(4)</b>        |    |         |    |         |
| 1350 환경보존 관련 관리자               | 2331 금속재료공학 시범원            | 2494 심문전문가 및 형사선 지도사      | 2744 상품관리 및 행사               | 3123 재무관리 사무원              | 4311 행사/행사장 운영원               |    |         |    |         |
| 136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2341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2495 시민 단체 활동가            | 2745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 3124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 4312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    |         |    |         |
| <b>2 생산 전문가 및 생산 관련 관리직(4)</b> | 2342 환경공학 기술자              | 2497 기타(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 <b>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리직(2)</b> | 4325 무척추 동물 관련 종사자         | 4323 숙박시설 서비스                 |    |         |    |         |
| 1411 건설 및 농업 관련 관리자            | 2402 화학공학 시범원              | 2498 생산직                  |                              | 4326 금속 사무원                | 4328 인쇄물 서비스                  |    |         |    |         |
| 1412 건설/기타 수도 관련 관리자           | 235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2499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                              | 4327 총무 사무원                | 4329 인쇄물 서비스                  |    |         |    |         |
| 1413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 235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b>교육전문가 및 관리직(2)</b>     |                              | 4328 학계 사무원                | 4330 기타(의료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    |         |    |         |
| 1420 기타 건설 전문가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2353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2511 대학 교수                |                              | 4329 관리 사무원                | <b>30 및 음악 서비스직(4)</b>        |    |         |    |         |
| <b>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5)</b>       | 2354 전기 전자 및 기계공학 시범원      | 2512 대학 사각강사              |                              | 4341 비서                    | 4411 전담 차량 및 조차사              |    |         |    |         |
| 1511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 2361 소프트웨어 및 웹 관련 전문가      | 2521 중 고등학교 교사            |                              | 4342 전사 지원 담당원 및 사무 보조원    | 4412 중대 차량 및 조차사              |    |         |    |         |
| 1512 음식 관련 관리자                 | 2362 보안서비스 및 훈련 관리원        | 2522 초등학교 교사              |                              | <b>금융 및 보험 서비스직(3)</b>     | 4413 양식 차량 및 조차사              |    |         |    |         |
| 1521 숙박 여행 예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 2363 비파괴 검사원               | 2523 특수교육 교사              |                              | 4414 자산 관리 담당원 및 조차사       | 4418 기타 차량 및 조차사              |    |         |    |         |
| 1522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 2371 항공기 조종사               | 2524 유체공학 교사              |                              | 4421 차량 관리 담당원             | 4421 비서                       |    |         |    |         |
| 1530 항공 서비스 및 정비 관련 관리자        | 2372 항공 정비 및 도색사           | 2541 관리 및 여행 행사           |                              | 4422 호텔                    |                               |    |         |    |         |
| 1600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 2373 판매사                   | 2542 컴퓨터 기사               |                              | 4423 기타 음식서비스 종사원          |                               |    |         |    |         |
| <b>2 전문가 및 관리 종사자</b>          | 238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2543 기술 및 기계공학 전문가        |                              |                            |                               |    |         |    |         |
| <b>과학 전문가 및 관리직(2)</b>         | 2392 생물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2544 예술 행사                |                              |                            |                               |    |         |    |         |
| 2111 생명과학 연구원                  | 2393 가스 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 2545 학생 및 방문 교사           |                              |                            |                               |    |         |    |         |
| 2121 자연과학 연구원                  | 2394 생명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2549 기타 문화 기술 및 예술 행사     |                              |                            |                               |    |         |    |         |
| 2121 인문과학 연구원                  | 2395 식품 영양공학 및 에너지 시범원     | 2581 정책관련 연구원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                            |                               |    |         |    |         |
| 2122 사회과학 연구원                  | 2396 케미스트                  | 2582 대학 교육조교              |                              |                            |                               |    |         |    |         |
| 2131 생명과학 시범원                  | 2399 기타공학 관련 기술자 및 시범원     | 2589 보조 교사 및 기타 교사        |                              |                            |                               |    |         |    |         |
| 2132 농림어업 관련 시범원               | <b>보안 사회복귀 및 종교 관리직(4)</b> | <b>법률 및 행정 전문직(2)</b>     |                              |                            |                               |    |         |    |         |
| 2133 자연과학 시범원                  | 2411 전문 의사                 | 2611 판사 및 검사              |                              |                            |                               |    |         |    |         |
| <b>전문서비스 전문가 및 기술직(2)</b>      | 2412 일반 의사                 | 2612 변호사                  |                              |                            |                               |    |         |    |         |
| 22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 2413 약사                    | 2613 법무 및 집행관             |                              |                            |                               |    |         |    |         |
| 22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2414 치과 의사                 | 2614 연금사                  |                              |                            |                               |    |         |    |         |
| 22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사           | 2420 약사 및 약사보              | 2620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                              |                            |                               |    |         |    |         |
| 223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 2430 간호사                   | <b>경영 금융전문가 및 관리직(2)</b>  |                              |                            |                               |    |         |    |         |
| 2240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 2440 영양사                   | 2712 회계사                  |                              |                            |                               |    |         |    |         |
|                                | 2451 임상심리사                 | 2713 세무사                  |                              |                            |                               |    |         |    |         |

별첨: 직업분류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b>6 농업·임업·축산 종사자</b>       | 7401 육장원                     |    | 기타 기능 관련 직업(제)           | 8434 광석 및 석재를 가공·조작원        | 8222 택배원                      |                           |         |    |         |
| <b>농촌 숙제(제)</b>             |                              |    | <b>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제(제)</b> | 7911 굴레원                    | 8439 기타 비금속 제품 관련 생산·조작원      | 8223 운석 배출원               |         |    |         |
| 8111 곡작물 재배원                | 7510 자동차 장사원                 |    |                          | 7912 기름 및 보석 세공업원           | <b>기계조립 및 관련 기계 조제(제)</b>     | 8229 기타 비금속               |         |    |         |
| 8112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 7521 항공기 장사원                 |    |                          | 7921 건설 배관공                 | 8510 금속공작기계 조제원               | <b>제조 관련 단순무직(제)</b>      |         |    |         |
| 8113 과수작물 재배원               | 7522 선박 장사원                  |    |                          | 7922 굴삭 배관공                 | 8520 냉·난방 관련 설비 조제원           | 8307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         |    |         |
| 8121 원주목 재배원                | 7523 철도기관차 및 전동차 장사원         |    |                          | 7923 기타 배관공                 | 8530 자동차관련 및 산업용 로봇 조제원       | <b>창조 및 관리 관련 단순무직(제)</b> |         |    |         |
| 8122 조종원                    | 7529 기타 운송장비 장사원             |    |                          | 7991 석관 세정원 및 방역원           | 8541 자동차 조립원                  | 8411 창고원                  |         |    |         |
| 8131 농업업 관련 종사원             | 7531 농업기계 설치 및 장사원           |    |                          | 79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원           | 8542 자동차 부품 조제원               | 8421 항공기 정비원 및 재사용품 수거원   |         |    |         |
| 8132 기류 사육 종사원              | 7532 송전기 설치 및 장사원            |    |                          | <b>8 장제 기계 조작 및 조제 종사자</b>  | 8543 운송장비 조제원                 | 8422 항공기 정비원 및 재사용품 수거원   |         |    |         |
| 8139 기타 사육 관련 종사원           | 7533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장사원       |    |                          | <b>식물 가공 관련 기계 조제(제)</b>    | 8544 일반기계 조제원                 | 8423 조립원                  |         |    |         |
| <b>농업 숙제(제)</b>             | 7534 농동·농장·공원기 설치 및 장사원      |    |                          | 8111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 조제원      | 8550 농업기계 부품 조제원              | 8424 금속원                  |         |    |         |
| 8201 조경 정원 및 조경 관련 종사원      | 7535 비닐하우스 설치 및 장사원          |    |                          | 8112 굴삭기/굴삭기 관련 기계 조제원      | <b>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제(제)</b>    | 8425 금속원                  |         |    |         |
| 8209 안목재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 7539 건설 및 농업기계 설치 및 장사원      |    |                          | 8113 옥류 어류 및 농산물 가공 기계 조제원  | 8610 발전 및 배전장치 조제원            | 8426 금속원                  |         |    |         |
| <b>산업 숙제(제)</b>             | 7539 운송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장사원  |    |                          | 8114 과실 및 채소 관련 기계 조제원      | 8620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제원           | 8427 금속원                  |         |    |         |
| 8301 양원원                    | <b>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제(제)</b>     |    |                          | 8120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제원        | 8631 전기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조제원        | 8428 금속원                  |         |    |         |
| 8302 이류 및 배터                | 7611 PC 및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 8130 기타 식물 가공 관련 기계조제원      | 8632 전자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조제원        | 8429 금속원                  |         |    |         |
| <b>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b>    | 7612 판매원 설치 및 수리원            |    |                          | <b>섬유 및 섬유 관련 기계 조제(제)</b>  | 8640 전기 전자부품 및 제품 조제원         | 8430 금속원                  |         |    |         |
| <b>식물 가공 관련 기능제(제)</b>      | 7619 기타 전기·전자기 설치 및 수리원      |    |                          | 8211 섬유제조 기계조제원             | <b>운전 및 운송 관련제(제)</b>         | 8431 금속원                  |         |    |         |
| 7101 제철원 및 제철원              | 7621 산업원공                    |    |                          | 8212 펄프 및 종이 관련 조제원         | 8710 철도 및 전차 운전기사             | 8432 금속원                  |         |    |         |
| 7102 제철조원                   | 7622 내선원공                    |    |                          | 8221 목재 및 목재기 조제원           | 8720 화물자동차 운전 관련 종사원          | 8433 금속원                  |         |    |         |
| 7103 장제원 및 도축원              | 7623 내선원공                    |    |                          | 8222 신발 제조 조제원 및 조제원        | 8731 택시 운전원                   | 8434 금속원                  |         |    |         |
| 7104 식물 및 동물 가공원            | <b>건설 및 건설 관련 기능제(제)</b>     |    |                          | 8223 기타 식물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제원   | 873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 8435 금속원                  |         |    |         |
| 7105 건설 및 일반건설 종사원          | 7711 강구조물 조제원 및 조제원          |    |                          | 8231 석회 관련 기계조제원            | 8739 기타 자동차 운전원               | 8436 금속원                  |         |    |         |
| 7109 기타 식물·동물 관련 종사원        | 7712 석공·철공                   |    |                          | <b>화학 관련 기계 조제(제)</b>       | 8740 물품·장비 정비 조제원             | 8437 금속원                  |         |    |         |
| <b>섬유·유류 및 기타 관련 기능제(제)</b> | 7721 철근공                     |    |                          | <b>화학 관련 기계 조제(제)</b>       | 8750 건설 및 제철 관련 운전원           | 8438 금속원                  |         |    |         |
| 7211 제사사                    | 7722 콘크리트공                   |    |                          | 8311 석유 및 화학·석유 관련 화학장치 조제원 | 8760 선박 관련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 8439 금속원                  |         |    |         |
| 7212 제사사                    | 7723 건축 석공                   |    |                          | 8312 화학물 가공 장치 조제원          | <b>상하수도 및 재사용 관련 기계 조제(제)</b> | 8440 금속원                  |         |    |         |
| 7213 제사사                    | 7724 건축 목공                   |    |                          | 8319 기타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제원   | 8810 상하수도 관리장치 조제원            | 8441 금속원                  |         |    |         |
| 7214 제사원                    | 7725 조제품 및 석재 부설원            |    |                          | 8321 화학 제품 생산기 조제원          | 8820 재사용 처리 및 소각로 조제원         | 8442 금속원                  |         |    |         |
| 7219 기타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 7729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    |                          | 8322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제원     | <b>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제(제)</b>    | 8443 금속원                  |         |    |         |
| 7221 화학조제원                  | 7731 미장공                     |    |                          | 8323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제원         | 8911 목재 가공 관련 기계 조제원          | 8444 금속원                  |         |    |         |
| 7222 양광 및 양광조제원             | 7732 방수공                     |    |                          | 83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제원        | 8912 가죽조제원                    | 8445 금속원                  |         |    |         |
| 7223 도포 및 기구·부품 조제원         | 7733 도장공                     |    |                          | <b>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제(제)</b> | 8913 철도 및 중기 제조장치 조제원         | 8446 금속원                  |         |    |         |
| 7224 의류·가죽 및 기타 수선원         | 7734 비폐기 시공업원                |    |                          | 8411 주조 조제원                 | 8914 종이 제품 생산기 조제원            | 8447 금속원                  |         |    |         |
| 7229 기타 의류 조제원              | 7735 도배공 및 유리 부속원            |    |                          | 8412 단조 조제원                 | 8919 기타 화학 및 중기 관련 기계조제원      | 8448 금속원                  |         |    |         |
| <b>목재·가공 및 관련 기능제(제)</b>    | 7736 건축 도장공                  |    |                          | 8413 조각원                    | 8921 인쇄기 조제원                  | 8449 금속원                  |         |    |         |
| 7301 목제품 제조 관련 종사원          | 7737 세시 조립 및 설치원             |    |                          | 8414 금속·기공 관련 제조장치 조제원      | 8922 사진·인쇄 및 복사기 조제원          | 8450 금속원                  |         |    |         |
| 7302 가구 제조 및 수리원            | 7739 기타 건축·인쇄 관련 기능 종사원      |    |                          | 8415 금속·기공 기계조제원            | <b>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제(제)</b>    | 8451 금속원                  |         |    |         |
| 7303 의·가죽 및 조물사             | 7741 굴삭기·제철 및 석재 절단원         |    |                          | 8416 제과기조제원                 | 8923 기타 제조 관련 기계조제원           | 8452 금속원                  |         |    |         |
| 7304 관련 제철 및 설치원            | 7742 철도 설치 및 보수원             |    |                          | 8417 편곡기 조제원                | <b>9 단순노동 종사자</b>             | 8453 금속원                  |         |    |         |
| <b>금속·화학 관련 기능제(제)</b>      | 7749 기타 세공 및 금속 관련 종사자       |    |                          | 8421 도자기 조제원                | <b>건설 및 관리 관련 단순무직(제)</b>     | 8454 금속원                  |         |    |         |
| 7411 금장원                    | <b>양광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제(제)</b>  |    |                          | 8422 도금 및 금속분리기 조제원         | 9100 건설 및 관리 관련 종사원           | 8455 금속원                  |         |    |         |
| 7412 조조원                    | 7801 양광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    |                          | 8423 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제원        | <b>운송 관련 단순무직(제)</b>          | 8456 금속원                  |         |    |         |
| 7413 단조원                    | 7802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    |                          | 8424 컴퓨터·전자기 조제원            | 9210 하역 및 화물 단순 종사원           | 8457 금속원                  |         |    |         |
| 7421 제련원                    | 7803 통신·방송 및 인터넷 장비 설치 및 수리원 |    |                          | 8431 실험 및 검출물 제조 조제원        | 9221 우편물 정비원                  | 8458 금속원                  |         |    |         |
| 7422 환금원                    |                              |    |                          |                             |                               |                           |         |    |         |

## 2.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_15-18세)



|  |  |  |  |
|--|--|--|--|
|  |  |  |  |
|--|--|--|--|

###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15세~만18세(1999년 7월 1일~2003년 6월 30일 출생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청년층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          |                                                          |        |       |        |  |
|----------|----------------------------------------------------------|--------|-------|--------|--|
| 면접원 ID   |                                                          | 면접원 이름 |       | S.V 검증 |  |
| 조사구 일련번호 |                                                          | 거처번호   |       | 가구번호   |  |
| 주소(구/동)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        |  |
| 응답자 연락처  | ( ) - (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 주택 유형    |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_____) |        |       |        |  |

| 구 분                   | 남 성                       | 여 성 | 합 계 |
|-----------------------|---------------------------|-----|-----|
| 총 가구원 수               |                           |     |     |
|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                           |     |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                           |     |     |
| 가구당 조사표 부수            | 해당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     |

※ 조사원: 동일 가구원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  |
|------------|--|
|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

## 동 의 서

###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어진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명)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 I.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교육 영역(문6)으로 이동

문5-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7)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8)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9)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11)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2)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13)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14)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5)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6)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16-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17)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은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에 체크)

| 구 분                                          | 예 | 아니오 | 잘 모름 |
|----------------------------------------------|---|-----|------|
|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자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① | ②   |      |
|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문18)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9)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주거,영역(문20)으로 이동』
- ② 아니오

문19-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족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용 것 : \_\_\_\_\_)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0)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문21)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2)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4)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문25) (문24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부모님과 언제까지 함께 살 생각입니까?

- 432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6)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27)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8)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30으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29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29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29로 이동

문29) (문28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구 분                 | 예 | 아니오 |
|---------------------|---|-----|
|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문31)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32)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2주의 절반 이하만 그렇다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대부분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문33)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34로 이동**

문33-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⑦ 매일

문34)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VII.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9)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명)

문40)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기성 세대<br>(40, 50대) |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인<br>(70세 이상)     |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1)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문 항                                         |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 보통이다 | 아마도 참여함 | 확실히 참여함 |
|---------------------------------------------|-------------|-------------|------|---------|---------|
|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항의 전화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2)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3) 귀하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문44)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문45로 이동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문45로 이동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문45로 이동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45로 이동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문44-1) (문44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                 |                  |
|-----------------|------------------|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

문44-2) (문44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⑥ 기타( )           |

Ⅷ. 다음은 「신규졸업(예정)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5) 귀하는 2018년 8월에서 2019년 8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배경문항 1)로 이동**

문45-1) 귀하의 졸업예정연월을 기입해주시시오.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연월 :     년   월

☞ 문46)~문50)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는 2018년 8월~2019년 8월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문46) 귀하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일자리센터 등)으로부터 취업이나 진로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46-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문 함                                     | 문46) 서비스를 받은 경험 | 문46-1) 도움이 되는 정도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② 아니오           |                  |        |      |     |        |
| (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② 아니오           |                  |        |      |     |        |
|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② 아니오           |                  |        |      |     |        |
|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② 아니오           |                  |        |      |     |        |

문47)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①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취·창업 준비

⑤ 문화 및 여가생활

⑥ 아무 계획 없음

⑦ 기타(적을 것 : \_\_\_\_\_)



VIII.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구분     | 중학교 재학 | 고등학교 재학 |
|--------|--------|---------|
| (1) 본인 | ①      | ②       |

| 구분      | 학교 안 다님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2~3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 잘 모르겠음 |
|---------|---------|---------|--------|---------|-------------|-----------|----------------|--------|
| (2)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3)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년 신규졸업(예정)자 면담조사지

- \*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의 부가조사로서 청년 신규졸업자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심층면접대상 : 만 19세~30세 청년으로서 2017~2018년 졸업자와 2019년 졸업예정자

### Warming-up ... 인사 및 소개

#### 1. 좌담회 취지에 대해 설명

- 본 조사는 청년 신규졸업(예정)자들의 일과 생활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적합한 정책 처방에 활용하고자 실시함

#### 2.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

- 원하는 정답 또는 오답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함
- 감정, 느낌 등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매우 중요함
- 한 사람씩 큰 목소리로 이야기 할 것
-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며, 반대의견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
- 휴대폰 꺼 주길 당부
-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녹음을 진행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3. 참석자 소개

- 이름, 나이, 현재 상태(취업자의 경우 근무 업종 등), 졸업한 시기 등

## Part I. ... 일상생활과 사회관계

### 1. 용돈/대출

- 한 달에 용돈은 어디에 얼마나 쓰시나요?
  - \* 용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 \* 한 달 용돈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용돈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 \* 한 달 용돈은 얼마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생활비를 대출받은 경험이 있나요?
  - \* 있다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생활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고 있나요?

### 2. 소속감/공동체

- 현재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곳은 어디인가요?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 이외에 오프라인 상에서 소속한 공동체가(동아리, 학원, 스터디모임 등) 있나요?
- 소속감 없이 혼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가 있나요?
  - \* 어디에 소속되고 싶나요? 그 이유는?

### 3. 가족

- 본인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 가족들과 대화를 얼마나 하나요?
  - \* 보통 대화 주제는 무엇인가요?
- 취업 등 진로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나요?



- \* 누구에게/어떻게 받았나요?
- 살아가는데 가족들에게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생활비, 진로 등)
- \* 도움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멘토

-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의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 \* 있다면, 누구이고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나요?

#### 5. 졸업유예 여부

- 졸업유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
- 졸업예정자가 졸업유예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보통 졸업유예를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 Part II. ... 취업에 대한 의식

#### 1. 취업상황

- 최근 졸업자들이 취업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서인지, 개인의 역량 문제인지 등)
- \* 졸업자 중 취업이 안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 2. 기업선발 기준

- 신규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선발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신규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선발기준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3. 취업후 이직

- 신규졸업자들이 취업 후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변

신규졸업자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 취업 후 왜 이직할 생각을 했나요? 임시방편 직장인가요?
- 이직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 4. 취업 후 만족

- 취업 후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 \*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취업 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취업 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만족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5. 취업준비

- 취업 준비는 얼마나 하나요?
  - \* 하루 중 몇 시간 정도 하나요?
  - \* 어떤 취업준비를 하나요?(공부, 스터디모임, 자격증,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인턴 경험 등)
- 취업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취업 준비를 얼마나 했나요?)
- 취업준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진로상담, 컨설팅, 전문멘토, 정보 등)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6. 진로 및 취업계획

-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계획이 있나요?
  - \*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정해져 있나요?
  - \* 원하는 직장이 정해져 있나요?
  - \*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하는지를 알고 있나요?
- 어떤 도움이 있으면 진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진로 및 취업계획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친구, 선배, 멘토, 컨설팅 등)

\*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 Part III. ...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과 첫 일자리의 질

#### 1. 취업 기간

- 졸업 후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 (취업자 대상) 취업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로 예상했었고, 취업하는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 2. 근로 조건

- 첫 직장에 기대하는 근로조건은 어느 수준인가요?
- 직업의 안정성 등 기타로 기대하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 기대하는 연봉 수준은 얼마인가요?

#### 3. 선호하는 일자리

- 본인이 원하는/우선시하는 첫 일자리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일이 많더라도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 돈은 적더라도 여유가 있는 일자리,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자리의 지역적 위치 등)

#### 4. 일자리의 질

- 좋은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취업자 대상) 본인이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취업자 대상) 이직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Part IV. ... 창업

### 1. 창업

- 청년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창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혹은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 학교나 주변에서 창업을 권하는 사람이나 분위기가 있나요?
- 청년이 창업했을 때 성공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창업 지원

- 신규졸업자가 창업하는데 학교 등 도움을 주는 데가 있나요?
- 졸업자가 창업을 하려한다면 외부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졸업자가 창업을 할 때 학교, 정부, 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 Part V. ...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 1. 학교교육의 유용성

- 학교교육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학교교육이 본인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학교육이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에 얼마나 시간/비용 등을 투자하였나요?
- \* 학교교육 외 교육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학교교육과 비교해보았을 때, 어느 교육이 더 도움이 되나요? (장/단점)

## 2. 학교의 취업지원

- 학교에서의 취업 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학교에서의 취업관련 정보제공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등을 이용해보셨나요?
- \* 이용해 보았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학교에서 진로 상담,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 \* 있었다면, 어떤 서비스를 받았나요?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학교 이외에서 취업관련 지원을 받은 곳이 있었나요?
- \* 있었다면,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았나요?
- \* 학교에서의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 3. 학교 이외의 취업정보

- 학교 이외에서 취업 정보제공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 \* 학원, 취업정보업체, 취업관련 사이트에서 취업정보를 받았다면, 어떤 정보들을 받아 보셨나요?
-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실제 도움이 되었나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직업훈련

-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 등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경험인가요?

- \*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어떤 훈련이었고 도움이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서 직업훈련이란 자격증만이 아니라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미용기술 직업훈련 등을 말합니다.
-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나요?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어떤 훈련인가요? 이 훈련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중 무엇이 취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Part VI. ... 사회적인식

### 1. 취업시기

- 시간이 걸려도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찾겠습니까?
- 빨리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시간이 오래 걸려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고 있나요?/ 혹은 하셨나요?

### 2. 취업의 중요요인

- 수월히 취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높은 학력(어디까지 학교를 다녔는가)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높은 학력이라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개인의 능력 보다는 학력이나 학벌이 취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3. 사회진출기대

- 졸업 후 일자리와 사회진출에 관해 긍정적으로 전망(기대)하시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회 첫 진출, 첫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의지, 노력,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4. 일자리 눈높이

- 취업을 위해 중소기업 중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얼마나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기업 등 규모가 큰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하시겠습니까? 혹은 준비하셨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5. 공시족

-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자격증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나요?

\* 어떤 시험을 준비하셨나요?

-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공무원이나 국가자격증 취득이 행복한 사회생활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Part VII. ... 정책적 지원

#### 1. 정부의 취업정책

- 정부의 청년취업 지원정책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관심이 있으신가요?

- 알고 있는 정부의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무엇인가요?

- \*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나요?
- 정부의 청년취업 지원정책이 청년들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취업준비기간동안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 취업준비기간동안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2. 정책적 요구

- 청년 취업을 위해 어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등 경제계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마지막으로, 본 내용과 관련하여 나오지 않은 내용 중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 A Study of Youth Socio-Economic Reality and Policy Direction II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various socio-economic aspects of the youth centered on core indicators such as employment and economic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life, education, values, health, housing, marriage, childcare, childbirth and cultural life, and to propose necessary policies based on these phenomenal evidences. This year, as a supplement, the study additionally included the work and living conditions of new and prospective graduates as well as policy recommendations.

The study investigated the socio-economic reality of young people over seven categories: population and family (population, family,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economy and employment (occupation, income and consumption); housing (housing status, housing conditions); heal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medical); culture and values (culture and leisure, values); and relationships and participation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order to capture the reality, the study then set core indicators for each category and conducted direct surveys as well as

secondary research and analysis based on existing statistical data. Furthermore, an additional research on new and prospective graduates was conducted through a qualitative approach of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to identify their current work and living conditions.

The study, in its third year,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open-source data from the previous year that had been approved by the Statistics Korea with a view to analyzing youth socio-economic survey data from different angles. Results from the previous year's (the second year) youth socio-economic survey were analyzed under three themes—happiness determinants of the youth, the study on the gap in quality of life among young people, and exploratory research to promote governance—to enhance usability of the previous year data and seek both academic value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socio-economic reality of the youth, the policy recommendations proposed in the study were categorized into five areas under the vision of improving the work and life quality of young people: population, family and education; economy, employment and housing; health, culture and relationships; new graduates; and laws and systems.

First, in the area of population, family and education, the study proposed rearrangement of policy priorities to raise the birth rate, strengthening of childcare policies by increasing childcare leave and benefits, enhancement of career support programs in tertiary education, and reinforcement of career and employment curriculum for regular high schools.

Second, in the area of economy, employment and housing, the study propose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agencies supporting the debt service of vulnerable youth, introduction of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ension scheme to promote youth employment, prioritization of employment crisis solutions from both labor supply and demand sides, broadening of eligibility for youth rent deposit assistance, and creation of a saf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young people.

Third, in the area of health, culture and relationships, the study proposed addition of check-up items for youth mental health under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subsidization for cultural activities of young people, and provision of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youth,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in a community to resolve generation conflicts.

Fourth, in the area of new graduates, the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of follow-up care by schools to support the career and employment of their new graduates, surveying of the actual condition of new graduates in the blind spot of job information to provide support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provision of more opportunities for hands-on experience to new graduates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courses and internships customized to their individual qualities, creation of comprehensive measures for each stage of new graduates from seeking career path to searching jobs, getting a job and settling in at work, and operation of joint curriculum among schools, businesses and local authorities to provide practical training.

Lastly, in the area of laws and systems, the study proposed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on Youth, which encompasses work and life of young people, and establishment of an analysis and evaluation center to provide professional assistance on youth policies.

Keywords: Youth, Youth Unemployment, Core Indicators,  
Socio-Economic Reality Study, Youth Policies,  
The Basic Act on Youth

##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 · 이창호 · 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 · 백혜정 · 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 · 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 · 강경균 · 강소영 · 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황여정 · 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 · 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임희진 · 문호영 · 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 · 이유진 · 정소연 · 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 정은주 · 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 · 청소년 · 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 · 성운숙 · 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18-R12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 · 황세영 · 유민상 · 이민희 · 김진호
- 18-R1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황세영 · 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이종원 · 정은진 · 김성은 · 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황진구 · 연보라 · 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 수 시 과 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 수탁과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욱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걱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 · 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 · 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 · 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 · 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 · 오해섭 · 윤철경 · 임하린 · 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 · 서보람 · 윤철경 · 양수빈 · 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 · 박상진 · 하태욱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 · 청소년 · 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 · 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요?  
(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 (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 
-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IS 2016)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93-6 94330

979-11-5654-192-9 (세트)



연구보고 18-R06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